

택리지

이증환 저 | 이민수 역 조선 후기, 뛰어난 문재(文才)를 지녔음에도 당쟁에 휘말려 재야로 물러나야 했던 청화산인(靑華山人) 이증환(李重煥). 마음껏 펼치지 못한 포부를 우리 산천을 유랑하며 달랬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년에 일필휘지로 남긴 저술이 조선 인문지리서의 효시(嚆矢)가 되었다. 18세기 실사구시 학풍을 기반으로 역사·경제·사회·교통·인물 등을 두루 다루어 그 독창성이 돋보이는 한국 풍수지리학의 영원한 고전.



택리지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제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게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고전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도소,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택리지》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삼성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고 코리아헤럴드와 헤럴드경제를 발행하는 (주)헤럴드는 출판인쇄와 교열을 도와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캘리그래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친의 글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신복 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신 벗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흙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농협 301-0100-8607-71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 www.olje.or.kr © oljeclassics@olje.or.kr

📧 @oljeclassics 📘 www.facebook.com/olje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 한 벗들



해설 (해제를 겸해서)

이민수

《택리지》는 〈사민총론(四民總論)〉에서 사대부의 신분이 농·공·상과 다른 원인을 서술했고, 〈팔도총론(八道總論)〉에서 당시의 행정 구역인 8도의 산천과 그 지역과 관련된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설명했다. 〈복거총론(卜居總論)〉에서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을 말했는데, 인물과 관련된 부분도 많지만 그보다는 경제 관계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끝으로 〈총론(總論)〉에서는 우리나라 씨족의 유래와 책의 전체 마무리를 하고 있다.

《택리지》의 저자 이중환(李重煥)의 자(字)는 휘조(輝祖), 호는 청담(淸潭) 또는 청화산인(靑華山人), 본관은 여주(驪州)다. 참판(參判) 진휴(震休)의 아들이요, 찬성(贊成) 상의(尙毅)의 5대손이며, 대실학자인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재종손이 된다.

그는 24세(1713)에 증광병과(增廣丙科)에 급제하여, 벼슬이 주서(注書)를 거쳐 지평(持平)에 이르러 장래가 크게 기대되었다. 그러나 그가 37세의 한창 나이에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1721년부터 1722년 사이에 일어난 역사상의 대사건인 신축(辛丑)·임인(壬寅)의 사화(士禍)라는 당파싸움이 바로 그것이다.

이 당파싸움은 소론(少論)이 노론(老論)을 무고한 사건인데, 이중환은 그의 장인 목호룡(睦虎龍)의 관계로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그래서 영조 2년(1726) 12월에 먼 섬으로 귀양 가게 되었다.

《택리지》는 그가 적지(謫地)에서 풀려나 저술한 것만은 틀림없으나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고, 다만 그가 쓴 발문(跋文)에

“내가 황산 강 위에 있을 때, 어느 여름날에 아무 할 일이 없어 팔괘정(八卦亭)에 올라 더위를 식히면서 우연히 논술한 바 있다.”

하고, 그 끝에

“백양초하 상완(白羊初夏上浣)에 청화산인(靑華山人) 쓰다.”

라 했다. 백양은 곧 신미년(1751)이니 그의 나이 62세가 되며, 그 다음 해에 63세를 끝으로 한 많은 일생을 마쳤다.

정치계에서 실각하여 8도 강산을 돌아다니며, 마음과 몸을 산수에 붙여 그 불평을 보이지 않는 속에 나타낸 것이 바로 이 《택리지》라 하겠다. 이 글을 읽을 때 어딘지 모르게 사대부가 이 세상에 처하는 길을 암시했고, 당파싸움을 초월한 것 같아 그의 인품이 엿보인다.

이 책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게 된 것은, 그가 관계(官界)에서 떠난 후 30여년간 불우한 생활 속에서 자기가 친히 경험한 바와 실천한 바에 의하여 ‘살 만한 곳(可居地(가거지))’을 찾은 글이 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물론 후세 사람에게도 많은 공감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저자가 이 글을 집필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잠시 알아보기로 한다. 당시에는 조선시대 중에서 훌륭한 임금이라 일컬어지는 영조 때여서 정치적으로 비교적 평온한 시대이고, 문화적으로는 각종 문물이 발달의 기운을 보이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당시까지 정치·교육의 지도 이념이 되었던 유교는 점점 주자학으로만 기울어져, 그 배타적인 경향으로 차츰 독단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허무와 완고(頑固)를 일삼게 되었다. 따라서 이 나라의 봉건사회는 점점 무기력하게 되어, 학문을 연구하는 훌륭한 선비들과 뜻 있는 인사들은 점점 권태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풍조에 대한 시대적 반성의 요청으로 재래의 주자학에 대하여 반동적인 사상이 일어나게 되고, 청조(淸朝)에서 고증학(考證學)이 수입되면서 과거의 사회 모순을 비판하는 실학사상(實學思想)이 일부 몰락한 양반 계층에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여,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방법으로 하고 경세치용(經世致用)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경향이 점차 활발해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유형원(柳馨遠)·이익(李瀾)과 같은 대실학자가 나오게 되었고, 이 책의 저자 역시 이익의 학풍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도 실학적 이상과 실학적 견지에서 저술되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이 책을 읽어 가다가 여러 곳에서 재래의 학자로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훌륭한 의견과 자기 스스로가 실지로 답사한 살 만한 곳(可居地)에 대한 예리한 비판을 발견하는데, 이런 일들은 모두 시대적 사조인 실학의 영향이라 할 것이다.

이 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복거총론(卜居總論)〉으로, 사람이 살 만한 곳을 조건을 들어서 설명했다. 또한 인물과 관련된 부분도 많지만, 그보다도 경제 관계에 대해서 더욱 깊이 말하고 있다.

저자는 살 만한 곳을 택하는 데에 있어 지리(地理)를 첫째로 들었다. 여기에서 지리라는 것은 현대의 용어인 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분히 풍수학적인 지리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다음으로 생리(生利)를 들었는데, 저자는 이 책 전편을 통해 이 점에 가장 힘을 기울이고 있다. “재물이란 하늘에서 내리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진 땅이 첫째이고, 배와 수레를 이용하여 물자를 교류할 수 있는 곳이 그 다음”이라 했다.

셋째로는 인심(人心)을 들었다. “그 지방 풍속이 좋지 못하면 자손에게도 해독이 미친다” 하여 풍속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8도 인심을 비교하여 기록했다. 또한 “그러나 이것은 서민의 인심과 풍속을 논한 것이고 사대부의 풍속은 또 그렇지 않다” 하여 사색당쟁의 원인과 경과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여 인심이 정상이 아닌 것을 통탄한 다음, “오히려 사대부가 없는 곳을 가려 살면서 일체의 교제를 끊고 제 몸이나 착하게 하면 즐거움이 그중에 있다”고 했다.

저자 자신은 남인에 속한 사람이고 또 노론에게 쫓겨나 귀양까지 간 사람이다. 그

러나 그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대로 논평했을 뿐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논평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저자의 인격적 소양이 깊은 소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끝으로 저자는 산수(山水)를 들어, 집 근처에 사랑할 만한 산수가 없으면 정서를 함양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 “산수가 좋은 곳은 생리(生利)가 박한 곳이 많기 때문에, 땅이 기름진 곳을 골라 살면서 십 리나 또는 더 가까운 곳에 산수 좋은 곳을 보아 두었다가, 마음 내키는 대로 찾아서 시름을 풀고 돌아오는 것이 좋다” 하여, 역시 생리를 아주 무시하지는 않았다.

이 책은 《택리지》외에 《팔역지(八域志)》, 《팔역가거지(八域可居地)》, 《동국산수록(東國山水錄)》, 《동국총화록(東國總貨錄)》, 《동악소관(東岳小管)》, 《형가요람(形家要覽)》 등 명칭이 십여 종이나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베껴다가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번역은 광문회본(光文會本)을 원본으로 삼았다. 역자가 이 《택리지》의 새로운 번역을 시도하려고 마음먹은 지 오래였으며, 번역은 되도록 평이하게 하려고 애썼고 또한 주석도 많이 달려고 애썼지만, 역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니 독자 여러분의 질정이 있으시기 바란다.

해제

최창조

풍수지리학자
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이중환(李重煥)은 숙종 16년(1690)에 태어나 주로 영조(英祖) 연간(年間)에 활약한 실학자(實學者)로 알려진 인물이다. 자는 휘조(輝祖), 호는 청담(淸潭) 또는 청화산인(靑華山人)으로, 본관(本貫)은 여주(驪洲)이다. 숙종 39년(1713)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정5품인 병조좌랑(兵曹佐郎)에 이르렀으나 그 뒤 두 차례의 귀양살이를 했다.

일찍이 그는 아버지의 임지(任地)를 따라다니며 각지(各地)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고 유배(流配) 생활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남인(南人) 집안으로 영조(英祖)의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벌어진 신임사화(辛壬士禍)에 연루되어 귀양을 가게 된 것이다. 이 옥사(獄事)에는 목호룡(睦虎龍)이 관여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중환의 처가인 사천 목씨 집안의 서족(庶族)이었다. 문제는 목호룡이 지관(地官)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택리지》의 여러 부분에 반영되는 풍수의 영향력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이중환은 목호룡과 함께 뗏자리를 보러 같이 다니기도 했고, 이중환이 김천(金泉) 도찰방(都察訪)으로 있을 때 역마(驛馬)를 빌려타고나서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흔히 이중환을 과학적 인문지리학의 효시(曉示)라 하지만 풍수의 영향을 받았고 실제 저술에도 풍수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간과(看過)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지리학과 풍수는 별개가 아니라 땅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었을 뿐, 풍수가 미신만은 아니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물론 이미 그 이전부터 뗏자리 잡기 풍수에 대한 비판은 비등(沸騰)한 바 있었지만 그것은 음택(陰宅)의 발복론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관한 것일 뿐 풍수 자체를 비난한 것은 아니었다. 땅을 봄에는 객관적인 지표 현상을 기술하는 지리학과 함께 지기(地氣)를 살펴 그 영향력을 판단하는 풍수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성호(星湖) 이익(李瀾)이었다. 이익은

이중환의 8촌 재종조(再從祖)로 그가 지은 성호사설(星湖僿說)로 유명하다. 성호사설은 당시의 모든 지식과 잡설(雜說)까지 망라한 말 그대로 백과사전(百科事典)이다. 이런 책을 쓰려면 막대한 참고자료가 필요했을 것이고, 이중환은 이익의 그런 서적에 접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익은 《택리지》의 서문까지 써주었다.

조선조에서는 여러 차례 관찬(官撰) 지리서를 펴낸 바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와 신증(新增)을 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다. 이 책들은 훗날 간행된 여러 관찬 및 사찬(私撰) 지방지의 모범 역할을 한다. 그 형식 또한 그대로 물려받아 내용이千篇一律的(千篇一律的)이고 무엇보다 재미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내용은 그 순서까지 답습(踏襲)하여 건치연혁(建置沿革), 진관(鎭管), 읍명(邑名), 성씨(姓氏), 풍속(風俗), 형승(形勝), 산천(山川), 교량(橋梁), 토산(土產), 전결(田結), 성곽(城郭), 궁실(宮室), 누정(樓亭), 창고(倉庫), 학교(學校), 향약(鄉約), 사묘(祠廟), 불우(佛宇), 장관(將官), 군병(軍兵), 공장(工匠), 노비(奴婢), 과원(果園), 목양(牧養), 의약(醫藥), 공헌(貢獻), 인물(人物), 효자(孝子), 열녀(烈女) 등을 무미건조(無味乾燥)하게 나열하는 식이었다. 그러니 재미가 있을 수 없었다. 게다가 대부분 앞서 간행된 책을 베끼는 것이 태반이라 실익(實益)도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중환의 《택리지》는 단연 그런 형식과 내용을 탈피(脫皮)하였다. 무엇보다 재미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컨대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어디인가? 공주 갑천 일대이다”라는 식이니 흥미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택리지》는 크게 사민총론(四民總論), 팔도총론(八道總論), 복거총론(卜居總論), 총론(叢論) 등 4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의 글은 그의 생애처럼 이중적인 내용을 지

니고 있다. “세상에 나서려 하지 않고 여러 편의 글을 지어서 넓고 위대한 말을 하여 만물을 정연하게 본” 장자(莊子)의 풍모와, “도(道)를 행할 수 없음을 고뇌하여 노(魯)나라 《사기(史記)》를 빌어 왕도(王道)를 행하려” 했던 공자(孔子)의 사상, 즉 현실 도피적 사고와 현실 참여적인 사고가 같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 시대 많은 지식인들과 맥을 같이 하는 대목이다.

사민이란 사농공상(士農工商)을 말하는데, “누구는 사대부(士大夫)라는 이름으로 농공상(農工商)을 업수이 여기고 농공상의 이름으로 사대부를 갈망한다면 이는 모두 그 근본을 모르는 까닭이다”라고 하여 혁신적인 평등론을 펴나.

팔도총론에서는 말 그대로 각 지방을 소개한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그는 공주의 금강 언저리를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 하면서, “사송정은 우리 집”이라 표현한 것을 보면 그는 결국 자기 고향을 가장 살기좋은 곳으로 본 셈이다. 이는 필자가 주장하는 자생풍수(自生風水)의 주관성(主觀性)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그는 고향에서 오래 살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가장 살기 좋은 곳의 조건을 열거한 것이 북거총론이다. 이 대목에서 이중환의 지리사상은 그 본색을 드러낸다.

먼저 지리(地理)를 들었는데, 이는 풍수의 명당론을 닮았다. 즉 토지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일종의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有機體)로서 인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력(地力)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지력이란 땅 속을 흘러다니는 생기(生氣)를 말하며 생기가 충만한 곳이 진혈(眞穴)로 마땅히 살 만한 곳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이 먹고 살 수 있는 조건, 즉 생리(生利)를 들었다. 비옥(肥沃)한 토지, 편리한 교통, 특히 해운(海運)의 중요성을 꼽았다. 합리적이고 당연한 주장이다. 그리고 인심(人心)을 꼽았는데, 이는 《논어(論語)》의 “이웃이 어질면 아름다운 곳(里仁爲美)”에서 유래한 것이니, 그가 유자(儒者) 출신임을 드러낸 대목이기도 하다.

끝으로 총론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와 성씨의 유래를 개괄적으로 설명한 후 당쟁(黨爭)으로 인한 당시 사회의 폐단(弊端)과 갈등을 비판하면서, 사대부 등 사회 구성원 사이의 조화와 화목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학계의 《택리지》에 관한 평가는 “조선시대 최고의 인문지리서”라는 말로 요약된다. 일찍이 육당 최남선(崔南善)은 《택리지》를 일컬어 “우리나라 지리서 중에서 가장 정요(精要)하고 인문지리학(人文地理學)의 첫 발명(發明)”이라 평가한 바 있다. 왜정 때 《조선팔도비밀지지》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이래 풍수지리서라는 오해도 없지 않았다. 《대동여지도》라는 출중한 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으로 추앙받는 지리서는 이 책 밖에 없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이전에 출간된 관찬지리서(관에서 만든 천편일률적인 체계의 지리서)와는 달리 독특한 시각과 체계, 그리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한국 지리학계에 이처럼 독특하고 탁월한 책은 불행히도 없었다고 여겨진다.

여기에는 우리 땅에 관한 정보는 물론, 어디서 사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다. 나는 이번 해제를 쓸 기회를 얻은 김에 오히려 이 책의 문제점을 몇 가지 제시할 생각이다. 아무리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도 《택리지》의 평가가 달라질 수는 없다는 확신이 있기에 마음 놓고 쓴다. 《택리지》가 조선 최고의 인문지리서라는 사실에는 전적으로 동감임을 먼저 밝혀두고 얘기를 풀어보자.

청담 이중환이 곳곳에서 드러내는 편견은 꽤나 심한 편이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함경·평안 두 도는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강원도 동해안은 경치가 좋아 자제를 이 놀이가 습관이 되어 학문에 힘쓰는 자가 적다. 전라도는 주민이 노래와 여자를 좋아하고 사치를 즐기며 행실이 가볍고 간사하여 학문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청풍은 주민이 많아 늘 말이 많고 사람들이 경박해서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이런 식이다. 요즘 이런 표현을 했다면 이민이나 가야할 처지에 빠지고 말 것이다. 땅이란 그저 무대일 뿐 그 결실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점이 완전히 무시된 주장이다.

청담이 사대부들에 대하여 원한을 가지고 있음은 이 책의 뒤에 실려 있는 서문과 발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것이 여과 없이 드러난 대목도 마음에 거슬린다. 게다가 호남에 대한 통념에 휩쓸려 있으면서 영남에 대해서는 “경상도는 지리가 가장 아름답다”는 식으로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 또한 공연한 편협과 다를 바 없는 편견이다.

내가 이 책에서 느낀 가장 아쉬운 점은 청담이 살 만한 곳으로 지목한 곳과 그 이유에 있다. “원주는 두메산골과 가까워 난리가 나면 피하기 쉽고 또 서울과 가까워 태평한 시절에는 벼슬길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사대부들이 여기 살기를 좋아 한다.” “충청도 내포는 큰길목이 아니기 때문에 임진년과 병자년 두 차례 난리를 치렀어도 적군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비옥한 평야인데다 생선과 소금이 흔하기 때문에 부자가 많고 대를 이어 살아오는 사대부 집안이 많다.” 이것은 일반적인 지식인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나라에 환란이 들면 나아가 싸우고, 평온한 세월이 오면 낙향하여 자연을 즐기겠다는 원칙에 너무나 어그러지는 사고방식 아닌가. 곳곳에 드러나는 이러한 택리(擇里)에 관한 그의 생각이 일신의 평안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다. 경기도 광주에 관한 그의 소견은 이런 인식의 극치가 아닐는지. “성 밖의 산 밑에는 살기가 감돌고 있다. 만일 사변이 생기는 날이면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할 지역이다. 그래서 광주 온 고을은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누차 강조했지만 《택리지》의 우수성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위에서 지적한 그의 편향된 사고는 그의 생애와 시대가 만들어낸 것이라 이해는 한다. 그러나 사대부

라면 모름지기 시대를 앞서가는 혜안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말하자면 나의 희망을 피력한 것일 뿐이다. “거처한다는 것은 내 몸을 편안케 하는 것이며 이는 곧 외적인 것이지만 마음에 즐거운 것은 여기에 있지 않으니 곧 내적인 것이다. 내외적인 것의 분별을 능히 살피 마치 빈 배와 같은 몸으로 경우에 따라 편안하게 여긴다면 모두가 구석자리를 다투어 앉을 것이니, 또 어찌 살 곳을 반드시 가릴 것인가.” 이미 그는 일찍이 택리의 불필요성을 감안했던 셈이다. (2013.3)

차례

해설 (해제를 곁해서)	5
해제	9
사민총론(四民總論)	17
팔도총론(八道總論)	21
평안도(平安道)	24
함경도(咸鏡道)	31
황해도(黃海道)	39
강원도(江原道)	46
경상도(慶尙道)	53
전라도(全羅道)	65
충청도(忠淸道)	77
경기도(京畿道)	96
북거총론(卜居總論)	118
지리(地理)	119
생리(生利)	122
인심(人心)	129
산수(山水)	149
총론(總論)	196
서문 · 발문	201
택리지 후발(擇里志 後跋)	202
택리지발(擇里志跋)	204
팔역가거처발(八域可居處跋)	206
택리지발(擇里誌跋)	207
발택리지(跋擇里志)	209
택리지서(擇里誌序)	212
택리지서(擇里誌序)	215



사민총론(四民總論)

사민총론(四民總論)

옛날에는 사대부(士大夫)²가 따로 없었고 모두 백성이라고 했다. 이 백성은 네 가지 계층으로 나뉜다. 사(士) 중에서 어질고 덕이 있으면 임금이 벼슬을 내렸으며,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은 농사꾼이 되기도 하고, 장인(匠人)이 되기도 하고, 또는 장사꾼이 되기도 했다.

옛날에 순(舜)임금³은 역산(歷山)⁴에서 밭을 갈고, 하빈(河濱)⁵에서 질그릇을 굽고, 뇌택(雷澤)⁶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밭을 가는 것은 농(農)이요, 질그릇을 굽는 것은 공(工)이요, 물고기를 잡는 것은 상(商)이다. 그런 까닭에 임금 밑에서 벼슬하지 않으면 마땅히 농 · 공 · 상이 되는 것이다.

순임금은 백성의 영원한 표본이다. 나라가 잘 다스려지면 너나 나나 모두 백성이 되어 우물을 파고 밭을 갈면서 유유히 행복하게 살 것인데, 어찌 계급이나 명칭의 차이가 있겠는가.

세상이 생긴 지 오래고 보니 예의가 복잡해지고 명칭도 바뀌었다. 그리고 명칭이 바뀔수록 등급도 많아졌고, 이에 따라 성인의 의장(儀章)⁷과 도수(度數)⁸도 매우 많아졌다. 삼대(三代)⁹시절에는 제후¹⁰가 많아서, 그에 딸린 세경(世卿)과 세대부(世

1 사민 : 사(士) · 농(農) · 공(工) · 상(商)의 네 가지 백성.

2 사대부 : 선비와 높은 벼슬아치.

3 순 : 중국 상고시대 유우국(有虞國)의 임금으로, 순은 시호이다. 농사를 짓고 있다가 요임금의 눈에 띄었는데, 그가 어진 것을 요임금이 알아보고 사위를 삼아 섭정(攝政)을 시켰더니 천하가 잘 다스려졌다. 섭정을 맡긴 지 30년 만에 임금 자리를 물려받고 나라 이름을 유우(有虞)라 고쳤다.

4 역산 : 순임금이 농사지었다고 하는 산. 중국 산둥성(山東省) 만남시(滿南市) 교외에 있는데, 순경산(舜耕山) 또는 천불산(千佛山)이라고도 한다.

5 하빈 : 중국 황하(黃河) 근처.

6 뇌택 : 중국 산둥성 복현(濮縣) 동남쪽에 있는 못.

7 의장 : 의례적인 글.

8 도수 : 관작과 등급의 대소를 말한다.

9 삼대 : 고대 중국의 하(夏) · 은(殷) · 주(周) 세 나라.

10 제후 : 봉건 시대에 위로는 천자를 섬기고 아래로는 일정한 영토 안의 백성을 세습적으로 다스리던 사람.

大夫)¹¹도 예로써 부귀를 누렸다.

벼슬을 하지 못한 선비는 비록 귀(貴)는 얻지 못했어도 옛 성인의 법을 지켰다. 집안을 다스리고 몸을 닦는 데에 온 정성을 다하고 예의에 어긋남이 없으면 경대부(卿大夫)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그가 외우는 것은 《시경(詩經)》이나 《서경(書經)》이었고, 행하는 바는 인의(仁義)와 예악(禮樂)이었다. 이렇게 해서 사대부라는 명칭이 생기고, 명칭이 생기면서부터 그 지향(志向)하는 바가 달랐다. 그리하여 결국 농·공·상은 천한 신분이 되고, 사대부라는 칭호는 더욱 높아졌다.

진(秦)나라가 봉건 제후를 멸망시킨 뒤로부터 천자(天子)¹² 한 사람 외에는 벼슬하는 자건 벼슬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있는 자건 선비의 도리를 다하면 모두 사대부라고 부르게 되어 사대부가 더욱 많아졌다. 그러나 이것은 상고(上古)의 제도는 아니다.

순임금은 요(堯)¹³임금때의 사대부였지만, 농·공·상의 일을 다 하고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후세에 와서 어찌 꺼리는가. 사대부 신분이라고 해서 농·공·상을 업신여기거나 농·공·상이 사대부를 부러워한다면 이것은 모두 그 근본을 모르는 자들이다.

성인의 법은 사대부들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공·상도 능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비록 그러하나, 후세에 와서는 인품(人品)이 옛날만 못해져, 기품(氣稟)에도 어진 것과 어리석은 것이 있고 생업에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사대부는 농·공·상의 일을 할 수 있어도 농·공·상을 본업으로 하는 자는 사대부의 일을 하지 못한다. 이리하여 부득이 사대부를 중하게 여기게 되었는데, 이는 후세에 자연스럽게 생긴 변화이다.

그런 까닭에 사대부가 된 자는 한가롭게 한 세상의 권세를 누리기도 하고, 만승(萬

11 세경·세대부 : 대를 이어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

12 천자 :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하늘의 명을 받아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

13 요 : 중국 상고 때 임금. 정사를 잘 돌보아 백성들이 격양가(擊壤歌)를 불렀다고 한다. 순임금과 더불어 성군(聖君)의 대명사로 일컬어진다.

乘)¹⁴의 높은 사람에게 대항하기도 했으며, 혹은 농경(農耕)·목축·채포(菜圃)·도공과 솥장수·약장수 속에 섞여 있어도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 이리하여 귀함과 천함도 뜻대로이고 높고 낮은 것도 마음에 달렸으니, 여유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깔본들 그 누가 능히 금하리오. 그러므로 천하의 지극히 아름답고 좋은 것은 사대부라는 이름인 것이다.

하지만 사대부라는 이름을 잃지 않는 것은 옛 성인의 법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비이거나 농·공·상이거나 사대부의 행실을 닦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예의와 도리에 맞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의와 도리는 부(富)하지 않으면 행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가정을 이루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사례(四禮)¹⁵를 통해 부모를 섬기고 처자를 거느려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대부는 살기 좋은 곳을 만든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와 그렇지 못한 시대가 있고, 땅에는 좋은 곳과 나쁜 곳이 있으며, 사람에게도 나가고 물러나기에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가 있는 것이다.

14 만승 : 병거(兵車) 만 대라는 뜻으로 천자를 가리키는 말. 고대 중국의 천자는 사방 천 리 되는 영토를 지녀서 병거 만 대를 갖추 수 있다는 데에서 유래했다.

15 사례 : 관혼상제(冠婚喪祭)의 네 가지 인륜대사.

팔도총론(八道總論)

팔도총론(八道總論)

곤륜산(崑崙山)¹ 한 줄기가 대사막의 남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의무려산(醫巫閭山)²이 되었고, 이로부터 크게 끊어져서 요동(遼東)³ 별판이 되었다가 별판을 지나 다시 솟아 백두산이 되었는데, 곧 《산해경(山海經)》⁴에서 말한 불함산(不咸山)이 이것이다.

산의 정기가 북쪽으로 천리를 달려가면서 두 강을 사이에 끼었다가, 남쪽으로 향하여 영고탑(寧古塔)⁵이 되었고, 등 뒤로 뻗은 한 줄기가 조선 산맥의 최고봉이 되었다.

우리나라 팔도(八道) 중 평안도는 심양(瀋陽)⁶과 가까이 있고, 함경도는 여진과 가까이 있으며, 그 다음 강원도는 함경도와 닿아 있다. 황해도는 평안도와 닿았고 경기도는 강원도와 황해도의 남쪽에 있다. 경기도의 남쪽은 충청도와 전라도고, 전라도의 동쪽은 경상도다.

경상도는 옛날 변한(卞韓)·진한(辰韓)의 땅이고, 경기·충청·전라도는 옛 마한(馬韓)과 백제의 땅이다. 함경·평안·황해도는 고조선과 고구려의 땅이었고, 강원도는 별도로 예맥(濊貊) 땅이었다. 이 나라들의 흥망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으나, 당(唐)나라 말엽에 왕건 태조가 삼한을 통합하여 고려를 세운 후 이것을 우리나라가 계승한 것이다.

동쪽과 남쪽과 서쪽은 모두 바다인데, 오직 북쪽만이 여진과 요동으로 통한다. 산이 많고 들이 적으며, 백성들은 유순하고 공손하나 도량이 좁다.

길이는 3천 리에 뻗었으나, 동서로는 천 리가 되지 못하고, 남쪽으로 바다를 건너

1 곤륜산 : 중국 서쪽에 있는 큰 명산.

2 의무려산 : 중국 요녕성(遼寧省)에 있는 산. 음산산맥(陰山山脈)의 지맥이다.

3 요동 : 요하(遼河) 동쪽에 있기 때문에 요동이라 한다. 오늘날 중국 심양(瀋陽) 동남쪽.

4 산해경 : 18권으로 된 책으로서 우익(禹益)이 지었다고 하며, 산천초목과 조수의 기담이 적혀 있다.

5 영고탑 : 중국 길림성(吉林省) 영안현(寧安縣), 영고특(寧古特), 영고대(寧古臺)라고도 한다. 청조(淸朝)의 발상지. 영고는 육(六)이라는 뜻으로, 청의 시조 육형제가 여기에 살면서 지명을 지었다고 한다.

6 심양 : 중국 요녕성(遼寧省)의 도시, 성경(盛京)이라고도 한다.

면 중국 절강성(浙江省)의 오현(吳縣)과 회계현(會稽縣)⁷ 사이에 닿게 된다. 평안도 북쪽에 있는 의주(義州)는 국경의 첫 고을로, 대략 중국의 청주(靑州)와 위도가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있다.

옛날 요임금 때 신인(神人)이 개천현(价川縣) 묘향산(妙香山) 단목(檀木) 아래 석굴 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름은 단군(檀君)이며 구이(九夷)의 임금이 되었다. 그 연대와 자손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을 할 수가 없다.

그 후에 은(殷)나라의 기자(箕子)⁸가 조선왕이 되면서 평양에 도읍을 정했다. 그 손자 기준(箕準)에게까지 계승되었으나, 진(秦)나라 때에 연(燕)나라 사람 위만(衛滿)⁹에게 쫓겨 바다 건너 전라도 익산(益山)에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마한(馬韓)이라 했다. 기(箕)씨가 다스리던 지역은 역사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으나, 진한·변한과 함께 삼한의 하나가 되었다.

혁거세(赫居世)는 한(漢)나라 선제(宣帝) 때에 나라를 일으켜 경상도를 모두 차지했다. 그리고 진한·변한의 여러 지역을 정복하여 국호를 신라라 하고 경주에 도읍했다. 박(朴)씨 · 석(昔)씨 · 김(金)씨가 서로 바뀌면서 왕이 되었다.

위(衛)씨는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멸망했다. 그 후 한나라에서 백성만 데려가고 땅은 버렸는데, 주몽(朱蒙)이란 이가 말갈(靺鞨)¹⁰에서 일어나 평양에 거점을 두고 고구려라 했다.

주몽이 죽자 그 둘째 아들 온조(溫祚)가 한수(漢水) 이남을 점령하여 마한을 멸망시켰다. 국호를 백제라 하고 부여(扶餘)에 도읍했다.

고구려와 백제는 모두 당(唐)나라 고종(高宗) 때에 멸망했는데, 당나라에서 땅은

7 오현 · 회계현 : 중국 절강성(浙江省)에 딸린 현(縣).

8 기자 : 전설상으로 전하는 기자조선(箕子朝鮮)의 시조. 전설에 따르면 은나라 주왕(紂王)의 숙부이며, 미자(微子), 비간(比干)과 함께 은나라의 세 어진 사람으로 알려졌다.

9 위만 : 중국 진(秦)나라 때 수천 명을 거느리고 와서 기준(箕準)을 공격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의 출신에 대해 중국 문헌은 모두 연(燕)나라 사람이라 기록했지만, 그가 망명할 때 '상투를 틀고 오랑캐의 복장'을 한 점을 들어 연나라 지역에 살던 고조선 계통의 인물로 보기도 한다.

10 말갈 : 종족 이름. 《수서(隨書)》〈동이전(東夷傳)〉에 의하면 말갈은 고려 북쪽에 있는 일곱 종족으로, 제각기 추장이 있으며 서로 통일되지 않았다. 그 가운데 속말말갈(粟末靺鞨)과 흑수말갈(黑水靺鞨)이 가장 강성하여, 속말말갈은 당나라 때에 발해국(渤海國)을 세웠고 흑수말갈은 뒤에 여진이 되어 송(宋)나라 때 금(金)나라를 세웠다고 했다.

버리고 군사를 철수시키자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의 땅이 모두 신라 땅이 되어 버렸다.

신라 말에 궁예(弓裔)와 견훤(甄萱)이 이 땅을 갈라 차지했으나 후에 고려가 통일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건국의 대략적인 역사다. 신라 이전까지는 세 나라끼리 전쟁이 그치지 않았지만, 남은 기록이 적기 때문에 고려부터 비로소 자세한 역사를 말할 수 있다.

고려 때에는 사대부라는 명칭이 아직 뚜렷하게 정립되지 않아서, 서리(胥吏)¹¹ 출신이 경상(卿相)¹²에 오른 자도 많았다. 한번 경상이 되면 그의 아들과 손자도 사대부가 되어 모두 왕도(王都)에 집을 가지게 된다. 이리하여 왕도는 사대부가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지방 사람들은 조정에 벼슬한 자가 드물었지만, 쌍기(雙冀)¹³가 과거제도를 도입하여 선비를 뽑게 되자 지방 사람들도 차츰 조정의 높은 벼슬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북 지방에는 무신(武臣)이 많았고 동남 지방에는 문사(文士)가 많았다.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문풍(文風)¹⁴이 크게 떨쳐 가끔 중국 과거에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원(元)나라와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큰 씨족으로 세상에 알려진 사람은 고려 때 경상(卿相)의 후손이 많다. 그런 까닭에 사대부의 분파 내력도 고려 때부터 비로소 기록할 수 있는 것이다.

11 서리 : 하급관리.

12 경상 : 판서(判書) 이상의 높은 벼슬.

13 쌍기 : 중국 후주(後周) 사람으로, 고려 광종(光宗) 때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과거제도를 도입했다(958년).

14 문풍 : 학문을 숭상하는 기풍.

평안도(平安道)

평안도는 압록강 남쪽과 패수(洧水)¹ 북쪽에 있는, 기자(箕子)가 다스리던 땅이다. 옛 경계는 압록강을 넘어 청석령(靑石嶺)²까지 이르렀으며, 《당사(唐史)》³에 기록된 안시성(安市城)⁴과 백암성(白巖城)⁵이 그 사이에 있었다. 그러던 것이 고려 초부터 거란(契丹)⁶에게 땅을 빼앗겨 압록강이 경계가 되었다.

평양은 감사(監司)가 다스리는 곳이다. 패수(浪水) 위에 있는데 실은 기자가 도읍했던 곳이다. 기자가 다스린 덕에 구이(九夷)⁷ 중에서 풍속이 먼저 개화되었다.

여기에 기(箕)씨가 천 년, 위(衛)씨 및 고(高)씨가 8백여 년을 도읍하였고, 이 나라의 중요한 요충이 된 지 또 천여 년이나 된다. 이 지방에는 아직도 기자 때의 정전(井田)⁸의 흔적과 기자의 묘가 있다. 나라에서는 선우(鮮于)씨가 기자의 자손이라 하여, 기자 묘 곁에 송인전(崇仁展)⁹을 세우고 선우씨로 하여금 대대로 전관(殿

- 1 패수 : 고조선 때의 강 이름. 지금의 압록강 · 청천강 · 대동강설이 있으나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다. 이 글로 미루어 보면 압록강을 가리킨다는 설은 더욱 사실이 아닌 듯하다.
- 2 청석령 : 만주에 있는 지명.
- 3 당사 : 당나라 사기(史記).
- 4 안시성 : 만주 요동 지방에 있던 옛 지명. 고구려 보장왕(寶藏王) 때에 성주 양만춘(楊萬春)이 당나라 군사의 침공을 막아 싸워 이긴 곳.
- 5 백암성 : 만주에 있던 옛 지명.
- 6 거란 : 동호(東胡) 종족으로 후에 요(遼)나라를 세웠으나 금(金)나라에 의해 멸망당했다.
- 7 구이 : 중국 입장에서 본 동방의 아홉 오랑캐 종족을 말한다. 《이아(爾雅)》〈소인동이전(疏引東夷傳)〉에 보면 “견이(獸夷), 간이(干夷), 방이(方夷), 황이(黃夷), 백이(白夷), 적이(赤夷), 현이(玄夷), 풍이(風夷), 양이(陽夷) 등 9종이 있다”고 했고, 《논어》〈자한편 주소(子罕篇註疏)〉에는 “동방에 구이가 있는데 현도(玄菟), 낙랑(樂浪), 고려(高麗), 만식(滿飾), 부이(虜夷), 색가(索家), 동도(東屠), 왜인(倭人), 천비(天鄙)이다”라고 했다.
- 8 정전 : 은(殷) · 주(周) 시대에 실시된 농지제도이다. 사방 1리에 해당하는 9백 모(畝)의 농지를 정(井)자 모양으로 9등분 하여, 가장자리 여덟 구획은 여덟 집이 한 구획씩 경작하여 그 수확을 경작자가 차지하게 하고, 중앙부분은 공전(公田)으로 삼아 여덟 집이 공동 경작하여 그 수확을 국가에 바치는 제도로서, 공전의 수확 외에는 다른 세부(稅賦)를 거두지 않았다. 이 정전의 법을 그렸던 자취가 지금의 평양 남쪽에 남아 있다고 하나 알 수 없다.
- 9 송인전 : 고려 충숙왕(忠肅王) 12년(1325년)에 기자를 모시기 위하여 오늘날의 평양에 세운 전각으로 원래 기자사라 불렸으나, 광해군(光海君) 4년(1612년)에 건물을 개수하면서 이름을 송인전으로 바꾸

官)¹⁰을 삼아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이는 중국 곡부(曲阜)¹¹의 공(孔)씨가 공자(孔子)의 사당을 받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강산이 경치가 좋고 주몽(朱蒙) 때의 고적이 매우 많으나, 전하는 말에 잘못된 것이 많아서 믿을 수가 없다. 성(城)은 강가에 있고, 절벽 위에는 연광정(練光亭)¹²이 있다. 강 건너 먼 산은 넓은 들과 긴 숲을 에워싸고 있어서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경치가 많다.

고려 때 시인 김황원(金黃元)¹³이 연광정에 올라 종일토록 시를 생각하다가 겨우 한 귀(句)를 지어,

긴 성 한쪽에는 물결이 넘실거리고

큰 들 동쪽에는 여기저기 산일세

라 읊었지만, 여기에서 그만 생각이 막혀 다시 계속하지 못하고 통곡하며 내려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시구도 별로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다.

명(明)나라 때에 주지번(朱之蕃)¹⁴이 사신으로 여기에 왔다가 이 정자에 올라 훌륭하다고 소리치고는, 손수 “천하제일강산(天下第一江山)”이란 여섯 글자를 써서 현판을 만들어 걸었다. 그 후 정축년(丁丑年)¹⁵에 청나라 황제가 철군하다가 이 현판

었다. 현재 평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북한의 보물급 문화재 2호로 지정돼 있다.

10 전관 : 전각(殿閣)을 지키고 관리하는 관원.

11 곡부 :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지명. 공자의 사당이 있고 공자의 자손들이 많이 산다.

12 연광정 : 평양 대동강가 덕암(德巖)이란 바위 위에 있는 정자. 조선 중종(中宗) 때 평안감사 허굉(許碣)이 세움. 임진왜란 때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심유경(沈惟敬)이 강화 담판한 곳이다. 경치가 아름다워 관서팔경(關西八景)의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관서팔경은 연광정을 비롯하여 자강도 강계의 인풍루(仁風樓), 만포의 세검정(洗劍亭), 평안북도 영변의 약산동대(藥山東臺), 의주의 통군정(統軍亭), 선천의 동림폭포(東林瀑布), 평안남도 안주의 백상루(百祥樓), 성천의 강선루(降仙樓)를 일컫는다.

13 김황원(1045~1117) : 고려 예종(睿宗) 때의 시인. 자는 천민(天民), 본관은 광양(光陽).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고 고시(古詩)로 이름을 날려 해동(海東) 제1인자라 일컬었다. 벼슬은 한림학사(翰林學士)에 이르렀고,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14 주지번 : 중국 명나라 사람으로 서화에 능했다. 자는 원승(元升), 호는 결우(閼嶼).

15 정축년 : 병자년 다음 해. 즉, 병자호란이 끝난 1637년.

을 보고 “중국에 금릉(金陵)¹⁶과 절강(浙江)¹⁷이 있는데, 여기가 어찌 제일이란 말이냐” 하고는 사람을 시켜 부수에 베어 버리려다. 그 글씨가 아까워 “천하(天下)” 두 글자만 톱질해 버리도록 했다.

정자를 돌면 북쪽에는 청류벽(清流壁)이 있고 청류벽 끝에 부벽루(浮碧樓)¹⁸가 있는데, 이것이 곧 성 모퉁이 영명사(永明寺)¹⁹ 앞이다. 명종(明宗) 때 하곡(荷谷) 허봉(許篈)²⁰이 유생(儒生)²¹으로 있을 때 벗들과 함께 여기서 놀았다. 또 감사(監司)의 사위와 약속하고 부벽루 위에서 기생을 데리고 풍악을 울리며 크게 술판을 벌였다. 사위가 기생을 끼고 노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감사의 부인이 감사에게 고해바치자, 감사는 포졸을 보내 기생들을 모두 잡아 가두었다.

이에 하곡은 낭패를 당하고 돌아와 〈춘유부벽루가(春遊浮碧樓歌)〉 한 편을 지어 조롱했다. 이 글이 일시에 널리 퍼지자 감사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게 되었다.

땅은 비록 오곡과 목화 농사에 적당하나, 제방과 개울이 적어서 밭농사에만 힘을 쓴다. 그러나 하류에 있는 벽지도(碧只島)²²는 강 가운데에 있어 강물이 줄면 진흙이 나타나는데, 그곳 사람들이 논을 일구어 1묘(畝)²³의 땅에서 1종(種)²⁴이나 수확한다.

강은 백두산 서남쪽에서 시작해서 삼백 리를 내려오다가 영원군(寧遠郡)에서 강이

16 금릉 : 중국의 옛 지명.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남경(南京). 전국시대에는 초(楚), 월(越)에 예속되었고, 진(晉), 송(宋), 제(齊), 양(梁), 진(陳)의 옛 수도였다.

17 절강 : 강 이름. 곡강(曲江)이라고도 한다. 항주만(杭州灣)으로 흐른다.

18 부벽루 : 평양 모란대(牧丹臺) 밑 절벽 위에 있는 누각. 대동강가에 있는데 경치가 대단히 좋다.

19 영명사 : 평양시 금수산(錦繡山)에 있다. 고구려의 광개토왕(廣開土王)이 지은 아홉 절의 하나라 하나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고려 초 곽여(郭輿)(1058~1130)가 영명사를 시로 읊고, 《고려사》에 속종이 이 절과 흥복사(興福寺)에 다녀갔다는 기록이 있어 이 절의 역사는 적어도 고려 초 또는 통일신라 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20 허봉(1551~1588) : 문인. 호는 하곡(荷谷). 자는 미숙(美叔). 본관은 양천(陽川). 친시문과(親試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이 전한에 이르고 문명(文名)이 높았다. 허균(許筠)의 형이자 허난설헌(許蘭雪軒)의 오빠이다.

21 유생 : 과거에 오르지 못한 선비의 총칭.

22 벽지도 : 평양 서남쪽 이십오 리 거리에 있다.

23 묘 : 넓이의 단위. 오늘날 1백 평. 사방 6척(1.8m)이 1보(步)이며, 1백 보를 1묘라 한다.

24 종 : 부피의 단위. 옛 섬 너 말에 해당. 옛 말 너 되를 1부(釜)라 하고, 10부를 1종이라 한다.

라 불릴 만큼 커지고, 강동현(江東縣)에 이르러 양덕(陽德)·맹산(孟山)에서 흐르는 물과 합류해서 부벽루 앞에서 대동강이 된다.

강 남쪽 언덕은 숲이 십 리나 길게 뻗어 있다. 관에서 나무도 베지 못하게 하고 짐승도 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기자 때부터 지금까지 나무가 무성하다. 매년 봄여름이면 그늘이 우거져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평양 동쪽은 성천부(成川府)다. 여기는 송양왕국(松讓王國)²⁵이었다가 주몽에게 합병된 곳이다. 고을의 관아는 강변에 있다.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에 종묘와 사직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이 성천부에 와서 난을 피했다. 광해군이 임금이 되자 부사(府使) 박엽(朴燁)²⁶을 시켜 객관 옆에 있는 강선루(降仙樓)를 크게 수리하게 했다. 누각의 크기가 삼백여 칸이나 되고 규모가 웅장하여 8도 누각 중 제일이다. 앞에는 흘골산(紇骨山)²⁷ 열두 봉이 있으나 돌 색깔이 곱지 못하다. 그리고 강은 얇고 물살은 빠르며 들이 좁아서 평양보다 훨씬 못하다.

광해군은 박엽의 재능을 인정하여 평양 감사에 발탁했다. 그때 만주(滿洲)에서 난을 꾸며 서쪽 지방에 사건이 많았으나, 광해군은 엽의 능력을 믿고 십 년 동안이나 벼슬을 갈지 않았다.

엽은 많은 재물을 들여 첩자를 잘 이용했다. 어느 날 지방을 순시하다가 구성(龜城)에 이르렀는데, 마침 청병(淸兵)이 성을 포위했다. 밤중에 오랑캐 하나가 성을 넘어 엽의 침소에 들어오더니 엽의 귀에 대고 무어라 말하고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엽은 사람을 시켜 술을 가져다가 청병을 먹이도록 하고 또 쇠고기로 꼬치를 만들어 청병에게 나누어 주게 했는데, 그 수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군졸들의 수와 꼭 맞았다. 오랑캐 장수는 크게 놀라 괴이하게 여기고는, 엽을 신(神)이라 하면서 즉시 강화(講和)하고 돌아갔다.

25 송양왕국 : 고구려 초기 압록강 중류 지방에 있던 부족 국가. 일명 비류국(沸流國)이라고도 한다. 서기전 36년에 송양왕(松讓王)이 고구려에 항복함으로써 병합됐다.

26 박엽(1570~1623) : 문신. 자는 숙야(叔夜), 호는 국창(菊窓). 본관은 반남(潘南). 1597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병조좌랑(兵曹佐郎)·평안병사(平安兵使)에 이르렀다.

27 흘골산 : 평안남도 양덕군 양덕읍 서쪽에 있는 산으로서, 옛 송양왕이 쌓았다는 성터가 있다.

계해년(癸亥年)²⁸에 엽의 비장(裨將)²⁹ 한 사람이 틈을 타 이렇게 말했다.

“조정은 장차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公)께서는 주상의 충신이니 반드시 화를 당할 것입니다. 청나라와 은밀히 결탁했다가, 조정에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이 땅을 베어서 청나라에 바치고 한쪽만 공이 차지한다면 죽히 보존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엽은

“나는 문관이다. 어찌 나라를 배반하는 신하가 된단 말이냐” 하고 듣지 않으니, 그 사람은 엽을 버리고 도망했다. 그런 지 얼마 안 되어 인조(仁祖)가 반정(反正)을 일으킨 후, 사람을 보내서 엽을 임소(任所)³⁰에서 베어 죽였다.

평양 서쪽 백여 리 되는 곳에 청천강(淸川江)을 끼고 안주(安州)가 있다. 강가에는 백상루(百祥樓)가 있고, 누 곁에는 칠불사(七佛寺)³¹가 있다. 고구려 때에 수(隋)나라 군사가 침공해 강가에 이르렀을 때, 중 일곱 명이 수나라 군사가 보는 앞에서 강을 건너는데 물이 무릎에도 차지 않았다. 이를 보고 수나라 군사가 그중을 따라 건너오다가 앞장선 한 무리의 군사가 모두 빠져 죽었다. 군사를 물리고 보니 증은 보이지 않았다. 그 뒤 그 지방 사람들은 부처의 은덕이라 해서 절을 짓고 제사 지냈다.

안주 동북쪽은 영변부(寧邊府)다. 산세에 따라서 성을 쌓았는데, 형세가 가파르고 험해 철옹성이라고 부른다. 평안도 일대에서 외침을 막을 만한 곳은 여기뿐이다. 부(府)의 북쪽은 검산령(劍山嶺)³²이다. 여기는 고구려의 환도성(丸都城)³³인데 성터가 아직도 남아 있다.

28 계해년 : 인조반정이 일어난 1623년.

29 비장 : 감사(監司) · 유수(留守) · 병사(兵使) · 수사(水使) 등의 밑에 있는 지방 무관의 막료(幕僚).

30 임소 : 제임해 있는 곳. 임지.

31 칠불사 :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면 칠불산(七佛山)에 있던 절. 고구려 을지문덕(乙支文德)이 살수(薩水)에서 싸울 때, 본문에서 보듯 7명의 승려가 강을 건너가는 것을 보고 수나라 군사들이 뒤따라 들어 갔다가 모두 빠져 죽은 일이 있었다. 그 일로 이곳에 절을 짓고 일곱 부처(七佛)를 모셨다고 한다.

32 검산령 : 함경남도 함흥과 평안남도 덕천 사이에 있는 고개.

33 환도성 : 평양으로 천도하기 전의 고구려 도읍지. 2세기 경 제10대 산상왕(山上王)이 이곳에 도읍을 정한 이후, 427년 장수왕(長壽王) 15년 평양 천도가 있기까지 약 2백 년 동안 고구려의 수도였다.

북쪽으로 두 개의 큰 고개를 넘으면 강계부(江界府)에 이른다. 부(府)의 동쪽에서 백두산까지는 5백여 리가 되는데, 그중간이 폐사군(廢四郡)³⁴지역이다. 세종 때 강계부에 예속시키고 백성들을 옮기면서 그 지역을 비우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은 수목이 하늘을 가리는 아주 깊은 두메산골이 되었다. 산삼이 많이 나는데, 해마다 봄가을이면 백성들이 산에 들어가 캐도록 허가해 주고 이것을 공물(貢物)과 세부(稅賦)³⁵에 충당하게 했으므로 강계는 나라 안에서 삼 고장으로 유명했다. 부(府)의 서쪽은 위원(渭原) 땅이다. 명나라 이성량(李成樑)의 조상 묘가 있는 곳이다. 성량의 아버지는 위원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죽이고 중국 광령(廣寧)³⁶에 도망쳐서 살다가 성량을 낳았다. 그러기에 이여송(李如松)³⁷은 늘 “나는 본래 조선 사람”이라고 했다.

위원 서쪽에는 여섯 고을이 있다. 의주(義州)는 국경의 첫 고을로서 심양(瀋陽)으로 가는 길목으로, 고을 관아는 압록강 기슭에 있다. 강 저편에 있는 두 개의 큰 물줄기가 오랑개 땅 동북쪽에서 흘러와 합쳤다가 다시 고을 북쪽에서 세 줄기로 갈라진다. 그러나 매년 홍수 때 물이 불어나면 이 세 강물이 하나로 합쳐 바다로 들어간다.

이 강물 한가운데에 위화도(威化島)가 있다.

고려 말 최영(崔瑩)³⁸이 우왕(禡王)에게 권하여 요동(遼東)³⁹을 공격하도록 하고, 우

34 폐사군 : 중국 한(漢)나라가 우리 강토를 침범하여 현도, 낙랑, 진번(眞蕃), 임둔(臨屯) 등 네 고을을 설치했으나 그 후 폐지했기 때문에 폐사군이라 한다.

35 공물·세부 : 세부는 여러 종류의 세금을 말한다. 공물은 세부 외에 그 지방 특산물을 나라에 바치는 것.

36 광령 : 오늘날 북진현(北鎭縣)의 옛 이름.

37 이여송 : 중국 명나라 신종 때의 장군. 자는 자무(子茂), 호는 양성(仰城), 시호는 충렬(忠烈). 요동 철령위(鐵嶺衛) 사람으로 이성량(李成樑)의 아들이며, 조부는 원래 우리나라 위원군(渭原郡) 사람이다. 임진왜란 때 제독(提督)으로서 방해어왜총병관(防海禦倭總兵官)이 되어 군사 4만을 거느리고 우리나라에 와 왜란 평정에 공이 많았다.

38 최영(1316~1388) : 고려 말기의 명장이자 충신. 친원파(親元派)로서 우왕(禡王) 14년에 팔도도통사(八道都統使)가 되어 명나라를 치고자 군사를 일으켰으나 이성계(李成桂)의 위화도 회군으로 실패하고 그에게 피살되었다. 시호는 무민(武愍).

39 요동 : 만주의 요동반도. 명나라 태조 주원장(朱元璋)이 차지하여 근거지로 삼았던 곳.

왕과 함께 평양에 와서 우리 태조대왕에게 군사 6만 명을 거느리고 이 섬에 주둔하게 했다. 그때는 한여름이었는데, 태조는 군사들의 의사에 따라 세 번이나 소(疏)를 올려 파병을 철회하도록 청했으나 영(瑩)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태조는 군사를 돌이켜 영을 죽이자고 장수들과 의논하니, 모두 기꺼이 따랐다. 드디어 군사를 돌이키자, 영은 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우왕과 함께 달아났다. 태조는 뒤따라와서 궁궐을 포위하고 영을 잡아 죽인 다음 우왕 부자를 폐하고 공양왕(恭讓王)을 세웠으나, 얼마 안 가서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다.

청천강 이남을 청남(淸南)이라 하는데, 지형은 동서가 좁다. 그리고 이북은 청북(淸北)이라 하는데, 지형이 동서로 트여서 매우 넓다.

도(道) 전체가 동쪽으로는 높은 산등성이와 가까워서 산이 많고 평지가 적으며, 또 농지에 물을 댈 만한 내와 연못이 부족하다. 그런 까닭에 논이 아주 적고 거의 밭뿐이다. 기(箕)씨와 고(高)씨가 흥했을 때에는 땅은 좁고 백성은 많아 산을 개간한 곳이 많았다. 그러나 여러 번 청병(淸兵)이 쳐들어오면서 땅이 황폐해진데다가 왕(王)씨가 통일한 뒤에는 백성들이 삼남(三南)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서, 지금은 들은 넓어도 사람이 적어서 산에 농사짓는 곳이 적다.

서쪽 바다와 가까운 여러 고을에는 밀물을 막아 논을 일군 곳이 많다. 그래도 밭보다는 적기 때문에 온 도(道)의 쌀값이 삼남보다 항상 비싸다.

민간에서는 뽕나무와 삼을 심어 길쌈을 일삼는다. 생선과 소금은 매우 귀하다. 그러므로 비록 바다와 가까운 고을이라도 소금 굽는 곳이 많지 않다. 또 이 지방에는 대나무 · 감 · 닥나무 · 모시가 생산되지 않는다. 청북(淸北)은 더구나 지역이 높고 추우며 북쪽 국경과 가까운 까닭에, 꽃과 과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밖의 물산도 매우 적다. 그래서 백성들이 몹시 가난하게 산다.

오직 평양과 안주 두 고을만은 큰 도회지여서 시장에 중국 물품이 많다. 중국에 가는 사신을 따라 왕래하는 장사꾼 중에는 부자가 아주 많다. 또 청남(淸南)은 내지(內地)와 가까워서 학문을 숭상하지만, 청북(淸北)은 풍속이 유지하고 어리석어 무예를 숭상한다. 그러나 정주(定州)만은 과거에 합격한 문사가 많다.

함경도(咸鏡道)

평안도 동쪽의 백두산 큰 산맥이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하늘을 자른 듯 끊어져 산마루가 되었다. 이 산마루 동쪽이 바로 함경도로서 옛날 옥저(沃沮)¹ 땅이다. 남쪽 끝은 철령(鐵嶺)²이요 동북쪽 끝은 두만강이다. 남북의 길이는 2천 리가 넘지만, 동서는 바다에 닿아서 백 리도 못 된다.

옛날에는 숙신(肅愼)³에 속해 있었으나, 한(漢)나라 때에 와서는 현도(玄菟)⁴에 속하였다. 그 후 주몽(朱蒙)이 차지했다가, 고구려가 망하자 여진(女眞)이 차지하게 되었다.

고려는 함흥 남쪽 정평부(定平府)를 경계로 했으나, 중엽에 이르러 윤관(尹瓘)⁵이 군사를 이끌고 가 여진을 내쫓고 두만강 북쪽으로 7백 리를 지나 선춘령(先春嶺)⁶을 경계로 삼았다. 그 후에는 또 금(金)나라⁷에 땅을 내주고 다시 함흥을 경계를 삼았다.

우리나라 장헌대왕(莊憲大王)⁸ 때 와서 김종서(金宗瑞)⁹를 시켜 북쪽으로 땅 천여

1 옥저 : 고조선의 한 부족국가.

2 철령 : 강원도 회양군과 함경남도 안변군 사이에 있는 큰 고개.

3 숙신 : 중국 고대에 만주 송화강(松花江) 유역에 있었던 부족. 통구스 족을 말하며, 읍루(挾婁)라 부르기도 한다. 고구려 광개토왕(廣開土王) 때에 고구려에 병합됐다.

4 현도 : 중국 한나라 무제(武帝)가 설치했던 4군(四郡) 중의 하나로 옥저(沃沮) 지역에 있었다. 고구려 광개토왕 때에 고구려에 병합됐다.

5 윤관(?~111) : 고려 중엽의 명신이자 무장. 자는 동현(同玄), 본관은 파평(坡平). 1107년(예종 2년)에 여진(女眞)을 정벌하는 원수(元帥)가 되어 17만 대군을 거느리고 여진을 정벌한 다음 9성(城)을 쌓았다. 시호는 문숙(文肅).

6 선춘령 : 동만주 지방에 있는 고개 이름.

7 금나라(115~1234) : 송화강 동쪽에 살고 있던 여진족 아골타(阿骨打)가 중국 송(宋)나라 휘종(徽宗) 때에 세운 나라. 요(遼)를 멸망시키고 송나라를 공격하여 만주와 황하 유역을 차지했다. 도읍은 지금의 만주 길림성(吉林省)에 있었으며, 120년 뒤 몽고(蒙古)에게 멸망당하였다.

8 장헌대왕 : 중국 명나라에서 내린 세종대왕의 시호.

9 김종서(1390~1453) : 단종(端宗) 때의 충신. 호는 절재(節齋). 북쪽 6진(鎭)을 개척했고, 그 공으로 문종(文宗) 때 영의정이 되었으며, 세조(世祖)가 정권을 잡자 격살 당하였다.

리를 넓히고 두만강 가에 육진(六鎭)¹⁰과 병영을 설치하게 되면서, 백두산 동남쪽 여진의 근거지가 모두 우리 판도에 들어왔다.

숙종 정유년에 강희 황제(康熙皇帝)¹¹가 목극등(穆克登)¹²을 파견하여 백두산에 올라 두 나라의 경계를 정하게 했다. 이때 목극등은 두만강을 따라 회령(會寧) 운두산성(雲頭山城)¹³에 왔다가 성 밖의 큰 언덕에 여러 무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어느 황제의 능이라고 했다. 목극등이 이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파 보게 했더니 무덤 곁에서 단갈(短碣)¹⁴이 나왔다. 비석에 ‘송제지묘(宋帝之墓)’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봉분을 도로 크게 쌓게 하고 돌아갔다.

이리하여 금나라 사람이 말하던 오국성(五國城)¹⁵이란 것이 곧 운두산성이란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송제(宋帝)라고만 했기 때문에, 이 무덤이 송나라 휘종(徽宗)¹⁶의 무덤인지 흠종(欽宗)¹⁷의 무덤인지 알 수가 없었다.

운두산성은 동해와 거리가 겨우 2백여 리여서 고려하고는 바닷길로 매우 가깝다. 또 고려의 전라도와 중국의 항주(杭州)¹⁸ 사이에는 좁은 바다가 있어서 순풍을 만나면 배로 7일 만에 닿을 수 있었다.

그러니, 만일 송나라 고종(高宗)이 은밀히 고려를 후하게 대접하고 고려를 시켜 동해에 배를 띄워 군사 1천을 거느리고 운두산성을 습격해서 휘종·흠종과 형후(邢

10 진 : 군대를 주둔시켜 엄중히 지키는 곳.

11 강희 황제 : 강희는 청(淸)나라 제4대 황제 성조(聖祖)의 연호(年號)이다.

12 목극등 : 청나라 태조(太祖) 때 태조의 명으로 백두산의 중심 국경을 명백히 정하고자 음력 5월 15일 조선 조정의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과 군관 이희복(李義福), 역관(譯官) 김응헌(金應憲)과 같이 백두산에 올라 회담하고, 분수령(分水嶺)인 산정 동남방 약 4km, 해발 2,200m 지점에 정계비를 세웠다.

13 운두산성 : 함경북도 회령(會寧) 서쪽에 있던 산성. 조선 영조(英祖) 때 성지(城址)를 수치(修治)했다. 한반도 북변에 있는 우수한 진성(鎭城)으로 송제(宋帝)가 머물렀다는 전설이 있다.

14 단갈 : 무덤 앞에 세우는 작은 비석.

15 오국성 : 운두산성을 말하는데, 함경북도 회령 서쪽, 길림성 연길(延吉) 지방에 있다. 이 성 밖에 송나라 휘종(徽宗)의 무덤이 있다. 요(遼) 때에는 이 지방이 다섯 나라로 나뉘어 있었다 하여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

16 휘종 : 중국 송나라 제8대 황제.

17 흠종 : 중국 송나라 제9대 황제.

18 항주 : 중국 절강성(浙江省)에 있는 지명. 전당(錢塘)이라고도 하는데 경치가 좋기로 이름이 높다.

后)를 잡아 바닷길로 고려 땅에 데려왔다가 전라도에서 다시 배에 태워 항주로 갔더라면 천하에 돌도 없는 괴상한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고종은 아버지를 걱정하기는커녕 서호(西湖)¹⁹에서 놀기에만 골몰했다. 그 불효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니, 천고에 한탄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고종은 죽은 지 백 년이 못 되어 도둑 중에게 무덤이 파헤쳐지는 화를 당했고 휘종은 비록 타향에서 죽어 묻혔건만 지금까지 무덤이 보존되어 있으니, 돌고도는 하늘의 이치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지방 사람들이 언덕 위에서 밭을 갈다가 이따금 옛 제기(祭器)와 술항아리·술·화로 같은 것들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선화릉(宣化陵)²⁰인 것 같고, 그 나머지는 궁인(宮人)과 임금을 모시던 관원들의 무덤인 것 같다. 또 지방민들은 두만강 북쪽 십여 리쯤되는 곳에 황제의 능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흙중의 능 같으나 자세히 알 수 없다.

함흥에서 북쪽은 산천이 거칠고 험하며 풍속이 사납다. 기후는 춥고 토지가 척박해서, 곡식이라곤 조와 보리가 있을 뿐 벼는 별로 없고 목화는 전혀 없다. 그 지방민들은 개 가축을 입고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니, 마치 여진족과 같다.

산에서는 담비 가죽과 삼이 많이 난다. 백성들은 이 담비 가죽과 삼으로 남쪽 장사꾼이 가져온 무명과 바꾸어야만 비로소 바지를 지어 입게 된다. 하지만 생활이 넉넉한 자가 아니면 이것도 불가능하다.

바다에서는 생선과 소금이 많이 난다. 하지만 바닷물이 맑고 파도가 사나우며 바다 밑에는 바위가 많아, 생선과 소금 맛이 서해 것만 못하다.

함흥부(咸興府)는 감사(監司)가 다스리는 곳이다. 처음에는 이곳 사람들이 학문을 알지 못했으나, 성종(成宗) 때에 경헌공(敬憲公) 이계손(李繼孫)²¹이 감사로 왔을

19 서호 : 중국 항주(杭州) 서쪽에 있는 호수로서, 전당호(錢塘湖), 명성호(明聖湖), 금우호(金牛湖) 등의 별칭이 있다.

20 선화릉 : 선화릉의 화(化) 자는 화(和) 자가 옳은 듯싶다. 선화(宣和)는 송나라 휘종의 연호로서, 선화릉은 휘종의 능이라는 뜻.

21 이계손(1423~1484) : 문신, 자는 인지(引之), 본관은 여주(驪州),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병조판서에 이르렀다. 시호는 경헌(敬憲).

때 재주 있는 소년들을 뽑아 관에서 먹여주며 경사(經史)²²와 행의(行誼)²³를 가르쳤다. 이에 비로소 학문이 성하게 일어나서 과거에 급제한 자도 이따금 있었는데, 이 지방 사람들은 이것을 파천황(破天荒)²⁴이라 했다. 경현공이 죽자 고을 사람들이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함흥성(咸興城)은 군자하(君子河) 강가에 있다. 이 강에는 만세교(萬歲橋)²⁵가 있는데, 다리의 길이가 오 리나 된다. 성 남문 위에는 낙민루(樂民樓)²⁶가 있어서 온 고을의 좋은 경치를 이 한 곳에 모아 놓고 있다. 평양 연광정(練光亭)과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넓은 들은 멀리 바다와 닿아 있고 풍광이 웅장하고 거칠어, 평양보다 맑고 밝지는 못하다.

들 가운데에 우리 태조가 등극하기 전의 옛 집이 있으며, 그 집에는 태조의 초상이 모셔져 있다. 조정에서 관원을 보내 지키면서 때맞추어 제사를 지내고, 본조(本朝)의 풍패분유(豐沛粉榆)²⁷의 고장으로 삼았다.

태조 정축년에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가 죽자, 공정대왕(恭定大王)²⁸은 하륜(河崐)의 계획에 따라 군사를 동원해 정도전(鄭道傳)의 난을 평정했다. 그러자 세자 방석(芳碩)이 세자의 자리를 내놓았으나, 형 방번(芳蕃)과 함께 목숨을 부지하지는 못했다.

태조가 크게 노하여 공정대왕(恭靖大王)²⁹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측근들만 데리고

22 경사 : 경서(經書)와 사서(史書).

23 행의 : 올바른 행실.

24 파천황 : 전례를 깨뜨린다는 뜻. 중국 형주(荊州)에서 향시(鄉試)에 합격한 자를 해마다 중앙 과시(科試)에 보냈으나 한 사람도 합격하는 자가 없었는데, 이를 ‘하늘이 안 되게 뻔하다’는 뜻으로 천황(天荒)이라 불렀다. 그 후 유세(劉蛻)가 처음으로 과거에 급제하자 사람들은 ‘천황을 깨뜨렸다’ 하여 파천황이라 했다.

25 만세교 : 함경남도 함흥 성천강(咸川江)에 놓여진 다리. 정월의 상원(上元)에 행해지는 답교(踏橋) 풍속으로 유명하다.

26 낙민루 : 함흥의 성천강 가에 있는 누각. 경치가 좋다.

27 풍패분유 : 제왕의 고향. 전한(前漢) 고조(高祖)는 패주(沛州) 풍읍(豐邑) 분유(粉榆) 마을 사람이었는데, 그가 천자가 된 뒤 그 마을 백성들에게 조세(租稅)를 면제해 주었다. 그 후부터 제왕의 고향을 가리키는 별칭이 되었다.

28 공정(恭定)대왕 : 명나라에서 내린 태종(太宗)의 시호.

29 공정(恭靖)대왕 : 명나라에서 내린 정종(定宗)의 시호.

함흥으로 가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안 되어 공정대왕(恭靖大王)은 공정대왕(恭定大王)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다.

공정대왕(恭定大王)은 왕위에 오르자 사신을 여러 번 보내 태조에게 돌아오기를 청했으나, 태조는 사신이 가는 대로 모조리 죽여 버렸다. 이러기를 십 년이 계속되자, 임금은 몹시 마음이 아팠다.

이에 태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 같은 마을 친구였던 박순(朴淳)³⁰을 사신으로 함흥에 보냈다. 박순은 먼저 새끼가 팔린 암말 한 필을 구해가지고 가서, 망아지는 태조가 있는 궁에서 마주 보이는 곳에 매어 두고 어미 말만 타고 갔다. 그리고 궁문 밖에 어미 말을 매어 놓고 들어가 태조를 만나 뵈었다.

궁문은 별로 멀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동안 망아지는 어미 말을 보며 울부짖고 어미 말은 날뛰면서 길게 소리를 질러대니 몹시 시끄러웠다.

태조가 이상히 여겨 무슨 일이냐고 묻자, 박순이 아뢰었다.

“신이 새끼 팔린 어미 말을 타고 오다가 새끼 말을 마을에 매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새끼 말은 어미가 보고 싶어 울부짖고, 어미 말은 새끼가 보고 싶어 저렇게 시끄럽게 웁니다. 지각없는 동물도 저러하운데, 지극하신 사랑으로 어찌 주상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으시나이까.”

태조는 이 말에 감동하여, 한참 있더니 돌아가겠노라고 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내일 닭이 울기 전에 이곳을 떠나, 오전 중에 서둘러 영흥(永興) 용흥강(龍興江)³¹을 건너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박순은 그 말대로 그 날 밤에 말을 타고 달렸다.

태조는 전에 여러 번 사자를 죽였기 때문에, 태조를 모시고 있는 관원들과 조정의 여러 신하들은 모두 마음이 격해 있었다.

이튿날 아침, 관원들이 박순을 죽이자고 청해도 태조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30 박순(?~1402) : 무신. 본관은 음성(陰城) 1388년 요동 정벌 때 위화도 회군에 앞서 이성계의 명으로 회군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우왕에게 갔으며, 1392년에 개국하자 상장군이 되었다.

31 용흥강 : 함경남도 영흥에 있는 강. 남립산맥에서 시작하여 영흥만(永興灣)으로 흘러간다. 지류는 단속천(端屬川), 입석천(立石川), 덕지강(德也江) 등이 있다.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청하자, 태조는 박순이 이미 영흥을 지났을 것이라 짐작하고 이를 허락하면서, 만일 용흥강을 지났으면 죽이지 말고 돌아오라고 했다.

사자가 말을 급히 몰아 강가에 도착하자, 순은 배에 오르는 중이었다. 사자는 순을 뱃전에 끌어내 죽이고 말았다. 순은 형을 받으면서 사자를 향해 말하기를, “신은 비록 죽사오나,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약속을 저버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했다.

이 말을 전해 듣자 태조는 그 뜻을 불쌍히 여겨 곧 돌아간다는 영을 내렸다.

한편, 공정대왕(恭定大王)은 이를 의롭게 여겨 그의 충성을 정표(旌表)³²하고 그의 자손을 녹용(錄用)³³했다.

영흥 남쪽 백여 리 되는 곳은 안변부(安邊府)로서 철령(鐵嶺) 북쪽에 있다. 그리고 고을 서북쪽에는 석왕사(釋王寺)³⁴가 있다.

태조가 아직 등극하기 전의 일이다. 꿈에 서까래 셋을 등에 짊어졌는데, 꽃이 날리고 거울이 깨지는 것이 보였다. 무학(無學)³⁵에게 이 꿈의 뜻을 물었더니 무학은 이렇게 말했다.

“등에 서까래 셋을 짊어지면 왕(王) 자가 됩니다. 꽃이 날렸으면 결국에는 열매가 맺힐 것이며, 거울이 깨지면 어찌 소리가 없겠습니까?”

태조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는 임금이 된 후 거기에 절을 세우고 석왕사라 했다. 여기에 수륙도량(水陸道場)³⁶을 크게 열었더니, 이를 만에 5백 나한(羅漢)³⁷이 공중에 모습을 나타냈다.

32 정표 : 충효나 절의가 있는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우고 현판을 하사하여 표창하는 일.

33 녹용 : 충신이나 효자의 자손을 관직에 특별히 임용하는 일.

34 석왕사 : 함경남도 안변군(安邊郡) 설봉산(雪峰山)에 있으며, 조선 태조 때 무학대사(無學大師)가 지은 절로 알려져 있다. 석왕사에는 여말선초의 건물로 알려진 응진전(應眞殿)과 호지문(護持門)이 있으며 1732년(영조 7년)에 개수한 대웅전 · 영월루(映月樓) · 흥복루(興福樓) · 범종루(梵鐘樓) · 용비루(龍飛樓) · 조계문(曹溪門) 등이 있다.

35 무학(1327~1405) : 자초(自超)의 호. 속성은 박(朴)씨이며, 경상도 삼기현(三岐縣)(오늘날의 합천(陜川)) 출신이다. 조선 개국 후 태조의 왕사(王師)가 되었다. 한양에 도읍을 정하는 데에도 참여했고, 금강산 금강암(金藏庵)에서 죽었다.

36 수륙도량 : 물과 육지에서 해매는 외로운 영혼에게 공양(供養)을 드리는 불교 의식을 수륙재라 하는데, 수륙도량은 수륙재를 올리는 마당을 말하며, 수륙재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37 5백 나한 : 아라한과(阿羅漢果)를 닦아 존경과 공양을 받을 만한 5백 명의 불교 성자. 석가모니가 입

안변 서북쪽 덕원(德源) 경계 바닷가에는 원산촌(元山村)이 있어서 어민들이 모여 산다. 이들은 물고기를 잡고 해초를 따는 것이 본업이다. 동북쪽 바닷길로 육진(六鎭)과 통하기 때문에, 육진과 여러 고을의 장사꾼 배가 모두 여기 와서 닻을 내린다.

생선과 소금·해초·삼베·다리(鬚)·담비 가죽·삼·관(棺) 짜는 재목 등을 모두 여기서 거래한다. 그러므로 강원·황해·평안·한양에서 장사꾼들이 모여들고 물자가 쌓여 있어 큰 도회를 이루고 있다. 여기 사는 백성들은 물건을 팔거나 저장해 두는 것을 업으로 삼으면서 부를 쌓은 자가 많다.

조정에서는 여기에 창고를 지었다. 경상도의 곡식을 바다로 운반해 이 창고에 쌓아 두었다가, 북도(北道)에 흉년이 들 때마다 적당한 시기에 여러 고을에 배로 곡식을 운송해서 백성들을 구제했다.

안변 동남쪽에는 황룡산(黃龍山)이 있다. 산 위에는 용추(龍湫)³⁸가 있고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여기는 함경도와 강원도의 경계가 되는 곳으로, 산 남쪽은 흡곡현(歙谷縣)이다.

일찍이 태조가 무장으로서 왕(王)씨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를 도운 공신들 중에는 서북 지방의 용맹스러운 장수가 많았다. 그러나 이미 나라를 세운 뒤에는 서북 지방 사람은 높은 자리에 등용하지 말라는 영을 내렸다.

그래서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삼백 년 이래로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없다. 혹 과거에 급제한 자가 있어도 벼슬은 겨우 수령(守令)³⁹에 그쳤고, 이따금 대간(臺諫)⁴⁰의 후보자 명단에 오른 자가 있었지만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오직 정평(定平) 사람 김이(金柅)와 안변 사람 이지온(李之蘊) 두 사람만이 아경(亞卿)⁴¹을 지냈고, 철산의 정봉수(鄭鳳壽)⁴²와 경성의 전백록(田百祿) 두 사람은 무장으로서 겨우 병

적한 후 왕사성(王舍城)에서 행한 제1회 모임에 참가한 5백 명의 아라한(阿羅漢), 5백 비구(比丘) 또는 5백 상수좌(上首座)라고도 한다.

38 용추 : 폭포 아래에 패인 웅덩이.

39 수령 : 고을을 다스리는 관원.

40 대간 : 대(臺)는 사헌부(司憲府)를, 간(諫)은 사간원(司諫院)을 말한다.

41 아경 : 육조(六曹)의 참판(參判)과 한성부(漢城府)의 좌·우윤(左右尹).

42 정봉수(1572~1645) : 무신. 자는 상수(祥叟), 본관은 하동(河東). 1592년에 무과에 급제했다. 임진왜

사(兵使)⁴³를 지냈다.

또 나라의 풍속이 집안 내력을 중히 여겨, 서울 사대부들은 서북 사람하고는 혼인을 하지도 않았고 사귀지도 않았다. 서북 사람들도 감히 서울 사대부와 사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리하여 서북 두 도에는 마침내 사대부가 없어지게 되었고, 서울 사대부들도 거기 가서 사는 자가 없었다. 오직 함흥 어(魚)씨와 청해(靑海) 이씨, 안변 조(趙)씨는 본관이 풍양(豐壤)인데, 조선 초기에 다 같이 높은 벼슬을 한 다음 서울로 와 살면서 여러 대를 과거에 급제하기도 했다. 이 밖에는 별로 이름난 집안이 없다.

그러므로 서북 지방인 함경·평안 두 도는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란 때 선전관(宣傳官), 정묘호란 때 철산의 명장으로 용골산성(龍骨山城)에서 전공이 컸다. 벼슬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43 병사 :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조선시대에 각 지방에 두어서 군사관계를 담당하던 중2품의 무관.

황해도(黃海道)

황해도는 경기도와 평안도 사이에 있다. 대개 백두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맥이 함흥부 서북쪽에서 갑자기 떨어져서 검문령(劍門嶺)이 되었고,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 노인치(老人峙)가 되었다.

여기서부터 두 갈래로 나뉜다. 그 하나는 남쪽으로 삼방치(三方峙)를 지나 조금 끊어진 듯하다가 다시 솟아 철령(鐵嶺)이 되고, 한 갈래는 서남쪽으로 곡산(谷山)을 거쳐 학령(鶴嶺)이 되었다.

학령에서 또 세 갈래로 갈라져 한 갈래는 토산(兔山)·금천(金川)을 따라오다가 오관산(五冠山)과 송악산(松嶽山)이 되었는데, 여기가 바로 곧 고려의 옛 도읍지다. 한 줄기는 또 신계(新溪)를 지나 평산(平山)의 면악산(綿嶽山)이 되었으며, 황해도의 모든 산이 이 줄기에서 나왔다.

서쪽으로 가서는 해주(海州)의 창금산(昌金山)과 수양산(首陽山) 등이 되고, 또 들로 내려와서는 야트막한 야산이 되었다가 서북쪽으로 돌아서 신천(信川)의 추산(鎭山)이 되었다. 다시 북쪽으로 돌아 문화(文化)의 구월산에서 그쳤는데, 여기가 바로 단군의 옛 도읍지다.

한 줄기는 곡산과 수안(遂安)을 따라 태산준령(泰山峻嶺)을 줄줄이 벌여 놓으면서 자비령(慈悲嶺)²·절령(岳嶺)이 되고, 서쪽으로 황주(黃州)의 극성(棘城)³에서 그쳤다.

황주는 절령 북쪽에 있는데, 평안도 중화부(中和府)와 접경을 이루고 있다. 주(州)에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관장하는 병영을 두어 서쪽에서 오는 길을 지키고

- 1 구월산 : 황해도 신천군(信川郡) 용진면(用珍面)에 있는 산. 단군이 은퇴한 아사달산(阿斯達山)으로 알려져 있다.
- 2 자비령 : 황해도 서흥군 서부 60리 지점에 있는 고개. 1270년 원종(元宗) 1년으로부터 1290년 충렬왕(忠烈王) 16년까지 중국 원나라와의 경계가 되었다.
- 3 극성 : 황주(黃州) 남쪽 이십오 리 되는 곳에 있으며, 문종(文宗) 2년에 개축한 석성(石城)으로 둘레가 5,030자, 높이는 7자라고 한다.

있다.

황주에서 남쪽으로 절령을 넘어 봉산(鳳山)·서흥(瑞興)·평산(平山)·금천(金川) 네 고을을 지나면 개성에 이르는데, 이것이 남북으로 직통하는 길이다.

이 길 동쪽에 있는 수안·곡산·신계·토산 등 고을은 모두 첩첩산중에 있어 지세가 험하고 백성이 어리석으며, 골짜기가 깊고 킁킁하여 도둑이 많이 출몰한다. 예로부터 학문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나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은 드물다. 곧은 길가의 여러 고을도 그렇지만, 평산과 금천에는 다른 지방에서 와 사는 사족들이 조금 있다.

금천은 강음(江陰)·우봉(牛峰) 두 고을이 합쳐서 된 군(郡)이다. 여기는 옛날부터 장기⁴가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더욱 심해서 살기에 적당치 못하다.

평산에도 역시 이 장기가 있다. 서쪽에는 면악(綿岳)이 있고 동쪽 기슭에는 화천동(花川洞)이 있다. 골짜기 안에 큰 무덤이 있는데, 전하는 말로는 청나라 사람의 조상 무덤이라고 한다.

그 아래로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부유한 마을이 많고 높은 벼슬을 한 사람도 있었다. 옛날에는 북쪽으로 가는 큰길이 자비령을 통과했으나, 고려 말부터는 나무를 심어 자비령을 봉쇄하고 절령(岳嶺)에 길을 내어 남북을 잇는 큰 관문을 만들었다.

그러나 절령 산맥이 십 리쯤 내려오다가 다시 끊어져 야트막한 야산이 되고 이 야산이 끝나는 곳이 들이 되었는데, 여기가 극성(棘城) 들이다. 이때문에 고려 때 몽고병이 절령을 피해 이 극성을 통해 들어왔고, 우리나라 인조 때에 청나라 군사가 우리를 침공할 때에도 이 길을 거쳐 들어왔다. 극성 들은 동서로 십여 리이며, 서쪽은 남오리강(南五里江)의 끝이 된다. 이 강 하류에는 밀물이 드나들어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만일 자비령에서 극성강까지 성을 쌓아 막는다면 남북을 방비할 수 있어서 남오리강은 천연적인 참호(塹壕)⁵가 될 것이다. 또한 절령은 구월산과 동서로 마주 보고

4 장기 : 산천에서 생기는 나쁜 기운으로, 이 기운을 쫓면 병이 생긴다고 한다.

5 참호 : 적의 침공을 막기 위해 성 둘레에 파 놓은 물웅덩이. 해자(壕字)라고도 한다.

서서 하나의 큰 수구(水口)⁶를 이루고, 남오리강은 들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남에서 북으로 패강(溍江)에 흘러든다. 강 동쪽은 황주·봉산·서흥(瑞興)·평산이고, 강 서쪽은 안악·문화(文化)·신천(信川)·재령(載寧)이다. 이 여덟 고을은 풍속이 비슷한 면악과 수양산 북쪽에 있다. 땅이 아주 비옥해 오곡과 면화 농사에 알맞다. 또 납과 철이 나는 산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강 동쪽과 서쪽 언덕에는 물을 사이에 두고 긴 독을 쌓았고, 독 안쪽은 모두 논이다. 바라보아도 끝이 없는 것이 마치 중국의 소호(蘇湖)⁷ 지방과 흡사하다. 여기서 생산되는 쌀은 다른 지방 쌀과는 달리 알이 길고 차지다. 그래서 궁중에서 임금께 올리는 수라는 모두 이 지방 쌀로만 짓는다.

수양산과 추산(雉山)에서 구월산에 이르기까지는 비록 높고 낮은 야산이 있기는 해도 대체로 큰 산등성으로 이어져 있다. 이 산등성이 너머 바닷가에 있는 고을이 바로 해주(海州)다.

해주 오른편에는 강령(康翎)과 웅진(甕津)이 있고, 서쪽으로는 장연부(長淵府)가 있다. 장연부 북쪽에는 송화(松禾)·은울(殷栗)·풍천(豐川)이 있다. 장련(長連)에서 산맥이 그쳐, 평안도의 삼화부(三和府)하고는 조그마한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추산(雉山)의 한 산맥은 장연 남서쪽으로 뻗어 가다 장산곶(長山串)에서 그쳤는데, 봉우리와 골짜기가 꼬불꼬불하면서도 깊고 막혀 있다. 고려 때부터 호남의 변산(卞山)과 호서의 안면도(安眠島)와 함께 모두 소나무 밭을 가꾸어 궁전을 짓거나 배를 만드는 데 쓰고 있다.

장산곶 북쪽에는 금사사(金沙寺)가 있는데, 바닷가는 이십 리나 펼쳐진 모래 언덕이다. 모래가 아주 잘고, 금빛이 나서 해가 비치면 반짝인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가 산처럼 쌓이며 모래 언덕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한다. 또 아침저녁으로 자리가 바뀌어 동쪽에 우뚝 섰다가 서쪽에 섰다가, 수시로 좌우로 움직인다. 그러나 모래 위에 있는 화려하고 웅장한 절은 모래에 묻히는 일이 없으니 참으로 신기하다.

6 수구 : 물이 흘러나가는 곳.

7 소호 : 중국의 소주(蘇州)와 호주(湖州).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 있는 용의 조화라고 한다.

모래 속에서는 해삼이 나는데 그 모양이 방풍(防風)⁸과 비슷하다. 매년 4·5월이면 중국 등래(登萊)⁹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오는 자가 많다. 관에서 장수와 이숙(吏屬)을 보내서 쫓으면 바다에 나가 닻을 내리고 있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다시 와서 해삼을 따간다.

장산곶(長山串) 앞 바다에서는 또 복어와 흑충(黑蟲)¹⁰이 잡힌다. 흑충은 뼈가 없는 검은 살덩어리인데, 오이처럼 생긴 온몸에 가시 같은 돌기가 나 있다.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피륙을 염색하는 검은 물감으로 쓴다.

《한서(漢書)》¹¹에 의하면 왕망(王莽)¹²이 복어를 먹었다고 한다. 중국 등래에서도 잡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것보다 진기한 맛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해삼을 팔 때 복어도 함께 잡는다. 또 이런 것들은 수익이 많기 때문에 해마다 더 많은 배가 몰려와, 바닷가에 사는 우리 백성들에게 많은 손해를 입힌다.

여덟 고을이 모두 바다를 끼고 있어서 비록 생계는 된다고 하지만, 거의 모든 땅이 척박하다. 그러나 풍천과 은율만은 땅이 아주 비옥하다. 조산(造山)이란 들이 있는데, 논에 한 말의 씨를 뿌리면 때로는 수백 말의 곡식을 수확하기도 하고, 아무리 적어도 백 말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밭의 소출도 이와 같은데, 삼남에서도 이런 예는 드물다.

그러나 장연 이북은 남쪽으로는 장산곶이 막고 있어, 오직 북쪽으로 평안도와 통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과 면화가 아주 흔해서, 농사꾼이나 지체가 낮은 사람들도 모두 부유함을 뽐내며 스스로 사족(士族)이라고 자랑한다.

8 방풍 : 미나리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로서 어린 식물일 때는 맛과 향기가 좋아 잎과 줄기를 나물로 만들어 먹는다. 묵은 뿌리는 약재로 쓴다.

9 등래 :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등주(登州)와 내주(萊州).

10 흑충 : 오징어.

11 한서 : 중국 24사(史)의 하나로서 후대 역사서의 모범이 됐다. 동한(東漢) 사람 반표(班彪)가 저술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아들 반고(班固)가 완성했다.

12 왕망 : 중국 전한(前漢) 말년에 애제(哀帝)를 쫓아내고 신(新)이라는 나라를 세운(서기 9년) 사람. 그러나 그가 세운 나라는 자연재해로 인한 민중봉기로 그가 반란군에게 피살되면서 멸망하고 말았다(서기 25년). 중국 한(漢)나라는 신나라를 계기로 그 이전을 전한(前漢), 그 이후를 후한(後漢)이라 부른다.

장연 남쪽 바다 가운데에 대청도(大靑島)와 소청도(小靑島) 두 섬이 있는데 섬의 둘레가 꽤 넓다. 원나라 문종(文宗)이 순제(順帝)¹³를 대청도로 귀양 보낸 일이 있었다. 순제가 여기에 집을 짓고 살며 순금으로 만든 부처 하나를 봉안하고 매일 해가 뜰 때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얼마 후에 돌아가서 등극했다.

그 후 공인(工人) 백여 명을 해주 수양산에 보내 중관(中官)의 감독 하에 큰 절 하나를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광사(神光寺)¹⁴다. 이 건물은 규모가 크고 화려하기로 우리나라에서 제일이었다. 중간에 화재로 소실되어 다시 지었으나 옛날 규모에 비하면 어렵도 없다.

섬에는 오늘날 사람이 없다. 수목만이 하늘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순제가 심었던 뽕나무·옻나무·쑥·꼭두서니 같은 초목이 덩불 속에서 제멋대로 자라다가 시들어 버리곤 한다. 하지만 궁의 섬돌과 주춧 자리는 아직도 완연하다.

해주는 감사가 있는 곳으로 수양산 남쪽에 위치한다. 바닷물이 두 산 사이로 흘러들어 와 바로 앞산의 밖을 돌다가 고여 하나의 큰 호수가 되었는데, 이 지방 사람들은 작은 동정호(洞庭湖)¹⁵라 한다. 이 경치는 오직 결성(潔城)이 독차지해서 제법 감상할 만한 풍치가 있다.

옛날 율곡 이이(李珥)가 이 지방 감사로 왔다가 수양산 밑에서 석담(石潭)의 천석(泉石)을 발견했다. 그 후 벼슬에서 물러났을 때 여기에 집을 짓고 제자들을 모아 가르쳤다. 그리하여 서울과 지방에서 선비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율곡이 죽자 그곳에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 문인(門人)과 그 자손들은 대를

13 순제 : 중국 원(元)나라의 마지막 황제. 명종(明宗)의 아들로서 35년 동안 황제의 자리에 있었다. 무종(武宗)의 아들 문종(文宗)에게 공격을 받아 잠시 행방을 감춘 적이 있었는데, 대청도에 온 것이 그때인지는 불분명하다.

14 신광사 : 황해도 해주에 있는 절. 당시 황제 자리에 오르지 않은 순제(順帝)가 일찍이 황해도의 대청도에 유배되어 있다가 이곳의 풀 속에 한 부처가 있는 것을 보고 이 부처에게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 황제가 되게 해 달라고 빌었는데, 그 뒤 귀국하여 황제가 되었다. 이에 감격한 순제는 그 은덕에 보답하는 뜻에서 막대한 재물을 들여 이 절을 지었다고 한다.

15 동정호 : 중국 호남성(湖南省)에 있는 호수. 계절에 따라 크기가 크게 달라지며, 평균적으로 동서 길이 150km, 남북 길이 95km, 면적 28,200km²이다.

이어 거기 살면서 그의 교화를 받들었는데, 문장과 예의가 있고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황해도 안에서 이 고을이 첫째였다. 그 후로 학풍(學風)이 점점 쇠해져 고을 사람들이 학궁(學宮)¹⁶을 빌려 편을 갈라 서로 원수처럼 공격하니, 세상 사람들이 못된 고을이라고 했다.

면악(綿岳) 한 줄기가 동쪽으로 거슬러 나가면서 연안(延安)과 배천(白川)이 되었다. 이것은 해주의 동쪽이요 후서강(後西江)¹⁷의 서쪽이며, 또 보련강(寶輦江)¹⁸ 하류의 북쪽이 된다.

큰 산과 넓은 강, 넓은 들과 긴 냇물이 모두 여기에 모인다. 또 밀물과 썰물이 드나들어 넓고 명랑한 풍경이 중국 강회(江淮)¹⁹의 경치를 방불케 한다. 황해도 내에서 가장 살 만한 곳이기여, 서울에서 내려와 사는 사족(士族)이 많다. 그러나 땅이 척박하고 가뭄이 잘 들어 면화를 재배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그래서 주민들은 배를 타고 강과 바다에 나가 장사하기를 좋아한다. 동쪽으로 두 도와 통하고 남쪽으로 양호(兩湖)와 통하기 때문에, 그 지방의 산물을 팔아 늘 많은 수익을 얻는다. 대체로 이 도는 국도(國都) 서북쪽에 위치하고 평안도·함경도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쏘기와 말타기는 좋아해도 학문을 하는 선비는 매우 적다. 또 산과 바다 사이에 끼여 있어 납·철·면화·벼·기장·생선·소금 등이 생산된다. 비교적 부유한 사람은 많은 편이나 사대부는 별로 없다.

그러나 평야 지대에 있는 여덟 고을은 땅이 비옥하고 바다와 가까운 열 고을은 경치 좋은 곳이 많으니, 살 만한 곳이라 하겠다. 지세가 서해로 쏙 들어가서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이고, 동쪽에만 남북으로 통하는 큰길이 뚫려 있을 뿐이다.

북쪽에는 높은 고개가 있고 남쪽은 강이 겹겹으로 막았다. 안팎이 모두 산과 강이고, 높고 험한 성곽이 많다. 또 넓은 들과 비옥한 벌판이 있으니 참으로 천부(天府)²⁰인데다가 전략적 요충이 될 만한 곳이다. 만일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만드

16 학궁 : 성균관(成均館), 여기서는 지방의 향교를 말한다.

17 후서강 : 예성강(禮成江)의 다른 이름.

18 보련강 : 오늘날 예성강의 하류.

19 강회 : 중국 양자강(陽子江)과 회수(淮水), 오늘날 중국 강소성과 안휘성 지역.

20 천부 : 경치 좋고 물산이 풍부한 고장.

시 전쟁터가 될 것이니, 이것이 단점이다.

강원도(江原道)

강원도는 함경도와 경상도 사이에 있다. 서북쪽으로는 황해도 곡산(谷山)·토산(兎山) 등 고을과 인접해 있고, 서남쪽으로는 경기도·충청도와 인접해 있다.

철령(鐵嶺)에서 남쪽으로 태백산까지는 산등성이가 가로 뻗쳐서 하늘과 구름에 닿은 듯하며, 고개 동쪽으로는 아홉 고을이 있다.

북쪽으로 함경도 안변(安邊)과 경계가 닿아 있는 흡곡(歙谷), 통천(通川), 고성(高城), 간성(杆城), 양양(襄陽)과, 옛 예맥(濊貊)의 도읍이었던 강릉, 삼척(三陟), 울진(蔚珍), 그리고 남쪽으로 경상도 영해부(寧海府)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평해(平海)이다.

이 아홉 고을은 모두 동해 가에 있다. 남북으로는 거의 천 리나 되지만 동서로는 함경도처럼 백 리도 못 된다. 서북쪽은 영(嶺)으로 막혔고 동남쪽은 바다와 닿아 있다. 지세는 비록 좁지만, 큰 산 밑에 있어서 산은 모두 나지막하고 들은 평탄하며 경치가 맑고 수려하다.

동해에는 밀물과 썰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맑아 벽해(碧海)라고 한다. 항구나 섬 같은 것이 앞을 가리지 않아, 마치 큰 연못가에 있는 듯 넓고 아득한 경치가 장관을 이룬다.

또 이 지방에는 이름난 호수와 기이한 바위가 많다. 높은 곳에 오르면 푸른 망망대해가 펼쳐 보이고 골짜기에 들어가면 물과 돌이 얹전히 어우러져, 국내에서 경치가 가장 뛰어나다.

누각과 정자 같은 훌륭한 경치도 많다. 흡곡의 시중대(侍中臺), 통천의 총석정(叢石亭), 고성의 삼일포(三日浦), 간성의 청간정(淸澗亭), 양양의 청초호(靑草湖), 강릉의 경포대(鏡浦臺), 삼척의 죽서루(竹西樓), 울진의 망양정(望洋亭)을 사람들은 관동팔경(關東八景)이라고 한다.

아홉 고을의 서쪽에는 금강(金剛)·설악(雪嶽)·오대(五臺)·두타(頭陀)¹·태백(太

1 두타산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未老面)과 하장면(下長面) 사이에 있는 산.

白) 등의 산이 있고, 산과 바다 사이에 경치 좋은 곳이 많다. 골짜기가 아늑하고 깊으며, 물과 돌이 맑으면서도 조출하다. 여기에는 간혹 신선들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 오기도 한다.

이 지방 사람들은 놀이를 좋아한다. 노인들은 기악(伎樂)²을 갖추어 술과 고기를 싣고 호수나 산에서 흥겹게 노는데, 이것을 큰 행사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들도 놀이가 습관이 되어, 학문에 힘쓰는 자가 적다.

지역이 또한 두 서울³과 멀어서 옛날부터 유명 인사가 적다. 그러나 강릉에서만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제법 나왔다.

땅은 몹시 척박하고 자갈밭이어서, 논에 한 말의 씨앗을 뿌리면 겨우 열 말 남짓 거둘 뿐이다. 그러나 그중 오직 고성과 통천에는 논이 가장 많고 땅도 척박하지 않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삼척은 논에 한 말의 씨앗을 뿌리면 사십 말의 곡식을 수확한다. 그러나 이 세 고을에서는 인물이 나지 않는다.

대체로 이 도의 아홉 고을은 모두 바닷가이므로, 주민들은 물고기를 잡고 미역을 따며 소금을 굽는 것으로 생업을 삼아, 땅은 비록 척박해도 부유하게 지내는 자가 많은 편이다. 다만, 서쪽으로 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로. 한 때 유람하기에는 좋지만 오래 살 곳은 못 된다.

강릉 서쪽은 대관령이고 대관령 북쪽은 오대산⁴인데, 우통(于筒)⁵의 물이 여기서 나와 한강의 근원이 된다.

대관령의 산줄기가 남쪽으로 쌍계(雙溪)·백봉(白鳳) 두 영을 지나서 두타산(頭陀山)이 되었다. 산 위에는 옛사람이 쌓은 석성(石城)이 있고, 산 밑에는 중봉사(重峰寺)가 있다.

절 북쪽은 강릉 임계역(臨溪驛)으로, 고려 때에 이승휴(李承休)⁶가 여기 숨어 살았

2 기악 : 기생과 풍악.

3 두 서울 : 한양과 개성을 말한다.

4 오대산 :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산.

5 우통 : 한강 상류의 한 줄기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珍富面) 오대산 서쪽 기슭에 있다.

6 이승휴(1224~1300) : 학자. 자는 휴휴(休休), 호는 동안거사(動安居士), 사림학사승지(詞林學士承旨)로서 은퇴했다.

다. 근래에 와서는 찰방(察訪)⁷ 이자가 벼슬하지 않고 이 산속에 집을 짓고 살다가 죽었다.

산속에는 평탄한 들이 조금 있어 간혹 논도 있다. 시냇가의 바위가 매우 아름답고 농사와 고기잡이 모두 적합하여, 그야말로 동천(洞天)⁸이다.

시냇물은 영월·상동(上東)을 지나서 고을 앞으로 흘러들어 온다. 임계(臨溪) 서쪽 산기슭 남쪽은 정선(旌善) 여량촌(餘糧村)으로, 우통(于筒) 물이 북쪽에서 여량촌을 거쳐 남쪽으로 흐른다. 제법 넓은 양쪽 언덕의 큰 소나무와 흰 모래가 맑은 물 사이로 비치니, 정말로 은자(隱者)가 살 만한 곳이다. 다만 농토가 없는 것이 흠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넉넉하게 살고 있다.

시냇물은 다시 영월 동쪽에 와서 상동 물과 합치고, 조금 서쪽으로 가서 주천강(酒泉江)과 합친다.

두 강 사이에 단종(端宗)의 장릉(莊陵)이 있다. 숙종이 병자년에 단종을 복위하고 능호(陵號)를 봉(封)했다. 또 이보다 앞서 육신(六臣)⁹의 사당을 능 곁에 지었으니, 그 뜻이 매우 장하다.

대체로 북쪽 회양(淮陽)에서 남쪽 정선에 이르기까지 험한 산과 깊은 골짜기뿐이며, 물은 모두 서쪽으로 흘러 한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지방은 화전은 많으나 논은 매우 적다. 기후가 춥고 땅이 척박하며 백성은 대단히 어리석다. 산골 마을이라 비록 산천이 아름답고 한때 병란(兵亂)을 피하기에는 좋다 해도 대를 이어 살기에는 적당치 못하다.

춘천과 원주가 그중에서는 좀 낫다. 춘천은 인제(麟蹄) 서쪽에 있는데, 서울과는 수로와 육로로 모두 2백 리 길이다.

부(府)의 관아 북쪽에 청평산(淸平山)¹⁰이 있다. 이 산속에는 절이 있고, 절 곁에는

7 찰방 : 조선 때 각 도의 역참(驛站)을 관리하던 외직 문관 벼슬.

8 동천 : 산에 둘러싸여 있고 시냇물이 흐르는 경치 좋은 곳.

9 육신 : 여섯 신하. 단종(端宗)을 위하여 충절을 지킨 여섯 신하. 생육신(生六臣)과 사육신(死六臣)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육신을 말한다. 사육신은 이개(李瑄), 하위지(河緯地), 유성원(柳誠源), 유응부(兪應孚), 성삼문(成三門), 박팽년(朴彭年)이다.

10 청평산 : 경운산(慶雲山)이라 불리기도 하며, 강원도 춘천시에 있다.

고려 때의 처사(處士)¹¹ 이자현(李資玄)¹²이 살던 곡란암(鵲卵庵)의 옛터가 있다. 자현은 왕비의 친족이었다. 당시 젊은 나이였지만, 혼인도 벼슬도 하지 않고 여기 숨어 살면서 도를 닦았다. 그가 죽자 절의 승려가 부도(浮屠)¹³를 세워 그의 유골을 수습했는데, 지금도 산 남쪽 십여 리 되는 곳에 그 터가 남아 있다.

춘천은 옛날 예맥(濊貊)이 천 년 동안이나 도읍했던 고장이다. 소양강(昭陽江)에 접해 있으며, 그 밖으로는 우두(牛頭)¹⁴라는 큰 마을이 있다.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팽오(彭吳)를 시켜 우수주(牛首州)와 통했다는 것이 바로 이곳이다.

산속에는 들이 넓게 펼쳐 있고 그 북편으로 두 강이 흐른다. 토질(土質)이 단단하고 기후는 온화하다. 강과 산이 맑고 시원하며 땅이 비옥해서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가 많다.

원주는 영월 서쪽에 있다. 이곳은 감사가 있는 곳이다. 서쪽으로 서울과는 이백 오십 리가 된다. 동쪽은 대관령과 두메산골에 가깝고, 서쪽은 지평현(砥平縣)과 경계를 이루었다. 산골짜기 중간에는 들이 섞여 있어서, 명랑하고 수려하여 험하거나 막힌 데가 없다.

이 고을은 경기도와 영남 사이에 끼여, 동해로 수송하는 생선·소금·삼, 관곽이나 궁전 짓는 데 쓰이는 재목 따위가 모여들어 도회지를 이룬 곳이다.

또한 이곳은 두메산골과 가까워 난리가 나면 피하기가 쉽고 또 서울과 가까워 태평한 시절에는 벼슬길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사대부들이 여기 살기를 좋아한다.

동쪽에는 적악산(赤岳山)¹⁵이 있다. 고려 말에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¹⁶이 여기

11 처사 : 세상에 나가지 않고 조용히 사는 선비.

12 이자현 : (1061~1125) 학자. 자는 진정(眞精), 호는 식암(息庵)·청평거사(淸平居士). 본관은 인천(仁川). 이자점(李資諫)과 사촌 간. 예종과 인종의 총애를 받았으나 청평산에 들어가 숨어 살았다. 사호는 진락(眞樂).

13 부도 : 고승의 유골을 봉안한 탑.

14 우두 : 춘천의 옛 이름.

15 적악산 : 지악산의 옛 이름. 강원도 원주시와 횡성군 사이에 있다.

16 원천석(1330~?) : 학자이자 문인. 자는 자정(子正), 본관은 원주(原州). 운곡(耘谷)은 그의 호. 고려 말년에 정계가 문란하자 지악산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부모를 봉양하고 살았다. 태종(太宗)의 스승이었다.

숨어 살면서 많은 제자를 가르쳤다. 우리 공정대왕(恭定大王)도 총각 시절에 그에게 가서 배운 일이 있다. 그 후에 학업을 마치고 돌아와 18세에 과거에 급제했다. 태조가 위화도에서 회군하고 왕(王)씨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을 조짐이 보이자, 운곡은 글을 올려 이를 간(諫)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공정대왕이 왕위에 오르자 적악산에 거둥하여 운곡을 찾았다. 그러나 운곡은 미리 피하여 보이지 않고, 옛날부터 밥을 짓던 노파만 남아 있었다. 공정대왕이 선생의 간 곳을 묻자, 노파는 태백산에 있는 친구를 찾아갔다고 했다. 임금은 그 노파에게 후한 상을 내리고 운곡의 아들을 기천현감(沂川縣監)에 제수하는 관고(官誥)¹⁷를 남기고 떠났다. 사람들은 이 일을 가리켜 엄릉(嚴陵)¹⁸보다도 고매하여 환영(桓榮)¹⁹ 같은 천박한 자와는 비길 바가 아니라고 했다.

북쪽에 횡성현(橫城縣) 관아가 있다. 두메산골 안이 확 트여 밝고 넓으며 물은 푸르고 산은 높지 않아, 표현하기 어려운 특별히 맑은 기운이 있다. 여기는 대를 이어 살아오는 사대부가 많다.

동북쪽으로는 오대산의 서쪽 물을 받아 남쪽으로 흐르면서 원주의 섬강(蟾江)²⁰이 되고, 흥원창(興元倉) 남쪽으로 흘러들어 충강(忠江) 하류와 합류한다.

마을이 이 두 강 사이에 끼어 있는데, 두 강이 청룡·백호²¹처럼 나뉘어 흐르다가 마을 앞에서 모여 깊은 연못을 이룬다. 오대산 서쪽의 적악산 줄기는 여기서 아주 끊어지고, 강 건너 산이 좌우에서 문을 닫아 잠근 것처럼 가리고 있어 지세가 가장 아름답다. 여기는 온 강원도에서 서울로 운송되는 모든 물자가 모여드는 곳이다.

17 관고 : 4품 이상 벼슬아치에게 내리는 사령장.

18 엄릉 : 중국 동한(東漢) 사람 엄광(嚴光)을 말하며, 그의 자인 자릉(子陵)에서 한 글자만 따 능(陵)이라 부른 것이다. 젊었을 때 광무제(光武帝)와 함께 수학했는데, 나중에 광무제(光武帝)가 즉위하자 엄광은 성명을 바꾸고 숨어 살았다. 광무제는 그가 어진 사람임을 알고 간의대부(諫議大夫)라는 벼슬을 내리고 불렀으나 세상에 나오지 않고 부춘산(富春山)에 숨어 살았다.

19 환영 : 중국 동한(東漢) 때의 용항(龍亢) 사람으로 자는 춘어(春御). 젊었을 때 힘써 공부하고 구양상(歐陽向)의 글씨를 익혔다. 광무제가 즉위한 뒤 그를 소부(少傅)로 삼고 수레와 말을 하사했는데, 이에 환영은 집안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이는 내가 공부한 덕이다”라고 했다.

20 섬강 : 강원도 횡성군에서 발원하여 원주시를 지나 한강으로 흘러들어 가는 강.

21 청룡·백호 : 동쪽은 청룡(靑龍), 서쪽은 백호(白虎)의 신이 지킨다고 하는데, 풍수학(風水學)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산과 물이 내려오는 맥과 근원을 따지고 방위를 본다.

대를 이어가면서 사는 사대부가 역시 많다. 또 배로 장사해서 부자가 된 자도 있다.

광해군 때에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²²은 처신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에 정충신(鄭忠信)²³에게 한강 상류에 살 만한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충신이 여기 와 보고 이 지역을 그림으로 그려 바치자, 백사는 여기 터를 잡아 집을 지으려 했다. 그러나 때마침 북청(北靑)으로 귀양가게 되어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내가 일찍이 여기를 지나다가 백사의 일을 생각하며 시를 지은 것이 있다.

위아래로 보니 강산은 옛날 같으니
영웅의 보는 눈이 생각할수록 눈에 선하네
서풍에 왕손의 그림 더럽힐까 걱정하여
온 가족을 위쪽 물가로 옮기려 했네

그러나 땅이 두 강가에 달라붙어 논이라곤 없으니 농사지를 만한 곳은 못 된다. 마을 동남쪽으로 언덕을 넘으면 덕은촌(德隱村)이며, 동쪽으로는 충주 청룡촌(靑龍村)과 접경이다. 여기는 산골 사이사이에 논이 많고 천석(泉石)이 그윽하면서도 아담하여 숨어 살 만한 곳이다.

철령과 금강산 물이 남쪽으로 흘러내려 가다가 춘천 모진강(牟津江)이 되고, 용진(龍津)에 이르러 한강으로 들어간다.

춘천에서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면 양구(楊口) · 김화(金化) · 금성(金城) · 철원(鐵原) · 평강(平康) · 안협(安峽) · 이천(伊川) 등 일곱 고을이 있는데, 모두 경기도 북쪽과 황해도 동쪽에 있다.

22 이항복(1556~1618) : 문신, 자는 자상(子常), 호는 백사(白沙), 본관은 경주(慶州), 일명 오성대감(鰲城大監). 임진왜란 때 병조판서를 지내면서 많은 공을 세웠으며,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1617년에 폐모론(廢母論)에 반대하다가 북청(北靑)으로 귀양 가서 적소에서 죽었다. 시호는 문충(文忠).

23 정충신(1576~1636) : 무신, 자는 가행(可行), 호는 만운(晩雲), 본관은 광주(光州), 이항복의 주선으로 무예를 닦아 무과에 급제했다.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부원수를 지냈으며, 천문 · 지리 · 복서(卜筮) · 의술에 능했다. 시호는 충무(忠武).

그중 철원부(鐵原府)는 태봉(泰封) 왕 궁예(弓裔)²⁴가 도읍했던 곳이다. 궁예는 신라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젊어서부터 무뢰한이었던 그는 장성한 뒤로 안성(安城)과 죽산(竹山) 사이의 도둑이 되었다가, 고구려와 예맥의 땅을 차지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러나 성품이 잔학했기 때문에 끝내는 부하에게 쫓겨나고 말았다. 그리고 왕건 태조가 군중들에게 추대되어 비로소 고려가 건국하게 되었다.

철원은 비록 강원도에 속해 있지만, 평야에 자리 잡은 고을로서 서쪽은 경기도 장단(長湍)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땅은 척박하나 들이 넓고 산이 낮아 평탄하고 명량하며 강 안쪽에 위치했으니, 두메 속에 있는 도회지다. 들 가운데에는 물이 깊다. 마치 벌레가 파먹은 것 같은 돌이 있는데 매우 신기하다.

한양에서 동쪽으로 용진(龍津)을 건너 양근(楊根)·지평(砥平)을 지나고 갈현(葛峴)²⁵을 넘으면 바로 강원도 경계가 된다.

또, 동쪽으로 하룻길을 가면 강릉부의 서쪽 경계인 운교역(雲橋驛)이다. 내 나이 열넷이던 계미년에, 선친께서 강릉 고을 원이 되어 가시는 길에 나도 선친의 가마를 따라갔다. 운교로부터 서쪽 대관령에 이르는 사이는 평지나 고개를 막론하고 뻥뻥한 숲 속으로만 길이 나 있었다. 나흘 동안이나 길을 가면서도 숲이 우거져 하늘과 태양은 볼 수가 없었다.

그러던 것이 수십 년 전부터 산과 들이 모두 개간되어 농토로 변했고, 마을과 마을이 서로 연결되어 산에는 한 치 굵기의 나무도 없다. 이것을 보면 다른 고을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짐작이 든다. 어진 임금 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산천의 경치는 훼손되어 가고 있다.

예전에 삼이 나던 곳은 모두 대관령 서쪽 깊은 산골이었는데, 산골에 사는 사람들이 화전을 개간하느라 불을 놓았기 때문에 삼의 채집량이 줄어들었다. 또 장마 때면 산사태가 나 한강으로 흘러드니, 이때문에 한강이 차츰 얕아지고 있다.

24 궁예(?~918) : 태봉(泰封)의 왕. 신라 제47대 헌안왕(憲安王)의 아들이다. 그렇지만 제48대 경문왕(景文王)의 아들이라고 전해지기도 한다. 왕실에서 버림받고 유모의 손에 자라다가 중이 되어 선종(善宗)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도적 양길(梁吉)의 부하가 되었다가 태봉을 세웠다. 그러나 잔인무도해서 부하들에게 쫓겨났고, 결국 백성들에게 피살되고 말았다.

25 갈현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靑雲面)에 있는 고개.

경상도(慶尙道)

강원도 남쪽에 있는 경상도는 지리가 가장 아름답다. 서쪽은 충청도·전라도와 접해 있고, 북쪽에는 태백산이 있다. 감여가(堪輿家)¹의 말로는 이곳은 하늘에 치솟은 수성(水星)²의 형국이라고 한다.

왼쪽에서 뻗은 큰 줄기 하나는 동해를 따라 내려오다가 동래(東萊) 바다에서 그쳤고, 오른쪽으로 뻗은 큰 줄기 하나는 소백(小白)·작성(鵲城)·주흘(主屹)·희양(曦陽)·청화(靑華)·속리(俗離)·황악(黃岳)·덕유(德裕)·지리(智異) 등 여러 산이 된 다음 남해에 이르러 멈추었는데, 이 두 줄기 사이에 비옥한 들이 천 리나 펼쳐 있다.

황지(潢池)는 자연적으로 생긴 연못으로, 태백산 높은 봉우리 밑에서 물이 산을 뚫고 흘러나온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예안(禮安)에 이르고, 동쪽으로 꺾였다가 다시 서쪽으로 흐르면서 안동(安東) 남쪽을 두른다. 그리고 용궁(龍宮)과 함창(咸昌)의 경계에 와 비로소 남쪽으로 꺾이면서 낙동강이 된다. 낙동이란 상주(尙州)의 동쪽이란 뜻으로서 이 물은 김해로 흘러간다. 강은 온 도의 복판을 가로지르는데, 강 동쪽은 좌도(左道), 서쪽은 우도(右道)라 한다.³

이 두 강줄기는 김해에서 합수한다. 70개 고을의 물이 한 곳으로 빠지면서 큰 지형을 만들었다. 상고시대에는 이 땅에 사방 백 리 되는 나라가 많았으나 신라가 건국하면서 모두 통일했다. 신라는 경주에 도읍을 정하고 천 년이나 이어왔는데, 옛날 계림군자국(鷄林君子國)이라고 하던 나라가 바로 이곳이다.

지금도 이곳을 동경이라 하며, 부윤(府尹)이 다스린다. 관아는 태백산 왼쪽에 있다. 풍수를 보는 사람은 여기를 회룡고조(回龍顧祖)⁴의 지형이라고 한다. 터가 모

- 1 감여가 :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근거를 둔 풍수설에 의해 집터나 밭자리의 좋고 나쁨을 가리는 사람. 풍수(風水), 형가(形家), 지사(地師), 장사(葬師) 등의 칭호가 있다.
- 2 수성 : 풍수설에서 멧부리 모양이 굽은 듯한 지세를 일컫는 말.
- 3 좌도·우도 : 지도를 놓고 보면 좌우가 바뀐 것 같으나, 서울을 기준으로 보아 좌우가 정해진 것이다.
- 4 회룡고조 : 풍수설에서 한 산에서 뻗어 나온 지맥이 돌아서 원래 산과 마주 대한 지세를 일컫는 말.

두 서북향으로 앉았고, 그 안의 물은 동쪽으로 흐르면서 큰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든다. 여기에 신라 때의 반월성(半月城)과 포석정(鮑石亭)·괘릉(掛陵) 등 고적이 있다.

신라는 영남에 있는 여러 나라를 모두 차지하고,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는 틈을 타 삼국을 통일했다. 말년에 여왕이 나오자 정치에 관한 모든 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불교를 지나치게 믿어 골짜기마다 절이 들어섰고, 평민은 모두 중이 되었다.

이런 틈을 타 궁예(弓裔)는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고 견훤(甄萱)은 백제의 옛 땅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던 와중에 고려 태조가 나타나 고구려 옛 땅과 백제의 옛 땅을 통합하니, 신라는 고려에 땅을 바치고 들어왔다. 신라 때에는 북쪽의 큰 사막과 거란(契丹) 때문에 길이 막혀 뱃길로만 당나라에 조공⁵을 바쳤다. 당나라에 왕래하는 관원의 행렬이 길에 끊이지 않았고, 명성과 문물은 중국을 본받아 제법 발달했다.

고려에서 우리 시대까지 또 천 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도에서 장상(將相)과 공경(公卿), 문장가와 덕망 있는 사람, 절의(節義)를 지킨 사람, 선도(仙道)·불도(佛道)·도교(道教)에 도통한 사람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 도를 인재의 고장이라고 한다.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선조 이전에 정권을 잡은 사람은 모두 이 도 사람이었고 문묘(文廟)⁶에 모셔진 사현(四賢)⁷도 이곳 사람이었다.

그 후 인조(仁祖)가 울곡(栗谷) 이이(李珥)⁸·우계(牛溪) 성혼(成渾)⁹·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의 문인 제자들과 어지러운 정국을 수습한 뒤로는 대대로 한양에

5 조공 : 종속국이 종주국에게 때를 맞춰 조회에 참석하고 예물을 바치는 일.

6 문묘 : 공자를 모신 사당.

7 사현 : 어진 네 사람. 여기서는 퇴계(退溪) 이황(李滉), 회재(晦齋) 이언직(李彦迪), 한강(寒岡) 정구(鄭逋),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을 말한다.

8 이이(1536~1584) : 학자이자 문신. 자는 숙현(叔獻), 호는 울곡(栗谷). 본관은 덕수(德水), 어머니는 사임당 신씨(師任堂 申氏). 13세에 진사, 1564년에 생원,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성(文成).

9 성혼(1535~1598) : 학자. 자는 호원(浩原), 호는 우계(牛溪). 본관은 창녕(昌寧). 벼슬이 우참찬(右參贊)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간(文簡).

살고 있는 집안 사람들만 등용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지금까지 백 년 동안 영남에서 정경(正卿)¹⁰에 오른 사람이 두 명, 아경(亞卿)에 오른 사람이 네다섯 명이고, 정승에 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관직이 아무리 높아도 삼품(三品)이고, 아래로는 수령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날 선배가 남긴 풍습과 혜택은 지금껏 남아서 예의와 학문을 숭상하니, 지금도 과거에 많이 급제하기로는 나라 안에서 첫째로 꼽힌다.

좌도(左道)는 땅이 척박해서 백성들의 살림이 가난하지만 학문하는 선비가 많다. 이와는 반대로 우도(右道)는 땅이 비옥해서 백성들의 살림이 넉넉하지만, 사치를 좋아하고 게을러서 학문에 힘쓰지 않아 유명 인사가 적다. 그러나 이것은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지, 땅의 요척(饒瘠)¹¹과 인재의 출현은 좌도와 우도가 섞여 있다.

예안(禮安)·안동(安東)·순흥(順興)·영천(榮川)·예천(醴泉) 등 여러 고을은 이 백(二白)¹²의 남쪽에 있는데, 여기가 바로 신이 계시한 복된 땅이다.

태백산 아래는 산이 얇고 들이 넓으며 풍광(風光)이 밝고 수려하다. 모래가 희고 토질이 단단해서 그 기색이 한양과 같다.

예안은 퇴계(退溪) 이황(李滉)¹³의 고향이고, 안동은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¹⁴의 고향이다. 이 고을 사람들은 이 두 분이 살던 곳에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서로 가까이 있는 이 다섯 고을에 사대부가 가장 많은데, 모두 퇴계와 서애의 문하생 자손들이다. 이들은 윤리와 의리를 밝히고 도학(道學)을 중히 여겨, 비록 외진 마을이거나 세력 잃은 마을이라도 어디서나 글 읽는 소리가 들리고, 해진 옷

10 정경 : 조선 때 정2품 이상의 벼슬. 즉, 의정부 참찬(議政府 參贊), 육조(六曹)의 판서(判書), 한성부 판윤(漢城府 判尹), 홍문관 대제학(弘文館 大提學)을 말한다.

11 요척 : 토지의 비옥함과 척박함.

12 이백 : 태백산과 소백산.

13 이황(1501~1570) : 학자이자 문신.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 본관은 진보(眞寶). 진사를 거쳐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우찬성을 거쳐 양관 대제학(兩館 大提學)을 지냈다. 시호는 문순(文純).

14 유성룡(1542~1607) : 문신이자 학자. 자는 이현(而見), 호는 서애(西厓). 본관은 풍산(豊山). 이황(李滉)과 문인. 사마시를 거쳐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충(文忠).

을 입고 향아리로 들창¹⁵을 한 집이라도 도덕과 성명(性命)¹⁶을 논한다.

그러던 것이 요새 와서는 이런 풍속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 비록 정성스럽고 점잖기는 하지만 도량이 좁고 공연한 일로 말다툼을 좋아하니, 옛날 같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도의 여러 고을은 이보다도 훨씬 못하다.

안동부의 관아는 화산(花山)¹⁷ 남쪽에 있다. 황강(潢江) 물은 동북쪽에서 흘러오고, 청송읍(靑松邑) 냇물은 임하(臨河)를 지나 흘러온다. 두 곳의 물이 동남방에서 합쳐져 고을의 성(城)을 한 바퀴 돌면서 서남쪽으로 흘러간다. 남쪽에 영호루(映湖樓)¹⁸가 있는데, 고려 공민왕이 남쪽으로 피란 왔을 때 이 누각에서 잔치를 벌이고 놀았다. 누각에 걸린 현판은 바로 공민왕이 쓴 것이다.

영호루 북쪽에는 신라 때 지은 옛 절이 있다. 지금은 폐사(廢寺)가 되어 비록 승려는 없지만 정전(正殿)만은 들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데 조금도 기울지 않아, 사람들은 이것을 노(魯)나라 때의 영광전(靈光殿)¹⁹과 비교해서 말한다.

서쪽에는 서악사(西岳寺)²⁰가 있다. 그 절에는 관왕묘(關王廟)²¹의 석상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 왜적을 토벌한 명나라 장수가 세운 것이다.

동남쪽에 있는 귀래정(歸來亭)²²은 옛날 이 고을 유수(留守)²³였던 이굉(李宏)²⁴이 지

15 향아리 창 : 가난한 사람이 집을 지으면서 밑 빠진 향아리를 벽에 끼우고 종이를 바른 창.

16 성명 : 인성(人性)과 천명(天命).

17 화산 : 안동 동쪽 14리에 있는 산.

18 영호루 : 안동 시내에 있는 누각.

19 영광전 : 중국 한(漢)나라 경제(景帝)의 아들 공왕(恭王)이 노(魯)나라 왕에 봉해졌을 때 지은 궁전. 그 뒤 한나라가 쇠해지자 도둑들의 발호에 미앙궁(未央宮)과 건장전(建章殿) 등 광장하던 궁전이 다 타 없어지고 허물어졌으나 이 영광전만은 홀로 우뚝 남았다 한다.

20 서악사 : 안동 서쪽 태화봉(太華峰) 남쪽에 있는 절.

21 관왕묘 : 중국 촉한(蜀漢)의 장수 관우(關羽)를 모신 사당. 우리나라에 관왕묘는 몇 되지 않으며, 관왕의 석상을 안치한 사당은 서악사의 관왕묘 한 곳뿐이다. 이곳의 관왕묘는 임진왜란 때 선조대왕이 꿈에 관왕(關王)이 나타나 거처를 걱정하는 것을 보고 지었다고 한다.

22 귀래정 : 안동 강 건너 편에 있는 정자.

23 유수 : 조선 때 개성(開城), 광주(廣州), 강화(江華), 수원(水原) 등 요긴한 곳을 맡아 다스리는 2품의 외관직(外官職).

24 이굉(1440~1516) : 문신. 자는 심원(深源), 호는 귀래(歸來). 본관은 고성(固城).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개성 유수(開城留守)에 이르렀다.

은 것이고, 동쪽에 있는 임청각(臨淸閣)은 이씨가 대대로 사는 집으로서, 이것들이 영호루와 함께 이 고을의 명승지로 꼽힌다.

고을에서 북쪽으로 2백 리쯤 되는 곳에 태백산이 있고, 산 아래에 내성(柵城)·춘양(春陽)·소천(召天)·재산(才山) 등 네 마을이 있다. 이 마을들은 모두 깊은 두메산골이라 산골 사람들이 모여 산다. 관동 바닷가에서 생산되는 물고기와 소금이 이 마을을 거치므로 경제적 이익이 있고, 병란(兵亂)을 피하거나 은둔해서 살 만한 곳이다.

이 네 고을 동쪽에 있는 영양(英陽)과 진보(眞寶) 두 고을도 풍속이 대략 비슷하다. 진보에서 동쪽으로 읍령(泣嶺)²⁵을 넘으면 바로 영해(寧海) 지방이며, 북쪽은 관동의 평해(平海)와 경계가 닿아 있다.

안동에서 남쪽으로 황수(潢水)를 건너면 팔공산(八公山)²⁶이 있고, 산 북쪽 황수 남쪽에 의성(義城) 등 아홉 고을이 있으며, 그 동남쪽이 바로 경주다.

북쪽 영해에서 남쪽 동래에 이르기까지 아홉 고을은 모두 영(嶺)마루 너머에 위치했는데, 남북은 길고 동서는 좁다. 바다가 가까워 물고기를 잡고 소금을 구워 이익을 얻는다. 이 중에서 경주는 아홉 고을 중에서 가장 큰 도회지다. 여기는 지금까지도 옛 도읍으로서의 풍습이 남아 있다. 조선조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고향이 된다.

팔공산 남쪽 큰 강 서쪽은 칠곡(漆谷)이고, 그 동남쪽은 하양(河陽)·경산(慶山)·자인(慈仁)이다.

이 경상도에는 성을 쌓아 지킬 만한 곳이 없으나, 오직 칠곡 관아가 있는 성은 만 길이나 되는 산 위에 쌓아, 남북으로 통하는 큰길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새가 되었다.

대구(大丘)는 감사가 다스리는 곳이다. 사방으로 높은 산이 막히고 가운데에 큰 들이 펼쳐져 있다. 들 가운데에는 금호강(琴湖江)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낙

25 읍령 : 오늘날의 이름은 울치(蔚峙).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石保面)과 영덕군 창수면(蒼水面) 사이의 고개이다.

26 팔공산 : 대구시와 경상북도 영천·군위군 사이에 있는 산. 은해사(銀海寺), 동화사(桐華寺) 등의 사찰이 있다.

동강 하류에서 합류한다. 고을 관아는 강 뒤에 있다. 여기는 이 도의 가운데이기 때문에 남북으로 거리가 같고, 지형이 빼어나게 아름답다.

대구 동남쪽에서 동래 사이에 여덟 개의 고을이 있다. 땅은 비록 비옥하지만 왜(倭)와 가까워서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밀양(密陽)은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²⁷의 고향이고, 현풍(玄風)은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²⁸의 고향이다. 강을 끼고 있는데 바다와도 가까워, 생선과 소금을 배로 운반하여 장사하는 이익이 있으니 번화하고 좋은 곳이다. 한양의 많은 통역자들이 머물면서 왜인과 거래의 장사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기도 한다.

밀양 동남쪽이 동래(東萊)다. 여기는 동남쪽 바닷가여서 왜인(倭人)이 상륙하는 관문이다. 임진년 이전부터 고을 남쪽 바닷가에 왜관(倭館)²⁹을 설치하고, 그 주위 수십 리에 목책을 두르고 군사를 주둔시켜 지키게 했다. 그리고 내국인의 출입과 그들과의 교제를 금했었다.

해마다 대마도(對馬島) 사람이 도주(島主)의 증명서를 가지고 왜인 수백 명을 데리고 와서 이 왜관에 머문다. 한편, 우리 조정에서는 경상도에서 바치는 세금 중에서 약간을 떼어서, 그 절반을 왜관에 머무는 왜인을 통해 도주(島主)에게 전하게 하고, 남은 절반은 조금씩 내주면서 그들이 나누어 쓰게 한다.

그들은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서로 오가는 서신과 물자 교역의 일을 처리할 뿐이다. 그리고 교역한 물자 대금을 즉시 지불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미루어 분할해 갚기로 약속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잡혔다고 한다.

왜국의 전 지역에는 장독(瘴毒)³⁰이 있는 샘이 많아 풍토병이 있다. 그러나 삼을 물

27 김종직(1431~1492) : 성리학자. 자는 계온(季溫), 호는 점필재(佔畢齋). 본관은 선산(善山).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형조판서·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영남학파의 조종. 시호는 문충(文忠).

28 김굉필(1454~1504) : 학자. 자는 대유(大猷), 호는 한훤당(寒暄堂). 본관은 서흥(瑞興). 김종직의 문하에서 소학(小學)을 배워, 스스로 소학동자(小學童子)라고 했다. 벼슬은 형조좌랑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경(文敬).

29 왜관 : 조선 때 왜인들을 회유(懷柔)하기 위해 웅천(熊川)의 제포(濟浦), 동래(東萊)의 부산포(富山浦), 울산(蔚山)의 염포(鹽浦) 등 세 곳에 관(館)을 지어 왜인들이 와서 머무르게 하고 물자를 교역하게 하던 곳. 뒤에 부산포만 남기고 두 곳은 폐쇄했다.

30 장독 : 장기(瘴氣). 열병의 원인이 되는 산천의 기운.

그릇에 담그기만 하면 탁한 장기가 녹아 없어진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삼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어, 먼 곳에 사는 왜인은 모두 대마도에 와서 구해 간다.

우리 조정에서는 일정한 양의 삼을 하사하는 한편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엄하게 금지한다. 그러나 이익이 하도 많기 때문에, 밀매하는 자를 아무리 처형해도 근절되지 않는다. 그런데 근래에는 금령(禁令)이 점점 해이해져 범법자가 늘어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삼 값도 날로 치솟기만 한다.

옛날 장헌대왕(莊憲大王)이 군사를 보내어 대마도를 토벌했으나, 거기에 관을 설치해 감시하지 않고 도주(島主)에게 땅을 돌려준 일이 있었다. 그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왜인을 왜관에 머물게 하지 않았을 것이니, 이런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 대마도는 원래 왜국에 속한 섬이 아니었다. 두 나라 중간에 있으면서 왜국을 핑계 삼아 우리나라와 가까운 체하기도 하고, 우리를 핑계 삼아 왜국과 가까운 체하고 있다. 박쥐처럼 처신하면서 저들의 이익만 취하고 있으니, 이를 토벌하여 우리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지 않으면 도주로 하여금 해마다 한 번씩 조회(朝會)³¹하도록 해, 순종하면 지난날 예에 따라 후하게 상을 주는 것은 옳지만, 관(館)을 지어 머물게 하고 조세를 실어다 주는 것은 마치 조공을 바치는 것 같아 명분이 서지 않는 일이다. 속히 폐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마도는 땅이 몹시 척박하고 인구가 많아, 고려 말에 해적 노릇을 하던 자들은 모두 이 섬사람들이었다. 그들을 달래서 도둑질하지 못하게 해 보려고 하지만 임시방편일 뿐이고 떳떳하지 못하다. 이런 예는 예전에도 없었다. 하물며 이미 우리 영토에 머물면서 우리 옷으로 변장하고 우리말까지 배워 국내 사정을 정탐할 염려까지 있지 않은가.

임진년에는 아무런 까닭도 없이 모두 몰려갔으니, 두 나라가 싸우는 동안 털끝만 큼도 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해만 입었다. 그러나 이런 시책을 실시해 온 지가 오래 되었으니 갑자기 시책을 바꾸는 것도 좋지 않다. 무력으로 우리의 위엄을 보인 뒤에 새로 약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31 조회 : 문무백관이 임금을 알현하던 일.

우도(右道)에는 조령(鳥嶺) 밑에 문경(聞慶)이 있다. 북쪽에는 우뚝 솟은 주흘산(主屹山)이 있고, 남쪽에는 대탄(大灘)³²이 있다. 서쪽에는 희양산(義陽山)과 청화산(靑華山)이 있고, 동쪽에는 천주산(天柱山)과 대원산(大院山)이 있다. 사방을 두른 산속에 들어 넓게 펼쳐진 영남 경계의 첫 고을이요, 남북으로 통하는 큰길과 접해 있다.

임진년에는 왜적이 북쪽으로 공격해 오면서 대탄에 이르러 몹시 두려워하다가, 수비군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야 비로소 지나갔다. 조령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대가 높은 고을이면서 너무 험한 산속이어서 살기(殺氣)³³를 조금은 벗었다고 풍수를 보는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남쪽은 함창(咸昌) 들이고, 함창 남쪽은 상주(尙州)다. 상주는 달리 낙양(洛陽)이라고도 하는데 조령 밑에 있는 큰 도회지다. 산이 웅장하고 들이 넓다. 북쪽으로는 조령과 가까워 충청도·경기도와 통하고, 동쪽으로는 낙동강에 임해 김해·동래와 통한다. 짐 나르는 말과 짐 실은 배가 남북에서 수로와 육로를 통해 모여드는데, 물자를 교역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 고장에는 부유한 자가 많고, 이름난 선비와 벼슬이 높은 사람도 많다.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³⁴와 창석(蒼石) 이준(李埈)³⁵은 모두 이 고을 사람이다.

상주 서쪽은 화령(火嶺)이고, 화령 서쪽은 충청도 보은(報恩) 땅이다. 화령은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³⁶의 고향이고, 그 동쪽에 있는 인동(仁洞)은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³⁷의 고향이다.

남쪽에 있는 선산(善山)은 산천이 상주보다 더욱 수려하다.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32 대탄 : 경상북도 구미시 북부에 있는 여울 이름.

33 살기 :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운 기운.

34 정경세(1563~1633) : 문신이자 학자. 자는 경임(景任), 호는 우복(愚伏). 본관은 진주(晉州). 서예 유성룡의 문인. 알성각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판서 및 대제학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장(文莊).

35 이준(1560~1635) 문신. 자는 숙평(叔平), 호는 창석(蒼石). 본관은 흥양(興陽). 별시에 급제하여 부제학(副提學)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간(文簡).

36 노수신(1515~1590) : 문신이자 학자. 자는 과회(寡梅), 호는 소재(蘇齋). 본관은 광주(光州).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 이름. 시호는 문간(文簡).

37 장현광(1554~1637) : 문신이자 학자. 자는 덕晦(德晦), 호는 여헌(旅軒). 본관은 인동(仁洞). 한강(寒岡) 정구(鄭矩)의 문인. 학행으로 천거를 받아 공조판서·지중추부사를 지냈다. 시호는 문강(文康).

조선 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 인재의 반은 선산에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학문하는 선비가 이 고을에 많았다. 임진년에 명나라 군사가 이곳을 지나갈 때, 명나라 술사(術士)³⁸ 한 사람이 외국에 인재가 많이 나는 것을 꺼린 나머지, 군사를 시켜 고을 뒤 산맥을 끊고 숲불을 피워서 땅속을 태우게 한 다음 큰 쇠 말뚝을 박게 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는 인재가 나지 않았다.

금산(金山) 서쪽은 추풍령이고, 추풍령 서쪽은 황간(黃澗)이다. 황악산(黃岳山)³⁹과 덕유산(德裕山)⁴⁰ 동쪽을 흐르는 물이 합쳐서 감천(甘川)⁴¹이 되었다가, 다시 동쪽으로 흘러 낙동강으로 들어간다. 이 감천에 인접한 고을이 지례(知禮)·금산·개령(開寧)인데, 선산과 함께 감천의 물을 끌어다 쓰는 혜택을 보고 있다. 여기는 전답이 아주 비옥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산다. 이들은 또 죄를 두려워하고 간사한 것을 멀리하는 까닭에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들이 많다. 금산은 판서를 지낸 최선문(崔善門)⁴²의 고향이다. 또 선산에는 금오산(金烏山)⁴³이 있는데, 주서(注書)를 지낸 야은(冶隱) 길재(吉再)⁴⁴의 고향이다. 최선문은 노산군(魯山君)⁴⁵을 위해 절의를 지켰고, 길재는 고려를 위해 충절을 지켰다.

감천 남쪽에는 선석산(禪石山)이 있고, 선석산 남쪽은 성주(星州)와 고령(高靈)이다. 고령은 옛 가야국(伽倻國) 땅이다. 고령 남쪽은 함천(陝川)으로, 고령과 함께 가야산(伽倻山) 동쪽에 있다. 이 세 고을의 논은 영남에서 가장 비옥해서 적은 씨

38 술사 : 풍수설이나 점술(占術)에 능통한 사람.

39 황악산 : 경상북도 김천시와 충청북도 영동군 경계에 있는 산.

40 덕유산 : 전라북도 장수군과 경상남도 함양군·거창군 사이에 있는 산. 산 위에는 향상봉(香箱峰), 산 아래에는 구천동(九川洞)이 있다.

41 감천 : 경상북도 김천시로 흘러 구미시 선산읍(善山邑) 원동(院洞)에서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하천.

42 최선문(?~1455) : 문신. 자는 경부(慶夫), 호는 동대(東臺), 본관은 화순(和順), 생원으로서 좌찬성에 기용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시호는 문혜(文惠).

43 금오산 :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북삼면, 김천시 남면 경계에 있는 산. 고려 말에 길재(吉再)가 숨어 있던 곳으로, 그를 제사 지내는 금오서원(金烏書院)이 구미시 선산읍 원동에 있다.

44 길재(1353~1419) : 학자. 자는 재보(再父), 호는 야은(冶隱), 본관은 해평(海平),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목은(牧隱) 이색(李穡)과 함께 고려 삼은(三隱)이라 불린다.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문하주서(門下注書)에 올랐다. 말년에 고향인 선산에서 후진 양성에 힘썼다. 시호는 충절(忠節).

45 노산군 : 폐위된 뒤의 단종(端宗) 칭호.

앗을 뿌리고도 많은 수확을 낸다. 그래서 이 고장 토착민들은 모두 부유하기 때문에 유랑하는 자가 없다.

성주는 산천이 수려해서 고려 때부터 이름난 선비와 지체 높은 인재들이 많이 나왔다. 조선조에 와서는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顙)⁴⁶과 한강(寒岡) 정구(鄭述)⁴⁷가 이 고을 사람이다.

합천 남쪽은 삼가(三嘉)다. 남명(南溟) 조식(曹植)⁴⁸의 고향인데, 김우옹·정구·정인홍(鄭仁弘)⁴⁹은 모두 남명의 문하생들이다. 인홍은 학자로 자처하면서 남명을 내세워 퇴계를 공격했는데, 인홍의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잘못된 지도를 받아 해를 입었다. 그러나 동강은 벼슬을 그만둔 후 성주로 돌아오지 않고, 인홍을 피해 청주(淸州) 정좌산(鼎坐山) 밑에서 살다가 생을 마쳤다.

인홍은 광해군 때에 대북파(大北派)의 수령으로서 벼슬이 영의정에 올랐으나, 인조반정으로 저잣거리에서 처형당했다. 하지만 성주 사람들은 의로운 행실을 좋아해서 끝내 집안을 보전할 수 있었으니, 이것은 동강과 한강의 가르침 덕분이었다. 덕유산(德裕山) 동남쪽에 있는 안음현(安陰縣)은 동계(桐溪) 정온(鄭蘊)⁵⁰의 고향으로, 그는 벼슬이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병자년에 청나라 군사가 남한산성⁵¹을 포위했을 때 동계는 배명항청(背明降淸)⁵²을 반대했다. 인조가 항복하려고 성에서 내려가자 동계는 칼로 배를 찢러 자결했다. 그러나 그의 자제들이 창자를 뱃속에 집어

46 김우옹(1540~1603) : 문신이자 학자. 자는 숙부(肅夫), 호는 동강(東岡). 본관은 의성(義城). 남명·퇴계의 문인.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부제학·이조참판·대사성에 올랐다. 시호는 문정(文貞).

47 정구(1543~1620) : 문신이자 학자. 자는 도가(道可), 호는 한강(寒岡). 본관은 청주(淸州). 퇴계에게 수학했고,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예빈시참봉·공조참판·대사헌에 올랐다. 시호는 문목(文穆).

48 조식(1501~1572) : 학자. 자는 건중(健仲), 호는 남명(南溟). 본관은 창녕(昌寧). 대학자로서 여러 번 벼슬을 제수 받았으나 나가지 않았다. 시호는 문정(文貞).

49 정인홍(1535~1623) : 문신. 자는 덕원(德源), 호는 내암(萊菴). 본관은 서산(瑞山). 남명의 문인. 학행으로 천거되어 영의정에 올랐으나, 인조반정으로 참형(斬刑)을 당했다.

50 정온(1569~1641) : 문신. 자는 휘원(輝遠), 호는 동계(桐溪). 한강의 문인.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참판을 지냈다. 시호는 문간(文簡).

51 남한산성 : 남한산(南漢山)에 있는 성. 본래 백제 시대의 성이었으나 지금은 그 흔적이 없고, 현존하는 성은 조선 광해군 때에 시작하여, 인조 때에 완성된 것이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이 성에 들어가 있었으나, 45일 만에 청나라 태종(太宗)에게 항복했다.

52 배명항청 : 명나라를 배신하고 청나라에 항복하는 일.

넣고 꿰매었더니 오랜 후에 깨어났다. 그러나 청나라 군사가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다.

안음 동쪽은 거창(居昌)이고, 남쪽은 함양(咸陽)이다. 그리고 산음(山陰)은 지리산 북쪽이다. 이 네 고을은 모두 땅이 비옥하다. 이 중에서 가장 산수가 좋다는 함양을 산수굴(山水窟)이라 하며, 거창·안음과 함께 이름난 고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산음만은 음침해서 살 만한 곳이 되지 못한다.

이 네 고을 물이 합쳐 영강(潁江)이 되었다가, 진주읍(晉州邑) 남쪽을 돌아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진주는 지리산 동쪽에 있는 큰 고을로, 장상(將相)⁵³이 될 만한 인재가 많이 나온다. 땅이 비옥하고 경치가 좋아, 사대부들은 부유한 살림을 자랑하고, 가옥과 정자 꾸미기를 좋아한다. 비록 벼슬은 못 해도 유유자적하는 공자(公子)라는 말을 듣는다.

임진년에 이 고을이 왜적에게 함락되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⁵⁴과 병사(兵使) 최경회(崔慶會)⁵⁵가 전사했다. 이 고장 사람들은 사당을 지어 제사 지내고, 조정에서는 충렬사(忠烈祠)라는 현판을 하사하여 그들을 표창했다.

숙종 때에 어떤 목사(牧使) 한 사람이 사당을 중수하고자 병사(兵使)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병사가 듣지 않자 목사 혼자서 자기 봉급을 내어 사당을 중수하니, 사당 모습이 새롭게 바뀌었다. 밤에 목사가 꿈을 꾸었는데, 여러 무장들이 자기에게 사례하고 말하기를,

“그대는 문관이면서도 우리를 추모(追慕)하는데, 저 병사는 무장이면서도 우리를 돌보지 않으니 그 죄를 다스리겠다” 하는 것이었다. 이튿날 새벽에 듣기로 병사가

53 장상 : 장수와 재상. 즉, 훌륭한 인재.

54 김천일(1537~1593) : 의병장(義兵將), 자는 사중(士重), 호는 건재(健齋). 본관은 언양(彦陽). 유일로 천거되어 군기시주부(軍器寺主簿)·임실 현감(任實縣監) 등을 지냈고, 임진왜란 때 선조가 몽진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고경명(高敬命)·박광옥(朴光玉)·최경회(崔慶會) 등에게 의병을 일으킬 것을 촉구하는 글을 보냈다. 그 뒤 호남에서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켰고, 뒤에 진주성을 사수하다가 성이 함락되자 아들과 함께 자결했다. 시호는 문열(文烈).

55 최경회(1532~1593) : 문신, 자는 선우(善遇), 호는 삼계(三溪). 본관은 해주(海州).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영해 군수(寧海郡守) 등을 지내고, 임진왜란 때 창의사가 되어 진주성을 사수하다가 전사했다. 시호는 충의(忠毅).

밤사이 갑자기 죽었다고 하니, 귀신이 아주 없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진주 동쪽은 의령(宜寧)과 초계(草溪)인데 풍속이 진주와 비슷하다. 영강 남쪽 열세 고을에는 옛날부터 출세한 사람이 드물다. 그리고 바다와 가까워 왜국과 이웃이 되고 샘물에 장기가 있어 살 곳이 못 된다. 오직 하동(河東)만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⁵⁶의 고향으로 지리산 남쪽에 있다. 그리고 전라도 광양현(光陽縣)과 경계가 된다.

그래서 “좌도에는 벼슬한 집이 많고, 우도에는 부자가 많으며, 간혹 천 년 된 유명한 마을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역이 서울과 너무 멀어, 본시 그 지역 사람이 아니면 사대부가 훌쩍 떠나기는 쉽지 않다. 정세로 보나 시대로 보나 떠날 수 없는 것이다.

56 정여창(1450~1504) : 문인이자 학자. 자는 백옥(伯勗), 호는 일두(一蠹). 본관은 하동(河東). 김종직의 문인. 학행으로 천거되어 소격서참봉(昭格署參奉)이 되었다가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안음 현감 등을 역임했다. 시호는 문헌(文獻).

전라도(全羅道)

전라도 동쪽은 경상도와 접해 있고 북쪽은 충청도와 접해 있다. 본래 백제 땅이었으나 신라 말에 후백제 견훤이 이 땅을 차지했는데, 고려 태조가 여러 번 공격하다가 위험에 빠지기도 했다. 견훤을 토벌한 뒤에는 백제 사람을 미워하여, “차령(車嶺) 이남의 물은 모두 지형을 거슬러 흐르고 있으니, 차령 이남 사람은 등용하지 말라”는 영을 내렸다. 중엽에 와서는 이따금 재상이 된 사람도 있었으나 드물었고, 조선조에 와서는 이 유명(遺命)이 호지부지되어 버렸다.

이 고장은 땅이 비옥하고, 서남쪽 바다에서는 생선 · 소금 · 벼 · 명주 · 솜 · 모시 · 닥나무 · 대나무 · 굴 · 유자가 생산된다. 풍속이 노래와 여자를 좋아하고 사치를 즐기며, 행실이 가볍고 간사하여 학문은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한 사람이 경상도만 못하다. 이것은 학문을 닦아 이름을 내려는 사람이 적었던 까닭이다. 하지만 인물은 땅의 정기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장에는 인물이 적지 않다.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¹은 광주 사람이고 일재(一齋) 이항(李恒)²은 부안 사람이며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³는 장성(長城) 사람인데, 이들은 도학(道學)으로 이름을 남겼다. 제봉(霽峰) 고정명(高敬命)⁴과 건재(健齋) 김천일(金千鎰)은 다 같이 광주 사람인데 절의(節義)로 이름이 높고,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⁵는 해남

- 1 기대승(1527~1572) : 성리학자. 자는 명언(明彦), 호는 고봉(高峰). 본관은 행주(幸州).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에 올랐다가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시호는 문헌(文憲).
- 2 이항(1499~1576) : 학자. 자는 항지(恒之), 호는 일재(一齋). 본관은 성주(星州). 처음에는 무예를 익히다가 뒤에 학문을 시작했다. 학행으로 천거되어 장악원정(掌樂院正)을 지냈다. 시호는 문정(文敬).
- 3 김인후(1510~1560) : 문신이자 유학자. 자는 후지(厚之), 호는 하서(河西). 본관은 울산(蔚山).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정자(正字), 박사(博士), 설서(說書), 부수찬(副修撰) 등을 역임했다. 시호는 문정(文正).
- 4 고정명(1533~1592) : 의병장. 자는 이순(而順), 호는 제봉(霽峰). 본관은 장흥(長興).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동래 부사(東萊府使)로 있다가 서인이 몰락하면서 낙향했다. 그 후 금산(錦山)에서 의병장으로 왜권과 싸우다가 전사했다. 시호는 충렬(忠烈).
- 5 윤선도(1587~1671) : 문신, 시인. 자는 약이(約而), 호는 고산(孤山). 본관은 해남(海南). 별시문과에

사람이고 묵재(默齋) 이상형(李尙馨)⁶은 남원 사람으로 모두 학문으로 유명했다. 장군 정지(鄭地)⁷와 금남(錦南) 정충신(鄭忠信)은 다함께 광주 사람인데 장수로 이름이 났고, 찬성(贊成) 오겸⁸은 광주 사람이고 의정(議政) 이상진(李尙眞)⁹은 전주 사람인데 재상으로 출세했다.

문장으로 고부(古阜)의 옥봉(玉峰) 백광훈(白光勳)¹⁰과 영암(靈巖)의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¹¹이 있고, 우거(寓居)한 사람으로 이름난 이는 순창(淳昌)의 부윤(府尹) 신말주(申末舟)¹², 김제(金堤)의 이상(貳相) 이계맹(李繼孟)¹³, 해남의 판서 이후백(李後白)¹⁴, 무안(務安)의 판서 임담(林潭)¹⁵이 있다.

도교의 도사 남궁두(南宮斗)는 함열(咸悅) 사람이고 청하(靑霞) 권극중(權克中)은 고부 사람인데, 선술(仙術)을 공부하여 이름이 났다. 이들은 모두 세상에 구애되지 않고 기개와 뛰어난 재주로 후세에 이름을 떨친 사람들이다.

왕원으로 급제하여 벼슬이 예조참의에 이르렀다. 많은 시조가 그의 유고에 실려 있다.

- 6 이상형(1585~1645) : 문신. 자는 덕선(德先), 호는 천묵재(天默齋). 본관은 전주(全州).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교리에 이르렀다. 사호는 충경(忠景).
- 7 정지(1347~1391) : 무신. 본관은 나주(羅州). 중랑장(中郎將)으로 시작하여 양광(楊廣)·진라·경상도의 절제체찰사(節制體察使)에 이르렀다.
- 8 오겸(1496~1582) : 문신. 자는 경부(敬夫), 호는 지족암(知足庵). 본관은 나주(羅州).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찬성(左贊成)에 이르렀다. 시호는 정간(貞簡).
- 9 이상진(1614~1690) : 문신. 자는 천득(天得), 호는 금강(琴岡).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정(忠貞).
- 10 백광훈(1537~1582) : 시인. 자는 가운(嘉運), 호는 옥봉(玉峰). 본관은 해미(海美). 선릉참봉(宣陵參奉)으로 관직에 나섰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산수를 즐기면서 시서에 열중했다. 시에 능했으며 글씨도 잘 썼다.
- 11 최경창(1539~1583) : 시인. 자는 가운(嘉運), 호는 고죽(孤竹). 본관은 해주(海州).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종성부사(鍾城府使)에 이르렀다. 시와 글씨에 뛰어났고, 청백리(淸白吏)에 뽑혔다.
- 12 신말주(1439~?) : 문신. 자는 자집(子楫), 호는 귀래정(歸來亭). 본관은 고령(高靈). 신숙주(申叔舟)의 아우.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에 이르렀다.
- 13 이계맹(1458~1523) : 문신. 자는 희순(希醇), 호는 묵곡(墨谷). 본관은 전의(全義).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평(文平).
- 14 이후백(1520~1578) : 문신. 자는 계진(季眞), 호는 청련(淸蓮). 본관은 연안(延安).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호조판서에 이르고, 청백리에 뽑혔다. 시호는 문청(淸淸).
- 15 임담(1596~1652) : 문신. 자는 재숙(載叔), 호는 청구(淸醜). 본관은 나주.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우참찬(右參贊)·예조판서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익(忠翼).

덕유산은 충청·경상·전라 삼도가 만나는 곳에 있다. 그 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한 줄기가 전주 동쪽에 이르러 마이산(馬耳山)의 두 봉우리가 되면서 우뚝 솟아 하늘에 닿을 듯하다. 옛날 공정대왕(恭靖大王)이 호남에서 무술을 익히다가, 산 모양을 본떠 마이(馬耳)라고 이름을 지었다 한다.

마이산의 한 줄기가 서남쪽으로 뻗어 임실(任實)과 전주 사이를 지나다가, 하나는 서쪽으로 금구(金溝) 모악산(母岳山)¹⁶이 되어 만경(萬頃)과 동진(東津) 두 강의 안쪽에서 그쳤고, 한 줄기는 서남쪽으로 가다가 순창의 부흥산(復興山)과 정읍의 노령(蘆嶺)¹⁷이 되었는데, 여기가 남쪽으로 통하는 큰길이다. 다시 노령에서 갈라진 산맥이 서쪽은 영광에서 그쳤고, 서남쪽은 무안에서 그쳤다. 또 북쪽은 부안의 변산(邊山)¹⁸에서 그치고, 동남쪽은 담양(潭陽)·광주 이하의 여러 산이 되었다.

부흥산은 전라도의 한복판에 있다. 양쪽에서 산을 끼고 들을 펼쳐 놓아 마을을 크게 만들고 시냇물은 동쪽으로 흐르니, 여기에 고을을 설치할 만하다고 한다. 숙종 때 여기에 병영을 옮기려 했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마이산 산맥이 북쪽으로 가다가 진안과 전주 사이에서 주줄산(珠峯山)¹⁹이 되었고, 여기서 서쪽으로 뻗은 한 줄기가 전주부(全州府)를 만들었는데, 이곳은 감사가 다스리는 곳이다. 동쪽에는 위봉산성(威鳳山城)²⁰이 있고, 조금 북쪽으로 가다가 기린봉(麒麟峰)²¹이 있다.

여기서 또 한 줄기 지맥이 내려와 부(府)의 서북쪽으로 가다가 건지산(乾止山)²²이 되었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목조(穆祖)²³의 능이 있는 곳이라 한다. 지금 임금

16 모악 : 이 산은 금구(金溝)의 동남쪽에 있는데, 금산사(金山寺)가 이 산에 있다.

17 노령 : 정읍(井邑) 남쪽에 있는 고개.

18 변산 : 부안(扶安) 서쪽 변산반도에 있는 산.

19 주줄산 : 용담(龍潭) 서쪽에 있는 산으로서, 오늘날에는 운장산(雲長山)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조선 중조 때의 성리학자로 율곡의 친구인 송익필(宋翼弼)(1534~1599)이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그 뒤 그의 자(字)인 운장(雲長)을 따서 운장산이라 부르게 됐다고 한다.

20 위봉산성 : 전주(全州) 동북쪽 청량산(淸涼山) 동쪽에 있는 산성. 길이 16km, 폭 3m, 높이 4.5m로, 태조의 초상화를 모셔두기 위해 1675년(숙종 1년)에 쌓았다.

21 기린봉 : 전주 남쪽에 있는 산.

22 건지산 : 전주 북쪽에 있는 산.

23 목조 :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

경술년²⁴에 조정에서 감사를 시켜 백성의 무덤을 옮겨 가게 하고 십여 리 주위에
꽃말을 세워 금벌(禁伐)²⁵하게 했다.

건지산의 한 산맥이 서쪽으로 가다가 덕지(德池)가 되었는데, 이곳은 매우 깊고도
넓다. 덕지를 지나서는 또 나지막한 언덕이 되어 큰 들을 한 바퀴 돌고 만마동(萬
馬洞) 물을 거슬러 받으니 지세가 아주 아름답다. 참으로 살 만한 곳이다.

주줄산 북쪽 여러 골짜기 물이 고산현(高山縣)을 지나 전주 경계에 들어와 울담(栗
潭)²⁶·양전포(良田浦)·오백주(五百洲) 등 큰 내가 된다. 이 내로 전답에 물을 대
기 때문에 땅이 매우 비옥하다.

그리고 이곳에는 벼·생선·생강·감자·대나무·감 등이 생산되어 모든 마을이
생필품에 부족함이 없다. 또 서쪽의 사탄(斜灘)으로는 생선과 소금을 실은 배가 다
난다. 관아가 있는 곳에는 인구가 많고 물자도 많이 쌓여 서울과 다름이 없으니,
역시 큰 도회지다. 노령 북쪽에 있는 십여 개의 고을은 모두 장기가 있으나, 오직
전주만은 공기가 맑고 서늘하여 가장 살 만한 곳이다.

주줄산 북쪽 한 줄기는 서쪽으로 뻗으면서 탄현(炭峴)²⁷과 용화산(龍華山)²⁸이 되었
다가 옥구(沃溝)에서 그쳤다. 탄현 너머 서북쪽에는 여산(礪山) 등 다섯 고을이 있
다. 여산은 충청도와 경계가 닿아 있는데, 땅이 질고 장기가 있어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용화산 위에는 옛날 기준(箕準)²⁹이 도읍했던 성과 궁궐터가 아직 남아 있다.
또 이 산의 한 지맥은 북쪽으로 가다가 여산 서북쪽에서 채운산(采雲山)³⁰이 되었
다. 외로운 봉우리 하나가 들 가운데 우뚝 솟아 있고 그 위에 양음영천(養蔭靈泉)
이 있는데, 백제 의자왕이 잔치를 벌이고 놀던 곳이라 전해진다.

채운산에서 조그만 들 하나를 건너면 황산촌(黃山村)이 있다. 돌로 된 산이 강에
이르러 절벽이 되었다. 은진(恩津)의 강경촌(江景村)과는 작은 바다 하나를 사이에

24 지금 임금 경술년 : 영조 8년(1730년).

25 금벌 :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함.

26 울담 : 위봉산성에서 발원한 안천(雁川)과 전주시를 돌아 흐르는 추천(楸川)이 합쳐지는 곳.

27 탄현 : 주줄산의 북쪽 산맥 금산(錦山) 서남쪽 월봉산(月峰山) 북쪽 고개.

28 용화산 : 익산 북쪽 여산(礪山) 남쪽에 있는 산으로, 오늘날에는 미륵산(彌勒山)이라 불린다.

29 기준 : 기자(箕子)의 손자.

30 채운산 : 여산 서북쪽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근처에 있는 산.

두고 있어서, 배가 드나드는 요지다.

서쪽은 용안(龍安)·함열(咸悅)·임피(臨陂)로서 진강(鎭江)의 남쪽이다. 임피의 오성산(五城山)³¹은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강을 거슬러 고을 터가 펼쳐졌는데, 여기에 서시포(西施浦)라는 큰 마을이 있다. 서시포는 배를 대는 곳으로, 강경·황산과 함께 강가에 있는 이름난 마을이다. 옛날 서시(西施)³²가 이곳에서 출생했다 해서 이런 지명이 생겼다고 전해진다.

임피의 서쪽에 있는 옥구는 서해에 임해 있다. 자천대(自天臺)의 조그마한 산기슭이 곧바로 바다로 들어갔는데, 그 위에 두 개의 돌로 된 궤가 있었다. 신라 때 최고운(崔孤雲)³³이 이 고을 의원으로 왔을 때 이 돌궤 안에 비밀문서를 감추어 두었다. 이 궤란 다름 아닌 한 덩어리의 큰 돌이다. 이것이 산기슭에 버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열어 보지 못했다. 혹시라도 이 돌을 움직이면 갑자기 바다에서 바람과 비가 몰려오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 날씨가 가물면 수백 명이 달려들어 큰 밧줄로 이 돌을 끌어당겼다. 그러면 바다에서 비가 갑자기 몰려와 밧고랑을 흡족하게 적셔 주곤 했다. 그러나 사객(使客)³⁴이 올 때마다 가 보게 되니 오히려 고을에 폐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이를 귀찮아하게 되었다. 옛날에는 여기에 정자도 있었으나 백 년 전에 허물어 버리고 돌 궤도 땅에 묻어 자취를 없애 버리니, 지금은 아무도 가 보는 사람이 없다.

탄현 동쪽은 고산현(高山縣)이고, 용화산 남쪽은 익산군(益山郡)이다. 여기는 모두 장기가 있는데다 고산은 더구나 지형이 험해서, 땅은 비록 비옥하고 넓지만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31 오성산 : 임피 북쪽에 있으며, 오성산(五聖山)으로도 쓴다.

32 서시 : 중국 춘추시대 월나라의 미인.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에 미인의 대명사가 됐다.

33 최고운 : 신라 말기의 학자·문장가인 최치원(857~?)을 말한다. 고운(孤雲)은 그의 자. 본관은 경주(慶州). 12세 때 중국 당나라에 유학하여 18세의 나이로 빈공과(賓貢科)에 장원으로 급제했다. 당나라와 신라에서 모두 벼슬을 했으나, 난세를 만나 뜻을 제대로 펴 보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 뒤 산과 바다를 유람하며 지냈으며, 말년의 행적은 전해지지 않는다. 고려 때 들어와 문창후(文昌侯)에 추봉(追封)되었다.

34 사객 : 임금의 명을 받고 파견된 사람을 연도의 고을 수령이 이르던 호칭.

모악산 서쪽의 금구와 만경 두 고을은 샘물이 많다. 그리고 살기(殺氣)를 벗은 산세가 들 북판으로 꺾여 돌고, 두 줄기의 물이 감싸듯이 흘러 정기(精氣)가 풀리지 않아, 살 만한 곳이 제법 많다.

그 밖에도 산과 가까운 태인(泰仁)과 고부, 그리고 바다와 가까운 부안과 무장(茂長) 등 고을은 모두 장기가 있다. 오직 부안과 변산의 옆과 흥덕(興德)·장지(長池)의 아래는 땅도 비옥하고 호수와 산의 경치가 좋다. 이 중에서 장기 없는 샘물만 택한다면 여기도 살 만한 곳이다.

노령의 서쪽은 영광·함평·무안이고 남쪽은 장성과 나주(羅州)다. 이 다섯 고을은 샘물에 장기가 없으니 노령 북쪽의 여러 고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영광 법성포(法聖浦)는 바다에서 밀물이 들어오면 바로 앞까지 물이 차서 호수와 산이 아름답고 민가가 즐비하여, 사람들은 이곳을 작은 서호(西湖)라 한다. 바다와 가까운 여러 고을은 모두 이곳에 창고를 지어 놓고 세미(稅米)³⁵를 반출하는 거점으로 삼는다. 장성도 역시 비옥한 땅이다.

나주는 노령 아래에 있는 도회지인데, 북쪽에는 금성산(錦城山)³⁶이 있고 남쪽으로는 영산강에 닿아 있다. 고을 관청의 모양은 한양과 흡사하고, 옛날부터 높은 벼슬을 지낸 집안이 많다.

영산강은 서쪽으로 무안과 목포로 흐른다. 이 강을 따라 내려가면 경치 좋은 마을이 많다. 강을 건너면 바로 큰 들인데, 이곳은 동쪽으로 광주와 경계가 닿아 있고 남쪽은 영암과 통한다. 기후가 화창하고 물자가 풍부하며, 또 땅이 넓어서 마을이 별처럼 많다. 또 서남쪽은 강과 바다를 통해 물자가 운송되는 이점이 있어, 광주와 함께 이름난 고을로 친다.

나주 서쪽은 칠산(七山) 바다다. 이 바다는 옛날에는 깊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토사가 쌓여 점점 얕아져서, 썰물이 빠지면 겨우 무릎이 잠길 정도다. 그 한복판에 생긴 물줄기로 만강 물이 흐르는데, 배는 이 물줄기를 통해 다닌다.

나주 서남쪽은 영암군인데 월출산(月出山)³⁷ 밑에 있다. 월출산은 지극히 수려하

35 세미 : 조세로 바치는 쌀.

36 금성산 : 나주 북쪽에 있는 산으로 나주의 진산(鎭山)이다.

37 월출산 : 영암 남쪽에 있는 산. 신라 때에는 월내악(月奈岳)이라 했고, 고려 때에는 월생산(月生山)이

여 화성(火星)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국³⁸이다. 산 남쪽은 월남촌(月南村)이고 서쪽은 구림촌(鳩林村)이다. 이 모두 신라 때 이름난 마을로서, 서해와 남해가 맞닿는 곳이다. 신라에서 당나라에 사신이 갈 때는 항상 이 고을 바닷가에서 배가 떠났다. 바닷길로 하루를 가면 흑산도에 이르고, 흑산도에서 하루를 가면 홍의도(紅衣島)에 이르며, 여기에서 또 하루를 가면 가가도(可佳島)에 이른다. 여기서 북동풍을 만나 사흘을 가면 태주(台州) 영파부(寧波府) 정해현(定海縣)에 도착하게 되는데, 순풍을 만나면 하루 만에 도착할 수도 있다.

남송(南宋)이 고려와 왕래할 때 정해현 바닷가에서 배로 떠나 칠 일 만에 고려 국경에 도착해서 상륙했다는 곳이 바로 여기다. 당나라 때 신라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당나라로 들어가던 모습이, 지금 통진(通津)³⁹ 나루에 배가 몰려 있는 것과 같았다. 당시 최치원 · 김가기(金可紀) · 최승우(崔承祐)는 장삿배에 편승해 당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과거에 급제하기도 했다.

고운(孤雲)은 고변(高駢)⁴⁰의 종사(從事)가 되기도 했는데, 위낙 사육체(四六體)의 문장에 능해, 지금도 전해 오는 변려문(駢儷文)⁴¹으로 쓴 <황소격문(黃巢檄文)>⁴²이라는 것이 바로 고운의 글이다. 고운은 김가기 · 최승우 두 사람과 함께 종남산(終南山)⁴³ 절에서 신천사(申天師)를 만나 《내단비결(內丹秘訣)》⁴⁴이라는 책을 받아, 후일 본국에 돌아와 같이 수련하면서 선인(仙人)의 술법을 터득했다.

부흥산 동쪽이 임실(任實) · 순창 · 남원 · 구례인데 이 고을들은 모두 산골이다. 마

라 불렀다.

38 화성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국 : 뗏부리가 뽕뽕뽕뽕한 모양을 말한다.

39 통진 : 한강 하구에 있던 나루.

40 고변 : 중국 당나라 사람. 시인이며 황소(黃巢)의 난 평정에 공이 있다.

41 변려문 : 글 한 귀가 4자 또는 6자씩이고 글귀가 서로 대구(對句)로 되어 있는 한문 문체. 이때문에 당나라 시대부터는 사육문(四六文)이라 부르기도 했다.

42 황소격문 : 중국 당나라 말기에 황소(黃巢)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의 죄를 꾸짖기 위해 최치원이 881년에 지은 글이다. 어쩌나 명문장이었던지 황소가 전투 중에 말 위에서 이 글을 읽다가 말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43 종남산 : 중국 섬서성(陝西省) 장안현(長安縣)에 있는 산.

44 내단비결 : 신선이 되는 방법을 적은 책.

이산 남쪽 골짜기 물이 임실을 지나 남쪽으로 남원에 이르러 요천(蓼川)⁴⁵과 합수해서 잔수진(漣水津)과 압록진(鴨綠津)⁴⁶이 되며, 이 물 서쪽은 옥과(玉果)·동복(同福)·곡성(谷城)이다.

물은 압록진에서 비로소 동쪽으로 돌아 악양강(岳陽江)⁴⁷이 되면서 남쪽의 바닷물과 통하고, 다시 지리산 남쪽을 따라 섬진강이 되어 남해로 들어간다. 이 강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가 된다.

남원성의 성곽은 임진년에 명나라 장수 양원(楊元)이 쌓은 것이다. 이 성은 또한 정유년에 왜적에게 함락되기도 한 곳이어서 이 지방에는 아직도 은은히 살기가 감돌고 있다.

동쪽으로 노령(蘆嶺)을 넘으면 운봉현(雲峰縣)이다. 지리산 팔랑치(八良峙)⁴⁸ 위에 있어,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를 통하는 큰길이 된다. 고을 앞 황산(荒山)⁴⁹은 고려 말에 우리 태조가 왜적을 크게 무찌른 곳이기도 하다.

고을 동남쪽에 있는 성원(星園)은 최씨 집안이 대를 이어 살아오는 곳이다. 산천의 경치가 매우 좋다. 또 남쪽은 구례현(求禮縣)이다. 성원에서 구례까지는 들이 펼쳐 있는데, 땅 1묘(畝)에서 곡식 1종(種)을 수확하는 곳이 많다.

구례 서쪽은 봉동(鳳洞)인데 경치가 아름답다. 동쪽에는 화엄사(華嚴寺)와 연곡사(燕谷寺)의 경치 좋은 곳이 있고 남쪽에는 구만촌(九灣村)이 있다. 임실에서 구례까지 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이름난 곳과 경치 좋은 곳이 많고 큰 마을도 많다. 그 중에서도 구만촌은 냇가에 위치하여, 강산과 토지와 함께 배를 이용해 생선과 소금을 얻을 수 있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

남원과 구례는 모두 지리산 서쪽에 있다. 섬진강 서쪽에 있는 세 고을과 함께 옛날에는 모두 장기(瘴氣)가 있어서 살기 나쁜 곳이라 했지만, 근래에는 조금 맑아졌다

45 요천 : 남원을 앞으로 흐르는 시내.

46 잔수진 · 압록진 : 섬진강 상류에 있는 나루터.

47 악양강 : 지리산 천왕봉(天王峰)에서 발원하여 쌍계사(雙溪寺) 계곡을 지나 악양동(岳陽洞)에서 섬진강과 합쳐진다.

48 팔랑치 : 남원에서 함양(咸陽)으로 넘어가는 고개.

49 황산 : 운봉(雲峰) 북쪽에 있는 산.

고 한다.

부흥산 남쪽 산맥이 담양과 창평(昌平)을 거쳐 광주 무등산(無等山)이 되었다. 산 동쪽에는 옥과(玉果)를 비롯한 세 고을이 있고, 서남쪽은 광주·화순(和順)·남평(南平)·능주(綾州)로서 영암의 바로 동북쪽이 된다. 이 중에서 오직 광주는 서쪽으로 나주와 통한다. 풍토와 기후가 탁 트여서 옛날부터 경치 좋은 마을이 많고 또 고귀한 인물도 많았다.

영암의 동남쪽 바닷가에 있는 여덟 고을은 풍속이 거의 비슷하다. 그중에도 해남(海南)과 강진(康津)은 탐라(耽羅)⁵⁰에서 바다를 건너오는 길목이라서, 말·소·가축·진주·조개·굴·유자·말털·대나무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린다. 하지만 이 여덟 고을은 모두 서울에서 너무 멀고 남해와 가까워서, 겨울철에도 초목이 말라 죽지 않고 벌레도 모습을 감추지 않는다. 거센 산바람과 바다 기운이 찌는 듯하여 장기가 있으며, 또 일본과 아주 가까워서 땅은 비록 비옥해도 살기 좋은 곳은 못 된다.

해남현 삼주원(三洲院)⁵¹에서 석맥(石脈)이 바다를 건너와 진도군(珍島郡)이 되었다. 물길로 삼십 리이며, 벽파정(碧波亭)⁵²이 바로 그 어구가 된다. 물속의 석맥(石脈)은 삼주원에서 벽파정까지 옆으로 길게 누워 마치 다리와 같고, 이 다리 위와 아래는 끊어져서 계단과 같다.

바닷물이 밤낮 없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면서 폭포처럼 쏟아지니, 물살이 매우 사납다.

임진년에 왜승(倭僧) 현소(玄蘇)⁵³가 평양에 와서 의주(義州)에 계신 임금께 이런 글을 보냈다.

“수군 십만 명이 또 서해로 오면 수륙으로 일시에 진격할 터인데, 대왕의 수레는

50 탐라 : 제주도의 옛 명칭.

51 삼주원 : 삼기원(三岐院)을 말한다. 화원반도 우수영(右水營) 남쪽에 있다.

52 벽파정 : 삼주원 건너편에 있는 정자.

53 현소 : 일본 하카타에 있는 성복사(聖福寺) 중으로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을 받고 우리나라를 왕래하면서 일본과의 수호(修好)와 통신사의 파견을 요구해 왔다. 임진왜란 때에는 국사(國使)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역관 자격으로 종군했다.

장차 어디로 가시렵니까?”

이때 왜적의 수군은 남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던 중이었다. 그때 우리 수군 대장이 이순신(李舜臣)⁵⁴은 바다 위에 주둔하면서, 쇠사슬을 이 다리에 건너질러 매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왜적의 전선(戰船)이 다리에 오자 곧 쇠사슬에 걸려 다리 밑으로 거꾸로 떨어졌다. 그러나 다리 위에 있는 배에서는 낮은 곳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선 배가 거꾸로 떨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 다리를 넘어서 순조롭게 내려간 것으로 알다가 모두 거꾸로 엎어지고 말았다. 또 다리 가까이 오면 물살이 더욱 사나웠다. 배가 급류에 휩싸이자 돌아갈 겨를도 없이 5백여 척이나 되는 전선이 모두 침몰하니,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때 심유경(沈維敬)⁵⁵은 왜적의 사자를 꺾어서 평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했다. 그런가 하면 왜적은 수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합세해서 북상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들도 약속을 지키는 체하면서 후일을 기다렸지만, 수군은 도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양쪽에서 서로 속이는 틈을 타서 이여송(李如松)이 왜적을 격파했으니, 이것은 역시 천운이었다. 이순신이 왜적의 전선을 바닷속에 얹어 버리지 않았더라면 수십 일도 채 되지 않아 왜적의 배가 평양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적의 수군이 도착했더라면 왜적이 어찌 심유경과 맺은 약속대로 공격하지 않았겠는가.

그때 이런 사정을 모르고 구차스럽게 “왜국을 왕으로 봉하고 조공하는 것도 허락한다”는 말로 왜의 마음을 샀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러니 이여송이 평양에서 거둔 공은 곧 이순신의 공인 것이다.

54 이순신(1545~1598) : 자는 여해(汝諧), 본관은 덕수(德水), 식년무과에 급제하여 임진란 때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서 왜군 격파에 절세의 무공을 남겼으며, 벼슬은 삼도수군통제사에 이르렀다. 풍덕부원군(豐德府院君)에 추봉되었고, 시호는 충무(忠武).

55 심유경 : 중국 명나라 절강성(浙江省) 사람. 본래 상인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화의(和議)가 일자 스스로 교섭을 자원했다. 조선·일본·명나라 사이에 강화회담을 맡아 진행하면서 농간을 부림으로써 결국 정유재란(丁酉再亂)을 초래했다. 양국 간에 교섭이 결렬되어 자신의 거짓이 탄로되자 처형의 위기에 몰렸으나, 병부상서(兵部尙書) 석성(石星)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에 왔다. 그러나 일본에 투항을 기도하다가 의령(宜寧)에서 명나라 장수 양원(楊元)에게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그 후 명나라 장수 진린(陳璘)⁵⁶이 군사를 이끌고 바다 위에 주둔하고 있을 때, 병신년과 정유년 사이에 왜적의 수군이 바닷가 여러 고을을 계속 침범했으나 이순신이 해전을 성공으로 이끌어 여러 번 왜적을 무찔렀다.

그러나 이 해전에서 얻은 적의 수급(首級)⁵⁷은 언제나 진린에게 넘겨주어 진린으로 하여금 자기의 공으로 보고하게 했다. 진린은 몹시 기뻐하면서 우리 조정에 보고하기를 “통제사(統制使)는 천하를 경륜할 만한 인재이며, 나라와 임금에게 한없이 큰 공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진린은 이순신이 도와준 덕으로 왜적의 수급을 얻은 것이 매우 많았다. 그리하여 무술년에 명나라 군사가 돌아갈 때 여러 장수들 중 진린이 왜적의 수급을 가장 많이 바치게 되었다. 그 후 명나라 역사책에 왜적을 물리친 공을 논한 대목에 보면 진린의 공이 첫째라고 해서 상으로 땅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모두 이순신의 공이었다는 것을 중국에서 어찌 알랴. 양호(楊鏞)⁵⁸는 공이 있었는데도 참소(讒訴)로 체포되었고, 진린은 남의 힘으로 공을 세워 홀로 많은 상을 받았으니, 명나라도 상벌이 공평하지 못했다.

전라도는 나라의 가장 남쪽에 있어서 물산이 풍부하다. 비록 산골짜기 마을이라도 냇물을 끌어대기 때문에 흉년이 적고 수확이 많다. 바닷가 고을들은 독을 막고 물을 대는데, 신라 때부터 내려오는 큰 독을 우리나라에 와서 그대로 버려둔 까닭에 가뭄이 잦고 수확이 적다.

옛날에 속수공(涑水公)⁵⁹이 민(閩)⁶⁰ 지방 사람들은 교활하고 음흉하다고 했으나 주자(朱子) 때에 와서는 어진 사람이 많이 나왔다. 진실로 어진 사람이 그 지방에 살

56 진린 : 중국 명나라 사람. 무장. 자는 조작(朝爵). 임진왜란 때 통령보정산동등처방해어왜(統領保定山東等處防海御倭)에 임명되어 구원병을 이끌고 우리나라에 왔다.

57 수급 : 전쟁터에서 벤 적의 머리.

58 양호 : 중국 명나라의 장수.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도 소사(素砂)에서 왜적을 크게 무찔렀다.

59 속수공 : 중국 송(宋)나라 사람 사마광(司馬光). 속수(涑水)라는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수공이라 불렀다.

60 민 : 중국 복건성(福建省)을 말한다. 민은 원래 중국 오대십국 가운데 909년에 왕십지(王審知)가 복주(福州)를 도읍으로 삼고 세운 나라로서, 945년에 내분으로 남당(南唐)에게 멸망당하였다.

면서 부유한 생업을 바탕으로 예의와 학문과 행실을 가르친다면 살지 못할 땅은 아니다. 또 산천의 경치가 좋고 훌륭한 곳이 많은데,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큰 변란이 없었으니 한번쯤은 모여 있던 정기가 나타날 만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땅이 멀고 풍속이 천박해서 살 곳이 못 된다.

충청도(忠淸道)

충청도는 경기도와 전라도 사이에 있다. 서쪽은 바다와 접해 있고, 동쪽은 경상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북쪽 모퉁이에 있는 충주 고을 등은 강원도 남쪽으로 쏙 파고 들어갔다. 남쪽 절반은 차령 이남에 있어서 전라도 북쪽과 가깝고, 절반은 차령 북쪽에 있어서 경기도와 이웃하고 있다.

물산(物産)은 비록 영남이나 호남만 못하지만, 지대가 높지 않고 아름다우며 서울 남쪽과 가까워서 사대부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리고 대대로 서울에 살면서 이 도에 논밭과 집을 마련해 놓고 생활의 근거지로 삼지 않는 이가 별로 없다. 또 서울과 가까워서 풍속도 서울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터만 잘 고르면 가장 살 만한 곳이다.

충청도 감사는 공주에 있게 된다. 이곳은 백제 말에 당나라 장수 유인원(劉仁願)¹이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를 설치했던 곳이다. 한양까지 거리는 삼백 리이며, 차령 이남 금강(錦江) 남쪽에 있다. 공주에서 금강을 건너 차령을 넘고 천안과 직산(稷山)을 지나면 북쪽으로 경기도 양성(陽城)에 이르게 되고, 진위(振威)·수원·과천을 지나면 서울에 다다르게 된다. 이 길을 따라 직산 이북은 곳곳에 들이 산재해 있는데, 땅도 척박한데다가 좀도둑이 많아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충청도에서는 내포(內浦)가 제일 좋다.

공주에서 서북쪽으로 2백 리쯤 되는 곳에 가야산(伽倻山)²이 있다. 서쪽은 큰 바다요, 북쪽은 경기도 바닷가에 있는 고을과 큰 못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여기는 서해가 육지 쪽으로 쏙 파고 들어온 곳이다. 동쪽은 큰 들이고, 들 가운데에는 큰 포구가 하나 있다. 이 포구를 유궁진(由宮津)³이라 하는데, 밀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배가 다니지 못한다.

남쪽은 오서산(烏棲山)⁴이 막고 있어 산 동남쪽으로 공주로만 통할 수 있다. 오서

1 유인원 : 중국 당(唐)나라가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킨 후 그 지역을 지키던 당나라 장수.

2 가야산 : 해미(海美)와 덕산(德山) 사이에 있는 산. 높이 578m.

3 유궁진 : 아산만 남쪽 포구. 즉, 범근내포(犯斤乃浦)를 말한다.

4 오서산 : 오늘날 광천과 청양 사이에 있는 산. 오사산(烏史山)이라 기록된 곳도 있다.

산은 가야산의 한 지맥이다. 이 가야산의 앞뒤에 있는 열 고을을 모두 내포라 한다. 이곳은 지세가 한쪽 구석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큰길목이 아니기 때문에, 임진년과 병자년 두 차례 난리를 치렀어도 적군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 비옥한 평야인데다가 생선과 소금이 매우 흔하기 때문에 부자가 많고 대를 이어 살아오는 사대부 집안이 많다.

하지만 바다에 가까운 곳은 학질과 열병이 많다. 산천은 비록 평탄하고 넓지만 아름답지 못하고, 구릉과 원습(原隰)⁵은 비록 아름답기는 하지만 천석(泉石)이 별로 아기자기하지 못하다. 보령(保寧)만은 그중에서 산천이 가장 훌륭하다.

보령 고을 서쪽에 수군절도사의 군영이 있고, 이 군영 안에 영보정(永保亭)이 있다. 여기는 호수와 산의 경치가 아름답고 앞이 흰기 트여서 명승지로 일컬어진다. 북쪽에는 결성(結城)과 해미(海美)가 있고, 서쪽으로는 큰 개펄 하나를 건너 안면도(安眠島)가 있다. 이 세 고을은 모두 가야산 서쪽에 있고, 북쪽에는 태안(泰安)과 서산(瑞山)이 있다. 이곳은 강화도와 남북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서산 동쪽은 면천(沔川)과 당진(唐津)이고, 당진 동쪽으로 큰 개펄을 건너면 아산이다. 여기에서 다시 북쪽으로 엇비슷하게 조그만 바다를 사이에 두고 경기도 남양(南陽)의 화량(花梁)과 마주 보고 있다. 이 네 고을은 모두 가야산 북쪽에 있다. 가야산 동쪽은 홍주(洪州)와 덕산(德山)이다. 두 고을은 모두 유궁진(由宮津) 서쪽에 있어서, 포구 동쪽인 예산(禮山)·신창(新昌)과 함께 뱃길로 서울과 통하여 매우 가깝다. 홍주의 동남쪽은 대흥(大興)과 청양(靑陽)인데, 대흥은 백제의 임존성(任存城)이다. 이 열한 고을은 모두 오서산 서쪽에 있다. 오서산 앞의 한 산맥이 남쪽으로 가다가 성주산(聖住山)⁶이 되고, 서쪽으로는 비인(庇仁)과 남포(藍浦)가 된다.

이 고을들은 땅이 매우 비옥하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와 닿아 있어 생선·소금·쌀이 많이 생산된다. 산 남쪽은 서천(舒川)·한산(韓山)·임천(林川)으로, 진강(鎭江)

5 원습: 원(原)은 높고 건조한 땅, 습(隰)은 낮고 습한 땅을 말한다.

6 성주산: 오늘날 대천과 청양 사이에 있는 산. 높이 680m.

가에 있다. 땅이 모시를 재배하기 적당해서 모시 생산이 전국에서 으뜸이다. 강과 바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수운(水運)의 편리함이 서울만 못할 것이 없다. 진강 남쪽은 전라도와 경계가 된다.

산 동북쪽에는 홍산(鴻山)과 정산(定山)이 있다. 홍산은 임천 북쪽에 있는데 동쪽으로는 강경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고, 정산은 청양(靑陽) 동쪽에 있는데 공산(公山)과 인접해 있다. 이 일곱 고을은 풍속이 비슷하다. 또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 집안이 많다. 그러나 청양과 정산 두 고을은 샘물에 장기가 있어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공주는 지역이 아주 넓다. 금강 남쪽과 북쪽에 걸쳐 있는데, 그 고장 사람들 사이에 “첫째가 유성(儒城)⁷이고, 둘째가 경천(敬天)⁸이며, 셋째가 이인(利仁)⁹이고, 넷째가 유구(維鳩)¹⁰”라는 말이 전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살 만한 고장을 차례대로 한 말이다.

공주 동남쪽으로 사십 리 되는 곳에 계룡산(鷄龍山)¹¹이 있다. 이 산은 전라도 마이산 산맥의 끝이고 금강 남쪽이다. 산맥의 한 줄기가 서쪽으로 내려오다가 크게 끊어져서 판치(板峙)가 되고, 다시 솟아 공주의 진산(鎭山)인 월성산(月城山)¹²이 되었다.

금강은 동쪽에서 고을 북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웅진이 되고, 백마강과 강경강이 되었다가 다시 서쪽으로 틀어 진강(鎭江)이 되어 바다로 흘러든다.

고을 동쪽에서 강 남쪽 언덕을 따라가다가 계룡산 뒤에서 큰 고개를 넘으면 유성 넓은 들이 나온다. 이 들은 계룡산 동북쪽이 된다.

조선조 건국 초기에 계룡산 남쪽 마을에 도읍을 정하려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

7 유성 : 대전 서쪽 계룡산(鷄龍山) 동쪽에 있는 온천 도시. 현재는 대전광역시에 편입돼 있다.

8 경천 : 계룡산 서쪽 기슭 노성(魯城) 북쪽에 있는 마을.

9 이인 : 부여 동북쪽 공주 서남쪽 금강가에 있는 마을.

10 유구 : 공주와 예산 사이에 있는 마을.

11 계룡산 : 공주 남쪽에 있는 명산. 높이 845m.

12 월성산 : 공주 남산.

다. 이 골짜기 물이 들 가운데를 가로질러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면서 진산(珍山)과 옥계(玉溪)의 물과 합류한 다음 북쪽으로 금강에 흘러드는데, 이 내가 갑천(甲川)이다.

이 내의 동쪽은 회덕현(懷德縣)이고, 서쪽은 유성촌(儒城村)과 진잠현(鎭岑縣)이다. 동서 양쪽 산이 남쪽으로 들을 감싸다가 북쪽으로 와서 서로 종횡으로 교차되면서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들 가운데에는 높지 않은 언덕이 꾸불꾸불 뻗어 있어 산기슭이 깨끗하고 아름답다.

구봉산(九峰山)과 보문산(寶文山)이 남쪽에 솟아 있는데, 그 맑고 밝은 기상이 한양 동쪽 교외보다 더 나은 것 같다. 여기는 땅이 비옥하고 넓지만, 바다가 좀 멀어서 서쪽에 있는 강경에서 교역한다. 강경까지는 백 리가 채 안 된다.

계룡산의 서남쪽 네 고을은 모두 큰 들 가운데 있는데, 강경나루가 서쪽 끝이고, 북쪽으로는 공주와 경계가 되어 있다. 계룡산의 네 봉우리 중 한 줄기가 서쪽으로 뻗어내려 경천촌(敬天村)이 되었는데, 판치(板峙) 남쪽이다. 땅이 비옥하고 산이 웅장하며, 주민들은 부유하고 물자가 풍부하다.

동쪽은 공주 대장촌(大莊村)이고 서쪽은 이산(尼山)과 석성(石城) 두 고을이며, 또 남쪽은 연산(連山)과 은진(恩津)이다. 이산과 연산은 산이 가까우면서도 땅이 비옥하고, 은진과 석성은 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땅이 척박해서 홍수와 가뭄을 자주 당한다.

이 네 고을은 경천촌과 한 들로 연결되었다.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강경을 거쳐 드나들기 때문에, 들을 흐르는 여러 냇물과 골짜기에 배가 다닐 수 있다.

강경은 은진 서쪽에 있다. 들 가운데에 조그만 산 하나가 강가에 우뚝 솟아 동쪽으로 뻗었고, 좌우로 두 줄기 큰 냇물이 마주 흐른다. 뒤로는 큰 강이 바다와 닿아 있는데 물맛이 별로 짜지 않다. 마을에는 우물이 없어 집집마다 큰 독을 땅에 묻고 강물을 길어다 부어 둔다. 며칠이 경과하면 양금이 가라앉아 윗물이 맑아지는데, 며칠이 지나도 물맛이 변치 않을 뿐 아니라 오래될수록 더욱 시원해진다. 수십 년 동안 장질(瘴疾)을 앓던 사람이라도 일 년만 마시면 병이 깨끗이 낫는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의 약간 짙절한 물이 풍토병을 고치는 데

가장 좋은데, 이 강물이 제일”이라고 한다.

은진 동쪽의 사제천(沙梯川)은 동남쪽으로 고산(高山)과 진산(珍山) 경계로 흐르는 데, 80리나 되는 긴 골짜기에는 냇물과 땅에 모두 장기가 있어서 살 곳이 못 된다. 공주 서남쪽은 부여(扶餘)다. 바로 백마강(白馬江)가에 있는 이 고을은 백제의 옛 도읍지다. 조룡대(鈞龍臺)¹³ · 낙화암(落花巖)¹⁴ · 자온대(自溫臺)¹⁵ · 고란사(皐蘭寺)¹⁶는 모두 백제 때의 고적이다. 강에 나가면 암벽이 아기자기하고 경치가 아주 좋다. 또 땅이 비옥해서 부유한 사람이 많지만, 도읍지로 말한다면 규모가 작고 좁아서 평양이나 경주보다는 훨씬 못하다.

이인역(利仁驛)은 부여의 동쪽이요 공주의 서쪽이다. 산이 나지막하고 들이 넓으며 땅도 비옥해서 살 만한 곳이다. 금강 북쪽과 차령 남쪽은 땅은 비옥하지만 산이 살기(殺氣)를 벗지 못했다.

금강(錦江)가에 사송(四松) · 금벽(錦碧) · 독락(獨樂)¹⁷ 등의 정자가 있는데, 사송은 우리 집안 정자이고, 금벽은 조상서(趙尙書)의 산장이며, 독락은 임(林)씨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정자다. 이 정자에 올라 강산의 경치를 감상할 만하다.

고을 서북쪽에 무성산(茂盛山)이 있다. 이 산은 차령(車嶺)의 서쪽 산맥이 뿔쳐서 생긴 산으로 토산(土山)이 빙 둘러 있다. 그 안에 마곡사(麻谷寺)와 유구역(維鳩驛)이 있다. 골짜기에는 시냇물이 많고 논이 비옥하다. 또 목화 · 기장 · 조를 경작하기에 알맞아서 사대부나 평민이 여기 와 살면 흉년이 들었는지 풍년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고 지낸다. 여유 있게 살 수 있어 유랑하거나 이사할 근심이 적으니, 이만하면 낙원이다.

산 위에 이루어진 터지만 언덕이 낮고 밋밋해서 험하거나 날카로운 모습이 아니

13 조룡대 : 부여 백마강가에 있는 바위.

14 낙화암 : 부여 백마강가에 있는 절벽 이름. 조룡대 서쪽에 있는데, 백제 의자왕(義慈王)이 당나라 군사에 패하자 의자왕을 모시던 많은 궁녀(宮女)들이 이 바위에 올라가 강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 한다.

15 자온대 : 부여 백마강가에 있는데, 백제의 왕이 여기에 와서 놀면 바위가 저절로 더워졌다 해서 이런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16 고란사 : 부소산(扶蘇山)에 있는 절.

17 독락정 : 공주에 있는 정자.

다. 또 산 중턱 위로는 돌이 하나도 없어 살기가 아주 적다. 그래서 남사고(南師古)¹⁸의 《십승기(十勝記)》¹⁹에 유구와 마곡사 두 골짜기 사이를 피란처라고 했다. 서쪽으로 고개를 하나 넘으면 바로 내포(內浦)다. 내포에는 목화 농사가 안 되어, 바닷가 주민들은 내포의 소금과 생선을 가지고 와서 유구의 목화와 바꾸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에서는 오직 유구에서만 내포의 생선과 소금의 상권을 쥐고 있다. 그래서 평시건 난시건 막론하고 살 만한 곳이다. 그러나 산 위에 자리 잡은 터기 때문에 안산(案山)²⁰이 보이지 않아 맑고 밝은 기상이 적다. 이 점만 유성만 못하다.

고을 북쪽에 조그만 산 하나가 강가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모양이 공(公)자와 같아서 이 고을 이름을 공주(公州)라고 했다 한다. 산세를 따라 조그맣게 성을 쌓고 강을 해자(垓字)로 삼았기 때문에, 비록 땅은 비좁아도 형세는 매우 견고하다.

인조가 갑자년에 이괄(李适)²¹의 난을 피해 공주에 온 일이 있었다. 임금은 늘 산 위에 있는 나무 두 그루에 기대어 북쪽으로 궁원(弓院)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 말을 탄 사람이 나는 듯이 달려오기에 까닭을 물으니 싸움에 이겼다는 것이었다. 인조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두 그루 나무에 통정(通政)²²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관아에서는 그 후 그 산 위에 조그만 정자를 지었다. 그때의 나무는 지금 말라 죽어 없어지고 정자만 남아 있다. 성 안에는 병기와 군량을 비축해 두어, 강화·광주와 함께 중요한 고장이 되었다.

18 남사고 : 조선 중엽의 학자. 호는 격암(格庵), 본관은 영양(英陽), 역학(易學), 풍수(風水), 천문, 복서(卜筮), 상법(相法)에 도통했다 한다.

19 십승기 : 기근과 병란의 염려가 없어 피란하기에 적당한 열 곳을 기록한 책. 그 열 곳은 공주의 유구(維鳩)와 마곡(麻谷), 무주(茂朱)의 무풍(茂豐), 보은(報恩)의 속리산(俗離山), 부안(扶安)의 변산(邊山), 성주(星州)의 만수동(萬壽洞), 봉화(奉化)의 춘양(春陽), 예천(醴泉)의 금당곡(金唐谷), 영월(寧越)의 정동(正東) 상류, 운봉(雲峰)의 두류산(頭流山), 풍기(豐基)의 금계촌(金鷄村) 등이다.

20 안산 :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산.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물은 안수(案水)라고 한다.

21 이괄(1587~1624) : 무신이자 반란자. 자는 백규(白圭), 본관은 고성(固城). 무과에 급제하여 함경북도 병마절도사가 되어 부임하기 전에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작전 지휘를 맡아 성공했다. 그 뒤 평안 절도사 겸 부원수로 있다가 반역하여 길마재 싸움에서 실패하고 이천에서 부하 장수들의 손에 죽었다.

22 통정 : 정3품 당상관인 문관. 통정대부.

성 북쪽에 있는 공북루(拱北樓)²³는 제법 웅장하고, 물가에 있어서 경치가 아름답다. 선조 때 서경(西峒) 유근(柳根)²⁴이 감사로 왔을 때 이 누에 올랐다가 시 한 수를 지었다.

소동파(蘇東坡)는 적벽(赤壁)에 놀았으나
나는 창벽(蒼壁)에 놀고
유량(庾亮)은 남루(南樓)에 올랐지만
나는 북루(北樓)에 올랐네

창벽(蒼壁)은 금강 상류에 있고, 누의 이름이 공북루이기 때문에 한 말이었다. 어떤 사람은 서웅(徐凝)의 수준 낮은 시²⁵와 같다고 하지만, 서경은 아름다운 글귀라고 자찬했다.

속리산의 맥이 남쪽으로 뻗어 추풍령(秋風嶺)에서 끊어졌다가 다시 솟아 황간(黃澗) 황악산(黃岳山)이 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전라도로 들어가 무주(茂朱)의 덕유산(德谷山)이 되고, 또 장수(長水)와 남원 사이에서 끊어졌다가 서쪽으로 뻗어 임실(任實)의 마이산이 되었다.

여기서부터는 돌산 한 줄기가 거꾸로 북쪽으로 뻗어 주류산(珠旒山) · 운제산(雲梯山) · 대둔산(大菴山)이 되고, 다시 충청도로 들어와서 금강을 뒤로 돌아 계룡산이 되었는데, 남북으로 통하는 큰 영(嶺)이다.

덕유산과 마이산의 동쪽과 서쪽 여러 고을의 내와 골짜기 물이 모여서 금강의 근원이 되었다. 이것을 적등강(赤登江)이라 하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른다. 이것이 옥천(沃川) 동쪽에 와서 다시 속리산의 물과 합치고 서쪽으로 굽으면서 금강이

23 공북루: 청주 북쪽 3리 되는 곳에 있는 누(樓).

24 유근(1549~1627): 문신, 자는 회부(晦夫), 호는 서경(西峒), 본관은 진주(晉州),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정(文靖).

25 서웅의 수준 낮은 시: 서웅이 어느 폭포를 구경하면서 지은 시에 “한 줄기 물이 청산의 빛깔을 갈라 놓았다(一條界 破靑山色)”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훌륭하다고 칭찬했지만 소동파(蘇東坡)는 수준 낮은 시라며 “서웅의 나쁜 시를 씻어내 버리고자 한다(欲爲徐凝洗惡詩)”는 말로 비판한 일이 있었다.

된다.

적등강의 동쪽이 장수·무주·영동·황간·청산·보은이고, 서쪽은 진안·용담(龍潭)·금산·옥천이다. 이 중에서 장수·무주·금산·용담·진안은 전라도고, 옥천·보은·청산·영동·황간은 충청도다. 무주와 장수는 덕유산 밑에 있는데, 큰 숲과 깊은 골짜기가 많아 산세가 답답하다.

영동은 속리산과 덕유산 사이에 있다. 동쪽에 있는 추풍령은 덕유산에서 뻗어 온 산맥이 정기(精氣)를 멈춘 곳이다. 비록 영(嶺)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평지나 다름 없다. 그래서 산은 많지만 너무 거칠거나 웅장하지도 않고 너무 낮거나 밋밋하지도 않다. 바위와 봉우리가 다 같이 윤택하고 기운이 맑으며 계곡이 맑고 깨끗하다. 사랑스러울 뿐 조금도 추하거나 험상궂은 모양이 없다. 땅이 비옥하고 물이 많기 때문에 물 대기가 쉬워서 가뭄을 별로 타지 않는다.

청산도 만찬가지다. 북쪽은 보은과 닿아 있는데, 보은은 땅이 매우 척박하다. 오직 관대(館垓)만은 속리산의 남쪽과 증항(甌項) 서쪽에 있는데, 들이 넓고 땅이 비옥해서 가장 살 만한 곳이다. 두 고을은 모두 대추가 잘 열려 주민들은 대추를 팔아서 살아간다.

보은 북쪽 회인현(懷仁縣)은 첩첩산중에 있다. 고을은 아주 작지만 풍계촌(楓溪村)은 살 만하다.

마이산 밑에 있는 진안 땅은 담배 농사에 알맞다. 높은 산 꼭대기에 심어도 잘 자라서 주민 대부분은 담배 농사로 살아간다.

북쪽에 있는 용담은 시내와 산이 아기자기하고 경치가 좋다. 또 주줄천(珠峯川)과 반일암(半日巖)은 피란 고장이다. 그 북쪽은 금산이고 또 그 북쪽은 옥천이다. 금산과 옥천에는 돌산이 많지만, 모두 들 가운데에 따로 떨어져 있다.

옥천 북쪽은 금강과 닿아 있고, 서쪽은 회덕(懷德)과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산천이 깨끗하고 흙빛이 맑고 수려해서, 마치 한양 동쪽 교외와 같다. 들이 매우 척박해서 논농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오로지 목화 농사로 살아간다. 이것은 땅이 목화 농사에 알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학문하는 선비가 많

이 나왔으니, 학사(學士) 남수문(南秀文)²⁶과 우재(尤齋) 송시열(宋時烈)²⁷이 모두 이 고을 사람이다.

금산은 동쪽으로 적강(赤江)에 닿았고 서쪽은 대둔산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중간에 조계(釣溪)·진락(進樂) 두 산이 있고, 또 큰 냇가 많아서 물 대기가 쉽기 때문에 땅이 자못 비옥하다. 게다가 수석(水石)이 아름다워 열 고을 중에서 가장 살 만한 곳이다.

속리산은 청주 동쪽 백 리 되는 곳에 있다. 그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동쪽으로 흐르는 것은 경상도 낙동강으로 흘러들고, 서쪽으로 흐르는 것은 충주 달천(達川)²⁸이 되어 한강으로 흘러든다. 또 산맥 한 줄기가 북쪽으로 뻗어 가면서 거대령(巨大嶺)이 되고, 다시 달천을 끼고 서북쪽으로 경기도 죽산(竹山) 경계에 와서 칠장산(七長山)이 되었다. 칠장산에서 한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간 줄기는 흩어져 한강 남쪽의 여러 산이 되었고, 서남쪽으로 간 줄기는 한 고개의 줄기가 되었다.

진천에서는 대문령(大門嶺)이 되고 목천(木川)에서는 마일령(磨日嶺)이 되었다. 전의읍(全義邑)에서 크게 끊어져 서쪽은 평지가 되었다가 금강 북쪽에 와서 차령이 되었다. 또 서쪽으로 무성산(茂盛山)과 오서산(烏棲山)이 되었다가, 남쪽으로는 임천(林川)과 한산(韓山)에서 그쳤으며, 북쪽은 태안과 서산에서 그쳤다.

마일령의 동쪽과 거대령의 서쪽 중간에는 큰 들이 펼쳐져 있는데, 동쪽과 서쪽 두 산의 물이 들 가운데에서 합류해 작천(鵲川)²⁹이 되었다. 작천 물의 근원은 진천(鎭川) 칠정(七亭)의 동쪽이다. 여기서 나온 물은 남으로 금강 상류인 부용진(芙蓉津)으로 흘러든다.

작천 서쪽에서 서쪽 산 옆에 있는 것은 목천·전의(全義)·연기(燕岐)이고, 작천 동쪽에서 동쪽 산 옆에 있는 것은 청안(淸安)·청주·문의(文義)다. 이 중에서 청

26 남수문(1408~1443) : 학자. 자는 경집(景質), 호는 경재(敬齋). 본관은 고성(固城).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에 이르렀다.

27 송시열(1607~1689) : 학자. 자는 영보(英甫), 호는 우암(尤庵), 우재(尤齋). 본관은 은진(恩津). 생원시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정(文正).

28 달천 : 청주 서쪽에 있는 강. 덕천(德川)이라고도 한다.

29 작천 : 진천·청안·청주 등지를 거쳐 연기로 흘러 금강과 합류하는 강.

주가 가장 큰데, 공주 동북쪽으로 백 리 거리에 있다. 이 고을들은 거대령 밑에 있다. 땅이 작천 서쪽을 넘어서 옥천과 연기 사이로 들어왔다가 서산(西山)에서 그쳤다. 서산 한 줄기가 꾸불꾸불 남쪽으로 내려온 것은 모두 토산(土山)뿐이고 돌은 없다.

작천 서쪽에서 돌아 북쪽 목천과 전의에서 남쪽 연기까지는 산 빛이 아름답고 고우며 들 형세가 겹겹으로 싸여서, 감여가(堪輿家)는 말하기를 살기를 벗었다고 한다. 이곳은 금산·옥천보다도 더욱 평탄하고 토지가 매우 비옥해서 오곡과 목화 농사에 적합하다.

작천 동쪽은 넓은 들이 동남쪽으로 사십 리가 넘게 펼쳐져 있다. 들 가운데에 봉우리 여덟 개로 된 산이 있는데 이것을 팔봉산(八峰山)이라 한다. 남쪽에서 서북쪽으로 이어져 있다. 산등성이와 산기슭이 모두 들 가운데에 모여 동쪽으로 거대령과 마주하고 있다. 흰 모래, 얇은 냇물, 밋밋한 산등성이, 비스듬한 산기슭이 경기도의 장단읍(長湍邑)과 비슷하다.

고을은 서쪽을 향해 있다. 지대가 낮고 내는 높아서 해마다 물난리를 걱정하게 된다. 고려 말에 정도전(鄭道傳)³⁰이 재상으로 있으면서 태조의 모신(謀臣) 구실을 했는데, 목은(牧隱) 이색(李穡)³¹과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³² 등 어진 사람들을 꺼렸다. 그래서 이들을 귀양지에서 청주 옥으로 잡아 오게 한 다음 관원을 보내 심문하게 했다. 그런데 이들을 심문하던 날 갑자기 큰 비가 쏟아져 물이 삼시간에 성문을 넘어 관아의 뜰에까지 흘러넘쳤다. 그러자 심문하던 관원과 죄인들은 뜰에 있는 나무에 기어올라 겨우 목숨을 건졌다.

이런 소식을 듣자 태조도 그들의 원통한 심정을 이해하고 풀어 주게 했다. 그러나

30 정도전(1342~1398) : 학자. 자는 종지(宗之), 호는 삼봉(三峰). 본관은 봉화(奉化). 문과에 급제하여 고려조의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냈으며, 조선조 개국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이후 왕자의 난 때 방원(芳遠)에 의해 참수(斬首)됐다. 시호는 문헌(文憲).

31 이색(1328~1396) : 문신이자 학자. 자는 영숙(穎叔), 호는 목은(牧隱). 본관은 한산(韓山),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아은(台隱) 길재(吉再)와 함께 여말삼은(麗末三隱)이라 불린다. 회시(會試)·전시(殿試)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제학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정(文靖).

32 이숭인(1349~1392) : 문신. 자는 자안(子安), 호는 도은(陶隱). 본관은 성주(星州).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예문관 제학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충(文忠).

이승인은 정도전이 가장 꺼리던 터였으므로 끝내 사형을 당하게 됐다. 땅이 동쪽은 높고 북쪽은 낮아서 은은한 살기가 감돈다.

이 고을에는 병마절도사의 영(營)이 있다. 무신년에 역적 이인좌(李麟佐)³³가 밤에 군사를 일으켜 병사 이봉상(李鳳祥)과 영장(營將) 남연년(南延年)을 죽이고 성을 점령했다. 그리고는 같은 무리인 신천영(申天永)을 병사로 삼아 거기 머물게 하고 고을 군사를 모두 동원해서 북쪽으로 올라갔지만, 안성에서 순무사(巡撫使) 오명항(吳明恒)에게 패하고 말았다.

동쪽으로 거대령을 넘으면 상당산성(上黨山城)이 있고, 동쪽으로는 청천창(靑川倉)이 있다. 청천창 서쪽은 신(申)씨 마을이고, 남쪽으로 조그만 고개를 넘으면 인풍정(引風亭)과 옥류대(玉流臺)인데 이곳은 변(卞)씨 마을이다.

큰 산 사이에 있는 냇물과 골짜기 바위들은 자못 그윽한 운치가 있다. 또 동쪽으로 큰 시내를 건너면 구만(龜灣)으로, 시내와 산의 경치가 아주 훌륭하다. 상당(上黨)과 청천(靑川)을 합쳐서 산동(山東)이라고 한다. 지대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차서 청주 들보다는 못하다.

남쪽에는 속리산이 있고 동쪽에는 선유산(仙遊山)이 막혀 있다. 북쪽에는 속리산 줄기가 북쪽으로 달리며 둥글게 감싸고 있다. 북쪽은 막혔고 남쪽은 열렸는데, 그 안에 이름난 마을이 많이 있다. 이 고장에서는 철이 생산되고 관곽(棺槨)을 짜거나 궁궐을 짓는 데 쓰는 재목이 흔해서,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여기 와서 구해 간다.

청천에서 동북쪽으로 수십 리를 가면 송면촌(松面村)이 있다. 문경과 괴산(槐山)·청주 세 고을이 만나는 곳에 있는데, 시내와 산이 자못 아름답다. 청천 남쪽에는 용화동(龍華洞)이 있는데, 서남쪽으로는 속리산과 매우 가까우면서도 별로 험하지 않다. 조그마한 들이 있으나 몹시 척박하다. 산골에는 부락이 있고, 그 남쪽은 울치(栗峙)다.

용화동 물이 청천에서 속리산 물과 합류해서 북쪽으로 괴산 송계(松溪)로 흐르는

33 이인좌(?~1728) : 반란자. 본관은 광주(廣州). 소론이 실각하자 불평분자를 규합해 밀풍군(密豐君) 탄(坦)을 추대하고, 무력에 의한 정권쟁탈을 피하여 상여에 무기를 싣고 청주에 잠입, 충청 병마절도사 이봉상(李鳳祥)을 죽였다. 자칭 대원수라 하고 죽산으로 진격하다가 패하여 처형당했다.

데, 남쪽과 그 위아래로 물을 따라 경치 좋은 곳이 많다.

북쪽은 진천(鎭川)이다. 진천은 청주와 비교하면 들이 적고 산이 많다. 겹겹이 산 골이며 큰 내가 많다. 그러나 지세가 화창하고 땅이 매우 비옥하다. 서북쪽으로 대문령(大門嶺)을 넘으면 안성(安城)과 직산(稷山)이다. 바다에서 겨우 백 리이기 때문에 생선과 소금으로 이득을 본다.

문의(文義)는 남쪽으로 형강(荊江) 가에 있으며, 산에 울창한 빛이 적다. 그러나 강가에 있기 때문에 경치 좋은 곳이 많다. 오직 청안(淸安)은 산수가 상스러워 살 곳이 못 된다.

목천 마일령(磨日嶺) 서쪽의 내포(內浦) 동쪽과 차령 이북의 천안·직산·평택·아산·신창(新昌)·온양·예산 등 일곱 고을은 풍속이 대략 비슷하다.

그러나 남쪽은 산골로서 산골 가까운 곳은 땅이 비옥해서 오곡과 목화 농사에 적당하고, 북쪽은 포구와 섬으로서 포구와 섬에 가까운 곳은 척박한 땅과 비옥한 땅이 반반이다. 비록 생선과 소금이 생산되고 해운이 편리하지만, 목화 농사에는 적합하지 않다.

천안과 직산은 남북으로 통하는 큰길이다. 직산에서 들로 이십 리쯤 가면 들이 끝나는 곳에 소사하(素沙河)가 있는데, 소사하의 북쪽이 곧 경기도 남쪽 경계다.

옛날 선조 정유년에 왜적이 양원(楊元)이 수비하는 남원을 함락하고 전주를 지나 북쪽으로 공주에 진격해서 기세가 등등했다. 그때 명나라 장수 형개(邪玠)는 총독으로 요동에 주둔해 있었고 경리(經理) 양호(楊鎬)가 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새로 평양에 도착했다. 막 연광정(練光亭)에서 저녁을 먹는 중인데, 말이 달려와 첩보를 전했다.

양호는 포 한 방 쏘아 명을 내리고 말에 올라 남쪽으로 달려가니, 기병이 그 뒤를 따르고 보병은 기병의 뒤를 따랐다. 이리하여 평양에서 서울까지 7백 리 길을 하루 낮과 이틀 밤에 달려왔다. 달단(韃靼) 장수 해생(鮮生)·파귀(擺貴)·새귀(賽貴)·양등산(楊登山) 등 네 장수에게 칠갑 기병 4천 명과 말 탄 원승이 수백 마리를 거느리고 소사하 다리 밑, 들이 끝나는 곳에 매복하게 했다.

그때 왜적은 직산에서 북상중이었는데 그 형세가 마치 숲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매복 장소에서 백여 보 앞에 왔을 때 말 탄 원숭이를 풀어 놓자, 원숭이는 말을 타고 채찍을 휘두르며 왜적의 진으로 돌진했다. 왜국에는 본래 원숭이가 없기 때문에,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원숭이를 처음 보고 놀라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러자 적진에 다다른 원숭이는 말에서 내려 돌격해 들어갔다. 왜적은 사로잡으려 했으나 원숭이가 재빠르게 잘 피하면서 온 진증을 뚫고 돌아다니자 혼란에 빠졌다. 이 틈을 타 해생 등이 철기(鐵騎)를 몰고 들어가 짓밟았다. 왜적은 총과 화살을 한 번도 쏘아 보지 못하고 대패하여 남쪽으로 달아나니, 쓰러진 시체가 들을 덮었다.

승전보가 전해지자 양호는 비로소 군사를 정돈하고 남쪽으로 왜적을 쫓아 경상도 바닷가까지 이르렀다. 왜적이 우리나라를 침범한 이래로 이런 승리는 일찍이 없었다. 그 지략과 절제(節制)의 공은 이여송(李如松)의 평양 싸움보다 월등했다. 그러나 주사(主事) 정응태(丁應泰)는 양호가 자기와 의논하지 않고 혼자 공을 세운 것이 분해서 승전이 거짓이라고 보고하니, 양호는 탄핵을 받아 본국으로 소환되었다. 이 한 가지 일만 보아도 명나라 조정도 별 수 없다는 것을 알겠다. 선조가 사신을 보내 양호가 무고당한 것이라고 밝히자 정응태도 벼슬자리가 바뀌었다.

그러나 그는 동림당(東林黨)³⁴과 결탁했고, 응태의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동림당에 호소했다. 전목재(錢牧齋)도 그 말을 믿고 자기의 문집에 응태가 옳다고 기록했으니, 동림당의 허술함과 군자란 쉽게 속아 넘어감을 알겠다. 여기서는 들에서 밭 갈던 사람들이 지금도 가끔 창이나 칼 같은 것을 줍는다.

유궁포(由宮浦)의 물이 북쪽으로 흘러와 소사하와 합류하는데, 이 두 줄기 물이 서로 만나는 곳이 아산현(牙山縣)이다.

칠장산(七長山) 큰 산맥이 직산 성거산(聖居山)에 이르러 다시 한 산맥이 들 가운데

34 동림당 : 송(宋)나라 때 중국 무석(無錫)에 동림서원(東林書院)을 세웠는데, 명(明)나라 말기인 만력(萬曆) 연간에 고헌성(顧憲成) 등이 그 서원을 중수하고 고만룡(高攀龍) 등과 학문을 강론했다. 그러다가 차츰 조정의 정사를 평론하고 인물을 평하게 되어 사대부들이 많이 여기에 따르다가 드디어 동림당(東林堂)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그러나 이들은 수많은 정적(政敵)을 만들었고, 반동림당 세력이 결집하여 결국 수많은 관련자들이 해직·고문·투옥·처형당하고 사실상 없어지고 말았다.

데로 뻗었는데, 이 산맥이 성환역을 지나 아산 영인산(靈仁山)에서 멈추었다. 이 산이 바로 이 고을의 진산(鎭山)이다. 산은 동남쪽에서 서북쪽을 향하고 있고, 소사하의 하류가 여기에 와서는 산 바로 앞을 돌아 꺾어 있다. 등 뒤로는 곡교(曲橋)의 큰 내가 동남쪽에서 흘러오는데, 이 양쪽 물이 서북쪽에서 합쳐져 큰 호수가 되었다.

호수 남쪽의 산 하나는 신창(新昌)에서 뻗어 왔고 호수 북쪽의 산 하나는 수원에서 뻗어 왔는데, 이 산들이 수구(水口)에서 서로 얹혀 마치 문과 같다. 물이 이 문을 지나 유궁포의 하류와 합류하는데, 공산(公山)이 큰 배에 돛을 단 것처럼 보이게 한다. 공산은 모두가 돌이다. 강 가운데 우뚝 서서 마치 발해(渤海) 한가운데의 갈석산(碣石山)과 같다.

나라에서는 영인산 북쪽 바닷가에 창고를 지어 놓고, 바다 가까이에 있는 충청도 여러 고을에서 거둔 조세를 해마다 배에 실어 서울로 운반한다. 그래서 이 호수를 공세호(貢稅湖)라 부른다.

이 지방에는 본래부터 생선과 소금이 풍부한데, 창고가 생긴 후부터 사람들과 장사꾼이 모여들어 잘사는 집이 많다. 꼭 창고가 있는 마을만 그런 것이 아니다. 영인산의 산맥이 두 줄기 물 사이에 그쳐서 그 기세와 맥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산의 전후좌우가 모두 이름난 고을이며 사대부 집안도 많다.

유궁포의 동쪽과 서쪽 여러 고을에는 모두 장삿배가 다니지만, 그중에서도 예산은 배가 정박하는 도회지가 되어 있다.

차령에서 서쪽으로 뻗은 산맥이 북쪽으로 떨어지면서 광덕산(廣德山)이 되었고, 다시 떨어져서 설라산(雪羅山)이 되어 온양 동쪽에 솟아 있다. 민중보전(閔中莆田)의 호공산(壺公山)이 하늘 가운데 우뚝 솟아 마치 홀(笏)을 세운 모양과 같은데, 이 산이 그와 흡사하다. 이 산을 동남쪽에 있는 길(吉)한 방위라고 하는 것은, 아산과 온양 등 여러 고을에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과 학문을 공부한 선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충주는 청주 동북쪽 백여 리 되는 곳에 있다. 청주에서 청안(淸安)의 유령(楡嶺)을 넘고 괴산을 지나 달천(達川)을 건너면 충주읍이 되는데, 이곳은 한양에서 동남쪽

으로 삼백 리가 된다.

속리산의 아홉 여울 여덟 구비의 물이 북쪽으로 청주 산동에 와서 청천(靑川)³⁵이 되고, 괴산에 와서 괴강(槐江)³⁶이 되며, 충주읍에 와서는 달천이라 부른다. 다시 북쪽으로 금천(金遷) 앞에 이르면 청풍강(淸風江)³⁷과 합류하게 된다. 임진년에 명나라 장수가 달천을 건너다가 물맛을 보고 중국 여산에 있는 수렴(水簾)과 같다고 했다. 이 읍은 한강 상류가 되어 물길로 왕래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서울 사대부들이 터를 장만해 둔 곳이 많다.

달천에서 물을 거슬러 서남쪽으로 가면 괴강에 이르고, 다시 동쪽으로 거슬러 가면 청풍에 이른다. 여기는 사대부의 정자와 누각이 많고, 의관을 차려 입은 사람과 배와 수레가 모여든다. 또 수도의 동남쪽에 있기 때문에 한 고을에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많이 나오기로는 팔도에서 으뜸이고 보니, 이름난 도회지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경상도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 좌도에서는 죽령(竹嶺)을 지나 이 읍에 통하고, 우도에서는 조령(鳥嶺)을 지나 이 읍에 통하게 된다. 두 고갯길이 모두 이 읍에 모였다가 수로나 육로로 한양으로 통한다. 고을이 경기도와 영남을 잇는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반드시 서로 차지하려고 할 것이다.

이 고을은 국토의 중앙이라서 마치 중국의 형주(荊州)나 예주(豫州)와 같기 때문에, 임진년에 신립(申瑰)³⁸이 왜적에게 패한 곳도 이 지방이었다. 그래서 보통 때에도 살기가 하늘을 찌르고 태양은 빛이 없다. 또 지세가 서북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해서 정기(精氣)가 머물지 않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적다. 주민이 많아 늘 말이 많고 사람들이 경박해서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하지만 이것은 이 고을의 읍(邑)이 그렇다는 것이다.

35 청천 : 화양동(華陽洞) 청화산(靑華山)에서 흐르는 물과 속리산 물이 합친 물.

36 괴강 : 청천 하류 괴산 남쪽에 있는 강.

37 청풍강 : 영월 청풍을 흐르는 남한강 상류.

38 신립(1546~1592) : 무장. 자는 임지(立之), 본관은 평산(平山), 무과에 급제하여 온성부사(穩城府使)로 있을 때 여진의 추장 니탕개(尼湯介)가 쳐들어오자 격퇴하고 개설했다. 임진왜란 때 삼도도순변사(三道都巡邊使)로 탄금대(彈琴臺)에서 배수의 진을 쳤다가 실패하자 강물에 투신 자살했다. 시호는 충장(忠壯).

읍에서 서쪽으로 달천을 건너면 속리산이고, 이 산에서 북쪽으로 뻗은 한 줄기가 음성현(陰城縣) 서쪽에 우뚝 솟아올라 가섭산(迦葉山)³⁹과 부용산(芙蓉山)⁴⁰이 되었다. 다시 여기서 뻗은 산맥이 하나는 금천(金遷)에서 그쳤고, 하나는 가흥(嘉興)에서 그쳤으며, 나머지 산기슭은 달천 서쪽을 돈다. 땅은 오곡과 목화 농사에 적합하고 토질이 아주 비옥하다. 산골 사이마다 마을이 섞여 있는데, 부유한 자도 제법 많다.

그중에서도 금천과 가흥이 가장 번창하다. 금천은 두 강물이 마을 앞에서 합류한 다음 마을을 돌아 북쪽으로 흘러가므로, 동남쪽으로는 영남의 물화(物貨)를 받아들이고 서북쪽으로는 한양과 생선 및 소금을 거래하기 때문에 민가가 뻘뻘이 들어차서 한양의 여러 강촌과 비슷하다. 또 배와 배가 서로 맞닿아 모여 있는 모습이 큰 도회지처럼 보인다. 가흥은 금천 서쪽 십여 리 되는 곳에 있다. 강이 동남쪽에서 서북쪽으로 흘러가고, 마을은 남쪽 강가에 있다.

부용산 한 줄기가 강을 거슬러 우뚝 솟아 장미산(薔薇山)⁴¹이 되었는데 이것이 가흥의 주산(主山)이다. 나라에서 여기에 창고를 설치했다. 영 남쪽의 경상도 일곱 고을과 영 북쪽의 충청도 일곱 고을에서 이 창고에 조세를 거두어들이고 수운판관(水運判官)을 시켜서 뱃길로 서울에 실어 나른다. 이곳 주민들은 객주업(客主業)⁴²을 하는데, 곡식을 출납할 때 관여하면서 이익을 챙겨 때로는 많은 이익을 볼 때도 있다. 두 마을에는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벼슬에 오른 사람의 집안도 많다.

가섭산 일대 밖의 속리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산맥을 작은 속리산이라고 한다. 여기서 다시 한 줄기가 거슬러 뻗으면서 옥장산(玉帳山)과 팔성산(八聖山)⁴³이 되었다가 말마리(抹馬里)에서 그쳤는데, 이곳은 기묘 때⁴⁴의 명현(名賢)이었던 십청(十淸) 김세필(金世弼)⁴⁵이 낙향해서 살던 곳이다. 그의 자손이 지금까지 대를 이어가

39 가섭산 : 음성 북쪽에 있는 산.

40 부용산 : 음성 서북쪽 죽산 동남쪽에 있는 산.

41 장미산 : 충주 서쪽 금천(金遷)과 목계(木溪) 사이에 있는 산.

42 객주업 : 옛날에 여관업과 중개업을 겸했던 업제.

43 팔성산 : 음죽 남쪽 부용산 북쪽에 있는 산.

44 기묘 때 : 기묘(己卯)사화를 말한다. 1519년, 중종 14년.

45 김세필(1473~1533) : 문신. 자는 공석(公碩), 호는 십청현(十淸軒). 본관은 경주. 식년문과에 급제하

며 살고 있다. 민가가 수백 호인데 모두 부유하게 살고 있다. 마을 앞에 있는 큰 내
에서 물을 끌어대기 때문에, 논 1묘(畝)에서 1종(鐘)을 수확하는 곳이 많아 옛날부
터 이곳은 흉년이 별로 들지 않는다.

한양에서 2백 리밖에 되지 않고 수로도 여주와 통해서 참으로 살 만한 곳이다. 이
지방 사람은 금천·가흥·말마리와 강 북쪽에 있는 내창(內倉)을 가리켜 충주의
사대촌(四大村)이라 한다.

읍에서 서북쪽으로 칠 리쯤 가면, 두 강이 합류하는 곳 안쪽에 작은 산 하나가 솟
아 있다. 이것은 신라 때 우륵선인(于勒仙人)⁴⁶이 가야금을 타던 곳으로, 탄금대(彈
琴臺)⁴⁷라 한다. 탄금대에서 강을 건너 북쪽으로 가면 북창(北倉)으로, 강가에 있는
암석의 경치가 좋다. 북창 서쪽은 기묘 때의 명현(名賢) 탄수(灘叟) 이연경(李延
慶)⁴⁸이 살던 곳이다. 그 후 자손이 십 대를 내려오면서 과거에 오르는 자가 끊이지
않으니, 남들이 이르기를 강가에 있는 좋은 집터라고 한다.

강을 따라 서쪽은 월탄(月灘)⁴⁹으로 홍(洪)씨 마을이고, 또 그 서쪽은 하담(荷潭)으
로 옛날 판서 김시양(金時讓)⁵⁰이 살던 곳이다. 또 그 서쪽은 목계(木溪)로, 강 하류
에서 생선 배와 소금 배가 와서 쉬면서 외상 거래도 하는 곳이다. 동해의 생선과
영남 산골의 물화(物貨)가 모두 여기에 모여들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두 물건 파는
일에 종사해서 부유하다.

목계 서쪽은 청룡사(靑龍寺) 골짜기이고, 그 서쪽은 원주와 경계가 닿아 있다. 동
쪽 북창에서부터 서쪽 청룡사까지를 통틀어 강북(江北) 여러 마을이라 부른다. 이
곳은 비록 강가의 경치는 좋으나, 땅이 모두 척박해서 큰 강 남쪽에서 달천 서쪽에

여 벼슬이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간(文簡).

46 우륵 : 악사(樂師), 본래 대가야국(大伽倻國) 성렬현(省烈縣) 사람, 가실왕의 총애를 받았고, 음악에
조예가 깊어 십이현금(十二絃琴)을 만들었다.

47 탄금대 : 충주의 고적 중 하나로 견문산(犬門山) 위에 있는 양진(楊津)을 내려다보고 있는 데, 우륵(于
勒)이 여기에서 거문고를 탔다고 하여 유래한 이름이다.

48 이연경(1488~1552) : 문신, 자는 장길(長吉), 호는 탄수(灘叟), 본관은 광주(廣州), 현량과(賢良科)에
급제하여 벼슬이 교리(敎理)에 이르렀다. 시호는 정효(貞孝).

49 월탄 : 지금의 금천(金遷).

50 김시양(1581~1643) : 문신, 자는 자중(子仲), 호는 하담(荷潭), 본관은 안동.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강
화유수·호조판서·4도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시호는 충익(忠翼).

이르는 비옥한 땅과는 비교가 안 된다.

목계에서 북쪽으로 십 리쯤 떨어진 내창촌(內倉村)은 천 년에 걸쳐 이름난 마을이다. 산속에 들어 펼쳐져 바람 기운이 조용하고 또 땅이 매우 넓어, 대를 이어 내려오는 사대부 집안이 많다. 동쪽은 월은령(月隱嶺)과 닿았는데, 영 동쪽은 제천과 경계를 이룬다.

충주 동쪽은 청풍부(淸風府)로서, 강을 따라 한벽루(寒碧樓)⁵¹가 있다. 꽤 시원하더라도 그윽한 경치가 있어, 강 상류의 유명한 누각이라 불린다. 청풍부 서쪽에 있는 황강촌(黃江村)은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⁵²가 살던 곳이다. 청풍 동쪽은 단양이고, 단양 북쪽이 영춘(永春)이다. 이 세 고을은 모두 시내와 골짜기가 험하고 들어적다.

충주 동북쪽에 있는 제천은 고을의 사방이 모두 산이다. 산 안으로는 들이 있는데, 산이 낮아서 들이 확 트여 시원하다. 여기는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 집안이 많다. 그러나 지대가 높아서 바람이 차고 땅이 척박해서 목화 농사가 없다.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이 많다.

북쪽에 있는 의림지(義林池)⁵³는 신라 때 큰 제방을 쌓고 물을 막아 온 고을 논에 물을 대던 곳이다. 못 서쪽에 있는 후선정(候仙亭)은 김씨 집안의 정자다. 비록 영동의 호수들만은 못하지만 배를 띄워 놀기에는 충분하다. 북쪽은 평창과 가깝고, 동쪽은 영월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첩첩산중에 있는 벽지이기 때문에 난리를 피하고 속세를 떠나 살 만한 곳이다.

연풍(延豐)은 충주 남쪽에 있다. 여기는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이 없으나, 땅이 비옥하고 물 대기가 쉬워서 목화 농사에는 가장 좋은 고장이다.

연풍 서쪽은 괴산(槐山)이다. 조령(鳥嶺)과 유령(楡嶺) 사이에 있어서 땅이 좁으나 살기는 조금 벗었다. 동쪽으로는 큰 강을 따라서 경치가 좋은 곳과 명승지가 많고,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도 많다. 땅은 오곡과 목화 농사에 알맞다.

51 한벽루 : 청풍에 있는 누각으로, 큰 강을 굽어보고 있어 경치가 좋다.

52 권상하(1641~1721) : 학자. 자는 치도(致道), 호는 수암(遂菴). 본관은 안동. 송시열의 제자로서 숙종 때 좌의정의 부름을 받았으나 나가지 않고 학문에 전심했다. 시호는 문순(文純).

53 의림지 : 제천에 있는 역사 깊은 못.

북쪽은 금천(金遷)과 가까우며 또한 살 만한 곳이다. 여기서 동쪽으로 조령을 넘으면 문경(聞慶)이고, 서쪽으로 유령을 넘으면 음성(陰城)이며, 서쪽으로는 경기도 죽산(竹山) · 음죽(陰竹)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경기도(京畿道)

충주 서쪽은 경기도 죽산(竹山)과 여주의 경계다. 죽산 칠장산(七長山)¹은 경기도와 호서(湖西) 경계에 우뚝 솟아 있고, 서북쪽으로 가다가 수유현(水踰峴)²에서 크게 끊어져 평지가 되었다. 그리고 다시 솟아 용인의 부아산(負兒山)³·석성산(石城山)⁴·광교산(光敎山)이 되었다. 광교산의 서북쪽은 관악산(冠岳山)⁵이고 바로 그 서쪽은 수리산(修李山)⁶이며, 산맥은 서해에서 그쳤다.

죽산에서 또 한 줄기의 산맥이 갈라져 북쪽으로 가다가 음죽(陰竹)을 지나 여주에서 그쳤다. 영릉(英陵)⁷은 우리 장헌대왕(莊憲大王)을 모신 곳이다. 능을 쓰려고 땅을 팠을 때 옛날 표석이 나왔는데, “마땅히 동방의 성인이 묻힐 곳”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또 술사(術士)는 말하기를 “돌아오는 산맥이 북쪽에 있고 서북방의 물이 정동방으로 흘러드니, 여러 왕릉 중에서 으뜸”이라고 했다.

죽산 남쪽에 있는 구봉산(九峰山)⁸은 산이 고리처럼 돌아서 산성(山城)을 쌓을 만하며, 경기도와 호서의 큰길 한가운데에 있다. 죽산 서쪽에서 양지(陽智)를 지나면서 산맥이 흩어져 한강 남쪽의 여러 고을이 되었다. 그런데 마을이 모두 가난하고 바람과 물이 을씨년스러워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수로는 충주에서 강을 따라 서쪽으로 내려오는데, 원주·여주·양근(楊根)을 지나 광주 북쪽 회룡진(會龍津)에 이르러서 한양의 면수(面水)⁹가 된다. 여주읍은 강 남쪽에 있는데, 서울까지는 수로나 육로로 2백 리가 안 된다.

- 1 칠장산 : 죽산 남쪽에 있는 산, 곧 칠현산(七賢山)이다.
- 2 수유현 : 오늘날의 용인 김량장(金良場) 서쪽 처인성(處仁城) 산이며, 어비천(魚肥川)의 발원지이다.
- 3 부아산 : 오늘날의 용인 김량장(金良場) 서쪽에 있는 산.
- 4 석성산 : 오늘날의 용인 서북쪽에 있는 산. 보개산(寶蓋山)이라 기록돼 있기도 하며, 일명 할미산성이라고도 한다.
- 5 관악산 : 시흥 동쪽, 서울 남쪽에 있는 산. 높이 629m.
- 6 수리산 : 군포 서쪽에 있는 산으로 수리산(修理山)이라 쓰기도 하며, 일명 견불산(見佛山)이라고도 한다.
- 7 영릉 : 세종대왕(世宗大王)의 능. 여주 북쪽 북성산(北城山)에 있다.
- 8 구봉산 : 구봉산(九峰山)이라 쓰는 경우가 많으며, 죽산 남쪽이 아니라 서쪽에 있다.
- 9 면수 : 바로 앞에 있는 물. 안수(案水).

여주읍 서쪽에 백애촌(白崖村)이 있다. 한 굽이 긴 강이 동남쪽에서 동북쪽으로 흘러 마치 마을 앞에 띠를 두른 듯한데, 여기가 강변 마을로는 가장 유명한 곳이다. 수구(水口)가 막힌 듯해서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다. 읍과 백애촌은 들 하나로 이어져 동남쪽으로 확 트였고, 기후가 맑고 시원하다. 이 두 곳에는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 집안이 많다. 하지만 백애촌은 주민들이 농사 대신 배로 장사를 전업으로 하는데 농사짓는 집보다 오히려 수입이 낮다.

읍내에 있는 청심루(淸心樓)는 자못 강과 산의 경치가 좋다. 강 북쪽에는 신록사(神勒寺)¹⁰가 있고, 절 옆에는 강월헌(江月軒)¹¹이 있다. 강가에 있는 바위가 아주 기이하며, 강 남쪽 언덕 아래에는 마암(馬巖)이 있다. 이 바위 밑에는 검은 용이 있다는 말이 전해 오고 있다.

여주 남쪽의 이천(利川)과 음죽(陰竹)은 풍속이 서로 비슷하다. 북쪽은 지평(砥平)과 양근(楊根)이며, 강원도 홍천과 경계가 닿아 있다. 어지러이 솟아 있는 산과 깊은 산골짜기여서 모두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양근 용문산(龍門山)¹² 북쪽에 있는 미원촌(迷源村)¹³은 옛날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¹⁴가 이곳 산수를 사랑하여 살 터를 잡으려던 곳으로, 나도 한 번 가 본 적이 있다. 산속이 비록 조금 넓기는 하나 지대가 깊이 막혀 있다. 기후도 춥고 사방의 산도 아담한 맛이 없으며, 앞에 흐르는 시냇물이 너무 목맨 소리를 내어 낙토(樂土)가 못 된다.

여주 서쪽은 광주다. 석성산(石城山)의 한 지맥이 북쪽으로 달리다가 한강 남쪽에 이르러 생긴 고을로, 읍은 만 길이나 되는 위에 있다. 옛날 백제의 시조였던 온조

10 신록사 : 여주 동쪽 봉미산(鳳尾山)에 있는 절. 신라 진평왕(眞平王) 때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창건하여 벽사(壁寺)라 불렀는데, 고려 고종 때 건너편 마을에서 견잡을 수 없이 사나운 용마(龍馬)가 나왔다. 이때 인당대사(印塘大師)가 나서서 말의 고삐를 잡자 말이 순해졌는데, 신력(神力)으로 제압하여 절 이름을 신록사(神勒寺)라 했다고 한다.

11 강월헌 : 신록사 옆에 있었다고 전하지만 지금은 없다.

12 용문산 : 양평 북쪽에 있는 산으로, 미지산(彌智山)이라고도 한다. 높이 1,157m.

13 미원촌 : 양근 북쪽 용문산 북쪽에 있는 마을.

14 조광조(1482~1519) : 학자이자 문신. 자는 효직(孝直), 호는 정암(靜菴). 본관은 한양(漢陽).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을 지냈다. 여씨향약(呂氏鄉約)·미신타파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다가 훈구파(勳舊派)에 의해 사사(賜死)되었다. 시호는 문정(文正).

왕(溫祥王)이 도읍했던 곳이다. 안쪽은 낮고 얕으나 바깥쪽은 높고 험해, 청나라 군사가 처음 왔을 때 칼날 하나 대 보지 못했고 그 후 병자호란 때에도 성은 끝내 함락하지 못했다. 인조가 성에서 내려와 항복한 것은 오직 양식이 부족하고 강화(江華)가 이미 함락되었기 때문이었다.

강화(講和)가 성립된 뒤에도 군사적 요충이라 해서 성 안에 아홉 개의 절을 지어 중들이 살게 하고, 총섭(總攝) 한 사람을 승군(僧軍) 대장으로 삼았다. 해마다 궁술을 시험해서 우수한 사람에게는 후한 상을 내렸기 때문에 승려들은 오로지 활 쏘는 일에 매달렸다. 나라 안에 승려가 많았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그들의 힘을 빌려 성을 지키려 했다. 성 안은 별로 험하지 않으나 성 밖의 산 밑에는 살기가 감돌고 있다. 또 이곳은 중요한 진(鎭)이기 때문에 만일 사변이 생기는 날이면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할 지역이다. 그래서 광주 온 고을은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광주 서쪽은 수리산(修黎山)으로, 안산(安山) 동쪽에 있다. 여기서 서북쪽으로 뻗은 산맥이 수리산 줄기 중에서 가장 긴 산맥이다. 인천·부평·김포·통진(通津)을 지나 폭 패어 큰 석맥(石脈)이 되었다가 강을 건너 다시 솟아 마니산(摩尼山)¹⁵이 되었으니, 여기가 바로 강화부(江華府)다. 부(府)의 한 지명인 동북쪽은 강이 싸고돌고 서남쪽은 바다가 싸고 있어 전체가 큰 섬이다. 서울 수구(水口)의 나성(羅星)¹⁶이 된다.

한강은 통진 서남쪽에서 방향을 틀어 갑곶(甲串)나루¹⁷가 되고, 다시 남쪽으로 마니산 뒤의 폭 꺼진 곳으로 흐른다. 석맥이 물속에 옆으로 뻗어서 마치 문턱과 같고 가운데가 좀 오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손돌목¹⁸이다. 그리고 그 남쪽이 바로 서해 큰 바다다.

삼남 지방에서 세조(稅租)를 실은 배가 이 손돌목 밖에 와서는 만조(滿潮)가 되기

15 마니산 : 정족산성(鼎足山城) 바로 서쪽 가까이에 있는 산. 산 위에는 단군(檀君)이 천제(天帝)에게 제사 지냈다는 참성단(塹星壇)이 있다.

16 나성 : 안산(案山) 너머 멀리 보이는 여러 뱃부리.

17 갑곶나루 : 통진(通津)에서 강화도로 건너가는 곳. 곧 염하(鹽河)를 건너는 곳.

18 손돌목 : 김포와 강화도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다로, 물살이 매우 급하다. 한자로는 손석항(孫石項) 또는 손량항(孫梁項)이라 쓴다.

를 기다렸다 지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배가 깨지고 만다. 한강은 곧 서쪽으로 흘러 양화도(楊花渡)의 북쪽 언덕을 돌아 서강(西江) 물과 합류했다가 문수산(文殊山) 북쪽을 돌아서 바다로 흘러든다.

강화는 남북의 길이가 백여 리이고 동서의 길이는 오십 리다. 부(府)에는 유수(留守)를 두고 다스린다. 북쪽으로는 풍덕(豐德) 승천포(昇天浦)와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강 언덕은 모두 석벽이다. 석벽 밑은 수렁이어서 배를 댈 곳이 없고, 오직 승천포 건너편 한 곳에만 배를 댈 수 있다. 그러나 여기도 밀물 때가 아니면 댈 수 없어서 본래부터 위험한 나루라고 한다.

부(府)의 좌우에는 성을 쌓지 않고 좌우편 산 밑, 강가에 돈대(墩臺)¹⁹를 쌓아서 마치 성 위에 쌓은 작은 담처럼 만들었다. 그 안에 병기를 간직하고 군사를 주둔시켜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게 했다.

동쪽 갑곶으로부터 남쪽으로 손돌목에 이르기까지 오직 갑곶에만 배로 건널 수 있고, 그 이외의 언덕은 북쪽 언덕처럼 모두 수렁이다. 여기에도 북쪽 언덕과 같이 산 밑 강가에 돈대를 쌓아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게 했다.

그래서 승천포와 갑곶 양쪽만 지키면 섬 밖은 강과 바다가 천연적인 해자(壕字)가 된다. 고려 때에 원나라 군사를 피해 여기에 십 년 동안이나 도읍을 옮겼는데, 육지는 비록 적에게 침범을 당했어도 섬만은 끝내 침범당하지 않았다.

조선조에 와서는 삼남의 세조(稅租)를 실은 배가 모두 손돌목을 거쳐 서울로 올라 오는 까닭에 바닷길의 요충이라 하여 유수를 두고 수비하게 했던 것이다. 또 동남쪽 건너편에 있는 영종도(永宗島)에도 방영(防營)을 설치하고 첨사(僉使)를 두어 지키게 했다.

인조 정묘년에 청나라 군사가 황해도 평산(平山)에 와서 형제의 나라²⁰가 되기로 약속하고 강화를 맺은 후 돌아갔다. 그때 청나라 사람은 심양(瀋陽)을 점령하고 명

19 돈대 : 요긴한 곳에 흙터미를 쌓아 적의 전진을 막기 위해 만든 방어 진지.

20 형제의 나라 : 형제지국(兄弟之國). 서로 형제처럼 친밀하게 지내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

나라와 매일 싸웠고, 한편으로 모문룡(毛文龍)²¹은 또 우리나라 가도(假島)²²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바닷길로 등래(登萊)를 지나 명나라와 통하고 있었다.

한편 청나라는 우리나라가 저들의 후방을 공격할까 두려워 먼저 간첩을 우리나라에 보내 홍문관(弘文館)²³에서 하인으로 일하게 한 다음, 우리나라 군사력의 약점을 살펴보고 침공하려고 했다. 그때 우리 조정에서도 청인이 침략해 올 것을 염려하여 남한산성을 수축했다.

병자년 봄에 청나라에서는 용골대(龍骨大)²⁴를 보내 남한산성을 탐지하게 했다. 용골대는 우리나라에 오자 서강(西江)²⁵의 선유봉(仙遊峰)²⁶에 가 보자고 했다. 이때 하담(荷潭) 김시양(金時讓)이 호조판서로 있었는데, 용골대가 남한산성에 가 보려고 할 것을 이미 알고 이졸(吏卒)을 시켜서 동대문 밖에서 맞이하도록 했다.

용골대는 서문(西門)으로 가는 체하다가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동대문으로 갔다. 그러나 길옆에 장막을 치고 기다리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문자, 통역이 이렇게 대답했다.

“객사(客使)²⁷께서 남한산성으로 가시려는 것을 우리 호조판서께서 아시고 미리 길옆에 조출한 잔칫상을 준비했으니, 객사께서는 잠시 머무시기 바랍니다.”

용골대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지만, 억지로 웃어 보이면서 말을 멈추었다. 이렇게 해서 남한산성에는 가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다.

당시 대간(臺諫)에는 신진 소장들이 많았다. 그들은 정세를 알지도 못하면서 오랑

21 모문룡(1576~1629) : 중국 명나라의 무장. 자는 진남(鎭南). 요동사(遼東司)로 있을 때 청나라 태종이 요양(遼陽)을 함락시키자 많은 주민들과 함께 의주로 도피하여 가도(假島)에 진을 두고 조선인에게 약탈을 해왔다. 그 뒤 요동경략(遼東經略) 원송환(袁崇煥)이 여순(旅順)으로 유인하여 죽였다.

22 가도 : 칠산반도 남쪽에 있는 섬.

23 홍문관 : 조선시대 때 사헌부·사간원과 더불어 삼사(三司)라 통칭됐다. 원래는 궁중의 경서(經書) 관리, 문헌(文獻) 처리, 임금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는 기관으로 성립됐으나 실제로는 그 외에 언론 및 감찰 기능까지 수행했다.

24 용골대 : 병자호란 때 중국 청나라의 선봉장.

25 서강 : 서울 여의도(汝矣島)에서 난지도(蘭芝島)에 이르는 강.

26 선유봉 : 서울 와우산(臥牛山)에서 한강을 건너 서쪽에 있다.

27 객사 : 외국에서 온 사신.

캐의 사자를 참하라고 청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용골대는 작별 인사도 없이 돌아갔다. 그리고 돌아갈 때 묵고 있던 객관(客館) 벽에 ‘청(靑)’ 자 하나를 크게 써 놓았는데, 이 ‘청(靑)’²⁸이란 12월이라는 뜻이었다.

이 해 12월에 청나라 군사는 의주(義州) 길로 오지 않고 창성(昌城) 방면에서 얼음 위를 걸어 압록강을 건너왔다. 도중에 성을 지나면서도 공격하지 않고, 3일 만에 선봉대가 홍제원(弘濟院)²⁹에 도착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성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군사들은 안장을 풀어 말을 쉬게 하면서, 공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이것은 뒤따라오는 군사들을 기다리기 위함이었다. 이것을 보고 성 안에서는 온통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병조판서 최명길(崔鳴吉)³⁰이 자진해서 쇠고기와 술을 가지고 가 청나라 군사들을 먹이면서 전쟁을 일으킨 까닭을 물었다. 그러는 동안 세자와 두 대군으로 하여금 종묘의 위패를 받들고 비빈(妃嬪)과 함께 강화로 피하게 했다. 임금도 성 남쪽 문루(門樓)에 나갔다가 청나라 군사에게 잡히게 될까 두려워, 길을 바꾸어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청군의 대부분이 뒤따라와서 성을 포위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오 일 후에는 청나라 황제가 도착했다. 그러나 황제는 성이 높아서 손쉽게 함락하지 못할 것을 알고 분노한 나머지 용골대를 잡아 죽이려 했다. 이것은 용골대가 우리나라를 공격하자고 건의했기 때문이었다. 이때 용골대는 얼흘 안에 강화를 함락해서 속죄받겠다고 자청했고, 황제는 이를 허락했다.

이에 용골대는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통진(通津) 문수산 위에 올라가서 강화를 굽어보니, 섬은 손바닥만한데 갑곶에는 지키는 군사가 없었다. 그는 민가를 헐어 그 재목으로 뗏목을 만들어 타고 건너가서 섬을 함락했다. 한편, 인조는 강화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할 수 없이 산성에서 내려오기로 했다.

28 靑 : 이 글자를 파자(破字)하면 “十二月”이 된다.

29 홍제원 : 지금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0 최명길(1586~1647) : 문신. 자는 자겸(子謙), 호는 지천(遲川). 본관은 전주(全州).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병자호란 때 주화파(主和派)로 청나라와 화의를 주장하여 성공케 했다. 시호는 문충(文忠).

이보다 앞서 영상(領相) 김류(金瑬)³¹는 강화는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아들 경징(慶徵)³²을 강화도 수비대장으로 삼아 가족을 데리고 피란하게 하고, 이민구(李敏求)³³를 부장(副將)으로 삼았다. 그런데 경징은 교만하고 어리석었으며 민구는 경박했다. 그들은 앞일은 생각지도 않고 날마다 장기나 두고 술에 만취해 있었다.

대군과 대신들이 갑곶에 군사를 보내 지키게 하라고 권했지만, 경징은 “오랑캐 군사가 날아서 건너오겠는가” 하고 큰소리만 쳤다.

그러다가 성이 함락되자 대신 김상용(金尙容)³⁴은 죽고 사대부 집안의 부녀들도 목숨을 끊은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바다로 달려가 물에 몸을 던져, 얼굴을 가린 수건이 어지러이 물 위에 뜬지만 그것이 누구네 여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난리가 끝난 뒤에는 오랑캐한테 잡혀간 사람을 물에 빠져 죽었다 해서 정문(旌門)이 내려진 사람도 있었다.

병자년 후에 조정에서는 지난 일을 거울삼아 병기를 수리하고 말 먹이와 양식을 비축하여 불의의 변고에 대비했으나, 그 후 백 년 동안이나 아무 일도 없었기에 당시 강화에 쌓아 두었던 양곡이 근 백만 섬이나 되었다.

그러다가 숙종 말년에 해마다 흉년이 들자 이 곡식을 각 도에 많이 옮겨다가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다. 추수가 끝난 후에는 모두 회수해서 각 고을에 쌓아 두기도 하고, 또 서울 각 관청에서 경비가 모자라면 그 곡식을 옮겨 오도록 청하기도

31 김류(1571~1648) : 문신. 자는 관옥(冠玉), 호는 북저(北渚), 본관은 순천(順天).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교리·부사 등을 지내고, 인조반정 때 주동하여 정사(靖社) 일등공신으로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이 되었고, 그 후 벼슬이 영의정에까지 올랐다. 시호는 문충(文忠).

32 김경징(1589~1637) : 문신. 자는 선응(善應), 본관은 순천(順天). 김류(金瑬)의 아들. 인조반정 때 참여한 공을 인정받아 정사 이등공신으로 순흥군(順興君)이 되었고, 다시 문과에 급제하여 한성판윤, 강화감찰사(江華檢察使)를 역임했으나 강화의 실수로 사사(賜死)됐다.

33 이민구(1589~1670) : 문신. 자는 자시(子時), 호는 동주(東洲), 본관은 전주.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대사간·병조참판·이조참판 등을 역임했다. 병자호란 때 강화도 감찰부사(檢察副使)가 되었으나 임무를 완수치 못했다 하여 아산에 유배되었다.

34 김상용(1561~1637) : 문신. 자는 경택(景擇), 호는 선원(仙源), 본관은 안동.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왕족을 모시고 갔으나 성이 함락되자 자결했다. 시호는 문충(文忠).

했다. 이렇게 해서 군량이 해마다 줄다 보니 지금은 십만 섬도 안 된다.

숙종 계유년에 신하들이 병자년의 일을 아뢰자 임금은 곧 문수산에 성을 쌓도록 명했다. 이것은 문수산을 지키지 못하면 강화를 지킬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 후에 묘당(廟堂)³⁵과 여러 장수가 통진읍을 성안으로 옮겨서 따로 진(鎭)을 만들고, 변란을 당하면 온 고을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가서 지키도록 청했다. 하지만 이 의견은 끝내 통일이 안 되어 실행되지 못했다. 지금 임금 병인년³⁶에 강화유수 김시혁(金始赫)³⁷이 장계를 올려 강을 따라 성을 쌓자고 청하자 조정에서 이를 허가했다.

그리하여 시혁이 동쪽부터 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북쪽 연미정(燕尾亭)³⁸에서 남쪽 손돌목까지였다. 이 공사가 끝나자 임금은 시혁을 정경(正卿)으로 삼았다.

그런 지 얼마 안 되어 장마로 성이 무너졌지만, 성을 쌓을 때 수령을 만나면 번번이 흠과 돌로 메워서 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강 언덕이 모두 단단해져서 사람과 말이 통행할 만하고, 또 강을 따라 사십 리나 되는 곳곳에 배를 댈 수 있게 되었으니 강화도도 이젠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

강화에서 나온 한 산맥이 서쪽 언덕을 따라가다가 폭 패인 석맥(石脈)이 되고, 작은 개펄 하나를 지나서 교동도(喬桐島)³⁹가 되었다. 이 섬은 개성(開城) 밖의 안산(案山)이 되고, 섬 북쪽 한강에 와서는 개성의 안수(案水)⁴⁰가 된다. 남쪽은 큰 바다이고, 바다 건너 남쪽은 충청도 해미(海美)와 서산 등지다. 바다를 사이에 둔 양쪽 언덕이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산이 모두 바라보인다. 서북쪽으로는 황해도의 연안(延安)·백천(白川)과 비스듬히 개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인다. 교동도는 비록 강화보다는 작으나, 섬 전체가 모두 돌로서 바다 가운데 따로 솟아 있다.

나라에서는 여기에 통어영(統禦營)을 설치하고 수군절도사를 두어 경기·황해·

35 묘당 : 조선시대 중·후기에 국방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비변사(備邊司)의 다른 이름.

36 지금 임금 병인년 : 영조 22년(1746).

37 김시혁(1676~1750) : 문신. 자는 화이(晦而), 호는 매곡(梅谷). 본관은 강릉(江陵).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렀다. 시호는 효헌(孝憲).

38 연미정 : 강화 갑곶(甲串) 위에 있는 정자.

39 교동도 : 한강과 예성강 입구에 있는 섬. 옛날에는 현(縣)이었다.

40 안수 : 바로 앞에 있는 물. 면수(面水).

평안 삼도의 수군을 거느리면서 바다를 지키게 했다. 그러나 이 두 섬은 모두 땅에 소금기가 있어서 자주 가뭄을 타 곡식의 수확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두 어업과 소금 굽는 일로 살아간다.

수리산(修李山)에서 뻗은 산맥 중에서 서쪽으로 간 것이 가장 짧은 산맥이다. 이것은 안산(安山) 바닷가에서 그쳤는데, 서울 공경(公卿)들의 조상 묘가 많다. 서울과 가깝고 생선과 소금이 풍부해서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 집안도 많다. 수리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맥은 서남쪽으로 가다가 광주 성곶리(聲串里)에서 그쳐 생선과 소금이 생산되는 갯마을이 되었다. 여기에는 가까운 바다의 장삿배가 많이 모여들고, 주민들은 생선 파는 일로 부유하게 산다.

산맥이 동쪽으로 간 것은 수원부(水原府)의 여러 산이 되고 바다에서 그쳤는데, 충청도의 아산현(牙山縣)과 개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그중간에 금수산(金水山)이 있다. 산꼭대기 못물은 마치 노랗게 물을 들인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금이 난다고 전해 온다. 옛날 지기(地氣)를 잘 보는 사람이 “이 산에 금보(金寶)의 기운이 있다”고 했다.

금수산에서 나온 산맥의 한 줄기는 다시 서쪽으로 가서 남양부(南陽府)를 만들고, 이 부(府) 서쪽에 있는 문판현(文板峴)을 지나 서해 바다에서 그쳤다. 충청도 당진(唐津)하고는 조그만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매우 가깝고, 밀물과 썰물이 통한다. 지형은 좌우에 포구를 끼고 바로 바다로 들어간다. 수백 호나 되는 소금 굽는 집이 남북 바닷가에 별처럼 널려 있다.

육지가 끝나는 바닷가에 화랑포(花梁浦) 첨사(僉使)의 진(鎭)이 있다. 이 진에서 바닷길을 십 리쯤 건너가면 대부도(大阜島)가 있는데 어민이 사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양부의 서쪽 마을이 한강 남쪽의 생선과 소금의 이권을 독점하게 된다.

대부도는 화랑진에서 폭 꺼진 석맥(石脈)이 바닷속을 지나가면서 된 섬이다. 석맥이 꼬불꼬불 뻗었고 그 위의 물은 매우 얕다. 옛날에 학이 물속에 있는 석맥 위를 따라 걸어가는 것을 보고 섬사람들이 따라가서 그 학을 발견했다 하여 그 길을 학지(鶴指)라고 한다. 그래서 오직 섬사람이 그 길을 잘 알 뿐이다.

병자년에 섬사람이 오랑캐한테 쫓겨서 이 석맥 위를 따라 도망한 일이 있었다. 석

맥은 모두 꼬불꼬불해서 찾기 어려운데, 오랑캐는 길도 모르면서 따라오다가 모두 빠져 죽었다. 그래서 이 섬은 무사할 수 있었다. 섬은 땅이 비옥하고 주민도 많다. 또한 남쪽으로 오는 뱃길의 첫 목이기 때문에 강화와 영종 두 섬의 바깥문 구실을 한다.

옛날에는 수군영(水軍營)이 있었는데, 후에 교동도로 옮기고 나서는 말 목장이 되어 지키는 군사조차 없으니 이것은 큰 잘못이다. 마땅히 화랑진을 이 섬으로 옮겨 영종도와 의각(倚角)⁴¹의 형세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서쪽으로 수로를 따라 삼십 리쯤 가면 연흥도(燕興島)가 있다. 고려 말에 고려의 종실 익령군(翼靈君) 기(琦)는 고려가 장차 망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 그는 성명을 바꾸고 가족과 함께 바다를 건너 이 섬에 와서 숨어 살았다. 그래서 고려가 망한 뒤에도 물에 빠뜨려 죽이는 화를 면했고, 자손들은 그대로 이 섬에 살았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그들의 신분도 낮아져서 겨우 말을 치는 목부(牧夫)가 되었다.

익령군이 살던 세 칸짜리 집은 지금까지 굳게 잠긴 채 남이 들어가 보지 못하게 한다. 방 안에는 책과 그릇이 쌓여 있으나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예전에 한 관원이 바람 쐬러 이 섬에 왔다가 그 방문을 열어 보려고 했다. 그러나 남녀 목부(牧夫)들이 애걸하면서 “이 방문을 열기만 하면 번번이 자손 중에 누군가가 죽는 변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경계하면서 열어 보지 못한 지가 삼백 년이나 됩니다” 했다. 그래서 관원은 불쌍히 여겨 포기하고 말았다.

수원 동쪽은 양성(陽城)과 안성이다. 안성은 경기와 호남 바닷가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물건이 쌓이고 장인과 장사꾼이 모여들어 한양 남쪽의 한 도회가 되었다. 그러나 읍 밖은 아무리 평지라 해도 땅에 살기가 감돌아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수원 북쪽은 과천(果川)이고, 과천에서 북쪽으로 십오 리를 가면 동작(銅雀)나루⁴²가 된다. 그리고 강을 건너 다시 북쪽으로 십오 리쯤 가면 서울 남문(南門)이 된다. 함경도 안변부(安邊府) 철령(鐵嶺)에서 뻗어 온 한 산맥이 남쪽으로 오륙백 리를

41 의각 : 짐승의 뿔처럼 돌이 양쪽에서 서로 의지하게 된 모양.

42 동작나루 : 오늘날의 서울 동작동에 있던 나루. 동궐이라고도 불렀다.

달리다가 양주(楊州)에 이르러서야 산이 되었고, 다시 동쪽으로 비스듬히 돌면서 갑자기 솟아 도봉산⁴³의 만장봉(萬丈峰)이 되었다.

여기서 동남쪽으로 가면서 조금 끊어지는 듯하다가 다시 우뚝 솟아 삼각산(三角山)⁴⁴ 백운대(白雲臺)가 되고, 여기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만경대(萬景臺)가 되었다. 여기서 한 줄기는 서남쪽으로 가고, 또 한 줄기는 남쪽으로 가서 백악산(白岳山)이 되었다. 풍수 보는 사람은 “하늘을 두드리는 목성(木星)⁴⁵의 형국으로, 바로 궁성의 주산(主山)⁴⁶”이라고 한다.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는 모두 큰 강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바다와 통한다. 여러 곳의 물이 모여드는 그 사이에 온 나라 산수의 정기가 모였다고 한다.

옛날 신라의 승려 도선(道詵)⁴⁷이 쓴 《유기(留記)》에 “왕(王)씨의 뒤를 이어 이(李)씨가 임금이 되리니, 한양에 도읍하리라” 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 때문에 고려 중엽에 윤관(尹瓘)을 시켜 백악산 남쪽에 오얏나무⁴⁸를 심고, 이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면 잘라서 그 기운을 눌렀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조가 왕위를 물려받은 후 무학(無學)을 시켜 도읍지를 정하도록 했다. 무학이 백운대에서 산맥을 따라 만경대에 왔다가 다시 서남쪽으로 비봉(碑峰)⁴⁹에 가 보니 비석이 있는데, “무학이 잘못 찾아 여기 오도다” 하는 뜻의 여섯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무학이 산맥을 잘못 찾아서 여기에 온다는 뜻인데, 전에 도선이 세운 것이다.

무학은 이것을 보고 길을 바꿔 만경대에서 정남쪽으로 뻗은 산맥을 따라 바로 백악산 밑에 도착했다. 여기서 세 줄기의 산맥이 합쳐서 들이 된 것을 보고 거기에

43 도봉산 : 서울과 의정부 사이에 있는 산. 높이 717m.

44 삼각산 :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산. 백운(白雲) · 운수(雲水) · 만경(萬景) 등 세 봉우리를 합하여 삼각산이라 한다.

45 목성 : 산꼭대기가 둥그스름하면서 우뚝 솟은 것.

46 주산 : 한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 진산(鎭山).

47 도선(827~898) : 승려. 성은 김(金). 전라도 영암 출신. 풍수지리설과 음양도참설을 배경으로 한 《도선비기(道詵秘記)》는 고려와 조선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고려 현종 때에는 대선사(大禪師)에, 숙종 때에는 왕사(王師)에 추증(追贈)되고, 인종 때에는 선각국사(先覺國師)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48 오얏나무 : ‘李’가 오얏, 즉 자두이기 때문에 이씨를 가리킨다.

49 비봉 : 북한산에 있는 봉우리로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巡狩碑)가 있다.

궁성 터를 정했는데, 여기가 바로 고려 때 오얏나무를 심었던 곳이다.

외성(外城)을 쌓으려 했으나 성의 둘레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밤에 큰 눈이 내렸는데, 바깥쪽은 눈이 쌓이고 안쪽은 곧 녹아 없어졌다. 이것을 보고 태조가 이상히 여겨 눈을 따라서 성을 쌓도록 했으니, 이것이 바로 지금의 성이다. 산세를 따라서 성을 쌓았지만, 정동쪽과 서남쪽이 낮고 허(虛)하다. 또 성 위에 성가퀴⁵⁰를 쌓지 않고 해자도 파지 않았다. 그래서 임진년과 병자년 난리에 지키지 못했다.

숙종 을유년에 조정에서는 도성을 다시 쌓자는 의논이 있었지만, “동쪽이 너무 낮은데, 만일 강을 막아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 들인다면 성 안 백성은 모두 물고기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는 의견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곳이 삼백 년 동안이나 내려오며 성명(聲名)과 문물의 중심 지역이 되어 유풍(儒風)이 크게 떨치고 선비가 배출되었으니, 엄연한 소중화(小中華)⁵¹다.

양주 · 포천 · 가평 · 영평(永平)은 동쪽 교외⁵²요, 고양 · 적성 · 파주 · 교하(交河)는 서쪽 교외인데, 이 두 교외는 모두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여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가난하고 세도를 잃은 사대부 집안이 삼남으로 내려가면 집안을 보전할 수 있지만, 동쪽 교외나 서쪽 교외로 나간 사람은 가난해지고 힘을 잃어 한 두 세대를 지난 뒤에는 신분마저 천해지게 되기 때문에, 마침내 품관(品官)⁵³이나 평민이 된 사람이 많다.

한양 앞쪽은 이미 큰 강이 막혀 있고, 유독 서쪽으로 길 하나가 황해도와 평안도로 통하고 있다. 도성에서 오 리를 가면 사현(沙峴)⁵⁴이요, 그 고개를 넘으면 녹반현(綠攀峴)⁵⁵이다. 당나라 장수가 이곳을 지나다가 “한 사람이 관문(關門)을 지키면

50 성가퀴 : 숨어서 적을 공격하기 위해 성 위에 덧쌓은 낮은 담. 성첩(城堞). 여장(女牆).

51 소중화 : 조그만 중국.

52 동쪽 교외 : 서울에서 백 리 이내 거리에 있는 지역을 교(郊)라 한다.

53 품관 : 지방의 낮은 벼슬. 풍현(風憲) · 좌수(座首) 따위.

54 사현 : 오늘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근처. 모화관(慕華館) 서북쪽에 있다.

55 녹반현 : 오늘날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근처. 사현(沙峴) 북쪽에 있다.

만 명이 덤벼도 열지 못하겠다”고 했다 한다.

또 서쪽으로 사십 리를 가면 벽제령(碧蹄嶺)⁵⁶인데, 임진년에 이여송이 패한 곳이다. 왜적이 평양에서 패하고 한양으로 철수한 뒤, 여위고 약한 병졸만을 골라 고양현(高陽縣)에 출몰하게 했다. 이여송은 개성에서 이 소식을 듣고 공을 세워 불 옥심에, 큰 부대는 개성에 주둔시켜 둔 채 경장비(輕裝備)를 한 군졸들만으로 왜적을 습격하게 했다. 그러나 겨우 벽제령을 넘자 왜적이 사면에서 크게 몰려오니, 여송의 휘하 군사 중에 총에 맞아 죽은 자가 많았다.

명나라 장수 낙상지(駱尙志)는 본래 힘이 세어 낙천근(駱千斤)이라 불리는 자였다. 겹으로 된 갑옷을 입고 여송을 겨드랑이 밑에 끼고 싸우면서 도망쳐 겨우 몸을 피했다. 여송은 사기가 꺾여 군사를 후퇴시켰다. 그리고는 왜적이 한양에서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군사를 정돈해서 경상도의 남쪽 해변까지 추격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사현·녹반현과 벽제령에는 모두 관문을 설치할 만한 곳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국에 길을 막고 관문을 설치한 곳이 없다. 이것은 천험(天險)의 요새를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니 안타까운 일이다.

벽제령에서 서쪽으로 40여 리를 가면 임진(臨津) 나루터다. 여기는 한양 북쪽의 강 하류인데, 강 언덕 남쪽 기슭은 천연적인 성의 모양을 하고 있다. 또 서쪽으로 가는 길목도 되고, 강을 따라가면서 지형이 아주 험해서 참으로 지킬 만한 곳이다. 성을 쌓았어야 할 곳인데도 지금까지 쌓지 않았으니 매우 한스럽다.

이 나루를 건너 장단(長湍)을 지나 사십 리를 가면 개성부(開城府)인데, 고려 때의 도읍지다. 송악산(松岳山)이 진산(鎭山)이고 그 아래가 만월대(滿月臺)⁵⁷다. 《송사(宋史)》에 “큰 산에 의지하여 궁전을 지었다”고 한 곳이 바로 여기다. 김관의(金寬毅)⁵⁸의 《통편(通編)》에는 여기를 가리켜 “금돼지가 누워있는 곳”이라 했고, 도선(道詵)은 여기를 가리켜 “메기장(襟(제))을 심는 밭”이라고 했다.

56 벽제령 : 경기도 고양시 벽제에 있는 고개.

57 만월대 : 고려 때의 왕궁 터. 송악산을 등지고 있으며 양편에 맑은 시냇가 흐른다.

58 김관의 : 고려 중기의 학자. 의종(毅宗) 때 《편년통록(編年通錄)》을 썼다. 이 책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으며, 고려 왕실의 기원에 관한 글이 천여 자만 《고려사(高麗史)》에 인용돼 전한다.

돌이켜 보건대, 당나라 선종(宣宗)이 젊었을 때 십육원(十六院)을 떠나 오랫동안 외지에서 고생하다가 장삿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 개성 후서강(後西江) 북쪽에 도착해서 갯가 언덕을 보니 온통 수렁이었다. 하는 수 없이 배에 실었던 돈을 바다에 깔고 육지로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곳을 돈개(錢浦(전포))⁵⁹라고 한다. 그는 여기서 오관산(五冠山) 밑에 있는 보육(寶育)의 집으로 왔다. 보육은 그가 당나라의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작은 딸 진의(辰義)에게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했다. 선종은 작별할 때 그녀가 아기를 뱀 것을 알고 붉은 활 하나를 주면서, “만일 사내아이를 낳거든 이 활을 가지고 중국으로 찾아오도록 하고, 아이의 이름은 작제건(作帝建)이라 하라”고 했다.

작제건은 자라자 아버지가 두고 간 붉은 활을 가지고 활쏘기를 익혀, 활숨씨가 대단했다. 그가 장삿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당나라로 들어가는데, 바다 가운데에 이르자 배가 제자리에서 돌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각자가 쓰고 있던 갓을 물에 던져 길흉을 점쳐 보기로 했다. 그런데 유독 작제건의 갓만이 물에 가라앉자, 양식을 주어 조그만 섬에 내려놓고 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작제건이 섬에 혼자 있는데 동자 하나가 물속에서 나오더니, “용왕께서 뵙고자 합니다. 눈만 감고 있으면 저절로 가게 됩니다” 한다. 작제건은 시키는 대로 수부(水府)⁶⁰에 도착해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이 “이 늙은이가 오래전부터 여기 살았는데, 요새 흰 용 하나가 이 굴을 뚫으려 합니다. 그래서 내일 그 용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대의 활숨씨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나를 도와서 그 용을 쏘아 죽여 주시오” 하는 것이다.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소?”

작제건이 이렇게 말하자,

“내일 오시(午時)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서 물결이 일 것인데, 그때가 바로 싸울 시간이요. 싸움이 무르익었을 때, 각자의 등이 물 밖으로 드러날 터인데, 등이

59 돈개 : 예성강 하류 벽란도(碧瀾渡) 북쪽에 있는 나루.

60 수부 : 용궁.

푸른 것은 나이고 등이 흰 것은 용이오.”

하는 것이다.

건이 승낙하고 섬으로 나와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튿날 과연 그의 말대로였다. 건이 섬에서 등이 흰 자를 쏘자 조금 있다가 날이 개고 물결도 잔잔해졌다. 그러자 동자가 나와서 다시 건을 데리고 갔다. 수부에 이르자 노인은 소녀를 불러 건의 아내로 삼고 말하기를, “그대는 귀한 자손이니 고향에 돌아가면 반드시 큰 복이 있을 것이오”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거기 머물게 하고는 아내와 함께 보내 주었다.

건이 섬에 나오자 장삿배도 마침 도착했다. 용녀(龍女)⁶¹와 함께 창릉(昌陵)으로 돌아오니, 염백태수(鹽白太守)는 작제건이 수부의 용녀에게 장가들어 함께 왔다는 말을 듣고 재물을 거두어 집을 지어 살게 했다.

건은 창릉에서 다시 송악산 아래로 옮겨와 살면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을 융(隆)이라 했다. 그 후 용녀는 작제건이 신의가 없다고 책망하고, 낳아 기르던 어린 딸만 데리고 우물에 들어가 용이 되어 서해로 돌아가 버렸다. 융은 아들을 낳자 성을 왕(王)씨로 고치고 이름을 건(建)이라 했으나, 실은 이(李)씨였다.⁶²

왕 태조가 즉위한 뒤에 아버가 살던 곳을 정전(正殿)으로 삼았다. 그리고 용녀를 온성왕후(溫成王后)로 추존하고 작제건을 의조(懿祖)로 추존했다. 그가 고려를 세울 때는 오대(五代)⁶³의 초기에 해당한다. 소선제(昭宣帝)⁶⁴는 중국에서 망했지만, 왕 태조가 해외에서 나라를 일으켜 삼한(三韓)을 통일하고 그 자손들이 나라를 계승해서 오백 년을 내려왔으니 이것은 당나라 태종이 남긴 공덕이다. 마치 진(陳)나라가 망하자 전(田)씨의 제(齊)나라가 커진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는 것이 결코 적다고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용녀에 대한 내력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지만, 전해 오는 말에 태조가 낳은 자녀

61 용녀 : 온성왕후(溫成王后).

62 실은 이씨였다 : 중국 당나라 황제 집안이 이(李)씨이기에 한 말.

63 오대 : 907년부터 959년까지 53년 동안 중국에서는 후량(後梁) · 후당(後唐) · 후진(後晉) · 후한(後漢) · 후주(後周) 등 다섯 나라가 차례로 일어났다가 망했는데, 이 시대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64 소선제 : 중국 당나라 최후의 임금.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양쪽 겨드랑이에 비늘이 있다고 한다. 태조의 외가가 용이고 용녀가 바다로 다시 돌아가면서 어린 딸을 데리고 가서 또한 용이 되게 한 것은 여자가 시집가서 혹 왕이 될 자를 낳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비늘이 없는 딸은 신하에게 시집보냈지만, 비늘이 있는 딸은 모두 대를 이어 임금의 후궁으로 삼아 윤리를 더럽히는 부끄러움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중엽에 와서는 누이동생을 왕비로 삼은 왕도 있어서 《송사(宋史)》에서 몹시 흉을 보았다. 그러나 이런 일은 왕가에서만 있었을 뿐, 민간의 풍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우리 태조가 위화도에서 회군한 뒤에 우왕(虞王)을 신돈(辛旽)의 자식이라 해서 폐위시켰다. 그리고 공양왕(恭讓王) 요(瑤)를 왕위에 세우고 또 공양왕으로 하여금 우왕을 강릉에서 배어 죽이게 했다. 우(虞)가 형을 받을 때, 겨드랑이를 들어 보이며, “나를 신씨라 하지만, 왕씨는 용의 후손이라 겨드랑이 밑에 비늘이 있는 법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보라”고 했다. 지켜보던 사람이 가까이 가서 보니 과연 그 말이 맞았다고 한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홍무(洪武) 임신년에 우리 태조가 공양왕한테서 왕위를 물려받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겼다. 이때 왕씨의 신하였던 세가(世家)와 대족(大族)들 중 태조에게 불복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개성에 남아 따라 오지 않았는데, 그들이 살던 곳을 그곳 사람들은 두문동(杜門洞)⁶⁵이라 했다.

태조는 그들이 미워 개성 선비에게는 백 년 동안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라고 영을 내렸다. 그래서 거기 남은 자들의 후손은 모두 평민이 되었기 때문에 장사를 하고 학문을 닦지 않았다. 그리하여 삼백 년 이래로 개성에는 사대부라는 명칭이 아주 없어졌고, 또한 서울의 사대부들도 개성에 가서 사는 자가 없었다.

내가 일찍이 대정리(大井里)⁶⁶ 옛 사당에 있는 온성왕후의 소상(塑像)과 창릉(昌陵) 토성(土城)을 보았는데, 항상 이상하게 여긴 것은 “용녀에 관한 이야기가 거짓이기

65 두문동 : 개성 서쪽 만수산(萬壽山) 남쪽에 있으며, 고려 신하들이 조선조 섬기기를 거부하고 숨어 살았다는 곳이다.

66 대정리 : 개성 서쪽 이십 리에 있는 마을.

엔 유적이 뚜렷하고, 또 사실이라면 제나라 동쪽 야인들의 말⁶⁷과 비슷하니, 어느 쪽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장 통탄할 일은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문인이었던 정도전(鄭道傳)이 고려 말에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왕검(王儉)과 저연(褚淵)⁶⁸이 하던 짓을 그대로 따른 일이다. 나라를 팔아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했고, 스승을 해치고 벗을 죽였다. 어디 그 뿐이라. 고려가 망하자 이번에는 왕씨의 종친을 없앨 계책을 세웠다. 자연도(紫燕島)로 귀양 보낸다는 핑계로 큰 배에 왕씨들을 가득 태워 바다에 띄운 다음, 몰래 해엄 잘 치는 자를 시켜서 배 밑에 구멍을 뚫어 가라앉게 했던 것이다. 그때 왕씨와 친하게 지내던 어떤 중이 언덕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았는데, 왕씨가운데 한 사람이 시를 한 수 읊었다.

천천히 노 젓는 소리 푸른 물결 밖인데
비록 산승(山僧)이 있다 한들 그대가 어찌 하리

그 배가 가라앉은 곳에 모래와 진흙이 쌓여 지금은 바다 한가운데 큰 섬이 되었다. 정주해(貞州海)가 바로 그곳인데, 보련강(步輦江) 하류에 있다.

태조는 즉위한 뒤 공양왕을 관동(關東)에 가서 살게 했다. 그리고 왕씨의 태묘(太廟)⁶⁹는 철어 버리고 신주(神主)는 큰 배에 실어 임진강에 띄워 버렸다. 이 배는 스스로 물살을 거슬러 마전현(麻田縣) 강기슭에 있는 절 앞에 멈추었다. 고을 사람들한테 이 말을 들은 태조는 불상을 다른 절에 옮기고 신주를 그 절에 모시라고 영을 내렸다. 그 절을 숭의전(崇義殿)⁷⁰이라 하는데, 왕씨를 찾아 전감(殿監)을 삼으려고

67 제나라 동쪽 야인들의 말 : 들에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근거 없는 말이라는 뜻.

68 왕검·저연 : 두 사람 모두 송나라가 망하자 제나라에 붙어 벼슬한 사람들인데, 의리 없는 사람의 대명사로 쓰인다. 왕검은 송나라 명제(明帝) 때 비서승(秘書承)으로 있다가 제(齊)나라가 건국하자 거기에 붙어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가 되었다. 제나라는 창건된 나라이므로 모든 절차를 왕검이 제정했다. 저연은 송나라 명제 때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로 있었는데, 명제가 죽은 후 소도성(蕭道成)이 다른 마음을 먹자 그를 도왔다. 소도성은 제나라를 세우자 저연을 상서령(尙書令)으로 삼았다.

69 태묘 : 종묘.

70 숭의전 : 경기도 마전(麻田) 서쪽에 있는 전각(殿閣)으로, 조선시대에 고려 태조·현종·문종·원종의

했다. 그러나 왕씨 중 명망 있고 벼슬하던 자는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성명을 바꾸고 도망해 버렸다. 혹은 마(馬)씨로, 혹은 전(全)씨로, 혹은 옥(玉)씨로 바꾸면서 모두 왕(王)자를 글자 속에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왕씨라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세종대왕 때에 와서 비로소 왕순례(王循禮)라는 왕(王)씨 한 사람을 찾아냈다. 옛날 선우(鮮于)씨로 기자전(箕子殿)의 전감을 삼았던 예에 따라, 왕순례에게 전답과 노복을 주고 대대로 전참봉(殿參奉)을 계승하면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 이것은 세종대왕의 성덕(盛德)이었다. 세종대왕은 일찍이 말하기를, “왕씨를 없앤 것은 태조의 뜻이 아니라 공신들의 모략에서 나온 것”이라 한 적이 있었다.

성 안에 있는 선죽교(善竹橋)⁷¹는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⁷²가 살해된 곳이다. 공양왕 때 재상이었던 정공은 홀로 태조에게 아부하지 않았다. 이에 태조 수하의 여러 장수들이 조영규(趙英珪)⁷³를 시켜 다리 위에서 철퇴로 때려죽이고 고려의 왕업이 이씨에게로 넘겨오게 했던 것이다.

그 후 본조(本朝)에서는 정 공을 본조의 제도에 따라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하고 용인(龍仁)에 있는 그의 무덤에 비를 세웠더니 벼락이 쳐서 부숴 버렸다. 정씨 자손들의 청에 따라 고려의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바꾸어 다시 썼더니 지금까지 무사하다. 충성스러운 영혼과 굳은 혼백이 죽은 후에도 변치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 두려운 생각이 든다.

성 동남쪽으로 십여 리 떨어진 덕적산(德積山)에는 최영(崔瑩)의 사당이 있다. 사당에는 소상(塑像)이 있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영험이 있다고 한다. 사당 옆에 침실을 마련하고 민간 처녀가 사당을 모시게 했다. 그 처녀가 늙고 병들면 다시 젊고 예쁜 사람과 바꾸어 가면서 지금까지 삼백 년 동안을 하루같이 이어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사당이다.

71 선죽교 : 개성 시내에 있는 다리로, 정몽주(鄭夢周)가 피살된 곳이다.

72 정몽주(1337~1392) : 문신이자 학자.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 본관은 영일(迎日).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이르렀다. 고려 말년에 절의를 지켜 고려왕조를 부지하려하다가 이성계에 의해 피살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

73 조영규(?~1395) : 무신. 본관은 신창(神昌). 이성계의 추천으로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가 되어 왜구 토벌에 공이 있었고 조선 개국에 공이 많았다. 선죽교에서 정몽주를 격살했다.

내려오고 있다.

사당을 모시는 처녀가 말하기를 “밤이면 신령이 내려와 자고 간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최영은 지략은 없이 용맹하기만 한 장수였다. 자기 딸을 우왕의 비로 삼고 국사를 잘못 처리하여 사직을 남에게 넘겨주었으니, 그 영혼이 하늘에도 오르지 못하고 땅속에도 들어가지 못해 외딴 들의 귀신이 되어, 아직도 남녀 간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죄값으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어둡고 음탕한 일이다.”

그러나 수십 년 전부터 그 사당이 영험을 잃었다고 하니 참으로 의아한 일이다.

만월대는 우러러보면 큰 언덕을 마주 대하는 것 같다. 도선의 《유기(留記)》에 “흙을 헐지 말고 흙과 돌을 돌우어 궁전을 지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고려 태조는 돌을 다듬어 층계를 쌓아 산기슭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위에 궁전을 세웠다.

고려가 망하자 궁궐은 헐렸으나 층계의 주춧돌은 오랜 세월에도 완연하다. 그러나 그 후 관에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개성의 부유한 상인들이 몰래 가져다가 묘석(墓石)을 만드는 바람에 요새 와서는 남은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만월대 뒤에 있는 자하동(紫霞洞)⁷⁴은 송악산 밑인데, 천석(泉石)이 그윽하고도 아가자기하다. 성 안 동남쪽에 있는 남산(男山)은 적신(賊臣) 최충헌(崔忠獻)⁷⁵이 살던 곳이다. 최씨가 망하자 공민왕이 그 자리에 화원(花園)과 팔각전(八角殿)⁷⁶을 세웠는데, 후에 우왕이 포위당한 곳이기도 하다. 또 남쪽에 용수(龍首)와 진봉(進鳳) 두 산이 있는데, 모두 송악산에서 내려온 이 성 안의 안산이다.

감여가(堪輿家)들은 이렇게 말한다. “진봉산은 옥녀(玉女)의 화장대 같은 지형이다. 그래서 고려 임금들이 여러 대를 두고 중국의 공주를 아내로 맞게 되었다. 또 필산(筆山)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백성이 중국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했다. 다만 백호(白虎)에 해당하는 산이 강하고 청룡(靑龍)에 해당하는 산이 약하기 때문에,

74 자하동 : 송악산 밑에 있는데 경치가 대단히 좋다.

75 최충헌(1149~1219) : 고려 무신. 본관은 우봉(牛峰). 음보(蔭補)로 양온령(良溫令)이 되어 벼슬이 문하시중에 이르렀다. 이의민(李義民) 일당을 몰아내고 왕의 측근자를 제거한 다음 무단정치를 단행했다.

76 팔각전 : 공민왕의 화원 가운데 2층 8각으로 지은 전(殿).

나라에 훌륭한 정승이 없고 여러 차례 무신의 난을 겪었다.”

성 동북쪽에 있는 산대암(山臺巖)은 의왕(毅王)이 변란을 당한 곳이고, 서북쪽에 있는 영통동(靈通洞)은 보육(寶育)이 살던 곳이다. 옛날에는 이곳에 귀법사(歸法寺)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영통동 북쪽에 화담(花潭)이 있는데, 천석(泉石)이 몹시 아기자기하다. 종종 때 징사(徵士)⁷⁷였던 서경덕(徐敬德)⁷⁸이 숨어 살던 곳이다. 북쪽으로 고개를 하나 넘으면 현화사(玄化寺) 옛터가 나온다. 지금은 비석과 석탑만 남아 있다. 현화사 서쪽은 대흥동(大興洞)으로, 오관(五冠)과 성거(聖居) 두 산 사이에 있는 큰 동천(洞天)이다. 숙종 때 여기에 산성을 쌓았는데, 바깥쪽은 험하고 안쪽은 평탄해서 천험(天險)의 요새다. 관에서 군량과 병기를 저장하고 큰 절을 지어 중들이 지키도록 해서 갑작스러운 변고에 대비하게 했다. 골 안은 암벽이 몹시 높고 웅장하다. 또 시내도 넓고 물이 깊게 괴었다가 그 밑에서 폭포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박연(朴淵)⁷⁹이다.

개성부 성(城) 서문 밖에 있는 만수산(萬壽山)⁸⁰에는 고려의 일곱 왕릉이 있다. 여기서 북쪽으로 고개를 넘으면 청석동(靑石洞)이다. 꼬불꼬불한 긴 골짜기가 십여 리나 되는데, 양쪽 언덕은 천 길이나 되는 절벽으로 막혀 있고, 큰 시냇물이 그 가운데로 흐르며, 문처럼 생긴 산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

청나라 황제가 병자년에 우리나라에 쳐들어 왔을 때, 여기 와 보고 몹시 두려워한 나머지 용골대(龍骨臺)를 죽이려 했다. 용골대는 이곳을 지키는 군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정탐한 다음에야 나갔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갈 때는 이 길을 피해 개성 동북쪽 백치(白峙) 길로 지나갔다.

개성부의 남쪽은 풍덕부(豐德府)이고 동쪽은 장단(長湍)이다. 영평강(永平江)은 동

77 징사 : 벼슬은 하지 않았지만 나라에서 높이 대우한 선비.

78 서경덕(1489~1546) : 학자. 자는 가구(可久), 호는 화담(花潭). 본관은 당성(唐城). 벼슬하지 않고 끝까지 화담에 살면서 교육에만 힘썼다. 황진이(黃眞伊)·박연폭포(朴淵瀑布)와 함께 송도삼절(松都三絶)이라 부른다. 우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강(文康).

79 박연 : 개성 북쪽 천마산과 성거산 사이에 있는 못과 폭포.

80 만수산 : 개성 서쪽 두문동 북쪽에 있는 산. 고려 역대 제왕의 능이 많이 있다.

쪽에서 흘러오고, 징파강(澄波江)은 북쪽에서 흘러오다가 마전(麻田)에서 합류한 다음 장단 남쪽을 돌아 임진강이 된다. 그리고 서쪽으로 한강과 합류해 풍덕의 승천포(昇天浦)가 되었다.

장단읍은 임진강의 북쪽 백학산(白鶴山) 밑에 있고, 읍 북쪽에는 화장산사(華藏山寺)가 있다. 이 절에는 서역승(西域僧)⁸¹ 지공(指空)이 남긴 패엽경(貝葉經)⁸²과 전단향(旣檀香)⁸³이 있다. 화장산 남쪽으로는 곱다란 산기슭과 평평하게 흐르는 냇가 있는데, 여기에는 고려 때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공경(公卿)들의 무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을 중국 낙양(洛陽)의 북망산(北邙山)⁸⁴에 비교한다.

임진강 동쪽에는 연천(漣川)과 마전(麻田)이 있고 북쪽에는 삭녕(朔寧)이 있다. 한양에서는 정북방으로 백여 리 되는 곳으로, 수로로 두 서울과 통한다. 그러나 이 세 고을은 모두 땅이 척박하고 주민들이 가난해서 살 만한 곳이 적다. 그중에서 삭녕만은 땅이 좋고 강변에 경치 좋은 곳이 많다. 연천에는 미수(眉叟) 허목(許穆)⁸⁵이 살던 곳이 있다.

81 서역 : 중국 서쪽의 여러 나라. 중국에서 한(漢)나라 시대 이후로 옥문관(玉門關)과 양관(陽關) 서쪽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다.

82 패엽경 : 불교 경전이 기록되기 시작한 서기전 1세기 경 인도에서는 주로 자작나무 잎이나 야자나무 잎을 닮은 글씨를 썼는데, 이런 필사용 나뭇잎은 패다라(貝多羅)라 부른다. 패엽경은 이처럼 나뭇잎에 기록한 경전을 말한다.

83 전단향 : 인도의 특산식물로 향이 강하다. 나무에서 네 가지 향이 나는데, 뿌리는 전단향, 줄기는 침향(沈香), 꽃은 계설(鷄舌), 나무진은 훈육(熏陸)이라 한다.

84 북망산 : 중국 낙양 북쪽에 있는 산으로서 공경들의 무덤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산 이름을 따서 공동묘지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85 허목(1595~1682) : 문신이자 학자. 자는 문보(文父), 호는 미수(眉叟), 본관은 양천(陽川), 50여 세가 되도록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1657년에 지평(持平)으로 시작하여 벼슬이 우의정에까지 올랐다. 글씨와 문장에 뛰어났다. 시호는 문정(文正).

복거총론(卜居總論)

복거총론(卜居總論)

대체로 살 곳을 정하는 데에는 지리(地理)¹가 첫째이고, 다음은 생리(生利)²이며, 그 다음은 인심(人心)이요, 또 그 다음은 산수(山水)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모자라면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지리가 아무리 좋아도 생리가 부족하면 오래 살 만한 곳이 못 되고, 생리가 아무리 좋아도 지리가 나쁘면 또한 오래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또 지리와 생리가 모두 좋아도 인심이 좋지 못하면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고, 가까운 곳에 경치 좋은 산수가 없으면 정서를 키우지 못한다.

1 지리 : 땅 · 산 · 강 · 바다의 모양. 즉, 풍수지리.

2 생리 : 그 땅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

지리(地理)

지리를 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수구(水口)를 보고, 다음으로 들의 모양을 본다. 다음으로 산의 모양을 보고, 그 다음으로 흙의 빛깔을 보고, 다음은 조산(朝山)¹과 조수(朝水)²를 본다.

대체로 수구가 짜임새가 없고 광활하기만 하면 아무리 좋은 밭 만 이랑과 넓은 집 천 칸이 있어도 다음 대까지 가지 못하고 흐지부지 없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터를 잡으려면 반드시 수구가 닫혀 있고 그 안에 들이 펼쳐진 곳을 살펴보고 구해야 한다.

그러나 산속에서는 수구가 닫힌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들에서는 수구가 굳게 닫힌 곳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반드시 거슬러 흐르는 물이 있어야 한다. 높은 산이든 그늘진 언덕이든 거슬러 흐르는 물이 힘차게 터를 막고 있으면 좋다. 한 겹만 막고 있어도 좋지만, 세 겹, 다섯 겹으로 막고 있으면 더욱 좋다. 이런 곳은 완벽하게 여러 대를 이어갈 수 있는 터가 될 만하다.

대체로 사람은 양(陽)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다. 하늘이 곧 양(陽)의 빛이니 하늘이 조금밖에 보이지 않는 곳은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그렇기 때문에 들이 넓을수록 집터가 더 좋은 것이다. 해와 달과 별빛이 항상 밝게 비치고, 바람과 비가 적당하고 추위와 더위가 심하지 않은 곳이면 인제가 많이 나고 질병도 적다.

가장 꺼리는 것은 사방이 높은 산에 둘러싸여 해가 늦게 떴다가 일찍 지고 밤에는 북두성(北斗星)이 보이지 않는 곳이다. 이런 곳은 밝은 빛은 적고 음산한 기운이 쉽게 침입하여 귀신의 소굴이 되기도 한다. 또 아침저녁으로 산에서 안개가 장기가 내려와 사람을 병들게 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산골에 사는 것은 들에 사는 것만 못하다. 넓은 들 가운데에 낮은 산이 에워싸고 있으면 산이라 하지 않고 통틀어 들이라고 한다. 그것은 하늘의 빛이 막히지 않고 물 기운도 멀리 통하기 때문이

1 조산 : 멀리 앞으로 보이는 높은 산.

2 조수 : 앞으로 흘러드는 강.

다. 높은 산속이라도 들이 열려 있는 곳이라야 집터가 된다.

산의 모양을 말하자면, 감여가(堪輿家)의 말에 따르면 조종(祖宗)이 되는 산은 누각처럼 치솟은 형세라야 한다고 한다. 주산(主山)이 수려하고 단정하며 청명하고 예쁜 것이 제일이다. 뒷산이 길게 뻗어 들을 건너가다가 갑자기 높은 봉우리가 되고, 지맥(支脈)이 감싸고 돌면서 한 곳에 동부(洞府)를 이루어 마치 궁궐 안으로 들어온 것 같으며, 주산의 형세가 편안하고도 묵중하고 풍성하고도 커서 마치 겹으로 지은 집이나 높은 궁전 같은 것이 그 다음이다.

멀리 사방에 산이 있고, 산맥이 평지로 뻗었다가 물가에서 멈추면서 들이 된 곳이기도 그 다음이다. 가장 꺼리는 것은 들로 내려온 산의 맥이 느리고 약하면서도 생기가 없거나, 혹은 산의 모양이 부서지고 비뚤어져서 길한 기운이 적은 곳이다. 대체로 땅에 생기와 길한 기운이 없으면 인재가 나지 않으니, 산의 모양을 고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시골에 살려면 물 가운데건 물가건 토질이 모래에다 굳고 조밀하면 우물과 샘도 맑고 맛이 좋으니, 이런 곳이면 살 만하다. 그렇지 않고 만일 붉은 찰흙이거나 검은 자갈이거나 누런 진흙이면 이것은 죽은 흙이다. 그런 땅에서 나는 우물물에는 반드시 장기가 있으니, 이런 곳은 살지 못할 곳이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다. 산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한다. 물이 있어야 생성(生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물은 흘러오고 흘러가는 것이 반드시 이치에 맞아야만 정기(精氣)를 모아 기르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것은 감여가(堪輿家)가 쓴 책이 있으니 여기서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뭇자리하고는 달리 집터의 경우, 물은 재물과 녹(祿)을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물가에는 부유한 집과 이름 있는 마을이 많다. 비록 산속이라도 시내와 간수(澗水)³가 모이는 곳이면 여러 대를 이어서 살 수 있다.

조산(朝山)에 보기 흉한 석봉(石峰)이 있거나, 비뚤어진 봉우리가 홀로 서 있거나, 또는 모양이 무너지고 떨어졌거나, 다른 곳을 엿보고 넘겨다보거나, 이상한 돌이

3 간수 : 산골짜기 물.

나 이상한 바위가 산 위나 산 밑에 보이거나, 긴 골짜기에 충사(冲砂)⁴가 전후좌우로 보이면 모두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반드시 산은 멀면 맑고 수려해야 하고, 가까우면 맑고 깨끗해서 한 번 보고도 기쁨을 느끼며, 울퉁불퉁하고 보기 싫지 않으면 길한 것이다.

조수(潮水)라는 것은 물 밖의 물을 말하는 것이다. 작은 내나 작은 시내는 거꾸로 흘러드는 것이 길하다. 그러나 큰 내나 큰 강이 거꾸로 흘러드는 곳은 결코 좋지 않다. 큰 물이 거꾸로 흘러드는 곳은 집터나 밋자리를 막론하고 처음에는 흥하더라도 오래 지나면 망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 이런 곳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흘러오는 물은 반드시 산맥의 좌향(坐向)⁵과 음양 이치에 맞아야 한다. 또 꾸불꾸불 멀리 흘러와야 하고, 화살처럼 곧게 흐르는 곳은 좋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어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자 한다면 지리를 보고 골라야 하는데, 이 여섯 가지⁶가 매우 중요하다

4 충사 : 부딪칠 것 같은 사(砂), 사는 그 터의 전후좌우에 있는 산과 물의 형태를 말한다.

5 좌향 : 놓여 있는 방향.

6 이 여섯 가지 : 수구(水口), 들의 형세, 산의 모양, 흙 빛깔, 물길, 조산(朝山)·조수(朝水) 등 여섯 가지를 말한다.

생리(生利)

생리(生利)를 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숨 쉬고 이슬만 먹으면서 살 수는 없다. 또, 새의 깃털이나 짐승의 털로 몸을 가리고 살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고 먹는 일을 위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위로는 조상과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처자와 노비를 보살펴야 하니, 생업을 경영하고 확장해야 하는 것이다.

공자의 가르침에도 살림이 넉넉해진 뒤에 가르친다고 했으니, 험벗고 굶주리면서 조상의 제사를 받들지 못하고 부모도 봉양하지 못하며 처자의 윤리도 모르는 자에게 어찌 앉아서 도덕과 인의(仁義)를 말하라 하겠는가.

사람들이 공허한 명성만 잡으려 하고 실용은 거들떠보지 않은 지가 오래다. 하기 어려운 일만 억지로 하는 까닭에, 속으로는 악한 짓을 하면서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 체한다. 먼저 의식(衣食) 문제를 위해 힘쓴 뒤에 예의를 익히고, 남에게 악한 일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할 것이다.

푸른 소나무와 흰 구름으로 벼를 삼고, 돌을 베고 자면서 흐르는 물에 양치질하며, 아침 안개 속에 밭을 갈고 달빛을 받으며 물을 길는다면 아 어찌 좋지 않으랴. 하지만 이것은 상고 때 아직 예의가 확립되지 않고 온 세상 사람이 모두 민(民)이었을 때의 얘기다. 만일 이런 것을 본보기로 따른다면, 관례(冠禮)¹ 때에 빈상(賓相)²을 모시지 않고, 혼인에도 친영(親迎)³을 하지 않으며, 초상을 치르는 데 관곽(棺槨)을 쓰지 않고, 제사 지내는 데 제기를 쓰지 않을 것이니,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세상을 살아가려면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보내는 데에 모두 재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재물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땅이 비옥한 곳이 으뜸이요, 배와 수레와 사람과

1 관례 : 옛날에 남자가 20세가 되면 갓을 쓰게 하여 성인(成人)이 되게 하던 의식.

2 빈상 : 예식을 주도하는 사람.

3 친영 : 혼인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신랑 집으로 데려오는 일.

물자가 모여들어 서로 물건을 바꿀 수 있는 곳이 그 다음이다.

땅이 비옥하다는 것은 오곡과 목화를 경작하기에 알맞은 곳을 말한다. 논에 벼씨 한 말을 심어서 60두(斗)를 수확하는 곳이 제일이고, 40에서 50두를 수확하는 곳이 그 다음이며, 30두 이하를 수확하는 곳은 땅이 척박해서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나라 안에서 가장 비옥한 땅은 전라도의 남원(南原)·구례(求禮)와 경상도의 성주(星州)·진주(晉州) 등 몇 곳이다. 이 지방은 논에 종자 한 말을 심어서 최상은 140두를 수확하고, 다음은 100두를 수확하며, 최하는 80두를 수확하는데, 다른 고을은 그렇지 못하다.

경상도 좌도(左道)는 땅이 척박해서 백성들이 가난하지만 우도(右道)는 비옥하다. 전라도는 좌도의 지리산 부근이 모두 비옥하다. 하지만 해변에 있는 고을은 물이 없어 가뭄을 많이 탄다.

충청도는 내포(內浦)와 차령(車嶺) 이남은 비옥한 곳과 척박한 곳이 반반인데, 가장 비옥한 곳이라도 씨 한 말을 심어서 60두 내외를 수확하는 곳이 많다. 차령 북쪽에서 한강 남쪽까지도 역시 비옥한 땅과 척박한 땅이 반반이지만, 차령 남쪽보다는 못해서 비옥하다는 곳도 수확이 40두를 넘지 못하는 곳이 많다. 한강 북쪽으로는 대체로 땅이 척박하다.

동쪽 강원도에서 서쪽 개성부(開城府)에 이르기까지는 논에 종자 한 말을 심어도 수확이 30두에 불과하고, 이보다 못한 곳은 이만도 못하다. 강원도의 영동(嶺東) 아홉 고을⁴에서 함경도에 이르기까지는 땅이 더욱 척박하고, 황해도는 비옥한 곳과 척박한 곳이 반반이다. 평안도의 산간 고을은 척박하지만, 바다와 가까운 여러 고을은 제법 비옥해서 충청도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산간 고을은 밭에 조를 많이 심고, 바닷가 고을은 콩과 보리를 심는다. 산과 바다가 멀리 떨어진 평야 지대 고을에는 적합하지 않은 곡식이 없다. 목화 재배는 영남과 호남이 가장 적합해서, 산골이건 바닷가건 경작하기에 모두 마땅하다.

강원도 영동 지방에서 북쪽 함경도에 이르기까지는 목화는 종자조차 없다. 비록 심어도 자라지 않는다. 강원도의 영서 지방은 산속 기후가 쓸쓸하고 추위 재배하

4 영동 아홉 고을 : 강릉, 삼척, 양양, 평해, 간성, 고성, 통천, 울진, 흡곡.

기에 더욱 부적합하다. 오직 원주(原州)와 춘천(春川) 근처 들에서 조금씩 심지만, 역시 겨우 자라는 정도다. 경기도 한강 이북의 산간 고을은 산이 높고 물이 차서 재배하기에 적당치 않다. 비록 들에 있는 고을에서는 심기도 하고 심지 않기도 하지만, 개성부만은 가장 많이 재배한다.

한강 남쪽의 바닷가 지역인 내포(內浦) · 임천(林川) · 한산(韓山)은 모두 목화를 재배하기에 적당치 않다. 비록 심는다 해도 땅이 단단하지 못해서 싹은 트지만 꽃이 피지 않는다. 한강 남쪽의 내륙 지방에서는 꽤 심지만 그래도 몹시 드물다. 오직 충주(忠州)와 가까운 괴산(槐山) · 연풍(延豐) · 청풍(淸風) · 단양(丹陽)에서는 이보다 많이 심지만, 고을마다 목화를 심는 차령 남쪽 고을만은 못하다.

황간(黃澗) · 영동(永同) · 옥천(沃川) · 회덕(懷德) · 공주(公州)가 첫째이고, 그 다음은 청주(淸州) · 문의(文義) · 연기(燕岐) · 진천(鎭川) 등 고을이 가장 잘 된다. 황해도 바닷가 고을은 목화 재배에 부적합하지만, 산간 고을과 평야 지대 고을은 모두 목화 재배에 적당한 땅이어서 많이 심는다. 평안도의 경우 산간 고을은 재배하는 곳이 드물지만, 평야 지대 고을은 목화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 밖에 진안(鎭安)의 담배밭, 전주와 생강밭, 임천과 한산의 모시밭, 안동과 예안의 왕골밭이 있다. 이것은 모두 나라 안에서 으뜸이어서, 부자들이 이익을 독점하는 물건이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농지의 대략이다.

물건을 교역하는 것은 신농⁵성인(神農聖人)이 만든 법이다. 이 법이 없으면 재물이 생길 수가 없다. 그러나 물건을 운반하는 데에는 말이 수레보다 못하고, 수레는 배보다 못하다.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고 들이 적어서 상인들은 모두 말에 짐을 싣는다. 그러나 갈 길이 멀면 운송비가 많이 들어 소득이 적다. 배에 실어 교역하는 것보다 못하다.

우리나라는 동쪽과 서쪽과 남쪽이 모두 바다여서 배가 다니지 않는 곳이 없다. 하지만 동해는 바람이 세고 물결이 사나워, 경상도 동해 가의 여러 고을과 강원도 영

5 신농 : 중국 고대 전설에 나오는 제왕(帝王)의 한 사람. 농사짓는 법을 처음으로 가르치고 64괘(卦)를 처음 만들었다고 한다.

동 쪽과 함경도는 서로 배가 다니지만, 서쪽과 남쪽의 배는 동해의 파도에 익숙지 못해 왕래가 드물다.

또 서쪽과 남쪽 바다는 물결이 잔잔하기 때문에 남쪽의 전라도·경상도에서 북쪽의 서울 개성까지 장사꾼의 왕래가 끊이지 않으며, 북쪽으로 황해도·평안도와도 통한다. 배로 왕래하는 상인은 반드시 강과 바다가 서로 통하는 곳에서 이익을 얻으며 외상 거래도 한다.

경상도의 낙동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곳이 김해(金海) 칠성포(七星浦)다. 여기서 북쪽으로는 상주(尙州)까지 올라갈 수 있고 서쪽으로는 진주(晉州)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김해가 그 출입구를 관할하게 된다. 이곳은 경상도의 수구(水口)에 위치하기 때문에 남북으로 바다와 육지의 이익을 모두 차지하고, 공공기관이나 개인이나 모두 소금을 팔아서 큰 수익을 얻는다.

전라도는 나주(羅州)의 영산강(靈山江)과 영광(靈光)의 법성포(法聖浦)⁶, 흥덕(興德)의 사진포(沙津浦)⁷, 전주의 사탄(沙灘)이 물길은 비록 짧지만 모두 바다와 통하기 때문에 장삿배가 모여든다. 충청도는 금강(錦江) 하나가 발원지가 멀다. 그러나 공주부터 동쪽은 물이 얇고 여울이 많아서 배가 다니지 못하고, 부여(扶餘)와 은진(恩津)에서 비로소 바다 조수와 통하여 백마강 이하 진강(鎭江) 일대는 모두 배가 다닌다.

은진의 강경(江景)은 충청도와 전라도의 육지와 바다 사이에 자리 잡아, 금강 남쪽 평야 한가운데에서 하나의 큰 도회를 이룬다. 바닷가 사람과 산골 사람들이 모두 여기서 물건을 사고판다. 언제나 봄과 여름 사이에 생선을 잡고 해조를 뜯는데, 이때에는 비린내가 마을을 뒤덮고 크고 작은 배가 두 갈래로 갈라진 항구에 담장을 친 것처럼 주야로 늘어서 있다. 한 달에 여섯 번씩 열리는 큰 장에는 원근 각처의 물화가 와서 쌓인다.

내포(內浦)는 아산(牙山) 공세호(貢稅湖)⁸와 덕산(德山) 유궁포(由宮浦)가 물이 많

6 법성포 : 영광 서북쪽 바다와 강 어귀에 있는 나루.

7 사진포 : 흥덕 서쪽에 있는 나루.

8 공세호 : 아산 서쪽에 있다.

고 근원이 길다. 홍주(洪州) 광천(廣川)⁹과 서산(瑞山) 성연(聖淵)¹⁰은 비록 강에 있는 항구이지만, 바닷물이 통하기 때문에 장삿배가 머물면서 화물을 싣고 부린다. 경기도의 해변 고을은 바닷물이 통하는 강이 있어도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장삿배가 많이 모이지 않는다. 한양 남쪽 칠 리쯤 되는 곳에 용산호(龍山湖)¹¹가 있다. 옛 날에는 한강의 본줄기가 남쪽 기슭 밑으로 흘러가고 또 한줄기는 북쪽기슭 밑으로 돌아 들어와서 십 리나 되는 긴긴 호수였다. 서쪽으로 염창(鹽倉)¹²의 모래 언덕이 막아 물이 나가지 않아서 그 안에 연(蓮)이 자랐다.

고려 때는 가끔 임금의 수레가 여기 머물면서 연꽃을 구경했는데, 본조(本朝)에서 서울에 도읍을 정한 뒤로는 조수가 갑자기 밀려들어 염창 모래 언덕이 무너지면서 바닷물이 바로 용산까지 들어오니, 8도의 화물을 운반하는 배가 모두 용산에 정박하게 되었다.

용산 서쪽은 마포(麻浦)¹³ · 토정(土亭)¹⁴ · 농암(籠巖) 등 강촌이다. 이 마을들은 모두 서해와 통해서 8도의 배가 모이는 곳이 되었다. 도성 안의 공후(公侯)와 귀족들은 모두 여기에 정자나 누대(樓臺)를 지어 놓고 놀이를 하고 잔치를 벌인다. 지금까지 삼백여 년 동안 한강 물이 점점 줄어들어 한강 위쪽으로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한다. 또 염창(鹽倉) 모래 언덕이 있었던 곳에는 해마다 진흙이 쌓여 앞으로 막히게 될 형편이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개성부는 수구문(水口門) 밖 십 리쯤 되는 곳에 동강(東江)이 있다. 바닷물이 통해서 화물을 운반하는 배가 정박하던 곳인데, 고려가 망한 뒤부터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고 강이 얕아져서 배가 들어오지 못한다.

또 승천포(昇天浦)는 개성부와 사십 리나 떨어진 먼 곳에 있지만, 오직 후서강(後西江)만은 부(府)에서 삼십 리가 못 되기 때문에 다른 도의 배가 왕래한다. 큰 배는

9 광천 : 오늘날 홍성(洪城) 남서쪽에 있는 강. 보개산(寶蓋山)에서 시작하여 영보정(永保亭) 앞으로 흐른다.

10 성연 : 서산 북쪽에 있다.

11 용산호 : 오늘날 서울 여의도 부근.

12 염창 : 오늘날 서울 난지도 남쪽.

13 마포 : 서울 용산 바로 서쪽.

14 토정 : 서울 마포와 서강 사이에 있다.

바다로 나가 먼 곳까지 장사를 나가고, 작은 배는 강물을 따라 출입한다. 북쪽으로는 강음(江陰)까지 가고, 서쪽으로는 연안(延安)까지 가며, 동쪽으로는 한강까지도 왕래한다.

강화(江華)와 교동(喬桐) 두 섬은 후서강 남쪽에 있다. 강과 바다에 싸여 있어 생선과 소금을 생산하는데, 서울과 개성의 상인들이 모두 여기서 많은 이익을 얻는다. 평안도는 평양의 대동강과 안주(安州)의 청천강에 배가 다닌다. 그러나 남쪽에 물길이 매우 험한 장산곶(長山串)이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오는 배는 드물다. 장산곶은 앞에서 말한 황해도 장연(長淵) 땅이다. 육지가 바다로 뿔처럼 뿔쪼록하게 돌출했는데, 암초와 파도가 험해 뱃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한다.

충청도 내포의 태안(泰安) 서쪽에는 안흥곶(安興串)¹⁵이 있다. 여기도 장산곶처럼 육지가 바다로 쏙 들어갔다. 두 개의 바위가 가파르게 솟아있는 바다 가운데로 배가 지나가게 되는데, 뱃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한다. 남북 두 곳이 바다 가운데에 우뚝 솟아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배가 여기서 많이 조난을 당한다.

전라도·경상도·충청도 삼도는 부세(賦稅)를 모두 배를 이용해서 서울로 운송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길에는 모두 조군(漕軍)¹⁶을 두어 그 해 안에 차례로 실어 나른다. 또 서울의 여러 궁가(宮家)¹⁷와 사대부 집에서는 삼남(三南)에 농토가 없는 집이 별로 없다. 그리고 모두들 배로 곡식을 운반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뱃사람들은 수로에 익숙하고 장사꾼도 많아서 안흥곶을 마치 자기 집 뜰을 거니는 것처럼 쉬워한다.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고을에서 거둔 세곡(稅穀)을 서울로 운송하는 예가 없다. 그 지방에 그대로 두었다가 칙사(勅使)¹⁸가 왕래하거나 국경을 수비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배로 운반하는 일이 없고, 사대부가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짐을 운반하는 일도 없다. 오직 그 고장의 장삿배가

15 안흥곶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리.

16 조군 : 나라의 세곡(稅穀) 따위를 운반할 때 직접 배를 부리기도 하고 또 뱃사람을 감독하기도 하던 군졸.

17 궁가 : 왕자와 왕녀(王女)가 따로 분가하여 사는 집.

18 칙사 : 황제의 칙서(勅書)를 받들고 오는 사신.

이따금 서울에 왕래하기도 하고 다른 지방의 장삿배가 오는 일도 있지만, 삼남처럼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뱃사람이 물살을 넘는 데 익숙하지 못해 남쪽 뱃사람이 안흥곶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장산곶을 더 두려워한다.

바닷물이 통하는 곳은 그만두고 하운(河運)만 가지고 말한다면 강에 다니는 배는 작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 온 나라 안에서 오직 한강이 가장 크고 물의 근원이 멀며, 바닷물도 많이 드나든다.

동남쪽으로 청풍(淸風)의 황강(黃江), 충주의 금천(金遷)과 목계(木溪), 원주의 흥원창(興元倉), 여주의 백애촌(白崖村)과 동북쪽으로는 춘천의 우두촌(牛頭村), 낭천(狼川)의 원암촌(元巖村)과 정북쪽으로 연천(漣川)의 징파도(澄波渡)는 배가 왕래하고 장삿배가 외상 거래도 하는 곳이다. 오직 한양은 좌우로 바닷가의 배편과 통하고 동쪽과 서쪽 강에도 전국의 물화를 운반하는 배가 모여드는 편리함이 있다. 이로 인해 부자가 된 사람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곳이 첫째다.

이상이 우리나라 수로와 주운(舟運)의 대략이다.

부상(富商)이나 큰 장사꾼은 앉아서 돈을 뿌리며 남쪽으로는 왜국과 거래하고 북쪽으로는 중국 연경(燕京)과 거래를 하는데, 여러 해를 두고 물화를 수입해 수백만 금의 돈을 모은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한양에 가장 많고, 다음은 개성이며, 그 다음은 평안도 안주(安州)다. 이들 고을은 모두 중국 연경(燕京) 가는 길에 있어서 큰 부자가 된 것이니, 이것은 배를 이용해서 얻는 이익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삼남에는 이와 대등한 자가 없다.

그러나 사대부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선과 소금이 잘 유통되는 곳을 골라서 배를 마련해 둔다. 그리고 그것으로 생기는 이익으로 관혼상제 등 사례(四禮)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고 있으니, 해로울 것이 없다.

인심(人心)

인심을 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자는 말하기를 “마을 인심이 착한 곳이 좋다. 가려서 착한 곳에 살지 않으면 어찌 지혜롭다고 하랴”고 했다. 또 옛날 맹자의 어머니가 세 번이나 집을 옮긴 것도 아들의 교육 때문이었다. 좋은 풍속을 가려 택하지 않는다면 자기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도 나쁜 물이 들어 행실을 그르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터를 잡을 때는 그 고장의 풍속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8도 중에 평안도는 인심이 가장 순후(醇厚)하고, 그 다음은 경상도 풍속이 소박하고 진실하다. 함경도는 오랑캐 땅과 접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거칠고 사나우며, 황해도산수가 험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납고 모질다. 강원도는 산골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많고, 전라도는 간사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쁜 일에 마음이 움직이기 쉽다. 경기도는 도성 밖 백성들의 생활이 가난하고, 충청도는 세력과 재리(財利)만을 쫓는다. 이것이 8도 인심의 대략이다.

그러나 이것은 서민의 경우이고 사대부의 풍속은 그렇지 않다. 대개 우리나라 관제(官制)는 고대와는 달라서, 삼공(三公)¹과 육경(六卿)²이 모든 관청을 감독하고 통솔하게 되어 있으나 그중에 중점은 대각(臺閣)³에 두었다.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들어 관리들을 처리하고 오로지 남들의 의논만을 가지고 정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안팎의 벼슬을 임명하는 일은 삼공이 맡지 않고 오로지 이조(吏曹)에 일임했다. 그러나 또 이조의 권한이 너무 클 것을 우려하여, 삼사(三司)⁴의 관원을 추천할 때에는 판서(判書)에게 맡기지 않고 전적으로 낭관(郎官)⁵에게 맡겼다. 그런 까닭에

1 삼공 :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말한다.

2 육경 : 육조의 판서. 육조는 즉 이조(吏曹 인사 담당), 호조(戶曹 조세), 예조(禮曹 행사와 교육), 병조(兵曹 군사와 우편), 형조(刑曹 법률과 형벌), 공조(工曹 건설과 제작)를 일컫는다.

3 대각 : 대간(臺諫)과 같은 말. 대(臺)는 사헌부(司憲府)를, 간(諫)은 사간원(司諫院)을 가리킨다.

4 삼사 : 사헌부 · 사간원 · 홍문관(弘文館).

5 낭관 : 각 조의 정5품 벼슬인 정랑(正郎)과 정6품 벼슬인 좌랑(佐郎).

이조(吏曹)의 정랑(正郎)과 좌랑(佐郎)이 대각(臺閣)의 임명권을 장악하게 되니, 삼공과 육경이 벼슬은 비록 높지만 전랑(銓郎)⁶이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삼사의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논하게 한다. 조정 풍속이 엄치를 숭상하고 명예와 절의(節義)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탄핵(彈劾)⁷을 당하면 그 자리를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전랑의 권리는 바로 삼공과 비슷하다. 이것은 크고 작은 벼슬이 서로 엇히고 위와 아래가 서로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삼백 년을 내려오는 동안 큰 권세로 농간을 부린 자도 없었고, 꼬리가 커서 흔들기 어려웠던 근심도 없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조종(祖宗)께서 왕권이 약하고 신하의 세력이 강했던 고려조의 폐단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그런 까닭에 삼사(三司) 중에 반드시 명망과 덕행이 있는 자를 엄밀히 가려 전랑을 삼고, 또 전랑에게 자기 후임자를 추천하게 했다. 추천할 권리를 관장(官長)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인사권을 소중히 여겨 모두 공정한 의논에 붙이게 한 것이다. 대체로 관직의 품계(品階)⁸를 승진시킬 때에는 반드시 먼저 전랑을 올려서 쓴 뒤에 다른 관청의 인사를 처리하게 했다. 또, 한번 전랑을 지낸 사람으로서 별 문제만 없으면 어려움 없이 공경(公卿)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벼슬에는 명예와 이익이 모두 따라다녀, 젊은 신진으로서도 이 자리를 희망하고 부러워하지 않는 자가 없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고 보니, 차례와 추천 문제에서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선조 때에 김효원(金孝元)⁹이 명망이 있어서 전랑에 추천되었다. 그러나 왕실의 외척이었던 이조참의(吏曹參議) 심의겸(沈義謙)¹⁰은 김효원이 전랑이 되는 것을 반대

6 전랑 : 이조를 전조(銓曹)라 하는데, 전랑은 전조의 낭관을 가리킨다. 즉 이조의 정랑과 좌랑이다.

7 탄핵 : 관리의 죄과를 조사하여 임금에게 아뢰는 것.

8 품계 : 직품(職品)과 관계(官階).

9 김효원(1532~1590) : 문신, 자는 인백(仁伯), 호는 성암(省庵), 본관은 선산(善山), 알성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벼슬이 부사(府使)에 이르렀다. 심의겸과의 분규로 동서봉당이 시작됐다.

10 심의겸(1535~1587) : 문신, 자는 방숙(方叔), 호는 손암(巽菴), 본관은 청송(靑松), 인순왕후(仁順王后)의 동생.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간에 이르렀다. 김효원과의 분규로 당쟁의 실마리를 만들었다.

했다. 김효원은 명망 있는 집 자제로서 학행과 문장이 뛰어나고 또 어진 사람을 추대하고 유능한 사람에게 양보하기를 좋아하여 젊은 선비들로부터 크게 환심을 사고 있었다.

이에 선비들이 심의겸을 가리켜 어진 사람을 배척하고 권세를 희롱한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심의겸이 비록 왕실의 외척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권력 있는 자를 물리치고 선비들을 등용한 공이 있어서 벼슬 높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를 옹호했다. 이리하여 선배와 후배 사이에 의견이 둘로 갈리었는데,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으나 일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계미(癸未)년과 갑신(甲申)년 사이에 동(東)·서(西)라는 이름으로 처음 갈라졌다. 김효원의 집이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일파를 동인(東人)이라 했고, 심의겸의 집이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일파를 서인(西人)이라 했다. 동인은 김효원·유성룡(柳成龍)·김우옹(金宇顙)·이산해(李山海)¹¹·정지연(鄭芝衍)¹²·정유길(鄭惟吉)¹³·허봉(許篈)·이발(李潑)¹⁴ 등을 추대하고, 서인은 심의겸·박순(朴淳)¹⁵·정철(鄭澈)·윤두수(尹斗壽)¹⁶·윤근수(尹根壽)¹⁷·구사맹(具思孟)¹⁸ 등을 추대했는데, 이렇게 해서 봉당(朋黨)이 생기게 된 것이다.

11 이산해(1539~1609) : 문신. 자는 여수(汝受), 호는 아계(鰲溪). 본관은 한산(韓山).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충(文忠).

12 정지연(1527~1583) : 문신. 자는 연지(衍之), 호는 남봉(南峰). 본관은 동래(東萊).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13 정유길(1515~1588) : 문신. 자는 길원(吉元), 호는 임당(林塘). 본관은 동래.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다.

14 이발(1544~1589) : 문신. 자는 경함(景涵), 호는 동암(東庵). 본관은 광주(光州). 알성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간에 이르렀다.

15 박순(1523~1589) : 문인. 자는 화숙(和叔), 호는 사암(思庵). 본관은 충주(忠州). 친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충(文忠).

16 윤두수(1533~1601) : 문신. 자는 자양(子仰), 호는 오음(梧陰). 본관은 해평(海平).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정(文靖).

17 윤근수(1537~1616) : 문신. 자는 자고(子固), 호는 월정(月汀). 본관은 해평. 윤두수의 아우.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정(文貞).

18 구사맹(1531~1604) : 문신. 자는 경시(景時), 호는 팔곡(八谷). 본관은 능성(綾城).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의(文懿).

이보다 앞서, 정승 이준경(李浚慶)¹⁹이 임종할 때 말하기를 “조정 신하들 중에 장차 봉당의 조짐이 있습니다” 했는데, 옥당(玉堂) 이이(李珥)가 배척하는 소(疏)를 올려, “이것은 임금과 신하 사이를 이간하는 말입니다”라고 했다. 심지어 “죽으면서 한 말이 악하다”고까지 했다. 이때에 와서는 이이는 자기 말이 틀렸다는 것을 걱정하여, 동·서의 중간에 들어서 조정하고 화해시키기에 힘썼다.

그러나 나라에서 여러 번 사화²⁰를 겪은 것이 모두 왕실의 외척에서 연유된 것이었기 때문에 선비들은 왕실의 외척을 몹시 미워했다. 그런데 심의겸이 마침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자 그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왔다.

그때 인순왕대비(仁順王大妃)²¹는 세상을 떠났고 선조는 지파(支派)로서 대통을 이었기 때문에 심의겸은 궁중과의 인연이 끊어진 상태였다. 한데도 그가 외척이라는 허울뿐인 이름만 가지고 지나치게 설치니, 동인은 심의겸을 두둔하는 자를 모두 미워하게 되었다. 명망을 흠모하는 신진 선비들은 동인이 매우 많았다.

이이가 비록 중간에서 조정했지만, 이때에 와서 선비들의 논조가 너무 격렬해진 것을 보고, 대사헌(大司憲)이 된 후에는 심의겸을 탄핵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이는 서인은 아니었다.

그가 병조판서로 있던 어느 날, 옥당(玉堂)²² 홍적(洪迪)²³의 집에 가서, 적(迪)의 “지는 꽃은 높게도 날고 낮게도 날아 가지런하지 않다(落花高下不齊飛)”는 시를 읊으며 이 시는 당시(唐詩)의 격조라고 칭찬했다. 이때 그 자리에는 명사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홍적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여기 모인 것은 공을 탄핵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이이는 “공적인 의논이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

19 이준경(1499~1572) : 문신, 자는 원길(原吉), 호는 동고(東皐), 본관은 광주(廣州),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정(忠正).

20 사화 : 사림(士林)의 참화(慘禍). 조선시대에 조신(朝臣)과 선비들이 정적들을 몰아 화를 입힌 일을 말한다. 무오사화(戊午士禍)(1498, 연산군 4년), 갑자사화(甲子士禍)(1504, 연산군 10년), 기묘사화(己卯士禍)(1519, 중종 14년), 을사사화(乙巳士禍)(1545, 명종 1년)가 있었다.

21 인순왕대비(1532~1575) : 조선 제13대 명종(明宗)의 정비인 인순왕후(仁順王后)를 말한다.

22 옥당 : 홍문관의 관원. 원래는 홍문관을 일컫는 별칭이었다.

23 홍적(1549~1591) : 문신, 자는 태고(太古), 호는 양재(養齋), 본관은 남양(南陽),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사인(舍人)에 이르렀다.

겠소” 하고 일어났다.

허봉(許篈)이 이이를 탄핵하는 소를 올리자, 임금은 노하여 도리어 허봉을 귀양 보냈다. 대사간 송응개(宋應鵬)²⁴가 또 이이를 탄핵하자, 임금은 또 송응개를 귀양 보냈고, 도승지 박근원(朴謹元)²⁵이 동료들을 데리고 이 일을 거둬 아뢰자, 임금은 또 박근원을 귀양 보냈다. 이것이 세 차례의 귀양이다. 하지만 허봉이 한 말에는 억지가 많고 실상은 적었다. 이렇게 되자 이이를 두둔하는 자가 심의점을 두둔하는 자보다 많아지고 서인의 수도 많아졌다.

이름난 유학자였던 이이는 서인으로 자처하지는 않았으나, 세 차례나 귀양 보내는 일에 경솔히 관여해서 정국이 온통 뒤바뀌어 수습할 수 없게 되었으니, 세 차례 귀양 보내게 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얼마 후에 이이가 죽고, 기축년에 정여립(鄭汝立)²⁶의 옥사가 일어났다. 이때 임금이 정철로 위관(委官)²⁷을 삼아서 옥사를 다스리게 했다. 정철이 옥사를 다스리자 평소에 과격했던 동인은 죽이지 않으면 귀양 보내니, 조정이 거의 비다시피 했다. 기축년에서 신묘년에 이르기까지 옥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범위가 넓어져만 갔다. 이때 이산해는 영상(領相)이고 정철은 좌상(左相)이었는데, 이산해는 정철이 옥사를 핑계로 자기를 해치거나 앓을까 의심이 나서 뜬소문을 퍼뜨렸다.

정철이 바야흐로 금부(禁府)에서 옥사를 다스리고 있는데, 왕이 비망기(備忘記)²⁸를 내려 정철을 쫓아냈다. 이에 양사(兩司)의 대간(臺諫)이 정철을 논박하는 계사(啓辭)²⁹를 올려 강계(江界)로 귀양 보냈다. 양사에서는 벌을 추가하고자 했으나, 이산해가 옳지 못하다고 하여 중지시켰다.

24 송응개(?~1588) : 문신. 본관은 은진(恩津). 벼슬이 대사간에 이르렀다.

25 박근원(1525~?) : 문신. 자는 일초(一初), 호는 망일재(望日齋). 본관은 밀양(密陽).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헌에 이르렀다.

26 정여립(1546~1589) : 모반자. 자는 인백(仁伯), 호는 죽도(竹島). 본관은 동래(東萊).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수찬(修撰)에 이르렀으나, 임금의 미움을 받고 진안 죽도에서 대동계(大同契)를 모아 모반하다가 자살했다.

27 위관 : 옥사(獄事)를 다스릴 때 대신 가운데 임명하던 임시 벼슬.

28 비망기 : 임금이 명령을 적어서 승지(承旨)에게 내리던 문서.

29 계사 : 죄상을 적어 임금에게 올리는 글.

정철이 귀양 간 후 이산해는 정철에게 쫓겨났던 동인들을 모두 불러들여 조정 관직에 임명하고 또 정철에게 붙었던 서인을 몰아냈으니, 이것이 신묘년에 있었던 일진일퇴의 정국이었다. 이때부터 동인이 정국을 장악했다.

임진년에 선조가 파천(播遷)³⁰하여 잠시 개성부에 머물게 되었다. 이때 종실 한 사람이 소(疏)를 올려, 김공량(金公諒)³¹이 대궐과 통하여 정사를 어지럽혔다고 고하고 또 이산해가 정사를 그르쳤다고 고하여 귀양 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은 이산해만 귀양 보내도록 명했다. 이에 이산해는 영상의 지위에서 파면되고 평해(平海)로 귀양 갔다.

임금이 남문루(南門樓)에 거둥했는데, 정철을 소환하도록 청하는 글을 올리는 자가 있었다. 이에 임금은 정철을 용서하고 행재소(行在所)³²로 오게 했다.

임금이 의주(義州)에 이르러 시 한 수를 정원(政院)³³에 내렸다.

관산(關山)³⁴ 달을 보고 통곡하고

압록강 바람에 마음 상한다

조정 신하들은 오늘 이후에도

다시 또 서인·동인 할 것인가

임금이 서울에 돌아온 후에도 왜적들은 남쪽 바닷가에 머문 채 돌아가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밖으로는 왜적을 막고 안으로는 명나라 장수를 접대하느라 여러모로 바빴다. 그리하여 동인과 서인이 조정에서 함께 베풀해도 서로 공격할 겨를이 없었다. 무술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죽자 그제야 왜적이 돌아갔다.

30 파천: 임금이 난을 피해 서울을 떠나는 일.

31 김공량: 인빈(仁嬪) 김씨의 오빠. 누이가 임금의 총애를 받아 권세를 부려 정치에 관여했으며, 뒤에 처형하라는 명이 내려져 강원도로 도망갔다.

32 행재소: 임금의 임시 거처.

33 정원: 승정원(承政院)의 준말. 조선시대에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

34 관산: 국경 지대에 있는 산.

이때 이산해는 사면되어 돌아와 원임대신(原任大臣)이 되었고, 이산해의 아들 경전(慶全)³⁵은 이미 과거에 올라 있었다. 옥당을 뽑게 되었는데, 이 경전은 글 잘한다는 명성이 있었고 또 대신의 자제이기 때문에 전조(銓曹)에서 추천할 수가 있었다.

대개 조종의 관례로서 이조의 낭관(郎官)이 옥당을 뽑을 때에는 추천받을 사람 중에서 가장 유망한 사람을 골라 자신의 후임으로 추천하는데, 이것을 이조 홍문록(吏曹弘文錄)이라고 한다. 그때 영남 사람 정경세(鄭經世)가 전랑(銓郎)으로 있었는데, 이경전이 추천되는 것을 막으려고, “경전은 유생으로 있을 때부터 남들의 비방을 많이 받았으니, 전조(銓曹)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을 퍼뜨렸다. 그러자 이산해와 이산해를 따르던 자들이 크게 노했다.

그때 이덕형(李德馨)³⁶이 정승으로 있었는데, 사람을 시켜 이준(李垺)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경임(景任)³⁷에게 말하게. 만일 이 경전이 전조에 추천되는 것을 막으면 반드시 큰 풍파가 일어날 것인 즉, 이것은 조정을 평온하게 하는 일이 아닐세. 내가 사사로운 감정에서 하는 말이 아닐세.”

이준은 정경세와 같은 고을 사람이고, 이경전은 이덕형의 처남이었기 때문에 한 말이었다. 그러나 정경세는 말을 듣지 않았다.

얼마 후 남이공(南以恭)³⁸이 대간이 되자 수상 유성룡을 호되게 탄핵했다. 정경세가 유성룡의 제자였으므로, 이산해는 정경세가 유성룡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해서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남이공을 시켜 말한 것이었으나, 실은 유성룡의 잘못은 아니었다.

35 이경전(1567~1644) : 문신. 자는 중집(仲集), 호는 석루(石樓). 본관은 한산(韓山).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형조판서에 이르렀다.

36 이덕형(1561~1613) : 문신. 자는 명보(明甫), 호는 한음(澗陰). 본관은 광주(廣州).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38세에 우의정·좌의정을 역임했다. 시호는 문익(文翼).

37 경임 : 정경세(鄭經世)의 자.

38 남이공(1565~1640) : 문신. 자는 자안(子安), 호는 설사(雪叟). 본관은 의령(宜寧).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벼슬이 공조판서에 이르렀다.

유성룡의 편을 드는 이원익(李元翼)³⁹ · 이덕형 · 이수광(李睟光)⁴⁰ · 윤승훈(尹承勳)⁴¹ · 한준겸(韓浚謙)⁴²을 모두 남인(南人)이라 했는데, 이것은 유성룡이 영남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산해의 편을 드는 유영경(柳永慶)⁴³ · 기자현(奇自獻)⁴⁴ · 박승중(朴承宗)⁴⁵ · 유몽인(柳夢寅)⁴⁶ · 박흥구(朴弘耆)⁴⁷ · 홍여순(洪汝淳)⁴⁸ · 임국로(任國老)⁴⁹ · 이이첨(李爾瞻)⁵⁰을 모두 북인(北人)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산해의 집이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으나 남인은 아주 적었다.

선조 말년부터 북인이 국정을 장악한 지 십 년이나 되었고, 광해(光海)가 즉위하자 서인과 남인은 모두 세력을 잃었다. 그 후 또 북인은 대북(大北)과 소북(小北)으로

- 39 이원익(1547~1634) : 문신. 자는 공려(公勵), 호는 오리(梧里). 본관은 전주(全州).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충(文忠).
- 40 이수광(1563~1628) : 문신 · 실학자. 자는 윤경(潤卿), 호는 지봉(芝峰). 본관은 전주(全州).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헌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간(文簡).
- 41 윤승훈(1549~1611) : 문신. 자는 자술(子述), 호는 청봉(淸峰). 본관은 해평(海平).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숙(文肅).
- 42 한준겸(1557~1627) : 문신. 자는 익지(益之), 호는 유천(柳千). 본관은 청주(淸州).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 5도도원수 등을 역임했고, 인조(仁祖)의 장인이 되어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문익(文翼).
- 43 유영경(1550~1608) : 문신. 자는 선여(善餘), 호는 춘호(春湖). 본관은 전주(全州). 춘당대문과(春塘臺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 44 기자현(1562~1624) : 문신. 자는 사정(士靖), 호는 만전(晩全). 본관은 행주(幸州).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가, 이괄의 난 때 사사(賜死)되었다.
- 45 박승중(1562~1623) : 문신. 자는 효백(孝伯), 호는 퇴우당(退憂堂). 본관은 밀양.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으나, 인조반정 때 자결했다. 시호는 숙민(肅愍).
- 46 유몽인(1559~1623) : 문신. 자는 응문(應文), 호는 어우당(於于堂). 본관은 흥양(興陽).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시호는 의정(義貞).
- 47 박흥구(1552~1624) : 문신. 자는 응소(應邵), 본관은 죽산(竹山).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다.
- 48 홍여순(1547~1609) : 문신. 자는 사신(士信), 본관은 남양(南陽).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병조판서에 이르렀으나, 당쟁으로 진도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 49 임국로(1537~1604) : 자는 태수(胎叟), 호는 죽오(竹塢). 본관은 풍천(豐川).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 50 이이첨(1560~1623) : 권신. 자는 득여(得輿), 호는 관송(觀松). 본관은 광주(廣州). 문과중시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벼슬이 예조판서 · 대제학에 이르렀으나, 인조반정 때 참형됐다.

갈라졌다. 폐모론(廢母論)⁵¹을 주장한 자는 대북이 되고, 이를 반대한 자는 소북이 되었다.

대북은 이이첨을 중심으로 허균(許筠)⁵² · 한찬남(韓贊男)⁵³ · 이성(李愓) · 백대형(白大珩)⁵⁴ 등이 따랐고, 소북은 남이공을 중심으로 기자현 · 박승중 · 유희분(柳希奮)⁵⁵ · 김신국(金薰國) 등이 따랐다. 이들은 남이공보다 벼슬은 높았으나, 폐모론을 공박하면서 소북이 되어 따르게 된 것이다.

이경전은 처음에는 이이첨과 사이가 좋았으나, 뒤에 이이첨이 여러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 계축년에 그의 아들 진사 부(阜)를 시켜 이이첨을 참하라는 소를 올렸다. 이때 이이첨은 이경전과 바둑을 두다가 소보(小報)⁵⁶를 받았는데, 그 소보에는 진사 이부가 이이첨을 참하도록 청하는 소가 실려 있었다. 이이첨이 놀라 “그대의 자제가 나를 죽이라고 했소” 하자, 경전은 “어찌 그럴 리가 있겠소. 이는 반드시 동명이인일 것이오”라고 대답했다. 이이첨은 이 말을 믿고 두던 바둑을 마치고 일어났으나, 그 후 속은 것을 알고 절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경전은 소북이 되었다.

계해년에 인조가 서인 김류(金瑬)⁵⁷ · 이귀(李貴)⁵⁷ · 홍서봉(洪瑞鳳)⁵⁸ · 장유(張維)⁵⁹ ·

51 폐모론 : 선조의 계비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출하자는 주장.

52 허균(1569~1618) : 문신. 자는 단보(端甫), 호는 교산(蛟山), 본관은 양천(陽川). 문과중시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벼슬이 좌참찬에 올랐으나, 반란을 음모한 죄로 능지처참됐다. 《홍길동전》의 저자.

53 한찬남(1560~1623) : 문신. 자는 경서(景緒), 본관은 청주.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호조판서에 올랐으나, 인조반정 때 주살됐다.

54 백대형(1575~1623) : 문신. 자는 이현(而獻), 본관은 수원(水原).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병조참판에 이르렀다. 서궁에 침입하여 인목대비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인조반정 때 사형당했다.

55 유희분(1564~1623) : 문신. 자는 형백(亨伯), 호는 화남(華南), 본관은 문화(文化).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병조판서에 이르렀다.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는 데 주동이 되었으며, 인조반정 때 참형당했다.

56 소보 : 승정원에서 그날 처리된 일을 간추려 여러 관원들에게 알리는 글.

57 이귀(1557~1633) : 문신. 자는 옥여(玉汝), 호는 묵재(默齋), 본관은 연안(延安). 정시문과에 급제하고 인조반정에 성공하여 이조판서, 좌 · 우참찬, 대사헌 등을 역임했다. 시호는 충정(忠定).

58 홍서봉(1572~1645) : 문신. 자는 휘세(輝世), 호는 학곡(鶴谷), 본관은 남양(南陽). 문과중시에 급제하고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정(文靖).

59 장유(1587~1638) : 문신. 자는 지국(持國), 호는 계곡(谿谷), 본관은 덕수(德水). 증광문과에 급제하고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문장이 뛰어났다. 시호는 문충(文忠).

최명길(崔鳴吉) · 이서(李曙)⁶⁰ · 구인후(具仁壘)⁶¹ 등을 거느리고 반정(反正)한 다음, 대북을 모두 죽여 버렸다. 그리고 서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남인과 소북을 함께 등용했으나, 소북은 온전히 파를 유지하지 못하고 남인이 되거나 서인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소북으로 행세하는 자는 아주 적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 후 반정에 참여했던 공신들이 교만하고 방자한 자가 많아지자, 인조는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고자 했다. 대간(臺諫)에 있는 남인이 서인을 공박하면, 반드시 남인을 옹호했다. 김류는 임금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세력을 잃을까 두려워 은밀히 자기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이조참판 이하의 벼슬은 모두 남인에게 주더라도, 이조판서 이상과 의정부 자리는 남인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당하관(堂下官)⁶² 중에서도, 청환(淸宦)⁶³인 한림(翰林)과 이조의 낭관(郎官) 이상으로 이조참의(吏曹參議) · 이조참판까지는 남인이 서인과 함께 벼슬을 하지만 아경(亞卿) 이상은 승진시키지 않았고, 혹 승진을 시킨다 해도 이조판서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직 이성구(李聖求)⁶⁴만은 병자년 난리의 틈을 타서 영의정이 될 수 있었다.

효종 초년에 김자점(金自點)⁶⁵을 제거하려고 특별히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

60 이서(1580~1637) : 무신. 자는 인숙(寅叔), 호는 월봉(月峰). 본관은 전주. 무과에 급제하여 장단부사 겸 경기방어사로 있다가 김유 · 이귀 등과 인조반정에 성공하여 벼슬이 호조참판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정(忠正).

61 구인후(1578~1658) : 무신. 자는 중재(仲載), 호는 유포(柳浦). 본관은 능성(綾城).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무(忠武).

62 당하관 : 당(堂)은 대청이라는 뜻인데, 당하관은 조정에서 조의(朝儀)를 행할 때 대청의 의자에 앉을 수 없는 관원을 말한다. 당상관(堂上官)은 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관원이다. 당상관은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승진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다. 문관은 통훈대부(通訓大夫), 무관은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의 관원들이 당하관에 해당된다.

63 청환 : 규장각 · 홍문관 · 선전관청 등의 벼슬.

64 이성구(1584~1644) : 문신. 자는 자이(子異), 호는 분사(汾沙). 본관은 전주(全州).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정숙(貞肅).

65 김자점(1588~1651) : 문신. 자는 성지(成之), 호는 낙서(洛西). 본관은 안동. 음보(陰補)로 병조좌랑이 되었다가, 인조반정 때 정사(淸社) 1등공신으로 벼슬이 영의정에 올랐으나 반역죄로 사형 당했다.

吉)⁶⁶을 올려 썼고, 김자점을 죽인 후에는 두 송씨를 대관(大官)으로 발탁했다. 현종 말년에 남인 허목(許穆)과 윤휴(尹鑣)⁶⁷·윤선도 등이 기해년에 국가의 예식을 그르쳤다는 이유를 들어 두 송씨를 공격하자 현종은 그 말을 받아들여 바로잡았다. 이때 남인 허적(許積)⁶⁸이 수상으로 있었으며, 이어 고명(顧命)⁶⁹도 받았다. 숙종 초년에는 허적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보다 먼저 대비의 친정아버지 청풍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金佑明)⁷⁰이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낼 때 수도(隧道)⁷¹의 제도를 썼는데, 송시열이 이를 크게 공박했다. 그러자 김우명은 민신(閔愼)⁷²이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거상(居喪)한 일을 가지고 두 송씨를 배척하니, 크게 틈이 벌어졌다. 이때 김우명의 조카 김석주(金錫胄)⁷³는 허적과 함세해 남인들을 끌어들이며, 국가의 예식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송시열을 공격하여 귀양 보내게 했다. 이 일 때문에 서인과 남인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었다. 김석주는 옥당으로 있다가 1년 만에 벼슬에 올라 병조판서가 되었다.

허적의 서자 견(堅)⁷⁴은 본래 교만하고 방자한 사람이었다. 과거에 급제는 했으나

66 송준길(1606~1672) : 문신. 자는 명보(明甫), 호는 동춘당(同春堂), 본관은 은진. 학행으로 천거되어 벼슬이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정(文正).

67 윤휴(1617~1680) : 문신. 자는 희중(希仲), 호는 백호(白湖), 본관은 남원(南原). 재행으로 천거되어 벼슬이 우찬성에 이르렀다. 숙종 즉위 때부터 많은 개혁안을 제기하고 실행하려 했으나, 허적(許積)의 옥사에 관련된 혐의로 사사(賜死)됐다.

68 허적(1610~1680) : 문신. 자는 여차(汝車), 호는 묵재(默齋), 본관은 양천(陽川).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자인 견(堅)의 역모에 연좌되어 사사(賜死)됐다.

69 고명 : 임금이 죽을 때 세자나 종친에게 나라의 뒷일을 부탁하는 것.

70 김우명(1619~1675) : 문신. 자는 이정(以定), 본관은 청풍(淸風). 현종(顯宗)의 장인이다. 청풍부원군(淸風府院君)에 봉하고,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가 되었다. 시호는 충익(忠翼).

71 수도 : 무덤에 문을 만들어 계절마다 옷과 음식을 관 앞에 갖다 놓을 수 있게 한 제도.

72 민신 : 숙종 때 사람. 조부인 업(業)이 죽었는데 아버 세익(世益)이 정신병 환자로 복을 입을 수 없었다. 이에 민신은 이 문제를 송시열과 의논했고, 송시열은 아들들에게 폐질이 있으면 손자가 대신해 복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민신이 상주(喪主)가 됐으나, 허적·김우명 등은 이를 패륜(悖倫)이라 주장하며 공격했다. 결국 형조의 건의로 민신을 삼강오륜을 범했다는 죄목으로 장형(杖刑)에 처하고 유배하는 것으로 논란은 종결되었다. 그러나 이 논란은 이후 남인이 송시열을 공격할 때 자주 이용됐다.

73 김석주(1634~1684) : 문신. 자는 사백(斯百), 호는 식암(息庵), 본관은 청풍(淸風).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충(文忠).

74 허견(?~1680) : 허적(許積)의 서자로서 삼복(三福) 사건의 음모자. 복창군(福昌君)·복선군(福善君)·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한 것을 항상 못마땅하게 여기고,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그는 종실(宗室)의 정(楨)과 남(楠)형제와 사귀면서 김석주와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김석주는 이를 의심하여 몰래 자기사람 정원로(鄭元老)를 시켜 허견의 행동을 감시하게 했다. 드디어 허견이 정·남과 내왕하면서 요망된 말이 오가는 것을 알고, 이들을 공박하려고 베틀고 있었다.

이때, 임금이 허적에게 궤장(几杖)⁷⁵을 하사하고 잔치를 내렸다. 어주(御酒)와 어악(御樂)을 내리고, 백관들에게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명하여 그를 총애했다. 김석주는 이 날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대궐로 가서, 정원로가 전한 말을 그대로 임금께 아뢰었다. 그러자 임금은 즉시 국청(鞠廳)⁷⁶을 설치하라 명하고, 허견을 잡아다가 정원로와 대질시켰다. 허견이 드디어 자복하자, 곧 환열(輓裂)⁷⁷에 처했다.

이렇게 옥사가 크게 일어나 정·남과 허적·윤휴·오정창(吳挺昌)⁷⁸이 죽고 유혁연(柳赫然)⁷⁹·이원정(李元禎)⁸⁰·조성(趙惺)·이덕주(李德胄)에게도 화가 미쳤는데, 이들은 모두 재상이었다. 이렇게 해서 남인이 물러가고 서인이 다시 나오게 되었다. 임술년에 또 허새(許璽)⁸¹의 옥사가 일어나 사람들의 말이 많았는데, 서인이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으로 또 나뉘게 되었다.

복평군(福平君) 등과 역모를 꾀한다 하여 주살됐다.

75 궤장: 임금이 나이 많은 중신에게 특별히 내리는 안석(案席)과 지팡이.

76 국청: 중죄인을 다스릴 때 임시로 설치하는 관청.

77 환열: 팔 다리에 끈을 매어 말이 끌어당기게 해서 찢어 죽이는 형벌.

78 오정창(1634~1680): 문신. 자는 계문(季文), 본관은 동복(同福),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예조판서에 이르렀으나, 1680년에 허견의 삼복(三福) 사건을 정점으로 남인들이 대거 정치적으로 쫓겨난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때 주살되었다.

79 유혁연(1616~1680): 문신. 자는 회이(晦爾), 호는 야당(野堂), 본관은 진주(晉州),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훈련대장·공조판서·총융사(德戎使) 등을 지냈으나, 경신대출척 때 유배·치사됐다. 시호는 무민(武愍).

80 이원정(1622~1680): 문신. 자는 사징(士徵), 호는 귀암(歸巖), 본관은 광주(廣州),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판서에 이르렀으나, 경신대출척 때 장살(杖殺)됐다.

81 허새(?~1682): 유생. 병마정도사 김환(金煥)의 고변으로 체포되어 주살되었으나, 뒤에 남인 숙청을 위한 조작극이었음이 밝혀졌다.

노론은 김석주·김만기(金萬基)⁸²를 중심으로 송시열·김수항(金壽恒)⁸³·김수흥(金壽興)⁸⁴·민유중(閔維重)⁸⁵·민정중(閔鼎重)⁸⁶이 따랐고, 소론은 조지겸(趙持謙)⁸⁷을 중심으로 한태동(韓泰東)⁸⁸·오도일(吳道一)⁸⁹·남구만(南九萬)⁹⁰·윤지원(尹趾完)⁹¹·박태보(朴泰輔)⁹²·최석정(崔錫鼎)⁹³이 합세했다. 이것은 노론이 남인을 모두 죽이려 하자 소론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갈라지게 된 것이다.

- 82 김만기(1633~1687) : 문신, 숙종의 장인. 자는 영숙(永淑), 호는 서석(瑞石). 본관은 광산(光山). 별시 문과에 급제했고,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문충(文忠).
- 83 김수항(1629~1689) : 문신. 자는 구지(久之), 호는 문곡(文谷). 본관은 안동. 알성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이 재집권하자 진도(珍島)로 유배돼 사사됐다. 시호는 문충(文忠).
- 84 김수흥(1626~1690) : 문신. 자는 기지(起之), 호는 퇴우당(退憂堂). 본관은 안동. 김수항(金壽恒)의 형. 문과 중시(重試)에 급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사환국으로 장기(長鬐)에 유배됐고 이듬해 그곳에서 죽었다. 시호는 문익(文翼).
- 85 민유중(1630~1687) : 문신, 숙종의 장인. 자는 지숙(持叔), 호는 둔촌(屯村). 본관은 여흥(驪興).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친제아버지.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호조판서에 이르고,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문정(文貞).
- 86 민정중(1628~1692) : 문신. 자는 대수(大受), 호는 노봉(老峰). 본관은 여흥. 민유중(閔維重)의 형.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으나, 기사환국에 벽동(碧潼)에 유배되어 죽었다. 시호는 문충(文忠).
- 87 조지겸(1639~1685) : 문신. 자는 광보(光甫), 호는 오재(迂齋). 본관은 풍양(豐壤).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경상도 관찰사에 이르렀다.
- 88 한태동(1646~1687) : 문신. 자는 노침(魯瞻), 호는 시와(是窩). 본관은 청주.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교리(校理)에 이르렀다.
- 89 오도일(1645~1703) : 문신. 자는 관지(貫之), 호는 서파(西坡). 본관은 해주.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병조판서에 이르렀다.
- 90 남구만(1629~1711) : 문신. 자는 운로(雲路), 호는 약천(藥泉). 본관은 의령. 널리 알려져 있는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의 지은이.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충(文忠).
- 91 윤지원(1635~1718) : 문신. 자는 숙린(叔麟), 호는 동산(東山). 본관은 파평(坡平).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정(忠正).
- 92 박태보(1654~1689) : 문신. 자는 사원(士元), 호는 정재(定齋). 본관은 반남(潘南). 알성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이조 좌랑·암행어사에 이르렀으나, 인현왕후의 폐위를 반대하다가 진도로 유배 도중 옥독(獄毒)으로 노랑진에서 죽었다. 시호는 문열(文烈).
- 93 최석정(1646~1715) : 문신. 자는 여화(汝和), 호는 명곡(明谷). 본관은 전주(全州).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정(文貞).

경신년⁹⁴ 이후 십 년만에 남인 민암(閔黯)⁹⁵ · 민종도(閔宗道)⁹⁶ 등이 세력을 잡자 경신년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원한을 풀어 주었는데, 오직 정(楨) · 남(栴)만은 용서받지 못했다. 이들은 또 송시열 · 김수항 · 이사명(李師命)⁹⁷ · 김익훈(金益勳)⁹⁸을 죽였다. 또 6년 뒤에 서인이 다시 세력을 잡자 민암과 이의징(李義徵)⁹⁹을 죽였다. 이로부터 노론과 소론이 함께 정국을 맡았으나, 조정에서 서로 다툰 것이 수십 년이나 되었다.

숙종 말년에는 노론만을 등용하고 소론은 배제했으며, 경종 신축년에는 조태구(趙泰壽)¹⁰⁰와 최석항(崔錫恒)¹⁰¹이 정권을 잡아 노론을 쫓아냈다. 임인년에 또 옥사를 일으켜 노론의 정승 이이명(李頤命)¹⁰² · 김창집(金昌集)¹⁰³ · 이건명(李健命)¹⁰⁴ · 조태

94 경신년 : 1680년(숙종 6년)에 남인 세력이 정치적으로 대거 축출된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을 말한다.

95 민암(1636~1694) : 문신. 자는 장유(長孺), 호는 차호(叉湖). 본관은 여흥.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경신대출척 때 파직됐으나 기사환국 때 재기용됐다. 이어 숙종이 서인을 등용하면서 영의정 남구만의 탄핵으로 이의징과 함께 사사(賜死)됐다.

96 민종도(1633~?) : 문신. 자는 여희(汝會), 본관은 여흥.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병조판서에 이르렀다.

97 이사명(1647~1689) : 문신. 자는 백길(伯吉), 호는 포암(浦菴). 본관은 전주(全州). 춘당대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벼슬이 병조판서에 이르렀다.

98 김익훈(1619~1689) : 문신. 자는 무숙(懋叔), 호는 광남(光南). 본관은 광산(光山). 음보(蔭補)로 의금부도사가 되어 벼슬이 형조참판에 이르렀다. 경신대출척을 일으키는 데 적극 참여했다. 시호는 충헌(忠獻).

99 이의징(?~1695) : 무신. 본관은 전주. 진안현감(鎭安縣監)이 되고 벼슬이 훈련대장이 되었으나, 1694년(숙종 20년) 숙종의 폐비(廢妃) 민씨 복위운동을 둘러싸고 남인이 몰락한 갑술옥사(甲戌獄事)로 사사(賜死)됐다.

100 조태구(1660~1723) : 문신. 자는 덕수(德叟), 호는 소헌(素軒). 본관은 양주(楊州).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101 최석항(1654~1724) : 자는 여구(汝久), 호는 손와(損窩). 본관은 전주(全州).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신임사화(信任士禍) 때 관직이 추탈됐다.

102 이이명(1658~1722) : 문신. 자는 양숙(養叔), 호는 소재(疏齋). 본관은 전주(全州). 이사명의 아우.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문(忠文).

103 김창집(1648~1722) : 문신. 자는 여성(汝成), 호는 몽와(夢窩). 본관은 안동. 김수항의 아들.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헌(忠獻).

104 이건명(1663~1722) : 문신. 자는 중강(仲綱), 호는 한포재(寒圃齋). 본관은 전주. 춘당대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민(忠愍).

채(趙泰采)¹⁰⁵를 죽였다.

지금 임금 초년에는 노론을 등용하고 소론을 배척했다가, 정미년에는 소론이 다시 등장했다. 무신년에는 역변(逆變)이 일어나서 김일경(金一鏡)¹⁰⁶과 박필몽(朴弼夢)¹⁰⁷이 역적으로 몰려 죽었고, 이사상(李師尙)¹⁰⁸·이진유(李眞儒)¹⁰⁹·윤성시(尹聖時)¹¹⁰·서종하(徐宗夏)¹¹¹·이명의(李明誼)¹¹²도 같은 당이라 하여 죽였다. 이에 소론 정승이었던 조문명(趙文命)¹¹³과 노론 정승이었던 홍치중(洪致中)¹¹⁴이 주동이 되어 탕평론(蕩平論)¹¹⁵을 주장했다. 이리하여 노·소·남·북의 사색을 함께 등용하게 되었다.

지금 임금 경신년에 경연(經筵)¹¹⁶에 참석했던 신하가, 봉당이 갈라진 것은 전랑(銓郎)에서 시작되었으니 한 쪽 편을 드는 일이 없도록 전랑의 권한을 없애기를 청했

105 조태채(1660~1722) : 문신. 자는 유량(幼亮), 호는 이우당(二憂堂). 본관은 양주(楊州).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익(忠翼).

106 김일경(1662~1724) : 문신. 자는 인감(人鑑), 호는 아계(丫溪). 본관은 광산.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우참찬에 이르렀다.

107 박필몽(1668~1728) : 문신. 자는 양경(良卿), 본관은 반남(潘南).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참찬에 이르렀다.

108 이사상(1656~1725) : 자는 성망(聖望), 본관은 전주.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부제학에 이르렀다.

109 이진유(1669~1730) : 문신. 자는 사진(士珍), 호는 북곡(北谷). 본관은 전주.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110 윤성시(1672~1730) : 자는 계성(季成), 본관은 해평(海平).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참의에 이르렀다.

111 서종하(1670~1730) : 자는 비세(庇世), 본관은 대구(大邱).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참의에 이르렀다.

112 이명의(1670~1728) : 자는 의백(宜伯), 본관은 한산(韓山).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간에 이르렀다.

113 조문명(1680~1732) : 문신. 자는 숙장(敎章), 호는 학암(鶴巖). 본관은 풍양(豐壤).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충(文忠).

114 홍치중(1667~1732) : 문신. 자는 사능(士能), 호는 북곡(北谷). 본관은 남양.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1712년에 북평사(北評事)로서 청나라 사신 목극등(穆克登)과 함께 백두산에 올라 경계를 정했다. 시호는 충간(忠簡).

115 탕평론 : 영조(英祖) 때에 주장된 정치 이론으로, 4색 당파를 고르게 등용하여 당쟁을 없애자는 취지를 띠고 있었다.

116 경연 : 조선시대에 임금이 학문을 닦기 위해 학식과 덕망이 높은 신하를 불러 경서(經書)와 왕도(王道)에 대해 강론하던 자리. 강론을 마친 다음에는 일반 국정도 논의했다.

다. 임금이 그 말을 받아들여 허락했다. 전랑이 자기 후임을 추천하던 일과 삼사(三司)의 관원을 추천하는 데에 주장하던 법을 없애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랑의 권한이 낮아져 다른 관청의 낭관(郎官)과 같아지니, 삼백 년 동안 내려온 법이 폐지되었다.

옛날 선조 때는 바로 국조(國朝)의 중엽이었는데 인재들이 많았다. 신진이라면 누구나 명망을 쌓아 전조(銓曹)에 추천되기를 희망 했었다. 어떤 명관(名官)은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사동(使童)을 불러 말에게 콩을 더 주라고 했고, 또 어떤 명관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마당에 널어놓은 벼에 앉은 새를 손으로 쫓았다. 그러나 여러 명사들은 모두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천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전조에 추천 되지 못했다. 이 두 가지 일은 천진하고 솔직한 자로서는 혹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사람의 인품과 관계되는 일이 아닌데도 동료들에게 배척을 당했으니, 참으로 웃을 일이다.

그러나 한때 인선 문제가 엄격했다는 것과 선비들이 언행을 닦는 데 힘썼던 풍습은 상상할 수 있다. 이는 즉 건국 초기에는 깨끗한 명망과 좋은 벼슬로써 온 세상 선비의 기풍을 고무시키는 기틀로 삼았던 것이다. 인조 때에도 전조(銓曹)의 권한을 없애자고 청한 자가 있었다. 그래서 임금이 대신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대신들은 건국 초기부터 내려오는 제도를 함부로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 당시의 대신들은 본조(本朝)에서 큰 권한을 전조에게 준 것은 대신들의 잘못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이라도 자기에게 혐의가 돌아오지 않도록 전조의 권한을 없애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을 이때에 와서 없애니, 추천권으로 통솔하던 전조의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신진 선비들은 각자 제 맘대로 하고 제한이 없어서, 모두 승진의 차례를 뛰어넘으려고 생각했다. 또 명예를 숭상하는 기풍이 없어지고 오로지 사리사욕에만 뜻을 두어, 외직(外職)을 소중히 여기고 내직(內職)¹¹⁷은 거들떠보지 않게 되었다. 모두 감사(監司)나 수령(守令)이 되려고 하고 염치 같은 것은 돌보지 않았다.

117 외직 · 내직 : 외직은 지방의 관직을, 내직은 조정 안의 관직을 말한다.

또 조정에서 탕평책을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색이 함께 벼슬하게 되었다. 그러니 벼슬자리는 적고 벼슬하려는 사람은 많았다.

경쟁이 심한데다가 전조의 권한마저 없어졌으니, 높은 벼슬을 조금하게 탐내게 되어 진신(縉紳)¹¹⁸들의 기풍이 회복 할 수 없이 일시에 무너졌다. 그리고 조정의 대권(大權)은 또 다시 정승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서울은 사색이 모여 살기 때문에 풍속이 고르지 못하나, 지방으로 말하면 서·북 삼도를 제외한 동·남 5도에는 사색이 나뉘어 살고 있다.

경상도는 모두 예안(禮安) 이황(李滉)의 학문을 따르는데, 유성룡은 이황의 문인이다. 남인이라는 명칭이 유성룡으로 해서 생겼기 때문에 도내의 사대부는 모두 남인이 되어 의논이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도에는 사색이 섞여서 살고 있다. 이보다 먼저 이이의 문인 김장생(金長生)¹¹⁹이 벼슬에서 물러나 연산(連山)에 살면서 후진들을 가르쳤는데, 회덕(懷德)의 송시열·송준길과 이산(尼山)의 윤선거(尹宣舉)¹²⁰ 형제가 가서 배웠다. 윤선거의 아들 증(拯)¹²¹도 송시열에게 배웠으나, 얼마 안 가 사이가 벌어졌다.

경신년 후에 송시열은 노론이 되고 윤증은 소론이 되어, 회덕과 이산의 문인은 서로를 맹렬히 공격했다. 이때문에 연산과 회덕 근처는 모두 김(金)·송(宋) 두 집 문인의 자손들이지만, 세 윤씨 때문에 이산 고을만은 모두 소론이다.

강원도와 경기도에도 강가에 있는 정자는 남인들의 옛집이 많다. 전라도에는 국조(國朝) 중엽 이후로 큰 벼슬을 한 사람이 드물어서 인재를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인물이 적고, 사대부는 다만 서울에 있는 친지를 따라 색목(色目)이 구별되었다.

118 진신 : 조정의 신하.

119 김장생(1548~1631) : 문신이자 학자. 자는 희원(希元), 호는 사계(沙溪). 본관은 광산. 학행으로 천거되어 동지중추부사·형조판서 등을 역임했다. 예학(禮學)의 태두로 평가되고 있으며, 시호는 문원(文元).

120 윤선거(1610~1669) : 자는 길보(吉甫), 호는 미촌(美村). 본관은 파평(坡平). 생원·진사 두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병자호란 때 강화성이 함락되자 평민 복장으로 달아났기 때문에 이를 자책하여 벼슬하지 않았다. 시호는 문경(文敬).

121 윤증(1629~1714) : 학자. 자는 자인(子仁), 호는 명재(明齋). 본관은 파평. 학행으로 천거되어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성(文成).

이런 이유로 예전에는 남인과 북인이 많았으나 지금은 노론과 소론이 많다.

도내에서 크다는 집안은 십여 집에 지나지 않는다. 부유한 집은 많으나 널리 알려진 사람은 드물다. 이것은 기대승(奇大升)·이항(李恒) 이외에는 선비들을 지도하고 훈계할 만한 스승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심이 매우 박하고 지도 계급의 도에 미치지 못한다.

대체로 사대부가 사는 곳은 인심이 나쁘지 않은 곳이 없다. 봉당을 만들어 할 일 없는 사람들을 모으고, 권세를 부려 가난한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한다. 자기 행동을 단속하지 못하면서 남이 자기 말을 하면 미워하고, 한 지방의 패권을 독차지하기를 좋아한다. 같은 색목이 아니면 한 고장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마을 안에서는 혈통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신축년과 임인년 이후로 조정에는 노론·소론·남인 세 색목끼리 원한이 날로 깊어져 서로 역적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씌우더니, 그 영향이 시골에까지 미쳐 싸움터가 되고 말았다. 이들은 서로 혼인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귀지도 않는다. 한 색목이 다른 색목과 친하면 절조를 잃었다느니 항복했다느니 하고 멀리한다. 심지어 일없이 노는 자나 종들까지도, 한번 아무개네 집 사람이라고 불리었으면 다른 집안을 바꾸어 섬기고자 해도 용납되지 않는다.

사대부의 자질이나 지위의 고하는 자기 편 색목한테만 통할 뿐, 다른 색목한테는 통하지 않는다. 이쪽 색목 사람이 저쪽 색목에게 배척당하면 이쪽 색목에서는 더욱 귀하게 대접하는데, 이것은 저쪽 색목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더라도 다른 색목에게 공격을 받으면 그 사람의 잘잘못이나 옳고 그름은 덮어둔 채 때 지어 역성을 들어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아무리 행실이 착하고 숨은 덕이 있더라도 같은 색목이 아니면 그 사람의 약점부터 들추어낸다.

당색(黨色)이란 것이 처음에는 하찮은 일에서 생겼으나, 그 자손들이 조상이 한 말을 지키다 보니 2백 년이 지나는 동안 드디어 깨뜨릴 수 없이 굳어 버렸다. 노론과 소론은 서인에서 갈라진 지 겨우 40여 년이다. 그래서 간혹 형제나 숙질 간에도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진 자도 있다. 색목이 한번 갈라지면 심장이 마치 초(楚)나라

와 월(越)나라¹²²처럼 서로 멀어져, 같은 색목끼리는 서로 의논해도 지친(至親) 간에는 서로 말도 하지 않는다. 일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윤리까지도 없어졌다.

근래에 와서는 사색이 조정에 함께 나가서 오직 벼슬만 할 뿐이고, 옛날부터 지켜 오던 의리는 고깔을 씌우듯 모두 감추어 버렸다. 사문(斯文)의 옳고 그름과 충신과 역적에 대한 논란도 모두 과거지사로 돌려 버린다. 이리하여 피 터지게 싸우던 습관은 전에 비해 적어졌지만, 옛 풍속에다가 한 술 더 떠서 나약하고 게으른 새 병폐가 추가 되었다.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입에 올릴 때에는 모두 한 색이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공적인 좌석에서 조정에 관한 말이 나오면 서로 모나지 않으려고 한다. 혹 대답하기가 어색하면 우스갯소리로 얼버무리고 만다. 그래서 의관을 정제한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에는 방안 가득히 웃음소리만 들릴 뿐이다. 공무를 처리할 때는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할 뿐 나라를 위해 몸 바치려는 자는 드물다. 관직을 가볍게 여기고 관청을 주막집처럼 여긴다. 재상은 중립을 지키는 것을 현명하다 하고, 삼사(三司)는 말하지 않는 것을 고상하다 하며, 외관(外官)은 청렴하고 검소한 것을 어리석다 하니, 결국에는 어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천지지만 수많은 나라 중 인심이 일그러지고 무너져 본성을 잃은 나라가 있었다 한들, 오늘날 붕당으로 인한 환난보다 더한 적은 없었다. 만일 이대로 나간다면 장차 어떠한 세상이 될 것인가. 한 모퉁이에 있는 총알만한 나라가 아무리 작다고 하지만 그래도 백성이 백만인데, 이들이 장차 그 본성을 모두 잃어 구제할 수가 없을 터이니 이 또한 슬픈 일이다.

그래서 장차 시골에 가서 살려면, 인심이 좋고 나쁨을 따질 것 없이 비록 건조하고 습(濕)한 것이 마땅치 않다 하더라도 같은 색목이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을 찾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서로 찾아가고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이 있고, 또한 학문을 연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사대부가 살지 않는 곳을 선택해서 두문불출하며 홀로 착하게 산다

122 초나라 · 월나라 : 고대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있었던 나라들인데, 모두 중국 서울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진 중국 남부 지방에 있었다.

면, 비록 농사짓고 물건 만들고 장사를 한다 해도 즐거움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인심이 좋으니 나쁘니 할 것도 없다.

산수(山水)

산수를 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진과 조선의 경계에 있는 백두산은 온 나라의 눈썹처럼 되어 있다. 산 위에는 큰 못이 있는데 둘레가 80리다. 서쪽으로 흐르는 물은 압록강이 되고,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두만강이 되며 북쪽으로 흐르는 물은 혼동강(混同江)¹이 되는데, 두만강과 압록강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다.

백두산에서 함흥까지는 산맥이 가운데로 내려오다가, 동쪽 줄기는 두만강 남쪽으로 뻗었고 서쪽 줄기는 압록강 남쪽으로 뻗었다. 함흥에서 산등성이가 동해를 따라서 서쪽 줄기는 7~8백 리나 뻗었지만, 동쪽 줄기는 백 리가 되지 못한다.

산맥의 큰 줄기는 끊어지지 않고 옆으로 뻗어, 남쪽으로 수천 리를 내려가 경상도 태백산에 이르기까지 한 줄기의 영(嶺)으로 이어져 있다. 함경도와 강원도가 맞닿은 곳이 철령(鐵嶺)인데, 여기가 북쪽으로 통하는 큰길이다. 그 밑으로는 추지령(湫池嶺)²·금강산·연수령(延壽嶺)·오색령(五色嶺)·한계산(寒溪山)·오대산·대관령·백봉령(白鳳嶺)이 되고, 이어서 태백산이 되었다. 이것은 모두 험한 산이고 깊은 골짜기이며 깎아지른 봉우리와 겹겹이 늘어선 뱃부리들이다. 영이란 고갯마루가 조금 나지막하고 평탄한 곳이다. 이런 곳에 길을 내어 영의 동쪽과 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산이라 한다.

평안도는 청천강의 남쪽과 북쪽을 막론하고 모두 함흥에서 내려온 서북쪽 줄기가 뿔뿔히 만들어진 곳이다. 또 황해도와 개성부는 고원(高原)·문천(文川) 사이를 따라 내려온 서쪽 줄기가 뿔뿔히 만들어진 곳이고, 철원과 한양은 안변(安邊) 철령에서 나온 산맥이 뿔뿔히 만들어진 곳이다. 그리고 강원도는 모두 철령 서쪽에서 내려온 것인데, 서쪽으로 용진(龍津)에서 끝이 났다. 이것은 전국에서 제일 짧은 산맥이다. 여기를 지나면 산 같은 산이 없다.

1 혼동강 : 흑룡강(黑龍江)과 송화강(松花江)이 중국 만주 길림성(吉林省) 동강현(同江縣)에서 합류하는데, 그 하류를 혼동강이라 한다.

2 추지령 : 강원도 회양군(淮陽郡)과 통천군(通川郡) 사이에 있는 고개.

태백산에서 영의 등성이가 좌우로 나뉘었다. 왼편 줄기는 동해를 따라서 내려가고 오른편 줄기는 소백산에서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태백산과 비교할 것이 못 된다. 태백산 이상은 비록 첩첩산중이지만, 산등성이가 자주 끊어지면서 큰 영 넷과 작은 영 일곱이 되었다.

소백산 아래로는 죽령(竹嶺)이 큰 영이고, 그 아래쪽으로는 천주(天柱)·화원(火院) 등 작은 영이 있다. 주흘산(主屹山) 아래로는 조령(鳥嶺)이 큰 영이고, 영 아래쪽으로는 양산(陽山)과 울치(栗峙)가 작은 영이다.

속리산 아래에 있는 화령(火嶺)과 추풍령, 그리고 황악산(黃岳山) 남쪽에 있는 무풍령(舞豐嶺)이 작은 영이고, 덕유산(德裕山) 남쪽에 있는 육십치(六十峙)와 팔랑치(八良峙)는 큰 영으로, 여기를 지나서 지리산이 되었다. 이것은 모두 남북으로 통하는 길이다. 작은 영이라는 것은 평지를 지나간 산맥을 말한다. 그중에서 속리산과 덕유산은 갈라진 줄기가 더욱 많다.

속리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산맥이 밖에서 거꾸로 달려간 것은 기호지방(畿湖地方)의 남북쪽 들에 서려있다. 덕유산의 정기는 서쪽으로는 마이산(馬耳山)과 추탁산(龜濁山)이 되었고, 남쪽으로는 지리산이 되었다.

마이산의 서쪽과 북쪽 두 갈래는 진잠(鎭岑)과 만경(萬頃)에서 멈추었다. 거기서 가장 긴 것은 노령(蘆嶺)에서 세 갈래로 갈라졌는데, 서쪽과 북쪽 두 갈래는 부안(扶安)과 무안(務安)을 지나 뿔뿔이 흩어져 서해의 여러 섬이 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긴 것은 동쪽으로 가서 담양(潭陽) 추월산(秋月山)과 광주(光州) 무등산(無等山)이 되었고, 추월산과 무등산이 또 서쪽으로 가서 영암(靈巖) 월출산이 되었다.

월출산에서 또 동쪽으로 가서 광양(光陽) 백운산(白雲山)에서 멈추었는데, 꾸불꾸불한 산맥 모양이 마치 갈지자와 같다. 월출산의 한 줄기는 남쪽으로 뻗어 가다가 해남현(海南縣) 관두리(綰頭里)를 지나 남해의 여러 섬이 되었고, 바닷길 천 리를 건너 제주 한라산이 되었다. 그리고 한라산의 지맥이 다시 바다를 건너서 유구국(琉球國)³이 되었다고는 하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어도 매우 가깝다는 것만은 알겠다.

3 유구국 : 일본 오키나와에 있었던 왕국.

인조 때 왜국이 유구국에 쳐들어와 왕을 사로잡아 간 일이 있었다. 그러자 세자는 나라의 보물을 배에 싣고 가서 아비를 구해 오려고 했다. 그러나 배가 바람에 표류하여 제주도로 밀려 왔다. 이때 제주 목사로 있던 자가 배에 실은 보물이 무엇이나고 묻자, 세자는 주천석(酒泉石)과 만산장(漫山帳)이라고 했다. 주천석이라는 것은 복판이 움푹 들어간 모난 돌인데, 거기에 맑은 물을 부으면 맛있는 술로 변하는 것이다. 만산장이란 것은 거미줄을 약물에 담갔다가 찢 천인데, 작게 퍼면 한 칸을 덮을 수 있고 넓게 퍼면 큰 산이라도 덮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도 새지 않는다 하니, 실로 귀한 보배였다.

목사가 그 보물을 달라고 했지만 세자가 허락하지 않자, 목사는 군사를 보내 포위하고 세자를 붙잡았다. 그러자 세자는 그 보물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목사는 배 안에 있던 물건을 몰수하고 세자를 때려 죽였는데, 세자는 죽기 전에 종이와 붓을 달래서 율시(律詩)⁴ 한 수를 지었다.

요(堯)임금의 말씀도 결(桀)⁵ 같은 자에겐 통하지 않는구나
 형을 당할 몸이 어느 겨를에 저 푸른 하늘에 호소하리
 삼량(三良)⁶이 묘혈(墓穴)에 임했으니, 그 누가 구해주리
 이자(二子)⁷가 배를 탔다가 어질지 못한 자에게 해를 입었네

- 4 율시 : 여덟 구절로 이루어지는 한시(漢詩)의 한 유형. 한 구절이 다섯 자로 이루어지는 오언율시와 일곱 자로 이루어지는 칠언율시가 있다.
- 5 결 : 중국 하(夏)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은(殷)나라의 주왕(紂王)과 함께 중국 상고시대의 폭군으로 대표된다.
- 6 삼량 : 중국 진(秦)나라 목공(穆公)은 죽으면서 진나라 관리 170명을 순장시켰는데, 이때 순장당한 여진 세 사람의 신하로서 엄식(奄息) · 중행(仲行) · 침호(鍼虎)를 말한다. 백성들이 슬퍼하여 ‘속(醵)할 수 있다면’ 하는 시를 읊었다.
- 7 이자 : 중국 패(邶)나라 선공(宣公)의 두 아들 급(伋)과 수(壽)를 가리킨다. 선공이 제(齊)나라의 왕녀를 아들 급의 아내로 맞게 되었는데,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서 아들 수와 사(朔)를 얻었다. 그 뒤 사가 세자의 자리를 노리고 어머니와 함께 급을 참소하자, 선공은 급을 제나라에 사신으로 보낸 다음 도적을 시켜 도중에 죽이게 했다. 수가 그 사실을 알고 급에게 알렸으나 급은 임금의 명이니 어길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수는 급을 취하게 만든 다음 세자 옷을 입고 급이 타고 갈 배에서 도적을 기다려 대신 죽였다. 급이 뒤쫓아 가서 임금이 죽이라고 한 사람은 자기인데 왜 수를 죽였느냐고 하자 도적은 급까지 살해했다.

뻘을 모래밭에 버려둘 것이니
 덮어줄 것은 풀이 있을 뿐이요
 낮이 고국으로 돌아간들 조상할 친척이나 있으리
 죽서루(竹西樓) 아래 출렁출렁 흐르는 저 물은
 남은 원한을 보내 분명히 만 년을 두고두고
 목매어 울게 하리

목사는 세자를 죽이고 나서, 국경을 침범한 적이라고 거짓으로 보고했다. 이 일이 탄로되자 목사는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온 나라의 물은 철령 밖 북쪽 함흥에서 남쪽 동래(東萊)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경상도의 물과 섬진강은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철령 서쪽은 북쪽 의주에서 남쪽 나주(羅州)까지는 물이 모두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물이 크면 강이요 작으면 포(浦)나 항(港)이다. 이것이 모두 우리나라 산수의 대략이다.

대체로 옛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해좌사향(亥坐巳向)⁸이어서 서쪽으로 얼굴을 들어 중국을 보고 읍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중국과 친하게 지냈다고 했다. 또, 천리를 흐르는 강이 없고 백 리가 되는 들이 없기 때문에 거인이 나지 못한다고 한다. 서쪽 오랑캐와 북쪽 오랑캐, 그리고 동쪽 오랑캐와 여진이 중국에 들어가서 한 차례씩 황제가 되었건만, 유독 우리나라만이 그런 일이 없었다. 오직 국경만 조심스럽게 지키면서 감히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멀리 바다 밖에 자리 잡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자가 주(周)나라 신하가 되지 않으려고 여기 와서 임금에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절의를 지키는 고장이 되었다. 그렇게 내려온 풍습과 멋이 남아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청나라에 항복한 적은 있지만 임금과 신하, 그리고 온 백성이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의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써 큰 의리를 지켰다.

8 해좌사향 : 풍수지리 사상에서는 24방위를 사용하는데, 한 장소의 뒤쪽을 좌(坐)라 하고 앞쪽을 향(向)이라 한다. 해좌사향은 뒤쪽이 해(亥) 방향이고 앞쪽은 사(巳) 방향이라는 뜻으로, 북북서를 등지고 남남동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숙종 갑신년 3월은 명나라가 망한 지 60년이였다. 궁궐 후원 서쪽에 대보단(大報壇)⁹을 세우고 태뢰(太牢)¹⁰로써 특별히 만력황제(萬曆皇帝)¹¹에게 제사 지내고, 계속해서 해마다 한 번씩 제사를 지내도록 명했다. 지금 임금 경오년에는 또 숭정황제(崇禎皇帝)¹²를 그 곁에 부제(附祭)¹³하도록 명했으니, 매우 잘한 일이다.

제사는 반드시 밤에 지내는데, 아무리 맑은 날씨였다가도 제사를 지낼 때에는 갑자기 음산한 바람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어 캄캄해진다. 그러다가 제사를 마치고 나면 이내 맑아지니, 매우 이상한 일이다. 나는 여기에 석성(石星) · 형개(邢玠) · 양호(楊鏞) · 이여송도 함께 제사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모두 임진왜란 때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역관 홍순언(洪純彦)¹⁴이 젊었을 때 연경(燕京)¹⁵에 들어가 많은 돈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구하자 매파가 밤에 홍순언을 큰 저택으로 데리고 가서 한 처녀를 소개했다 한다. 등불을 훤히 밝힌 가운데 많은 몸종과 함께 있는데, 처녀는 홍순언을 보자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홍순언이 그 까닭을 묻자, 처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 아버지는 사천(四川) 사람으로 벼슬이 주사(主事)에 이르렀는데, 이번에 부모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팔아 고향에 장사 지내려고 합니다. 하오나, 저는 두 번 시집가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만나면 영원한 이별이 될 것이기에 우는 것 입니다.”

홍순언은 그 처녀가 귀한 집 딸임을 알고 크게 놀라 예(禮)로써 남매의 의를 맺자고 청했다. 처녀는 울면서 사례하고 그 말에 따르기로 했다. 그리고 받았던 금(金)

9 대보단 :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준 중국 명(明)나라의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 1704년(숙종 30년) 창덕궁 옆에 설치한 단(壇)으로 명나라의 태조 · 신종(神宗) · 의종(毅宗)을 제사 지낸 곳이다.

10 태뢰 : 나라에서 주관하는 제사에 소 · 돼지 · 양을 통째로 바치는 일.

11 만력황제 : 만력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중국 명나라 신종(神宗)의 연호이다.

12 숭정황제 : 숭정은 중국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毅宗)의 연호.

13 부제 : 제례에서, 삼년상을 마친 뒤 신주를 그의 조상 신주 옆에 모실 때 지내는 제사.

14 홍순언 : 남양(南陽) 사람. 명나라와 외교를 잘한 공로로, 통역관의 신분으로는 될 수 없는 광국공신(光國功臣)이 되고 당릉부원군(唐綾府院君)에 봉해졌다. 당릉(唐綾)은 중국 비단이라는 뜻.

15 연경 : 중국 북경의 옛 이름.

을 몸종을 시켜 돌려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홍순언은 장례에 보태 쓰라고 거절하고 나왔다.

그 후 임진년에 사신을 따라서 병부상서(兵部尙書) 석성(石星)의 집에 갔다. 석성이 홍순언을 후당(後堂)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기 부인을 소개하는데, 바로 지난날 의를 맺은 누이동생이었다. 석성이 우리나라를 끝까지 힘써 도와준 것은 홍순언의 의기(義氣)에 감동했기 때문이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일로 해서 화를 입었으니, 제사 지내지 않을 수 없다.

석성의 부인은 평소에 손수 비단을 짜서 한 필 한 필마다 ‘보은(報恩)’이라는 두 글자를 수놓아 두었다가 홍순언에게 선사했는데, 만금의 가치가 있었다고 한다.

정유년에 선조는 도성 안에 형개와 양호의 생사당(生詞堂)¹⁶을 지어 소사(素沙)에서 왜병을 격파한 공로에 보답하게 했다. 그러나 이여송에게는 이 은전이 미치지 못했으니 실로 잘못된 일이다.

전라도와 평안도는 내가 가 보지 못했지만, 강원·황해·경기·충청·경상도는 많이 가보았다. 내가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금강산 1만 2천봉은 순전히 돌로 된 봉우리요 돌로 된 구렁이며 돌로 된 내요 돌로 된 폭포다. 봉우리·뱃바리·구렁·샘·못·폭포 모두가 돌로 된 것이다. 이 산의 판 이름은 개골(皆骨)¹⁷인데, 이 산이 한 치의 흙도 없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에 높이 솟은 산꼭대기와 깊은 못까지 모두 하나같이 돌이니, 이런 곳은 천하에 둘도 없다.

산 한가운데에 있는 정양사(正陽寺)에는 헐성루(歇惶樓)가 있다.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 잡았는데, 그 위에 올라 앉으면 산 전체의 참다운 모습과 참다운 정기를 볼 수가 있다. 마치 구슬로 된 굴속에 앉아 있는 듯, 기운이 상쾌하여 사람의 창자 속 티끌 먼지가 어느 틈에 씻겨 나갔는지 느끼지 못한다.

정양사 서쪽에는 장안사(長安寺)와 표훈사(表訓寺)가 있다. 이 절에는 원나라 때와 고려 때의 고적과 궁중에서 하사한 귀한 보물이 많다.

정양사 북쪽을 따라서 들어가면 만폭동(萬瀑洞)인데, 여기에는 못이 아홉이나 있

16 생사당 : 살아 있는 사람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

17 개골 : 금강산의 저울 이름. 금강산의 별명은 계절에 따라 다르다. 봄은 금강(金剛), 여름은 봉래(蓬萊), 가을은 풍악(楓嶽), 겨울은 개골(皆骨)이다.

어 경치가 매우 좋다. 만폭동 벽에는 양사언(楊士彦)¹⁸이 쓴 “봉래 풍악 원화 동천 (蓬萊楓嶽元化洞天)”이란 여덟 개의 큰 글자가 있는데, 글자의 획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다. 또한 살아있는 용이나 범 같아서 날개가 돋쳐 훨훨 날 것 같다.

만폭동 안으로 들어가면 마하연(摩訶衍)¹⁹과 보덕굴(普德窟)²⁰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 그 솜씨는 신(神)의 조화나 귀신의 솜씨이지, 도저히 사람의 솜씨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중향성(衆香城)²¹으로, 하늘에 닿을 듯한 봉우리 위에 있다. 바닥은 모두 흰 돌이다. 층계가 있어 마치 책상이나 탁자를 펼쳐 놓은 것과 같다. 그 위에 돌 한 개가 서 있는데, 생김새가 불상과 같지만 눈과 눈썹이 없는 것을 보니 자연석이다. 좌우의 돌로 된 상 위에도 두 개의 조그만 석상이 있는데, 역시 눈과 눈썹이 없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담무게(曇無竭)²²가 여기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

앞에는 만 길 골짜기에 닿아 있다. 서북쪽 모퉁이에 있는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면 1만 봉우리가 하얗고, 물과 돌, 못과 골이 굽어 기이하고 교묘해서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유명한 암자와 작은 집들이 그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칠금산(七金

18 양사언(1517~1584) : 문신이자 서예가. 자는 응빙(應聘), 호는 봉래(蓬萊). 본관은 청주(淸州).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부사에 이르렀다. 시와 글씨에 뛰어났다.

19 마하연 : 대승(大乘)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마하야나를 한문으로 음차(音借)하면 마하연나(魔訶衍那)가 되는데, 마하연은 이를 줄인 것이다. 만폭동 내의 마하연은 표훈사의 말사(末寺), 신라 문무왕(文武王) 1년(661년)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창건하였다. 53칸의 방을 가진 큰 절이었으나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20 보덕굴 : 만폭동 내에 있는 암자인 보덕암(普德庵)을 말한다. 고구려 영류왕(榮留王) 10년(627년) 보덕(普德)이 수도하기 위해 자연동굴인 보덕굴에 이어 지었다고 한다. 7.3m나 되는 높은 구리 기둥이 암자 전체를 떠받치고 있다. 지금의 암자는 조선조에 새로 지은 것이다.

21 중향성 : 성(城)이 아니라, 금강산 비로봉에서 서남쪽으로 뻗은 커다란 산줄기로, 산세가 매우 웅장할 뿐만 아니라 백옥같이 흰 바위들이 층층으로 높이 쌓여 성벽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중향은 불교에서 말하는 향적불이며, 이 부처가 머무르는 땅을 중향성이라 한다.

22 담무게 : 《반야경(般若經)》에 “동쪽 중향성(衆香城)에 머무르면서 설법한다”는 보살로 흔히 담무갈(曇無竭)이라 하며 산스크리트어 다르모가타를 한문으로 음차한 것이다. 같은 보살을 《화엄경(華嚴經)》에서는 법기보살(法起菩薩)이라 한다.

산)²³과 인조산(人鳥山)²⁴에 있는 제석(帝釋)²⁵의 궁전 같다. 인간 세상 같지 않다.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바로 비로봉(毗盧峰)이다. 여기 오르면 강풍이 밑에서 불어와, 아무리 여름이라도 추워서 솜옷을 입어야 한다.

산 서북쪽에는 영원동(靈源洞)이 있는데, 따로 한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쪽의 내수참(內水站)은 영의 등성이로, 이 등성을 넘으면 유점사(楡岾寺)다. 이 절 동북쪽에는 구룡동(九龍洞) 큰 폭포가 있다. 높다란 봉우리에서 물줄기가 떨어지기 때 문에 돌에 팬 커다란 웅덩이가 아홉 층이나 되는데, 층마다 용 한 마리가 지키고 있다고 한다. 벼랑과 물길에 모두 빛나고 깨끗한 흰 돌이다. 위태롭고 험하여 발을 붙일 수 없고, 삼엄하고 엄숙해서 아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유점사에는 고적이 가장 많다. 중의 말에 의하면 불상 53개가 천축(天竺)에서 바다를 건너오자 시주 노춘(盧椿)이 절을 세우고 안치했다 한다. 그러나 이 말은 황당해서 믿을 것이 못 된다. 이것은 지난날 불탑과 불당을 받들던 사람들이 과장되 게 꾸민 말이기 때문이다.

유점사 서쪽을 내산(內山)이라 하고 동쪽을 외산(外山)이라 하며, 물은 동해로 흘러든다. 이 내산과 외산에는 옛날부터 뱀과 벌이 없어서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마땅히 나라 안의 제일가는 명산이라 할 것이다. 고려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다.

불씨(佛氏)의 《화엄경(華嚴經)》은 주(周)나라 소왕(昭王) 후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때는 서역 천축국이 중국과 교류가 없었는데 하물며 중국 밖에 있는 동이(東夷)하고 교류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동북쪽 바다 가운데에 금강산이 있다는 말이 이미 경전에 실려 있으니, 부처가 멀리 내다보고 기록했던 말인가.

여기서 남쪽은 설악산과 한계산(寒溪山)이다. 역시 둘산과 둘샘인데, 높고 그윽하

23 칠금산 : 불교의 우주관에서, 우주의 중심에는 거대한 수미산(須彌山)이 있고, 그 주위에 일곱 개의 금산(金山)이 있는데 이를 칠금산이라 한다.

24 인조산 : 월지국(月氏國)에 있는 산으로, 이 산 역시 불교와 관계가 깊을 것이다. 월지국은 본래 중국의 둔황(敦煌)과 기련(祁連) 근처에 있던 나라로, 중국에 불교를 전파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25 제석 : 석가모니의 산스크리트어 별칭을 한문으로 음차하면 석가제환인타라(釋迦提桓因陀羅)가 되는데, 석가는 성이고 제환은 천(天)이라는 뜻이며 인타라는 제(帝)라는 뜻이다. 즉 석가천제(釋迦天帝)라는 뜻이며, 제석(帝釋)은 그 준말이다.

고 깊어 싸늘하다. 중첩한 멧부리와 커다란 숲이 하늘과 해를 가리고 있다. 한계산에는 만 길이나 되는 큰 폭포가 있는데, 옛날 임진년에 중국 장수가 와보고 중국의 여산폭포(廬山瀑布)²⁶보다 낫다고 했다 한다.

또 남쪽은 오대산(五臺山)이다. 흙으로 된 산이면서도 천 개의 바위와 만 개의 구렁이 겹겹으로 깊이 막혀 있고, 정상에는 다섯 개의 넓은 바위가 있다. 바위마다 암자가 하나씩 있는데, 가운데의 한 암자에는 부처님의 사리²⁷가 봉안되어 있다.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무외(韓無畏)가 여기서 선도(仙道)를 깨치고 시해(尸解)²⁸했는데, 연단(鍊丹)²⁹ 할 만한 복지(福地)³⁰로는 이 산이 제일이라고 했다.

이곳은 옛날부터 병란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산 아래 월정사(月精寺)³¹ 옆에 사고(史庫)를 지어 역대 왕조의 실록을 간직하고 관원을 두어 지키게 했다. 여기서부터 영의 등성이가 조금 낮아져서 대관령이 되어 동쪽으로 강릉과 통한다. 영 아래에 있는 구산동(丘山洞)도 천석이 매우 뛰어나다.

태백산과 소백산도 토산으로 흙빛이 모두 맑고 깨끗하다. 태백산에는 경치 좋은 황지(潢池)³³가 있다. 이 산에는 들이 있어 산골 백성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었다. 화전을 일구어 살아가고 있지만, 지대가 높고 기후가 차서 서리가 일찍 내린다. 그래서 주민들은 조와 보리농사만 짓는다.

황지 위에 있는 작약봉(芍藥峰) 아래에는 모를 쓰지 못하게 하는 곳이 있다. 세상에 전하는 말로는 나라에서 묘터를 잡아 놓기만 하고 쓰지 않은 곳이라 한다. 산 밑 평지에는 각화사(覺化寺)와 홍제암(弘濟庵)이 있는데, 이따금 고승이나 이상한

26 여산폭포 : 중국 강서성(江西省) 구강현(九江縣) 남쪽에 있는 폭포.

27 사리 :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음차한 것인데, 원래는 유골, 특히 부처나 성자의 유골을 나타내는 말이었으나, 후세에 와서 화장한 뒤에 나오는 구슬 모양의 결정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됐다.

28 시해 : 선도(仙道)를 깨쳐 몸을 남겨둔 채 혼이 신선이 되는 것.

29 연단 : 도사가 불사약을 만드는 일. 단(丹)은 단약(丹藥)을 말한다.

30 복지 : 어떠한 재앙도 미치지 않는 복된 땅.

31 월정사 :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에 있는 절. 신라 때 자장(慈藏)이 중국 당나라에서 돌아와 오대산 밑에 암자를 지은 것이 시초라 한다. 현재 고려 때에 세운 9층탑이 남아 있다.

32 사고 : 나라의 사책(史冊)을 간수해 두는 창고.

33 황지 : 태백산 위에 있는 큰 못. 낙동강으로 흐른다.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산다. 이곳은 옛날부터 삼재(三災)³⁴가 들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서 여기에도 사고(史庫)를 두었다.

소백산에는 옥금동(郁錦洞)이 있는데 천석이 수십 리에 달한다. 그 위에 있는 비로전(毗盧殿)은 신라 때의 고찰이고, 골짜기 입구에는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서원이 있다.

대체로 태백산과 소백산의 천석은 모두 골 안의 낮고 평평한 곳에 있다. 산허리 위로는 돌이 없기 때문에 산이 아무리 웅장해도 살기(殺氣)가 적다. 멀리서 바라보면 봉우리와 뗏부리가 솟지 않고 서로 얹혀 있는 듯하다. 마치 구름이 가듯 물이 흐르듯 하면서 하늘에 닿아 있다. 북쪽이 막혔는데, 가끔 보라색 구름과 흰 구름이 그 위에 떠 있기도 하다.

옛날에 술사(術士) 남사고(南師古)가 소백산을 보더니 갑자기 말에서 내려 절하고 나서 말하기를 “이 산은 사람을 살릴 산”이라 했고, 또 《저기(著記)》에는 “병란을 피하기에는 태백산과 소백산이 제일 좋은 곳”이라 했다.

대체로 백두산에서 태백산까지는 한 줄기의 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좌우에 다른 봉우리가 없다. 소백산 이하에서는 산맥이 자주 끊어지는데, 끊어져 생긴 산은 속리산이 처음이다. 감여가(堪輿家)는 이 속리산을 석화성(石火星)이라고 한다. 그러나 돌의 형세가 높고 크며, 겹겹이 쌓인 봉우리의 뾰족한 돌이 가지런히 모여서 마치 갯 피어나는 연꽃과 같고, 또 많은 햇불을 멀리 세워놓은 것과도 같다. 산 밑은 모두 돌로 된 골짜기가 깊게 굽이굽이 돌기 때문에 여덟 굽이 아홉 돌림이라는 이름도 있다. 산은 수려한 돌인데, 샘물이 이 돌에서 솟기 때문에 물맛이 맑고 차갑고 빛도 몹시 푸르러서 사랑스럽다. 여기가 바로 충주 달천(達川)의 상류다. 산을 감싸면서 이상한 골짜기와 색다른 구렁이 많고, 그윽한 샘과 기이한 돌의 묘하고 예쁜 모양은 금강산 다음이다.

속리산 남쪽에 있는 환적대(幻寂臺)는 만학천봉(萬壑千峰)이 깎아지른 듯 그윽하고 깊어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이 골짜기의 물이 합류해 조그만 내를 이루어, 들을 지나고 청화산(靑華山) 남쪽을 따라 동쪽으로 용추(龍湫)로 흐

34 삼재 : 한재(旱災) · 수재(水災) · 병화(兵火)의 세 가지 재난.

르는데, 이것이 병천(瓶川)이다.

병천 남쪽은 속리산의 지맥인 도장산(道藏山)이다. 이것이 내려와서 청화산과 만나고, 이 두 산 사이와 용추 위쪽을 모두 용유동(龍游洞)이라 한다. 평지는 모두 반석이며, 큰 냇물이 서쪽에서 북쪽으로 흐른다. 물이 돌 위에 넓게 펼쳐져서 흐르는데, 울퉁불퉁한 돌을 만나면 조그만 폭포가 되고, 좁고 움푹 패인 돌을 만나면 작은 간수(澗水)가 된다. 또 모나고 넓은 돌을 만나면 조그만 못이 되고, 둥글게 구멍이 진 돌을 만나면 작은 우물이 되며, 평평한 돌을 만나면 물이 마치 진주로 엮은 발과 같고, 거꾸로 도는 곳을 만나면 물이 항불에서 피어나는 연기와 같다.

돌은 구유·솔·가마(釜(부))·확(臼(구))·석가산(石假山)·조그만 섬·염소·범·닭·개처럼 생긴 모양이 기이하고 괴상한데, 물이 돌아 흐르면서 치솟기도 하고 괴어 있기도 하며 부딪쳐 솟구치기도 하고 거꾸로 쏟아지기도 한다. 양쪽 언덕에는 수목이 듽성듬성하고 골짜기 바람이 서늘하니 천하의 기이한 광경이다. 그 속에 송(宋)씨의 정자가 있다.

청화산 동북쪽에 있는 선유산(仙遊山)은 산 위에 정기가 모인 형국이다. 그 꼭대기는 평탄하고 골이 몹시 깊데, 위에는 칠성대(七星臺)와 학소굴(鶴巢窟)이 있다. 옛날에 도를 깨친 최도와 도사 남궁두(南宮斗)가 여기서 수련했다 한다. 《저기(著記)》에 말하기를 “도를 닦고자 하는 자는 이 산에서 편히 살 만하다”고 했다.

이 골짜기의 물이 흘러 낭풍원(閼風苑)이 되고, 양산사(梁山寺) 앞 골짜기 물과 합하여 가은창(加恩倉)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문경(聞慶) 큰 여울로 흘러들어 간다. 칠성대 서쪽으로 고개를 넘으면 외선유동(外仙遊洞)이고, 조금 내려가면 파곳(葩串)이다. 골이 깊고 먼데, 큰 시냇물이 밤낮으로 돌 골짜기와 석벽 밑으로 쏟아지며 천만 번 돌고 도는 모양은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여기가 금강산 만폭동보다 웅장한 맛은 조금 떨어지지만 기이하고 아기자기한 맛은 오히려 낫다고 한다. 대개 금강산 다음으로는 이만한 수석이 없을 것이니, 마땅히 삼남의 제일일 될 것이다.

청화산은 내외 선유동을 등지고 앞에는 용유동(龍游洞)이 있는데, 기이하고 절묘한 앞뒤 수석은 높고 큰 속리산의 수석보다 훌륭하다. 비록 속리산보다는 높고 크

지 못하지만, 흙으로 된 봉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돌이 모두 밝고 깨끗해서 살기가 적다. 또 모든 돌이 단정하고 빼어난 기상을 드러내어 숨긴 것이 없으니 자못 복지(福地)라 할 만하다.

화양동(華陽洞)은 파곳 아래에 있는데, 파곳의 물이 여기에 와서 더욱 커지고 돌도 더 한층 기이하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주자의 운곡정사(雲谷精舍)를 모방하여 그 안에 집을 지었다. 또 주자가 대의(大義)를 회복하던 일을 모방하여 동중(洞中)에서 명나라 신종황제(神宗皇帝)를 제사 지내다가 뒤에는 사당을 세우고 만동묘(萬東廟)라고 했다. 일찍이 시를 지어,

푸른 물의 시끄러움은 노는 것 같고

푸른 산의 잠잠함은 미소 짓는 것 같네

라고 했다.

속리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려온 산맥은 화령(火嶺)과 추풍령이 되었는데 시내와 산은 경치가 그윽하다. 땅이 모두 낮고 평탄해서 살 만하지만 산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덕유산은 토산이다. 그 위에 구천동(九泉洞)이 있는데 천석이 그윽하고 깊다. 그 밑에 있는 적상산성(赤裳山城)은 석벽이 치마를 두른 것 같은데, 그 위는 평탄해서 나라에서 여기에 성을 쌓고 사기(史記)와 실록(實錄)을 간직해 두었다.

산 동쪽은 안음(安陰)과 지례(知禮)이고 북쪽은 설천(雪天)과 무풍(舞豐)이다. 남사고(南師古)는 무풍을 복지라 했다. 골 밖은 온 산의 농토가 비옥해서 부자 마을이 많은데, 이것도 속리산 위쪽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지리산은 남해(南海) 가까이 있다. 이 산은 백두산 줄기가 끝나면서 생긴 산으로 일명 두류산(頭流山)이라고도 한다. 세상 사람들은 금강산을 봉래(蓬萊), 지리산을 방장(方丈), 한라산을 영주(瀛洲)라 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삼신산(三神山)이다. 《지지(地誌)》에는 지리산을 태을(太乙)³⁵이 사는 곳이며 여러 신선이 모이는 곳이라

35 태을 : 음양가들이 말하는 신령스러운 별. 하늘 북쪽에 있어 병란·재화·생사를 맡아 다스린다고 한

고 했다. 골이 서리서리 깊고 크다.

흙이 두텁고 비옥해서 온 산이 사람 살기에 적당하다. 산 안에 백 리나 되는 긴 골짜기가 있다. 맑은 좁아도 안은 넓어, 가끔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곳이 있고 나라에 세금을 바치지 않는 곳도 있다. 땅이 남해에 가깝기 때문에 기후가 따뜻해서 산 중에는 대나무가 많다. 또 감과 밤이 매우 많아, 저절로 열렸다가 저절로 떨어진 다. 기장이나 조를 높은 산봉우리에 심어도 잘 자란다. 이런 것을 평지밭에도 모두 심기 때문에, 산중에는 마을 사람과 종이 함께 산다.

종이나 속인이 대나무를 꺾고 감과 밤을 주우니 애써 일하지 않아도 생리(生利)가 넉넉하며, 농부와 장인(匠人)도 힘들여 노력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지낸다. 이와 같이 이 산에 사는 사람은 풍년과 흉년을 모르기 때문에 부산(富山)이라고 한다.

산 남쪽에 화개동(花開洞)과 악양동(岳陽洞)이 있다. 산수가 아름다운 이곳에는 모두 사람이 살고 있다. 고려 중엽에 이자겸(李資謙)³⁶의 횡포가 심하자, 한유한(韓惟漢)³⁷은 장차 화가 미칠 것을 예견하고 벼슬을 내놓고 가족과 함께 악양동에 숨어 살았다. 그 후 조정에서 그를 찾아 벼슬을 내리고 불렀지만 끝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가 신선이 되어서 갔다고 한다.

서쪽으로는 화엄사(華嚴寺)와 연곡사(燕谷寺)가 있고, 남쪽에는 신응사(神凝寺)와 쌍계사(雙溪寺)가 있다. 절에는 신라의 고운(孤雲) 최치원과 화상이 있다. 시냇가 석벽에는 고운의 글씨가 많이 새겨져 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고운이 도통해서 지금도 가야산(伽倻山)³⁸과 지리산을 왕래한다고 한다. 선조 신미년에 종이 바위틈에서 종이 하나를 발견했는데, 절구(絕句)³⁹ 한 수가 적혀 있었다.

다.

36 이자겸(?~1126) : 척신. 본관은 경원(慶源), 즉 인천(仁川). 벼슬이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에 이르렀으며 셋째, 넷째 딸이 인종(仁宗)의 비(妃)가 되자 횡포를 부리다가 귀양 가 죽었다.

37 한유한(?~?) : 대대로 개성에 살았는데, 최충헌(崔忠獻)이 매관매직을 하고 정사가 매우 어지러워지자 가족을 거느리고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38 가야산 : 경상남도 함천군에 있는 산. 산 아래에 해인사가 있다.

39 절구 : 기(起) · 승(承) · 전(轉) · 결(結)로 짜여진 한시의 한 체. 한 구절이 다섯 자로 되어 있는 오언절구와 일곱 자로 되어 있는 칠언절구가 있다.

동쪽 나라 화개동은
항아리 속의 별천지일세
신선이 옥 베개 밀치고 잠에서 깨어나니
세상은 어느덧 천 년이 지났네

글씨의 획이 갓 쓴 것과 같고, 세상에 전하는 고운(孤雲)의 필체와 같았다. 옛날부터 전하기를 만수동과 청학동이 있다고 했는데, 만수동은 오늘날의 구품대(九品臺)이고 청학동은 오늘날의 매계(梅溪)다. 근래에 와서 비로소 조금씩 사람의 왕래가 있다.

산 북쪽은 모두 함양(咸陽) 땅이다. 영원동(靈源洞) · 군자사(君子寺) · 유점촌(楡店村)이 있는데, 남사고(南師古)는 이곳이 모두 복지라고 했다. 또 벽소운동(碧霄雲洞)과 추성동(楸城洞)은 모두 경치가 좋은 곳이다.

지리산 북쪽 골짜기 물이 합쳐져 임천(臨川)과 용유담(龍游潭)이 되어 고을 남쪽 엄천(嚴川)으로 흐르는데, 시내를 따라 위와 아래가 모두 천석이 뛰어나게 기이하다. 그러나 땅이 너무 깊고 막혀 마을에는 망명해 도망 온 사람들이 많고 가끔 도둑이 출몰하기도 한다. 또 이 산에는 잡신을 모시는 당집이 많아, 해마다 봄가을이 되면 사방에서 무당들이 모여들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남녀가 어울려 잠을 자기도 하는데, 술과 고기 냄새가 코를 찔러 매우 더러워진다.

서남쪽으로 내려간 크고 작은 산맥은 섬진강(蟾津江) 상류에서 끝난다. 물에는 장기가 많고 온 산에 맑은 기운이 적으니 이것이 결점이다. 오직 이 여덟 개의 산이 영 등성이를 지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산이다. 영의 등성이 외에 명산을 꼽자면, 함경도는 산이 모두 크기만 하고 골짜기가 거칠어 명산이라 할 만한 것이 없고, 오직 동해가에 있는 명천(明川)의 칠보산(七寶山)은 골짜기에 들어가면 깎아지른 돌 모양과 기묘하게 조각된 모양이 마치 귀신이 새겨 놓은 것 같다.

다음은 평안도 묘향산(妙香山)으로, 밖은 토산이고 뗏부리는 모두 토성(土星)이다. 다만 산허리부터 아래는 모두 기이한 바위와 빼어난 돌이며 그다지 험하지 않다.

안으로는 넓은 평지가 있고 큰 냇가 흐르고 있어 거의 평지 마을과 같고, 산줄기와 골짜기가 굽이굽이 겹친 모양이 마치 성곽과 같다. 다른 곳으로는 길이 없고 오직 서남쪽 수구(水口)를 따라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겨우 한 사람만 지날 수 있을 뿐이다. 옛말에 태백산 위에 단군이 태어난 석굴이 있다고 한다. 산 안에 큰 절 셋이 있고 조그만 암자가 매우 많은데, 중들이 선정(禪定)에 들고 불도(佛道)를 강론하는 곳이다.

경상도에는 석화성(石火星)은 없고 오직 합천(陝川) 가야산만은 뽕족한 돌이 이어져 있어서 마치 불꽃과 같다. 홀로 공중에 우뚝 솟아 몹시 높고 수려하다. 골짜기 입구에 홍류동(紅流洞)과 무릉교(武陵橋)가 있는데, 폭포와 반석이 수십 리에 뻗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최고운(崔孤雲)이 여기에 신을 벗어 놓고 어디론가 가 버렸다고 한다. 돌 위에 고운이 쓴 큰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지금도 갓 써 놓은 것 같다. 고운의 시에,

돌 위를 달리면서 봉우리에 외쳐대니
사람의 말이 곁에서도 안 들리네
인간들의 시비가 들릴까 두려워
흐르는 물소리로 산을 덮어 버렸네

라 했으니, 이것이 바로 여기다.

임진왜란 때 금강산·지리산·속리산·덕유산은 모두 왜적의 침입을 면치 못했으나 유독 오대산·소백산과 이 산에는 침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삼재(三災)가 들지 않는 곳이라 한다.

이 산 안에 해인사(海印寺)가 있다. 신라 애장왕(哀莊王)이 죽어서 염까지 마쳤다가 다시 깨어나, 명부(冥府)⁴⁰ 관원에게 발원(發願)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팔만대장경을 사서 배에 싣고 왔다.

이 대장경은 목판에 새겨 옷칠을 하고 구리와 주석으로 장식을 한 다음 장경각(藏

40 명부 : 사람이 죽은 뒤에 심판을 받는 저승의 법정.

經閣) 120칸을 지어서 간수하고 있다. 그 후 천여 년이 되었는데도 판이 새로 새긴 것과 같다. 날아가는 새도 이 장경각을 피해서 날고 지붕 위에 앉지도 앉으니 실로 이상한 일이다. 유가(儒家)의 경전은 아무리 대궐 안에 간직한다 해도 새가 지붕 위를 날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런데 불교의 경전은 이와 같이 신기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절 서북쪽은 가야산 상봉인데, 돌이 사면을 깎아 놓은 것 같아서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다. 그 위에 평탄한 곳이 있을 것 같으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 위에는 항상 구름이 덮여 있는데, 나무꾼과 목동들이 가끔 봉우리 위에서 올리는 풍악 소리를 듣는다 하고, 중들의 말로는 짙은 안개가 끼었을 때는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골짜기 밖의 가야천 가는 논이 아주 비옥해서 종자 한 말에 120에서 130말이 나고, 적어도 80말 이상은 거둔다. 물이 풍부해서 가뭄을 모르고 밭에는 목화 농사가 잘 되어, 이곳을 의식(衣食)의 고장이라 한다. 가야산 동북쪽에는 만수동(萬水洞)이 있는데, 깊고 긴 골짜기여서 복지라고 하니, 세상을 피해서 살 만한 곳이다. 안동 청량산(淸涼山)은 태백산 산맥이 들로 내려갔다가 예안(禮安) 강가에서 우뚝하게 솟은 것이다. 밖에서 바라보면 사면에 만 길이나 되는 석벽이 험하게 에워싸고 있어 기이하기 그지없다. 그 안의 난가대(爛柯臺)는 최고운이 바둑을 두던 곳이다. 모란 돌에 바둑판 줄을 그어놓은 듯하다. 그 옆 석굴에는 노파의 상(像) 하나가 안치되어 있는데,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고운이 산에 있을 때 음식 시중을 들던 계집종이라 한다.

이 산에 있는 연대사(蓮臺寺)에는 신라 때 김생(金生)⁴¹이 친필로 쓴 불경이 많다. 근래 어떤 선비가 절에서 글을 읽으면서 불경 한 권을 훔쳐가지고 집으로 갔다가 염병에 걸려죽었다. 그래서 그 집안 사람이 겁이 나 즉시 불경을 절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오직 이 네 산이 영 등성이에 있는 여덟 산과 함께 국내의 큰 명산이다. 여기는 은

41 김생(711~791) : 통일신라시대의 서예가.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부터 서도에 정진해 예서·행서·초서에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사(隱士)들이 수양하는 곳이 되었다. 옛말에 “천하의 명산은 승려가 많이 차지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불교만 있고 도교는 없기 때문에 대체로 이 열두 곳 명산을 모두 절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유명한 절 때문에 그 지역이 세상에 알려진 경우가 있다.

기이한 사적과 별난 경치가 있는 태백산과 소백산 사이에 신라 때의 고찰 부석사(浮石寺)가 있다. 불당 뒤에 큰 바위 하나가 가로 서 있고, 그 위에 큰 돌 하나가 지붕처럼 덮여 있다. 언뜻 보면 위아래가 서로 연결된 것 같으나, 자세히 보면 두 돌 사이가 떨어져 있다. 조그마한 틈이 있어서 새끼를 건너지르면 걸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 돌이 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절이 이 돌 때문에 부석사(浮石寺)라 하게 되었으니, 그 이치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절 문 밖에는 살아 있는 모래 무더기가 있는데, 옛날부터 무너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꺾으면 다시 본래 모양으로 돌아와서 모래 무더기가 살아있는 것 같다.

신라 때 중 의상(義湘)⁴²이 득도한 후 서역(西域) 천축국(天竺國)에 가려고 기거하던 요사(寮舍)⁴³ 앞 처마 밑에 지팡이를 꽂으면서 “내가 간 뒤에 이 지팡이에서 반드시 새 가지와 잎이 돌아날 것이다. 이 지팡이가 죽지 않으면 나도 죽지 않은 줄 알라”고 했다. 의상이 떠난 후 그 절의 승려는 의상의 상을 만들어 절 안에 모셨는데, 창 밖에 있는 지팡이에서는 곧 가지와 잎이 돌아났다. 그러나 이 나무는 햇빛과 달빛은 받지만 비와 이슬을 맞을 수는 없다. 나무는 지붕 밑에서 더 자라지 않는다. 천 년을 하루 같이 겨우 한 길 남짓할 뿐이다.

광해군 때 경상 감사 정조(鄭造)⁴⁴가 절에 왔다가 이 나무를 보고 “이것은 선인(仙人)의 지팡이이니, 나도 지팡이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톱으로 잘라갔다. 그러자 그 나무에서는 새로 두 줄기가 뻗어 전처럼 자랐다. 그 후 인조 계해년⁴⁵에 정조는 역적으로 몰려 참형을 당하고 말았다. 그 나무는 지금도 사시사철 푸른데, 잎이 피거

42 의상(625~702) : 우리나라의 화엄종을 일으킨 신라의 승려.

43 요사 : 절에 있는 승려들이 거처하는 집.

44 정조(1559~1623) : 본관은 해주.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간(臺諫)에 이르렀다. 폐모론(廢母論)의 주동자로 지목돼 처형됐다.

45 인조 계해년 : 1623년에 있었던 계해정란, 즉 인조반정.

나 떨어지는 일이 없다. 승려들은 이 나무를 비선흥수(飛仙花樹)라 한다.
일찍이 퇴계가 이 나무를 보고 시를 짓기를

옥을 가려낸 듯 정정하게 절문에 썼는데
승려의 말로는 지팡이가 신령한 나무로 화했다하네
지팡이 머리에 조계수(曹溪水)⁴⁶가 있어서
천지에 내리는 우로(雨露)의 은혜를 입지 않는구나

했다.

절 뒤의 취원루(聚遠樓)는 크고도 넓은데, 아득하게 솟은 모습이 마치 천지의 한복판에 솟아 있는 것 같다. 기세와 정신이 웅장하여 온 경상도를 위압하는 듯하다. 벽에는 퇴계의 시를 새긴 현판이 있다.

계묘년 가을에 내가 승지 이인복(李仁復)과 태백산을 유람하다가 이 절에 올라와서 이 시에 차운(次韻)⁴⁷했다.

아득히 높은 누각 열두 난간이
동남쪽 천 리를 눈앞에 보네
인간 세상은 아득한 신라시대요
천하는 깊고 깊은 태백산일세
가을 골짜기 아련한 연기는 나는 새 저 편이요
바다 위 희미한 노을은 어지러운 구름 끝일세
가도 가도 위 절에는 이르지 못하니

46 조계수 : 조계(曹溪)는 중국 광둥성(廣東省)에 있는 하천이다. 중국 양(梁)나라 천감(天監) 원년에 승려 지약(智藥)이 배를 타고 소주(韶州)의 조계 수구에 왔다가 물맛을 보고 “이 물 상류에 반드시 훌륭한 곳이 있다” 하면서 터를 잡아 절을 지었다. 그리고 “앞으로 170년이 지나면 무상법보(無上法寶)가 여기에서 설법할 것이다” 했는데, 과연 당나라 때에 중국 선종(禪宗)의 제6대 조사(祖師) 혜능(慧能)이 여기서 설법하여 불법이 크게 일어났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도 조계종(曹溪宗)이라는 종파가 전해지게 되었다.

47 차운 : 남이 지은 시의 운을 써서 시를 짓는 일.

천주 행로의 어려움을 어찌 알리

그리고 또 이런 시도 지었다.

아득한 태백산은 하늘과 통했는데
오랜 절은 해동(海東)에 웅장하게 서 있네
강물과 산은 아득히 천 리 밖에서 조아리고
불당과 누각은 날아갈 듯 천지간에 솟았네
명승은 떠났지만 나무에는 꽃이 피었고
나라의 흥망에도 새는 하늘을 나네
누가 알랴. 주남(周南)에 머무는 나그네의
뜬구름 지는 해에 끝없는 감회를

누각 위 깊은 구석에 방이 있는데, 안에는 신라 이후 이 절 승려로서 사리가 나온 명승들의 화상 십여 폭이 걸려 있다. 모두 모양이 기이하고 풍채가 맑고 깨끗하여, 당시의 누각에서 나와 마주 앉아 있는 것 같다.

이곳 지세는 꾸불꾸불 아래로 처졌다. 그 밑에 있는 조그만 암자들은 불경을 공부하고 선정(禪定)에 드는 승려들이 거처하는 곳이라고 한다. 이 절은 경상도 순흥부(順興府) 땅이다. 양산(梁山)에는 통도사(通度寺)⁴⁸, 대구에는 동화사(桐華寺)⁴⁹가 있다. 또 전라도에는 영광(靈光)에 도갑사(道岬寺)⁵⁰, 해남(海南)에 천주사(天柱寺),

48 통도사 : 경상남도 양산시(梁山市) 하북면(下北面) 영취산(靈鷲山)에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거찰. 신라 진덕왕(眞德王) 15년(646년)에 자장법사(慈藏法師)가 중국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의 사리(舍利)·가사(袈裟)·대장경 등을 금강계단(金剛戒壇)에 봉안하고 창건했다. 우리나라의 오랜 불교 역사 속에서 전통 승맥을 계승한 승보사찰(僧寶寺刹)로, 합천 해인사(法苑(법보)), 양산 통도사(佛寶(불보))와 더불어 삼보사찰(三寶寺刹)로 불리고 있다.

49 동화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팔공산(八公山) 남쪽 기슭에 있는 절. 원래 이름은 유가사(瑜伽寺)로, 신라 소지왕(昭知王) 15년(493년)에 극달(極達)이 창건했다. 뒤에 신라 흥덕왕(興德王) 7년(832년)에 심지(心地)가 절을 중건했는데, 당시 겨울인데도 오동나무 꽃이 피었기 때문에 동화사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50 도갑사 :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郡西面) 도갑리(道岬里) 월출산(月出山)에 있는 절로, 대한불교조계

고산(高山)에 대둔사(大菴寺), 금구(金溝)에 금산사(金山寺), 순천(順天)에 송광사(松廣寺)⁵¹, 흥양(興陽)에 능가사(楞迦寺)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신라 때부터 내려오는 대찰이다.

통도사에는 당나라 초기에 자장법사(慈藏法師)가 천축국에 들어가서 석가의 머리 뼈와 사리를 얻어와 절 뒤에 묻고 탑을 만들어서 모셨는데, 세월이 오래 되어 탑이 조금 기울었다. 숙종 을유년에 승려 성능(聖能)⁵²이 이 탑을 중수하려고 혈었더니, 탑 안에 “외도(外道) 성능이 중수한다”라 써 있었다. 그리고 은함(銀函) 속에는 비단에 싸인 머리뼈가 있었는데 크기가 동이만 했다. 이미 천 년이 지났으나 썩지 않고 새 것 같았다. 또 조그만 금합(金盒)에는 사리가 들어있었는데 그 빛이 사람의 눈을 부시게 했다. 탑을 고친 뒤에 비각을 세웠다. 비문은 학사 채팽윤(蔡彭胤)⁵³이 지었고, 글씨는 내 선대부(先大夫)⁵⁴께서 쓰셨다.

동화사는 신라 때 승려 진홍(眞弘)이 지팡이를 공중에 날렸는데 그 지팡이가 여기에 섰기 때문에 여기 절을 세우고 살게 된 곳이다. 이곳은 지형이 겹으로 감췄는데, 건물들이 크고 넓어 옛날부터 명승과 수행하는 자가 많았다.

도갑사는 신라 때 중 도선(道詵)이 세상에 흔적을 나타내기 시작한 곳이다. 동구 밖에 돌 두 개가 서 있고, 하나에는 “황장생(皇長生)”이란 세 글자, 또 하나에는 “국장생(國長生)”이란 세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천주사는 남해 가에 있지만 산골처럼 지세가 깊다. 소나무와 대나무, 굴나무와 유자나무가 골짜기에 뽕뽕이 들어서 있다. 불당은 장려(壯麗)하고 재력이 풍족해서 이 도의 대찰이 되었다.

대둔사의 뒷산은 계룡산에서 뻗어 온 산줄기로, 절 뒤에 백운암(白雲庵)이 있다.

종 제22교구 본산인 대흥사(大興寺)의 말사이다. 신라 말년에 도선(道詵)이 지었다.

51 송광사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松光面) 신평리(新坪里) 조계산(曹溪山)에 있는 절. 신라 말년에 혜린선사(慧隣禪師)가 길상사(吉祥寺)로 창건한 뒤 고려 희종(熙宗) 4년 지금의 송광사로 개칭했다.

52 성능 : 승려. 호는 계파(桂坡). 지리산 화엄사의 승려로 있다가 숙종 때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이 되어 북한산성을 쌓았다.

53 채팽윤(1669~1731) : 문신. 호는 희암(希菴), 본관은 평강(平康).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부제학에 이르렀고, 시와 글씨에 뛰어났다.

54 선대부 : 저자 이중환의 아버지인 성재(省齋) 이진휴(李震休)를 말한다.

함열(咸悅) 사람 손순목(孫順穆)이 어릴 때 임진왜란을 당해서 그 어미를 잃었다. 그 후에 이 암자에 수록도랑(水陸道場)을 베풀고 7일 동안 엎드려 있던 중에 꿈을 꾸니, 한 나한(羅漢)⁵⁵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모친은 앞산에 있다”고 한다. 손순목이 놀라 일어나서 두루 살펴보니, 과연 한 노파가 앞산 돌 위에 있는 것이었다. 급히 가서 물어보니 바로 그의 어미였다. 그 어미는 말하기를 “왜국에 잡혀 가 있었는데, 아침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가다가 어떤 승려에게 업혀 왔다. 어찌 된 까닭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놀란 사람들은 이 암자 이름을 득모암(得母庵)이라 했다.

금산사는 모악산(母岳山) 남쪽에 있다. 절터는 본래 깊이를 알 수 없는 용추(龍湫)였는데, 신라 때 조사(祖師)⁵⁶가 소금 수 만 섬을 가지고 이 못을 메우자 용은 어디론가 가 버렸다. 그래서 여기에 터를 닦고 큰 불당을 세웠는데, 불당 네 모퉁이 뜰 밑에는 좁다란 시냇물이 돌아 흐르고 있다. 지금도 누각이 높고 빛나며 골이 깊숙하니, 역시 호남의 이름난 대찰이다. 전주부(全州府)와 매우 가깝다. 《고려사(高麗史)》에 견신검(甄神劍)이 그 아버지 견훤(甄萱)을 금산사에 가두었다고 했는데, 거기 가 바로 이 절이다.

송광사는 대웅전과 누각 등 건물이 많으나 지극히 정밀하고 아기자기하며, 수석이 정결하고 그윽하다. 봉우리와 뗏부리는 맑고 높으며, 사면이 모두 단정하고 아름답다. 종루(鐘樓) 앞에 수각(水閣)이 있고 그 앞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옛날에 보조국사(普照國師)가 죽을 때 말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 이 나무는 반드시 말라 죽을 것이나, 만일 가지와 잎이 다시 돌아나거든 내가 환생한 줄로 알라”고 했다. 천 년이 지난 지금, 잎은 아직 나지 않았으나 칼로 꺾질을 굽으면 속이 촉촉한 게 생기가 있다. 만일 나무가 말라 죽었다면 썩어서 쓰러졌을 터인데, 지금까지 꽃꽂이 서 있으니 이상한 일이다.

능가사는 팔경산(八靈山) 밑에 있다. 옛날에 유구국(琉球國) 태자가 절 앞에 표류

55 나한 : 아라한(阿羅漢)의 준말. 전생(前身) · 이승 · 저승의 삼계(三界)에서 보는 것 ·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일체의 의혹을 끊어 버리고 완전해 진 사람, 존재의 참 본질에 대한 통찰을 얻어 열반(涅槃) 또는 깨달음에 이른 사람을 불가에서 아라한이라 한다.

56 조사 : 한 종파를 일으킨 스님에 대한 존칭.

해 밀려왔다. 그래서 관음보살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7일 낮과 7일 밤을 기도했더니, 큰 무사가 나타나 태자를 옆에 끼고 바다를 건너갔다 한다. 절의 승려가 벽에 그려 놓은 화상은 지금도 남아 있다.

대체로 산 모양이 수려한 돌로 봉우리가 이루어져야만 산이 수려하고 물도 많다. 또 반드시 강이나 바다가 모이는 곳에 있어야만 힘이 있는데, 이런 곳이 나라 안에 네 군데가 있다. 하나는 개성의 오관산(五冠山)이고, 하나는 한양의 삼각산(三角山)이며, 하나는 진잠(鎭岑)의 계룡산이고, 하나는 문화(文化)의 구월산이다.

오관산은 도선(道先)이 말하기를 “모봉(母峰)은 수성(水星)이요, 즐기는 목성(木星)”이라고 했다. 산의 형세가 몹시 길고 멀면서 또 크게 끊어져 송악산이 되었으니, 감여가(堪輿家)가 말하는 “하늘에 모여드는 토성(土星)”이다. 기세는 웅장하고 크며, 포용하는 뜻은 질박하고 순수하다. 동쪽에는 마전강(麻田江)이 있고 서쪽에는 후서강(後西江)이 있다. 그리고 승천포(昇天浦)는 바로 앞의 조수(朝水)가 된다. 교동(喬桐)과 강화(江華) 두 큰 섬이 바다 가운데에 마치 일자처럼 가로 늘어서서, 남쪽으로는 바다를 막고 북쪽으로는 한강 하류를 담은 듯이 은연중에 앞산 밖을 감싼다. 깊고 넓고 한없이 크니, 동월(董越)이 이른바 “기상과 풍채가 평양보다 조밀하다”는 것이 이것이다.

오관산 좌우에는 골이 많다. 박연(朴淵)은 서쪽에 있고 화담(花潭)은 동쪽에 있는데, 모두 샘과 폭포 경치가 훌륭하다.

한양의 삼각산은 동남쪽의 산이다. 백 리 밖에서 하늘로 솟아 있는데, 앞면이 평탄하고 좋다. 서북쪽은 높이 막히고 동남쪽은 탁 트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연의 요새로 이름난 곳이다. 다만 비옥한 들 천 리가 없는 것이 아쉽다. 삼각산은 도봉산(道峰山)과 삼각산(三角山)이 얹혀 된 형세다. 돌로 된 봉우리가 한없이 맑고 수려하여 마치 만 개의 불길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고, 특별히 이상한 기운이 있어서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옆에서 도와주는 산이 없고 골이 적다. 옛날에는 중흥사(重興寺) 천석이 있었으나 북한산성을 쌓을 때 모두 깎아서 평탄해졌다. 성 안의 백악산(白岳山)과 인왕산(仁旺山)은 둘 형세가 보는 사람을 두렵게 해서, 살기를 벗은 송악산(松岳山)보다 못하다. 그래도 남산(南山) 한 줄기가 강을 거슬

러 형국(形局)을 만든 것이 믿음직스럽다. 수구(水口)가 낮고 허하며, 전면에는 관악산(冠岳山)이 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나 너무 가깝다. 비록 화성(火星)이 앞을 받치고 있기는 하지만, 감여가는 정남향으로 방위를 잡는 것이 길하지 못하다고 한다. 그러나 판국 안이 명랑하고 삼엄하고 엄숙하며, 흠빛이 깨끗하고 굳고 희어서 밥을 길바닥에 떨어뜨려도 주워서 먹을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의 인사들은 막히지 않고 명랑하고 영리하나, 웅장한 기상이 없는 것이 한스럽다.

계룡산은 오관산보다 웅장하지 못하고 삼각산보다 수려하지 못하며, 전면에 또 조수(朝水)가 적다. 금강(錦江) 한 줄기가 산을 감아 돌았을 뿐이다. 대체로 회룡고조(回龍顧祖)라는 산세는 본래 역량이 적은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금릉(金陵)만 하더라도 늘 한쪽 패자(霸者)의 고장이 되었을 뿐이다. 명나라 태조가 비록 여기에서 통일했으나 세월이 바뀐 뒤에는 도읍을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계룡산 남쪽 골은 한양이나 개성에 비해서 기세가 훨씬 못하다.

또, 판국 안에 평지가 적고 동남쪽이 넓게 트이지 못했다. 그러나 내려온 산맥이 멀고 골이 깊어서 정기가 모여 있다. 판국 안 서북쪽에 용연(龍淵)이 있는데 몹시 깊고 또 크다. 그 물이 넘쳐 판국 안의 큰 시내가 되었는데 이것은 개성이나 한양에도 없는 것이다. 산 남쪽과 북쪽에는 좋은 천석이 많고, 동쪽에는 봉림사(鳳林寺)가 있으며, 북쪽에는 갑사(甲寺)⁵⁷와 동학사(東鶴寺)⁵⁸의 훌륭한 명승지가 있다. 구월산도 화룡고조의 형국으로, 서북쪽으로는 바다를 지고 동남쪽으로는 평양과 재령(載寧) 두 강의 물을 거슬러 받는데, 이 두 강물에는 밀물과 썰물이 드나든다. 온 황해도의 생선과 소금의 이익을 독차지한다. 남쪽 오 리 되는 곳에는 또 백 리나 되는 비옥한 들이 있다. 수세(水勢)와 험한 지리(地理), 그리고 비옥한 농토는 계룡산보다 크게 낮고, 톱니 같은 돌산의 모양은 오관산이나 삼각산에 뒤지지 않는다. 온 산 주위에 사찰이 십여 개나 되고, 위에는 산성을 쌓은 천험의 요새도 있

57 갑사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鶴龍面) 중장리(中壯里) 계룡산 연천봉 아래에 있는 절. 신라 진흥왕(眞興王) 17년(556년)에 혜명대사(惠明大師)가 중건했고, 군자대(君肝臺)·용문폭(龍門瀑) 등 명승이 있다.

58 동학사 : 마곡사(麻谷寺)의 말사(末寺).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反浦面) 학봉리(鶴峰里) 계룡산 동남쪽 기슭에 있으며, 신라 성덕왕(聖德王)이 창건했다.

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단군의 자손이 기자를 피해 평양에서 여기로 도읍을 옮겼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장장평(莊莊坪)이다. 여기에는 아직도 단씨 삼군(檀氏三君)의 사당이 있는데, 나라에서 봄가을로 향을 내려 보내 제사를 지낸다. 그러나 단씨는 이 산의 한쪽만 차지하고 이 지역의 좋은 곳을 다 차지하지 못했으나, 여기가 한번쯤은 도회지가 될 것이다.

이 밖에 명산이라 할 만한 춘천의 청평산(淸平山)은 맥국(貊國)이 도읍했던 곳이다. 다만 두 강 사이에 있고 서해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려온 산 형세가 짧다.

금구(金溝)의 모악산은 산 아래에 평평한 골이 있는데, 전해 오는 말에 도읍터가 될 만하다고 하나 내려온 산세가 또한 짧다.

두 물 사이에 있는 안동(安東) 학가산(鶴駕山)은 산세도 오관산이나 삼각산과 흡사하나, 돌로 된 봉우리가 적은 것이 한이다. 그 아래에 있는 풍산(豊山) 들이 도읍지가 될 만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세 산은 모두 위에서 말한 네 산만 못하다. 들로 내려온 산 중에는 비록 큰 힘은 없지만 경치가 특이해서 기록할 만한 곳이 많다. 원주 적악산(赤岳山)은 토산이지만 안에 골과 천석이 많고 동쪽과 서쪽에는 이름난 마을이 많다. 또 산에는 영험한 힘이 많아 여기서는 사냥꾼이 감히 짐승을 잡지 못한다.

사자산(獅子山)은 적악산 동북쪽에 있는데 수석이 삼십 리에 이어졌으며, 주천강(酒泉江)이 여기서 발원한다. 남쪽의 도화동(桃花洞)과 무릉동(武陵洞)은 시내와 샘의 경치가 뛰어나고 복지라고도 하는데, 참으로 속세를 벗어나 살 만한 곳이다. 공주의 무성산(茂盛山)과 천안의 광덕산(廣德山)은 서로 붙어 있는데 모두 토산이다. 그러나 두 산의 남쪽과 북쪽에는 긴 골짜기가 매우 많다. 절과 암자만이 경치 좋은 곳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골짜기마다 민가와 전답이 섞여서 긴 숲 사이 시냇물에 비쳤다 숨었다 하니, 완전한 한 폭의 도원도(桃原圖)다.

해미(海美) 가야산의 동남쪽은 토산이고 서북쪽은 석산이다. 동쪽에 있는 가야사

(伽倻寺) 계곡은 상고시대 상왕(象王)⁵⁹의 궁궐터이고, 서쪽에 있는 수렴동(水簾洞)은 바위와 폭포가 매우 아름답다. 북쪽에는 강당동(講堂洞)과 무릉동(武陵洞)이 있는데, 수석이 아름답고 마을과 가까워서 살 만한 곳이다. 합천 가야산만은 못하지만, 바닷가 경치를 겸한 곳이다.

남포(藍浦) 성주산(聖住山)은 남북의 두 산이 모여 큰 골이 되어있다. 산속은 평탄하고 시내와 산이 밝고 깨끗하며, 수석이 씻은 듯이 시원스럽다. 산 밖에서 나는 검은 돌로 버루를 만드는데 품질이 매우 좋다. 옛날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⁶⁰이 홍산(鴻山) 무량사(無量寺)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거기가 바로 이 산이다. 시내와 골 사이에 역시 살 만한 곳이 많다.

노령(蘆嶺)의 한 줄기가 북쪽으로 부안(扶安)에 와서 서해(西海)로 빠져들어갔다. 서쪽과 남쪽과 북쪽은 모두 큰 바다요, 산속에는 만학천봉이 있는데 이것이 변산(邊山)이다. 높은 봉우리와 깎아지른 듯한 산마루, 평지나 비스듬한 언덕을 막론하고 모두 큰 소나무가 하늘 높이 해를 가리고 있다. 골 밖은 모두 소금을 굽거나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살고, 산속에는 옥토가 많다. 주민들은 산에 가면 땀나물을 하고 산에서 내려오면 물고기를 잡거나 소금 굽는 것으로 생업을 삼기 때문에, 땀나무와 조개 따위는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풍족하다. 다만 샘물에 장기가 있는 것이 흠이다.

위에서 말한 여러 산들은 큰 것은 도읍지가 될 만하고 작은 것은 고인(高人)⁶¹이나 은사(隱士)가 숨어 살 만한 곳이다.

사람은 살 수 없어도 명승으로 알려진 영평(永平) 백운산(白雲山)에는 삼부연(三釜淵)폭포가 있는데, 경치가 기이하고 장엄하다. 곡산(谷山) 고달산(高達山)은 몹시 깊고 막혔지만, 바위 동굴이 기이하다.

광주 무등산(無等山)은 산 위에 수십 개나 되는 바위가 가지처럼 하늘 높이 늘어서

59 상왕 : 모든 부처. 《열반경(涅槃經)》에 “이 큰 열반은 오직 큰 상왕이라야 능히 그 뜻을 다 알 것이다. 상왕이란 모든 부처를 말한다” 했다.

60 김시습(1435~1493) : 단종 때의 생육신(生六臣) 가운데 한 사람. 자는 열경(悅卿), 호는 매월당(梅月堂). 본관은 강릉. 21세 때 단종의 양위 소식을 듣고 중이 되어 세상의 불우를 시로 읊었다.

61 고인 : 벼슬자리에 오르지 않고 고결하게 사는 사람.

있는데, 홀(笏)처럼 우뚝 솟은 형세가 몹시 험준해서 온 도(道)를 위압한다.

영암 월출산(月出山)은 도봉산이나 삼각산처럼 뾰족한 돌들이 날아 움직이는 것 같으며, 바다가 매우 가깝고 골이 적다.

장흥(長興) 천관산(天冠山)은 돌 모양이 기이하고 아름다우며, 자줏빛 구름과 흰 구름이 늘 산 위에 떠 있다.

흥양(興陽) 팔령산(八靈山)은 마치 섬처럼 바다에 들어가 있으며, 남사고는 여기를 복지라고 했다. 임진년에 왜적의 배가 근처에 출몰 했지만 이 산에는 끝까지 들어 오지 않았다.

광주 백운산(白雲山)은 도선이 도를 닦던 곳으로 천석이 아름답고, 순천(順天) 조계산(曹溪山)은 남쪽 송광사(松廣寺) 계곡이 훌륭하다.

돌 봉우리가 옆으로 뻗은 대구의 팔공산(八公山)은 동쪽과 서쪽의 시내와 산이 자못 아름답다. 다만 산 서쪽에 산성을 쌓아서 군사적 요충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좋지 않다. 대구의 비파산(琵琶山)에는 샘솟는 돌이 있다.

청도(淸道) 운문산(雲門山)과 울산 원적산(圓寂山)은 모두 연봉(連峰)과 중첩된 뿔부리로 되어 있어 골이 깊다. 불가에서는 천 명의 성인이 나올 곳이라 하고 또 병란을 피할 복지라 한다.

청하(淸河) 내연산(內延山)은 바위와 폭포의 경치가 기묘하고 그윽하여 청량산(淸涼山)보다 자못 낫다.

청송(淸松) 주방산(周房山)은 골이 온통 돌이어서 보는 이의 마음과 눈을 놀라게 한다. 또한 샘과 폭포도 매우 기이하다.

그러나 이 여러 산은 신선이나 승려가 살기에만 적당한 곳이다. 한때 유람하기는 좋지만 집을 짓고 오래 살 곳은 아니다. 이 밖에도 산이라 이름 붙여진 것은 많지만, 골이 없거나 천석이 없는 것은 적지 않겠다.

바다 가운데에 있는 산도 기이한 것이 많다. 영주산(瀛洲山)이라고도 하는 제주도 한라산 위에는 큰 못이 있는데, 사람들이 시끄럽게 굴면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짙게 낀다. 정상에는 마치 사람이 일부러 쏜 것 같은 모란 바위가 있고, 그 아래에는 잔디 덮인 길이 나 있어서 향기로운 바람이 산에 가득하다. 이따금 피리와 통소 소

리가 들려오건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 없다. 전하는 말로는 신선이 여기서 논다고 한다.

산 북쪽은 제주읍이다. 이곳은 옛 탐라국(耽羅國)이었다가 신라 때에 와서 신라 영토가 되었다. 원(元)나라에서는 이곳을 방성(房星)⁶²에 해당하는 곳이라 하여, 암수준마(駿馬)를 방목하는 목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도 좋은 말을 생산해 세공(歲貢)으로 나라에 바치고 있다.

제주읍 동쪽과 서쪽에 있는 정의(旌義)와 대정(大靜) 두 고을은 풍속이 제주와 비슷하다. 목사(牧使)와 두 고을 수령(守令)들이 옛날부터 본토에 왕래했으나 해난을 당한 적이 없었고, 또 조정 벼슬아치가 이곳에 많이 귀양 왔지만 역시 해난을 당한 적이 없었으니, 이것은 임금의 덕이 멀리 여기까지 미쳐서 모든 신들이 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남해현(南海縣)은 경상도 고성(固城)에서 바닷길로 십 리 거리에 있다. 거기에는 최고운(崔孤雲)이 놀던 금산동천(錦山洞天)이 있는데, 고운이 쓴 큰 글씨가 아직도 석벽에 남아 있다.

완도는 전라도 강진(康津)에서 10리 떨어진 바다에 있다. 이곳은 신라 때 장보고(張保臯)가 근거지로 삼았던 청해진(淸海鎭)이다. 섬 안에 좋은 천석이 많으며, 지금은 첨사(僉使)⁶³가 지키는 진(鎭)이 있다.

군산도(群山島)는 전라도 만경(萬頃)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역시 첨사의 진(鎭)이 있다. 이 섬은 모두 돌로서, 모든 봉우리가 뒤를 막으면서 또 좌우로 감싸 안았다. 그 안에는 돌로 갈라진 강어귀가 있어 배가 정박할 만하다. 앞은 어장이어서, 해마다 봄여름 고기잡이 철이 되면 각 고을 장삿배가 구름처럼 몰려와 해상에서 생선

62 방성 : 28수(宿) 중 넷째 별. 고대 중국에서 하늘의 적도를 따라 그 부근에 있는 별들을 28개의 구역으로 구분했는데 이를 28수라 하며, 편익상 7개씩 묶어 동서남북 네 방향에 분속시켰다. 동쪽에는 각(角), 항(亢), 저(氐), 방(房), 심(心), 미(尾), 기(箕), 북쪽에는 두(斗), 우(牛), 여(女), 허(虛), 위(危), 실(室), 벽(壁), 서쪽에는 규(奎), 누(婁), 위(胃), 묘(昴), 필(畢), 자(觜), 삼(參), 남쪽에는 정(井), 귀(鬼), 유(柳), 성(星), 장(張), 익(翼), 진(軫)이 있다.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중국 본토와 부근 국가의 영토를 28개 구역으로 나누고 방위에 따라 28수를 정했다.

63 첨사 : 조선시대 각 도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아래에 있던 종3품의 무관(武官)직인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의 약칭.

을 사고판다. 주민들은 이것으로 부유해져 가옥과 의식을 경쟁하듯 꾸미는데, 사치스럽기가 육지 백성들보다 더 심하다.

덕적도(德積島)는 충청도 서산(瑞山) 북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당나라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정벌할 때 주둔했던 곳이다. 뒤에 있는 세 개의 석봉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지맥이 고리처럼 감싸 안았으며, 그 안쪽에서 강어귀가 두 갈래로 갈라졌다. 물은 알아도 배는 델 만하다. 높은 곳에서 폭포가 쏟아져 내리고 냇물이 돌아 흐르며, 층암(層巖)과 반석이 굽이마다 맑고 기이하다. 매년 봄과 여름이면 진달래와 철쭉꽃이 산에 가득히 피어서 골짜기 사이가 온통 붉은 비단 같다. 바닷가 흰 모래밭에는 가끔 해당화가 모래를 뚫고 나와 아름답게 핀다. 비록 바다에 있는 섬이긴 하지만 참으로 선경이다. 주민들은 모두 물고기를 잡고 해초를 따서 부유하게 된 사람이 많다. 그리고 여러 섬에는 장기 있는 샘이 많은데, 오직 덕적도와 군산도에는 장기가 없다.

울릉도는 강원도 삼척부(三陟府) 바다 멀리 있는데, 맑은 날 높은 산에 올라 바라보면 마치 구름이 낀 것처럼 보인다. 숙종 때 삼척 영장(營將) 장한상(張灘相)이 함경도 안변부에서 잔잔한 바다에 배를 띄워 동남쪽을 향해 이곳을 찾았는데, 이들 만에 바다 가운데에 큰 돌산이 솟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상륙해 보니 주민은 없고 사람이 살던 집터만 남아 있었다. 섬 안에는 석벽과 석간수(石澗水)가 흐르고 동학(洞壑)이 매우 많았다. 큰 고양이와 쥐가 있지만, 사람을 보고도 피할 줄을 몰랐다. 대나무는 깃대처럼 크고, 복숭아·오얏·뽕나무·산뽕나무·나물·꼭두서니, 그 밖에 이름 모를 진기한 나무와 이상한 풀도 많았다.

아마 여기가 바로 옛날 우산국(于山國)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왜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동해는 옛날에는 고개 같은 물마루가 있어서 서로 왕래하지 못했는데, 근래에 와서 바닷물의 형세가 변했는지 왜국의 배가 많이 표류해서 영동에 이르니, 염려되는 일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모두 산에 대한 것이었다. 이제부터는 비록 명산 밑은 아니라도 산골 속에 강이나 냇물을 끼고 있어 수석이 기이하거나, 들 가운데에 있는 예쁜 산과 유명한 호수가 어울린 명승지에 대해 기록하려 한다.

산수의 경치가 좋은 곳은 당연히 강원도 영동이 제일이다.

고성(高城) 삼일포(三日浦)⁶⁴는 맑고도 묘한 중에 화려하면서도 그윽하고, 조용하면서도 명랑하다. 마치 숙녀가 아름답게 화장한 것과 같아서 사랑스럽고 존경스럽다. 강릉 경포대(鏡浦臺)⁶⁵는 마치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기상과 같아서, 활달하면서도 웅장하고 아늑하면서 조용하여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흡곡(歙谷) 시중대(侍中臺)⁶⁶는 명랑하면서 삼엄하고 평이하면서 깊고 멀어서, 마치 유명한 정승이 관청에 앉아있는 것처럼 가까이 할 수는 있어도 업신여길 수는 없다. 이 세 호수가 호수와 산의 제일가는 경치다.

다음은 간성(杆城)의 화담(花潭)인데 마치 달이 맑은 샘에 떨어진 것과 같고, 영랑호(永郎湖)는 구슬을 큰 못에 담아 둔 것 같으며, 양양(襄陽) 청초호(靑草湖)는 경대의 거울을 열어 놓은 것 같다. 이 세 호수의 경치는 위에서 말한 세 호수 다음으로 기이하고 아름답다.

우리나라에는 도마다 호수가 있는 것은 아니나, 오직 영동의 여섯 호수는 인간 세상이 아닌 것 같다. 삼일포에는 호수 가운데에 사선정(四仙亭)이 있다. 이 정자는 신라 때 영랑(永郎)·술랑(述郎)·남석행(南石行)·안상(安詳)이 놀던 곳인데, 이 네 사람은 벼슬하지 않고 벗이 되어 자연 속에서 놀았다. 세상에 전하는 말로는 그들은 득도해서 신선이 되어 떠났다고 한다. 호수 남쪽 석벽에 있는 붉은 글씨는 이 네 신선의 이름인데, 붉은 빛이 석벽에 스며들어 천여 년의 비바람에도 지워지지 않았으니 이 또한 이상한 일이다.

읍(邑)의 객관 동쪽에 해산정(海山亭)이 있다. 서쪽으로는 금강산 천첩(千疊)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넓고 넓은 푸른 바다가 보인다. 또 남쪽에는 긴 강 한 줄기가 넓고 웅장하며, 크고 작고 그윽한 경치가 펼쳐져 있다.

64 삼일포 :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호수. 신라 때 영랑(永郎)·술랑(述郎)·남석행(南石行)·안상(安詳) 등 네 신선이 사흘 동안 이 호수 위에서 놀았다 하여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 한다.

65 경포대 : 관동팔경의 하나. 강원도 강릉시에서 동북쪽으로 7km 되는 언덕 위에 있는 누대(樓臺). 고려 때 지은 것으로, 경포(鏡浦)의 호수와 술밭, 동해의 창파에 떠도는 백조, 추석 달맞이 등은 가경이다.

66 시중대 : 관동팔경의 하나. 강원도 통천군 흡곡면에 있는 대. 동쪽에 큰 산이 우뚝 솟아 있고 삼면은 모두 호수로 둘러싸여 있다.

남강(南江) 상류에는 발연사(鉢淵寺)⁶⁷가 있고 그 곁에 감호(鑑湖)가 있다. 옛날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이 호숫가에 정자를 짓고 비래정(飛來亭)이라는 세 글자를 크게 써서 벽에 걸어 놓았는데, 어느 날 비(飛)자가 갑자기 바람에 날려 하늘 높이 올라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날짜와 시를 알아보니, 바로 양봉래가 세상을 떠난 날짜와 시였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양봉래는 일생 동안 정신이 이 비(飛)자에 있었는데, 봉래의 정기가 흩어지자 비(飛)자도 함께 날아갔다”고 한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경포에는 동쪽을 향해 조그만 산등성이 하나가 있고, 그 위에 경포대가 있다. 그 앞에는 돌레가 이십 리 되는 호수가 있다. 수심이 사람의 배꼽에 찰 정도지만 작은 배는 다닐 수 있다. 동쪽에는 강문교(江門橋)가 있고, 다리 건너에는 흰 모랫둑이 겹겹이 막혀 있다. 호수는 바다와 통하고, 독 너머에는 푸른 바다가 하늘에 닿은 듯하다. 옛날에 최전(崔澣)⁶⁸이 19세 때에 이 대(臺)위에 올라 이런 시를 지었다.

봉호(蓬壺)에 한번 들어가니 삼천 년이라
은빛 바다 망망한데 물은 맑고 얕구나
난새⁶⁹ 타고 오늘 홀로 날아 왔으나
벽도화(碧桃花) 밑에는 보는 사람 없네

이 시는 고금의 절창(絶唱)이 되어, 아무도 계속해 짓는 사람이 없었다. 혹은 말하기를 “시(詩)는 속세의 티가 전혀 없으니, 이는 신선의 말”이라 하고, 혹은 또 말하기를 “이 시는 너무 비어 있고 그윽하니 귀신의 말”이라 했는데, 최전은 이 시를 짓고 돌아가서 곧 죽었다.

67 발연사 : 금강산 유점사의 말사(末寺). 입구에 바리때(鉢(발)) 모양의 못(淵(연))이 있다. 신라 때 진표(眞表)가 절을 창건하고 점찰법회(占察法會)를 열고 7년 동안 있던 곳이라 한다.

68 최전(1567~1588) : 문인. 자는 언침(彦沈), 호는 양포(楊浦). 본관은 해주(海州).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요절했고, 그림과 글씨에 뛰어났다.

69 난새 :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상상의 새. 모양은 닭과 비슷하나 깃은 붉은 빛에 다섯 가지 색채가 섞여 있으며, 오음(五音)을 낸다고 한다.

세상에 전하기를 “이 호수는 옛날에 부자가 살던 곳이었는데, 어느 날 쌀을 구걸 하러 온 중에게 똥을 퍼 주었더니 집터가 갑자기 내려앉아 호수가 되고, 쌓여 있던 곡식은 모두 자살한 조개로 변했다”고 한다. 흉년이 들면 조개가 많이 나고 풍년이 들면 적게 나는데, 맛이 달고 향기가 있어 먹을 만하다. 그 지방 사람들은 이것을 적곡합(積穀蛤)이라고 한다. 봄과 여름이면 사방에서 남녀가 모여들어 조개를 이고 지고 한 자가 길에 끊이지 않았다. 호수 바닥에는 아직도 기와 조각과 그릇들이 있어 헤엄치는 자들이 가끔 줍는다.

호수 남쪽 기슭은 판서 심언광(沈彦光)⁷⁰이 살던 곳이다. 심언광이 조정에 벼슬할 때 늘 호수의 경치를 자리 옆에 그려놓고 말하기를, “나에게 이와 같은 호수와 산이 있으니, 내 자손은 출세치 못하고 반드시 쇠할 것”이라 했다.

호수 남쪽 수십 리 되는 곳에는 한송정(寒松亭)이 있다. 여기에는 돌절구와 돌술 같은 것이 있는데, 사선(四山)이 놀던 곳이다.

시중호(侍中湖)에는 정자는 없으나 모래 언덕이 겹겹으로 쌓여 있고, 호수 물이 굽이쳐 휘돌아 괴어서 깨끗하고 삼엄한 경치가 일품이다. 옛날에 한명회(韓明澮)⁷¹가 감사로 있을 때 여기서 잔치를 하고 놀았는데, 마침 정승이 되었다는 기별이 왔기에 그 고을 사람들이 이 호수를 시중호(侍中湖)라고 했다.

통천(通川) 총석정(叢石亭)⁷²은 금강산 큰 기슭이 곧바로 바다로 들어가서 섬처럼 된 곳이다. 산기슭 북쪽 바다 가운데에 큰 돌기둥이 산기슭을 따라 한 줄로 늘어서 있는데, 그 뿌리는 바다에 박혀있고 돌 높이는 산기슭 높이와 같다. 산기슭과의 거리는 백 보에 지나지 않지만, 돌기둥의 높이는 백 길이나 된다. 대체로 돌 봉우리는 위는 뾰족하더라도 아래는 두툼한 법인데, 위아래 굽기가 똑같으니 기둥이

70 심언광(1487~?) : 문신. 자는 사형(士炯), 호는 어촌(魚村), 본관은 삼척(三陟).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공조판서에 이르렀다.

71 한명회(1415~1487) : 자는 자준(子濬), 호는 압구정(狎鷗亭), 본관은 청주(淸州). 문음(門蔭)으로 관직에 올랐으며, 수양대군(首陽大君)이 김종서 등 대신을 차례로 죽이고 정권을 장악한 계유정난(癸酉靖難) 때 큰 역할을 했다. 세조(世祖)가 즉위한 뒤에는 사육신을 처형했고, 영의정까지 지냈다. 시호는 충성(忠成).

72 총석정 : 관동팔경의 하나. 강원도 통천군 고저(庫底)에 있는 정자. 주위에 현무암으로 된 돌기둥이 바다 가운데 뿔뿔이 서 있어 절경을 이룬다.

지 봉우리가 아니다. 둥근 기둥의 몸통에는 쪼아내고 깎아 낸 흔적이 있어, 밑에서 위까지 마치 목수가 칼로 다듬은 것 같다. 기둥 위에는 늙은 소나무가 띄엄띄엄 서 있기도 하다.

기둥 밑 바다 가운데도 수없이 작은 돌기둥이 서 있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하다. 파도에 씹히고 먹히는 모습이 마치 사람이 만든 것 같으니, 조물주의 솜씨가 너무도 정교하다. 이것이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구경거리다.

삼척(三陟) 죽서루(竹西樓)⁷³는 오십천(五十川) 옆에 있는데 경치가 매우 좋다. 절벽 밑에는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어, 물이 거기에 이르면 구멍으로 새어 나와 마치 낙숫물이 떨어지듯 하고, 남은 물은 누각 앞 석벽을 지나 고을 앞으로 가로질러 흘러간다. 옛날 뱃놀이하던 사람이 실수해서 그 구멍에 빠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을 티가 공망혈(空亡穴)⁷⁴에 있기 때문에 인재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밖에도 양양(襄陽) 낙산사(洛山寺)와 간성(杆城) 청간정(淸澗亭)⁷⁵과 울진(蔚珍) 망양정(望洋亭)⁷⁶과 평해(平海) 월송정(越松亭)⁷⁷은 모두 바닷가에 지은 건물이다. 바닷물이 매우 푸르려서 하늘과 맞닿은 듯하고, 앞에는 아무것도 가린 것이 없다. 해안은 강변이나 시냇가와 같이 조그만 돌과 기이한 바위가 언덕 위에 섞여 있어, 푸른 물결 사이로 모습을 감추었다 드러냈다 한다. 해안은 모두 반짝이는 새하얀 모래인데, 밟으면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마치 구슬 위를 걸어가듯 소리처럼 들

73 죽서루 : 관동팔경의 하나. 강원도 삼척에 있는 누각. 고려 충렬왕 때 이승휴(李承休)가 창건했다. 누각 아래 오십천이 맑게 흐르고 있다.

74 공망혈 : 혈(穴)은 풍수가들이 터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공망혈은 나쁜 터로서, 이곳에 집을 짓거나 묘를 쓰면 사람과 재물이 저절로 없어지고 되는 일이 없다고 한다.

75 청간정 : 관동팔경의 하나.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 해안에 있는 정자로, 누가 언제 지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1884년 갑신정변 때 소실됐으며, 현재의 청간정은 1928년에 재건된 것을 1980년에 완전히 해체·복원한 것이다. 현판은 송시열(宋時烈)이 썼다.

76 망양정 : 관동팔경의 하나. 강원도 울진군 동해안에 있던 정자. 고려 때에는 기성면 망양리 해변 언덕에 세워져 있었으나, 조선 세종 때 망양리 현종산 기슭으로 옮겼고, 철종 때 현 위치인 근남면 산포리 둔산동(屯山洞)으로 이전하였다 한다. 1957년에 중건했다.

77 월송정 : 평해 북쪽에 있는 정자로서, 고려 충숙왕(忠肅王) 때 창건됐고 조선 중종 때 중건됐다. 현재의 건물은 1980년에 재중건한 건물이다.

린다. 모래 위에는 해당화가 활짝 피어 있고, 군데군데 우거진 소나무 숲이 하늘을 가리고 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문득 생각이 바뀌어 인간 세상의 경계가 어딘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만큼 황홀해져 마치 공중에 떠 하늘 위를 걸어 다니는 듯한 생각에 빠지게 된다. 여기를 한번 거친 사람은 저절로 다른 사람이 되어 십 년 뒤에도 얼굴에 자연의 기운이 남아 있게 된다.

영동 아홉 고을 바깥에 있는 흡곡(歙谷) 북쪽은 함경도 안변부(安邊府)다. 철령(鐵嶺) 한 줄기가 동쪽으로 바닷가를 달리다가 층층으로 펼쳐졌는데, 높이 세운 일산(日傘) 같고 병풍을 둘러친 듯한 모습이 아득히 보이는 그림 같다. 좌우의 두 줄기는 고리처럼 해협을 안고 돌아서 마치 사람이 팔짱을 낀 것과 같다. 그 빈 틈바구니에는 조그만 암벽이 늘어서 있는데, 수많은 부뚜막이 별판에 널려 있는 것 같다. 서로 이어져서 막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그 안에는 주위가 삼십 리 되는 학포대호(鶴浦大湖)가 있는데, 물이 깊으면서도 맑고 깨끗하다. 사면의 흰 모래 언덕 속에서 해당화가 뚫고 나와 활짝 핀 모습이 마치 비단을 펴 놓은 것 같다. 산들바람이 불면 고운 모래가 날려 작은 언덕이 되기도 하고 큰 봉우리가 되기도 한다. 아침저녁으로 그 위치가 바뀌어 하루에도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서해의 금사사(金沙寺)와 같으니, 몹시 괴이한 일이다.

그 뒤로는 빼어난 봉우리와 고운 언덕이 예쁘고 아름다우며 먼 것도 같고 가까운 것도 같다. 앞에는 맑고 잔잔한 물결이 넘치고 펄퍼짐하여 출렁이는 것도 같고 잔잔한 것도 같다. 중국 사람은 절강(浙江) 서호(西湖)를 곱게 단장한 미인에 비유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서호의 아름다움과 견줄 만한 곳은 오직 이 호수뿐이다. 이것은 영동의 여섯 호수와도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 호수는 옛날에는 흡곡(歙谷)에 속해 있었으나, 중간에 안변 땅으로 바뀌었다. 흡곡 주민과 안변 주민들이 조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결을 보지 못해, 호수는 북도(北道)에 편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도는 사대부가 살 만한 곳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바다 한구석에 절경이 헛되이 버려져 있어 지나가는 나그네가

구경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 대접을 받고 못 받는 것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바다 가운데 천여 리 되는 곳에는 또 국도(國島)가 있다. 뒤에는 돌기둥이 우뚝하게 모여 있다. 위는 돌 봉우리이고 사방이 모두 돌이며, 위에는 잔디가 깔려 있다. 이 안에서는 질이 좋은 죽전(竹箭)⁷⁸이 나며 사람은 살지 않는다. 유람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징을 치거나 피리를 불면 밑에 있는 용추(龍湫)에서 갑자기 천둥소리가 나고 비바람이 몰려오는 등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영춘(永春)·단양(丹陽)·청풍(淸風)·제천(堤川) 네 고을은 비록 충청도 땅이기는 하지만 실은 한강 상류에 있다. 골짜기 안의 강을 따라 석벽과 반석이 많다. 그중에서도 단양이 제일인데, 고을 전체가 모두 첩첩산중이다. 십여 리 되는 들은 없지만 경치 좋은 강과 시내, 바위와 골이 있다. 흔히들 이담(二潭)·삼암(三巖)이 있다고 하는데, 이담 중 도담(島潭)은 영춘에 있다. 강물이 휘돌아 모여서 깊고도 넓고, 물 가운데에 세 개의 돌 봉우리가 활시위처럼 일직선으로 늘어서 있다. 마치 인공으로 쪼아낸 석가산(石假山)과 같다. 다만 낮고 작은 것이 아쉬울 뿐이다.

귀담(龜潭)은 청풍(淸風)에 있다. 두 언덕에 석벽이 높이 솟아 해를 가리고, 강물은 그 사이로 쏟아져 흐르며, 문처럼 겹겹이 서로 막고 있다. 좌우에는 강선대(降仙臺)와 채운봉(彩雲峰)과 옥순봉(玉筍峰)이 있다.

강선대는 강 옆에 따로 서 있는 평평한 높은 바위다. 그 위는 백 명이 앉을 만큼 넓으며, 만 길이나 되는 두 봉우리는 한 개의 돌로 되어 있다. 이보다 더 높고 곧게 솟은 옥순봉은 마치 거인이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것 같다. 무자년 여름에 내가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단양읍 앞에서 배를 타고 옥순봉을 지나다가 시 한 수를 지었다.

땅 위에 높이 솟은 것은 단정히 서 있는 선비요

물 가운데 움직이는 그림자는 꿈틀거리는 늙은 용일세

78 죽전 : 화살을 만드는 데 쓰이는 가느다란 대. 전죽.

또 이런 시도 지었다.

정신은 뺏어나 강산의 경치가 되고
기세는 높아서 우주의 형상이 되었네

강에는 또 반석이 많다. 물이 줄면 반석이 나타나고, 물이 불면 반석이 묻힌다. 삼암(三巖)은 고을 서남쪽 골짜기에 있다. 산속의 큰 시내가 돌로 된 골을 따라 흘러내리는데, 시내 바닥과 양쪽 언덕이 모두 돌이다. 언덕 위의 기이한 바위는 조그만 봉우리가 되기도 하고, 탁자를 펴 놓은 것 같기도 하며, 성에 벽돌을 쌓은 것 같기도 하다. 그 위에는 노송과 고목들이 늘기도 하고 엮여지기도 하면서 서로 얹혀 있다.

시냇물이 길게 패인 곳에 이르면 돌구유에 물이 담긴 것 같고, 둥글게 패인 골에 이르면 돌솥에 물이 담긴 것 같다. 물과 돌이 부딪쳐 밤낮으로 시끄러워 옆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 좌우에 있는 산등성이에겐 숲이 무성하고 온갖 새가 지저귀니 실로 인간 세상이 아니다. 이런 것이 셋인데, 위에 있는 것이 상선암(上仙巖)이고, 중간에 있는 것이 중선암(中仙巖)이며, 아래 있는 것이 하선암(下仙巖)이다. 내가 무자년에 단양을 지나다가 군수 김중우(金重禹)와 도사(都事) 이덕운(李德運)과 함께 여기에서 놀다가 연구(聯句)⁷⁹ 한 수를 지었다.

첩첩산중에 모든 것이 춘몽인가 의심스럽고
먼 훗날 신선놀이를 의논하리

그러나 과연 어느 때에 신선놀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까. 동남쪽에 있는 운암(雲巖)은 조그만 산기슭이 들에 내려와 우뚝 솟은 바위다. 그 밑에는 석벽이 있는데, 동남쪽의 산골짜기 물이 커지면서 시내가 되어 석벽 밑을 돌아 흐른다. 그 위에는 서애(西厓)의 옛 정자 터가 있으며, 시내와 산 경치가 좋다. 옛날 서애가 임금이 하

79 연구 : 한시(漢詩)의 대구(對句).

사한 표범 가죽으로 이 정자 터를 사서 두어 칸 집을 지었는데, 무술년에 남이공(南以恭)이 이경전(李慶全) 편을 들어 서애를 탄핵하면서 이 정자를 미오(鄙塢)⁸⁰에 비교하기까지 했다. 서애의 글 중에 “붉은 벼랑과 푸른 석벽이 또한 탄핵한 글 속에 들었다”고 한 것이 바로 여기다.

서애가 파직되어 돌아간 뒤 선조가 정승 이항복(李恒福)에게 조정 신하들 중에서 청백리⁸¹를 천거하게 했더니, 이 정승은 서애를 천거했다. 이것은 이 정승이 남이공의 무고를 분통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서애가 서울을 떠날 때 광진(廣津)에 이르러 시를 지었다.

전원에 돌아가는 길 삼천 리요

조정의 깊은 은혜 사십 년일세

나라를 생각하면서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던 심정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서애가 죽은 뒤 정자도 곧 허물어졌다. 그러나 영동은 외진 데다가 바다와 너무 가깝고, 단양은 험하고 좁고 외져서 모두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대체로 높은 산과 급한 물과 험한 골짜기와 빠른 여울은 한때 구경할 만한 경치가 있기는 하지만, 절터로나 마땅할 뿐 오래오래 대를 이어 살 곳은 못 된다. 들에 있는 고을이라도 시내와 산, 강과 산의 경치가 좋고, 넓으면서도 명랑하고, 깨끗하면서도 그윽하며, 산이 높지 않아도 수려하고, 물이 크지 않아도 맑으며, 비록 기이한 바위나 이상한 돌이 있어도 음산하거나 험악하지 않은 곳이라야 영묘(靈妙)한 기운이 모이는 것이다. 이런 곳은 읍(邑)에 있으면 이름 있는 성(城)이 되고, 시골에 있으면 이름 있는 마을이 된다.

강가에 살 만한 곳으로는 평양 외성(外城)이 8도에서 제일이다. 대개 평양은 앞뒤로 백 리나 되는 들이 있어 명랑하기 때문에 기상이 크고도 넓다. 산색은 수려하

80 미오 : 중국 후한 말에 역신 동탁(董卓)이 미현(鄙縣)에 축대를 쌓고 만세오(萬歲塢)라 불렀는데, 이를 세상에서는 미오라 한다.

81 청백리 : 조선시대 의정부 · 육조 · 경조(京兆)의 2품 이상의 당상관과 사헌부 · 사간원의 고관들이 모여 천거하던 청렴결백한 관리.

고, 강물은 천천히 흐른다. 산은 들과 어울리고 들은 물과 어울려서 평탄하고 수려하다. 강이 넓고도 커서 크고 작은 장삿배가 드나들고, 뺨어난 돌과 층암이 강 언덕에 꾸불꾸불 이어 있다. 서북쪽은 좋은 농토가 아득히 펼쳐진 별천지다.

내성(內城)에는 관청과 관속(官屬)의 집이 있고 평민들은 외성에 모여 산다. 외성이라는 것은 위만(衛滿)과 주몽(朱蒙) 때에 토성을 쌓아 만든 성곽이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직도 터의 모양은 남아 있다. 민가가 이 안에 가득히 모여 있다.

남쪽으로는 큰 강을 따라 봄여름이면 빨래하는 여인들이 널어 말리는 빨래가 십리 밖에서도 보이고, 빨래하는 방망이 소리에 갈매기와 오리들이 놀라 날아간다. 집이 즐비하고 저갯저리가 변화하다. 기자(箕子)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니, 좋은 지리(地理)임을 알 수 있다. 전하는 말에 “평양의 지리는 배가 다니는 형국이 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것을 꺼린다. 옛날에 우물을 팠다가 읍에 화재가 자주 일어나 메워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온 읍의 관청이나 민가에서 모두 강물을 길어다 쓴다. 땔나무 하러 가는 길이 멀어 나무가 귀한 것이 흠이다.

다음으로, 춘천(春川) 우두촌(牛頭村)은 소양강(昭陽江) 상류의 두 줄기 물이 옷깃처럼 합쳐지는 안에 있다. 물가에는 돌이 있고, 돌 아래에는 강이 있으며, 강 밖에는 산이 있다. 비록 산골이라도 멀리 트여서 시원하고 넓고 명랑하다. 또 하루에는 배가 다녀 생선과 소금의 이익이 있다.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장사해서 부유하게 사는 자가 많다. 여기는 맥국(貊國) 때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줄지 않고 그대로다.

다음 여주읍(驪州邑)은 한강 상류 남쪽 강가에 있다. 강 건너 남쪽에는 들이 40여 리나 연해 있어서 기상이 맑고도 시원하다. 강은 웅장하거나 급하지 않고, 동쪽에서 서북쪽으로 흘러가며, 위에 마암(馬巖)과 벽사(壁寺)의 돌이 있어서 강물의 흐름을 약하게 한다. 서북쪽이 평탄하기 때문에 읍이 된 지가 수천 년이나 된다.

대체로 강촌은 농사짓기에 알맞은 곳이 드물다. 양쪽 산 사이에 마을이 있고 앞에 강물이 막혀 있으면 땅이 모래와 자갈밭이어서 농사지을 만한 밭이 없다. 비록 있다 하더라도 멀어서 농사짓거나 거두어들이기 힘들다. 지세가 낮기 때문에 물에 잠겨 수확할 것이 없다. 만약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면 모두 메마른 땅이다. 물이

깊고 크면 물을 댈 수도 없고 가뭄과 홍수 피해를 자주 당하기 때문에, 강가에 사는 것은 오로지 자연 경지만 좋을 뿐 의식(衣食)을 위한 이점은 적다.

오직 이 세 곳이 가장 좋다는 것은 넓은 들이 있기 때문이다.

풍덕(豐德)의 승천포(昇天浦)와 개성의 후서강(後西江)은 모두 조수가 흐르는데다가 장기까지도 떠있고, 한양의 여러 강촌은 앞산이 너무 가까우며, 충주의 금천(金遷)과 목계(木溪) 이외에 나머지 여러 강촌은 모두 적막하고 외진 마을들이다.

공주는 금강(錦江)의 석벽이 뛰어나게 좋지만 좁고 궁벽하고, 상주의 낙동(洛東)은 양쪽 언덕의 골짜기가 거칠다.

나주(羅州)의 목포와 광양(光陽)의 섬진강, 진주와 영강(潁江)은 너무 멀다. 오직 부여(扶餘)에서 남쪽으로 은진(恩津)까지 와 서쪽으로 임피(臨陂)까지는 강촌이 많은데, 모두 삼남의 중심지인데다가 서울도 멀지 않다. 들이 가까우면서도 땅이 자못 비옥해서 농사를 지을 만하다. 벼·모시·삼·생선·소금·게(蟹(해))가 나고, 남북으로 실어 나르느라 강과 바다에 배가 모여든다. 한강 이외에는 오직 이곳이 살 만하다. 압록강과 두만강은 논하지 않겠다.

흔히 말하기를 “시냇가에 사는 것이 강가에 사는 것만 못하고, 강가에 사는 것이 바닷가에 사는 것만 못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화물 운송과 고기잡이, 그리고 소금 생산만을 가지고 한 말이다. 실제로는 바닷가에는 바람이 많아 사람의 얼굴이 검어지기 쉽고 각기(脚氣)·수종(水腫)·장기·학질 같은 병이 많다. 샘물이 모자라고 토지가 개펄인데다가 탁한 바닷물이 들어와서 맑은 운치가 아주 적다.

우리나라 지세는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 그리고 산골짜기에서 발원한 강물은 유유히 흐르지 않고 쏟아지듯 급히 흐르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강가에 정자를 지으면 지리의 변화가 많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시냇가에는 평온하고 아름답고 시원하고 깨끗한 운치가 있는데다 물을 끌어 농사짓는 편리함이 있다.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것이 강가에 사는 것만 못하고, 강가에 사는 것이 시냇가에 사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시냇가에 살려면 반드시 영(嶺)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야 한다. 이런 곳이라야 평시 건 난시건 오래 살 수 있다. 그래서 시냇가에 살 만한 곳으로는 영남 예안(禮安)의

도산(陶山)과 안동의 하회(河洄)를 첫째로 꼽는다.

도산은 양쪽 산이 합쳐져서 생긴 긴 골짜기로서 산이 별로 높지 않다. 황지(潢池)의 물이 여기에 와서 비로소 커지고 골짜기 밖에 이르러 큰 시내가 되었다. 양쪽 산 발치에 있는 석벽이 물가에 있어 경치가 좋다. 물은 거룻배가 다닐 만하고, 골 안에는 고목이 매우 많아서 조용하고 한가롭고 상쾌하다. 산 뒤와 시내 남쪽은 모두 평탄하고 좋은 밭이다. 여기에 퇴계가 거처하던 암서헌(巖栖軒) 두 칸이 아직도 있는데, 그 안에는 퇴계가 쓰던 벼루집과 지팡이·신, 그리고 종이로 만든 선기옥형(璇璣玉衡)⁸²이 보관되어 있다.

하회는 밋밋한 언덕이 황지 남쪽에서 서북쪽을 향해 있는데, 여기에 서애의 옛 집이 있다. 황지의 물이 돌아 흐르다가 마을 앞에 와서 깊어졌다. 수북산(水北山)은 학가산(鶴駕山)으로부터 갈라져 내려오다가 강가에서 멈추었다. 이 산은 모두 석벽인데, 돌 빛깔이 암전하고 수려하여 험하고 사나운 모습이 전혀 없다. 그 위에 옥연정(玉淵亭)과 조그만 암자들이 바위 사이에 여기저기 끼어 있고, 소나무와 전나무가 덮여 있어 참으로 절경이다.

도산 하류에는 분강(汾江)이 있는데 농암(龍巖) 이현보(李賢輔)⁸³가 살던 곳이고, 물 남쪽은 제주(祭酒) 우탁(禹倬)⁸⁴이 살던 곳인데 모두 경치가 그윽하고 아름답다. 하회의 위와 아래에는 또 삼귀정(三龜亭)·수동(繡洞)·가일(佳逸) 등의 마을이 있다. 모두 강가에 있는 이름 있는 마을들이다.

하류에는 여울이 많아서 낙동강 장삿배가 다니지 못하지만 마을 앞은 거룻배가 다닐 수 있다. 또 논밭이 멀지 않아 평시에는 농사지를 만하고, 소백산이 아주 가까워서 난세에는 숨어 살 만하다. 그래서 시냇가에 살 만한 곳으로는 이 두 곳이 전국에서 제일이며, 특출한 사람이 있어 유명해진 것이 아니다.

82 선기옥형 : 혼천의(渾天儀)의 하나로, 천문을 살펴볼 수 있는 천문시계.

83 이현보(1467~1555) : 문장가. 자는 비중(裴中), 호는 농암(龍巖). 본관은 영천(永川).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벼슬이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시조 몇 수가 전해진다. 시호는 효절(孝節).

84 우탁(1263~1342) : 고려 때의 학자. 자는 천장(天章), 호는 백운(白雲). 본관은 단양(丹陽). 성균관 좌주를 지냈다. 당시 중국 원나라를 통해 전래된 정주학(程朱學)이 전래됐는데, 특히 정이(程頤)가 주석한 《주역(周易)》의 〈정전(程傳)〉을 터득해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후학들이 그를 종사(宗師)로 삼았다 한다. 시호는 문희(文僖).

이 밖에도 안동 동남쪽에 또 임하천(臨河川)이 있으니, 청송읍(靑松邑) 시내 하류가 황지 물과 합치는 곳이다. 이 임하천에는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⁸⁵의 옛 집이 있는데, 지금도 집안이 번성해서 이름 있는 마을로 남아 있다. 그 옆 위쪽에는 경치 좋은 몽선각(夢仙閣)과 도연선찰(陶淵仙刹)⁸⁶이 있다.

고을 북쪽에 있는 내성촌(奈城村)은 이상(貳相)⁸⁷ 권발(權撥)⁸⁸이 살던 곳이다. 청암정(靑巖亭)이 못 가운데 섬 같은 큰 돌 위에 있고, 사방으로 냇물이 고리처럼 감고 흘러 자못 경치가 그윽하다.

또 북쪽은 춘양촌(春陽村)인데 태백산 남쪽이다. 여기는 정언(正言)⁸⁹ 권두기(權斗紀)⁹⁰의 한수정(寒水亭)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다. 시냇가에 있는 날아갈 듯한 이 정자는 그윽하고 오묘한 운치가 있다.

임하천(臨河川) 상류는 청송이다. 두 개의 큰 냇물이 읍 앞에서 합류하고 들이 자못 넓으며, 흰 모래와 푸른 냇물이 벼와 기장밭 사이로 띠처럼 비친다. 사방에 둘러 있는 산에는 잣나무가 울창해서 사시사철 푸르고 깨끗하니, 속세의 풍경이 아니다.

영천(榮川) 서북쪽 순흥부(順興府)의 죽계(竹溪)는 소백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다. 들은 넓고 산은 나지막하며, 물과 돌이 맑고 선명하다. 위에 있는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

85 김성일(1538~1593) : 문신. 자는 사순(士純), 호는 학봉(鶴峰). 본관은 의성(義城).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경상도 관찰사에 이르렀다.

86 도연선찰 : 안동 동쪽 약 80리 길안면(吉安面)에 있다. 물이 폭포가 되어 흘러 뇌성이 진동하고, 물보라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주위의 경치가 아름답다. 폭포 건너편에 절이 있었으나, 동란에 타버리고 지금은 조그맣게 지어 놓았다.

87 이상 : 조선시대 의정부의 좌찬성과 우찬성을 말한다.

88 권발(1478~1548) : 문신·학자. 자는 중허(仲虛), 호는 충재(沖齋). 본관은 안동.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우찬성에 이르렀다. 조광조(趙光祖)의 개혁정치에 참여했으며, 윤원형(尹元衡) 세력에 반대하다 희생되었다. 시호는 충정(忠定).

89 정언 : 사간원의 정6품 벼슬.

90 권두기(1647~1684) : 문신. 자는 여원(汝元), 본관은 안동.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정언·교리에 이르렀다.

洞書院⁹¹은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⁹²를 제사 지내는 곳이다. 명종 때 부제학(副提學) 주세붕(周世鵬)⁹³이 풍기(豐基)의 원으로 있을 때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다. 시냇가에 있는 서원 앞의 누각은 밝고도 명랑하고 넓어서 온 읍의 경치를 독차지 했다. 이 두 고을은 산천의 경치와 토지의 생리(生利)가 안동의 여러 유명한 마을과 비슷하다. 그래서 소백산과 태백산 아래와 황지 상류는 실로 사대부가 살 만한 곳이다.

그 다음으로 적등산(赤登山) 남쪽 용담(龍潭)에 주줄천(珠峯川)이 있고, 금산(錦山)에는 잠원천(潛原川)이 있다. 장수(長水)에는 장계(長溪)가 있고, 무주(茂朱)에는 주계(朱溪)가 있다. 이 네 곳은 시내와 산이 매우 뛰어나고 토지가 매우 비옥해서 목화와 벼농사에 적합하다. 또 들에는 물을 댈 수 있어서 풍년과 흉년을 모르는 데 이것은 또 소백산과 태백산이나 황지와 견줄 바가 아니다. 네 고을 중간에는 또 전도(前島)·후도(後島)·죽도(竹島) 등 경치 좋은 세 섬이 있다. 이곳은 시내와 경치 좋은 산은 있으나, 농경지가 좀 먼 것이 아쉽다. 그러나 이 네 고을의 동쪽과 서쪽은 모두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기 때문에 난리를 피할 만한 곳이 가장 많다.

여기서 북쪽으로 흘러간 냇물이 다시 동쪽으로 굽어 옥천(沃川)에 들어가 양산(陽山)의 채하계(彩霞溪), 이산(利山)의 구룡계(九龍溪)가 되었는데, 비록 지방에 따라 이름은 다르나 사실은 같은 물줄기다. 이것이 적등강(赤登山) 상류가 된다. 시내를 따라 내려가면 층암절벽이 많은데, 서북쪽은 높이 막혔고, 동남쪽은 흰히 트여 맑고 그윽하며 아늑하고 넓다. 산은 비록 높지만 수려해 추하거나 험하지 않고, 물은 비록 하류 쪽 큰 배가 올라오지 못하나 이따금 물이 불면 거룻배는 다닐 수 있다.

이곳의 경치는 도산이나 하회와 견줄 만하다. 또, 동쪽으로는 황악산(黃岳山)과 덕유산이 가까워서 난리를 피할 만하다. 다만 논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은 오로지 목

91 백운동서원 : 조선 중종 38년에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고려의 유명한 학자 안유(安裕)가 살던 백운동에 세운 서원. 명종 때 이름을 소수서원(紹修書院)으로 고쳤다.

92 안유(1243~1306) : 학자. 자는 사온(士蘊), 호는 회헌(晦軒). 본관은 순흥(順興). 문과에 급제하여 첨의시랑찬성사(僉議侍郞贊成事)·판판도사사(判版圖司事)를 지냈다. 시호는 문성(文成).

93 주세붕(1495~1554) : 학자. 자는 경유(景游), 호는 신재(慎齋). 본관은 상주(尙州).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성(大司成)에 이르렀다. 효행과 청빈한 생활로 조야에 신망이 높았으며,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다. 시호는 문민(文敏).

화 농사로 생업을 삼는다. 목화에서 얻는 이익이 비옥한 논에서 얻는 이익과 맞먹기 때문에 생리도 위에서 말한 네 고을에 뒤지지 않으니, 고인(高人)과 은사(隱士)가 살 만한 곳이다.

그 다음은 화령(火嶺)과 추풍령 두 영 사이에 있는 안평계(安平溪) · 금계(錦溪) · 용화계(龍華溪) 등 세 시내다. 이 시내들은 상주(尙州) · 영동(永同) · 황간(黃澗) 세 고을의 경계에 있는데 시내와 산의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또 물을 대서 쓸 수 있어서 논이 매우 비옥하고 목화밭이 많다. 이곳은 호남과 영남 사이에 끼여 있어서 별로 외지지 않아, 장사꾼들이 많이 모여들어 필요한 것을 교환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많다.

그러나 여러 곳과 비교해서 생리는 제일이지만, 들이 띄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맑고 밝은 기상이 황지 북쪽이나 양산(陽山) · 이산(利山)보다는 못하다. 그러나 북쪽으로 속리산에 접해 있어 증항(甌項)과 도장산(道莊山)이 있고 남쪽으로는 황악산(黃岳山)과 이웃하고 있어서 꾸불꾸불한 골짜기가 있다. 모두 난리를 피할 수 있는 최상의 복지다.

그 다음은 문경(聞慶)의 병천(瓶川)이다. 가은(加恩) · 봉생(鳳笙) · 청화(靑華) · 용유(龍游) 등 경치 좋은 곳이 있다. 북쪽으로는 선유동학(仙遊洞壑)이 접해 있어서, 시내와 산과 천석의 경치가 기이하다. 논이 비옥하고 땅이 감과 밤나무를 심기에 적합하다. 근처 백 리가 모두 난리를 피할 만한 복지이니 참으로 은둔해서 살 만한 곳이다. 그러나 너무 외지고 산이 살기를 벗지 못했으니, 세상을 피해 도를 닦기에는 좋지만 평시에 살 곳은 못 된다.

그 다음은 속리산 북쪽 달천(達川) 상류인 괴산(槐山)의 괴탄(槐灘)이다. 그 위에는 지난날의 판서 서경(西峴) 유근(柳根)의 별장이었던 고산정(孤山亭)이 있다. 주지번(朱之藩)이 사신으로 왔을 때 화공을 보내 이곳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게 했다. 그리고는 그림을 보고 시를 지어 현판을 만들어 걸었다. 비록 골짜기 속이 좁기는 하지만 시내와 산이 맑고 깨끗하다. 또 농사짓는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고, 동쪽에 희양산(曦陽山)이 있어 난리를 피할 만하다.

시내를 따라 남쪽으로는 청천(靑川) · 구만(龜灣) · 용화(龍華) · 송면(松面) 등 마을

이 있다. 이곳은 속리산 북쪽인데, 남쪽으로 울치(栗峙)를 넘으면 문경의 병천(瓶川)이다. 울치 북쪽은 지세가 매우 높아서 여러 마을이 모두 산을 등지고 냇가에 있다. 들이 푸르고 깨끗하며 풀과 나무가 향기로워서 여기도 별천지 중 하나다. 비록 첩첩산중에 있으나 추하고 험악한 봉우리가 없으니, 참으로 은둔해서 살 만한 곳이다. 그러나 밭만 많고 논이 적으며, 땅이 척박해 수확이 적어서 병천이나 괴탄 보다는 못하다.

또 그 다음은 원주의 주천강(酒泉江)이다. 아주 깊은 산골이지만, 그래도 들이 열려 있고 산이 별로 높지 않으며, 물이 매우 맑다.

다만 논이 없어 주민들이 기장과 조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감이다. 서쪽으로는 적악산(赤岳山)이 하늘에 닿아서 인간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 난리를 피하고 은둔 생활하기에는 좋지만, 청천이나 병천보다 더 가난한 곳이다.

영에서 멀리 시냇가에 자리 잡은 마을은 이루 다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공주의 갑천(甲川)을 첫째로 삼고 전주의 울담(栗潭)을 둘째로, 청주의 작천(鵲川)을 셋째로, 선산의 감천(甘川)을 넷째로, 구례의 구만(九灣)을 다섯째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갑천은 들이 매우 넓고 사면의 산이 맑고 수려하다. 세 줄기 큰 냇물이 합쳐 들 가운데로 흘러, 논밭에 물을 댈 수 있다. 땅은 모두 1묘(畝)에서 1종(鍾)의 소출이 나고 또 목화 경작에도 적당하다. 여기서는 강경(江景)이 멀지 않다. 앞에는 큰 시장이 있는데다가 바다로 통하는 편리함이 있으니 대를 이어 살 만한 곳이다.

울담은 동쪽으로는 높은 산을 끼고 서쪽으로는 좋은 밭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큰 내와 논이 있어 1묘에 1종이 수확되니, 낚시하는 즐거움과 농사짓는 이로움이 갑천만 못하지 않다. 전주와 아주 가까워 이용(利用)과 후생(厚生)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작천은 서쪽에 장명(長命)·금성(金城)·자적(紫的)·정좌(鼎坐) 등의 마을이 있다. 내와 골짜기가 매우 많고, 모두 농지에 물을 댈 수 있어서 옛날부터 부유하게 사는 집이 많다.

감천은 황악산(黃岳山)에서 발원해서 시내를 따라 비옥한 논에 물을 댈 수 있어서,

사람들은 풍년과 흉년을 모르고 대를 이어 부유하게 사는 집이 많다. 그래서 풍속이 매우 순박하고 인심이 후하다.

지리산은 동쪽으로는 산맥이 있으나 서쪽으로는 산맥이 없는데, 단 하나의 산맥이 서쪽으로 뻗었다가 크게 끊어진 곳이 구만(九灣)이다.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 감돌고, 강 밖으로 오봉산(五峰山) 남쪽이 보인다. 두 도 사이에 끼인 이곳은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곳인데다가 넓은 들이 매우 비옥하다. 달 밝은 밤이면 조그만 배가 사람도 없이 저 혼자서 두 언덕 사이를 떠도는 것이 보인다. 전하는 말로는 오봉산 신선이 지리산에 왕래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체로 구만은 여러 냇가 마을과 비교해서 생리가 매우 풍족하다. 다만, 남해와 가까워서 수토(水土)가 북쪽만 못하다.

이 다섯 고장은 지리나 생리가 모두 매우 아름다워서 도산(陶山)이나 하회(河洄)에 비해서 더욱 좋다. 하지만 영(嶺)이 좀 멀기 때문에 평시에는 대를 이어 살 만하지만 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황지(潢池) 북쪽 여러 마을만 못한 점이다. 그러나 오직 구만만은 동쪽에 지리산이 있어서, 평시건 난시건 모두 살 만한 곳이다.

이 밖에도 충청도 보령(保寧)의 청라동(靑蘿洞)과 홍주(洪州)의 광천(廣川), 해미(海美)의 무릉동(武陵洞), 남포(藍浦)의 화계(花溪)에는 모두 대를 이어 내려오는 부유한 집이 많다. 또 여러 읍과 이웃해 있고 바닷길이 편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서울 사대부들은 모두 여기를 거쳐 물자를 운반해온다. 비록 심산유곡은 없지만, 바다 옆의 외진 곳이어서 애당초 병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일가는 복지라고 한다.

전라도 남원의 요천(蓼川)과 흥덕(興德)의 장연(長淵), 장성(長城)의 봉연(鳳淵)은 모두 땅이 비옥한 이름난 마을이라 대를 이어 사는 토호가 많다.

경상도 대구의 금호(琴湖)와 성주(星州)의 가천(伽川), 금산(金山)의 봉계(鳳溪)는 모두 땅이 넓고 비옥해서 신라 때부터 인가가 줄지 않는다.

지리와 생리가 모두 대를 이어 살 만한 곳이다. 다만 난을 피하기에는 마땅치 않지만, 오직 가천과 봉계만은 영이 가까워서 평시건 난시건 살 만하다.

경기도 용인의 어비천(魚肥川)과 음죽(陰竹)의 청미천(淸美川)은 삼남처럼 땅이 비옥해서 살 만하다.

강원도 원주의 안창계(安昌溪) 일대와 횡성을 냇물 왼쪽과 오른쪽은 모두 시내와 산이 뛰어나게 아름답지만, 땅이 척박해서 삼남보다는 훨씬 떨어진다.

황해도에는 오직 해주의 죽천(竹川)과 송화(松禾)의 수회촌(水回村)이 제법 산수 경치가 좋다. 토지도 척박하지 않고 서쪽은 바닷가여서 생선과 소금이 생산되니, 참으로 살 만한 곳이다.

황해도와 강원도 경계인 평강(平康)에는 황(黃)씨가 대대로 살아오는 정자연(亭子淵)이 있다. 철원 북쪽인데, 넓은 들 가운데 밋밋한 언덕이 감싸고 있다. 큰 시내는 안변(安邊)의 삼방치(三方峙)에서 남쪽으로 흘러오다가 마을 앞에서 깊어지고 커져서 거룻배가 다닐 만하다. 강 언덕에는 석벽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정자와 축대와 수목이 그윽하고 아름답다.

서쪽은 이천(伊川) 북쪽으로, 여기에 광복촌(廣福村)이 있다. 안변 영풍(永豐)에서 내려오던 물이 광복촌에서 웅덩이처럼 깊어지고 고리처럼 돌아서 배를 띄울 만하다. 땅이 모두 흰 돌과 맑은 모래여서 환하게 보인다. 온 읍에는 논이 적으나 오직 광복촌만은 물을 끌어대기 때문에 땅이 매우 비옥하다.

북쪽에는 깊은 고미탄(古美灘)의 물과 험한 검산(劍山)이 있어, 평시나 난시에 모두 살 만하다. 다만, 너무 외진 곳이어서 부유한 평민들만 살 뿐 사대부는 살지 않는 것이 유감이다.

광복촌에서 흘러내린 물이 이천읍(伊川邑)에서 커져서 강이 된다. 봄과 여름에 물이 불면 바로 세곡(稅穀)을 배에 실어 서울로 보낸다. 강물이 안협(安峽)에 와서는 고미탄 물과 합치고, 토산(兔山)을 거쳐 삭령(朔寧)의 징파도(澄波渡)에 오면 강이 맑고 산이 멀어지면서 비로소 사대부의 정자와 누각이 있게 된다.

대체로 산수라는 것은 정신을 즐겁게 하고 성정(性情)을 맑게 해주는 것이다. 주저 환경에 산수가 없으면 사람이 촌스러워진다. 그러나 산수가 좋은 곳은 생리가 적은 곳이 많다. 사람은 자라처럼 집을 짊어지고 살지 못하고 지렁이처럼 흙을 먹고 살지는 못 하기 때문에 산수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 비옥한 땅과 넓은 들에 지세가 아름다운 곳을 골라 집을 짓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십 리 밖이나 혹은 반나절 거리쯤 되는 곳에 산수가 좋아, 한 번 가보고 싶

을 때 가끔 다니면서 시름을 풀거나 하루쯤 묵을 수 있는 곳이라면 자손에게 길이 길이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옛날 주자(朱子)가 무이산(武夷山)의 산수가 좋아 냇물굽이와 봉우리 정상마다 글을 짓고 그림을 그려서 장식하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거기에 집을 짓지는 않았다. 그는 일찍이 말하기를 “봄에 거기 가보면 붉은 꽃과 푸른 잎이 서로 어우러져 보기 좋다”고 했다. 강산을 사랑하는 후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하다.



총론(總論)

총론(總論)

이자(李子)¹는 말하기를, “우리는 중국 밖에 있어서 이미 <우공(禹貢)>²이 성(姓)을 줄 때 참여하지 못했으니, 곧 하나의 동쪽나라 백성일 뿐”이라고 한다. 기자의 자손이 선우(鮮于)씨가 되고, 고구려는 고(高)씨가 되었으며, 신라 여러 임금인 박(朴)·석(昔)·김(金) 세 성과 가락국 임금인 김(金)씨는 모두 임금으로서 성을 가졌으니, 귀한 성 씨인 것이다.

그리고 신라 말부터는 중국과 교류하면서 비로소 성씨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벼슬한 사람들만 성이 있었을 뿐, 일반 서민은 성이 없었다. 그러다가 고려가 삼한을 통일하자 비로소 중국의 성을 모방해서 성을 하사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성을 하사받기 전에도 씨족은 서로 달랐기 때문에 본관만을 가려서 같은 성씨라 했다. 만일 본관이 다르면 성이 같더라도 다른 씨족이기 때문에 혼인도 할 수 있었으니, 이것은 조상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고려 때 성을 하사할 때는 귀천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사대부들은 이것을 가지고 쓸데없이 너니 나니 하고 따지려 하니 한심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개국할 때는 명분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그러기에 지금에 와서는 사대부라는 명칭이 매우 많아, 사람을 등용하는 데에도 문벌만을 따진다. 그래서 백성들의 계층이 매우 많아졌다. 종실(宗室)³과 사대부는 중앙에서 벼슬하는 집안이 되고, 사대부보다 못한 사람은 시골의 품관(品官)⁴인 중정(中正)⁵이나 공조(功曹)⁶ 따위가 된다. 또 이보다 못한 사람은 사서(士庶)나 장교(將校)·역관(譯官)·

1 이자 : 저자 자신을 말한다.

2 우공 : 《서경(書經)》의 편명(篇名). 중국 고대의 지리서로, 중국 구주의 지리와 산물을 기록했다.

3 종실 : 왕실.

4 품관 : 품계(品階)가 있는 벼슬. 품계는 1품에서 9품까지 있으며, 정(正)과 종(從)의 구분이 있다.

5 중정 : 하급 관직. 그 시초는 중국 위(魏)나라의 관리등용법인 구품관인법(九品官人法)으로, 군(郡)에 중정이라는 관직을 두고 그 지방 출신자의 자격심사를 위임했다.

6 공조 : 군(郡)에 두었던 하급 관직. 사공(司功)이라고도 하며, 제사, 예악(禮樂), 학교, 선거(選舉), 고시(考試) 등의 잡다한 사무를 맡았다.

산원(筭員)⁷ · 의관(醫官)이 되거나 한량⁸이 되고, 또 그보다 못한 사람은 이서(吏胥)⁹ · 군호(軍戶)¹⁰ · 양민(良民)이 되며, 이보다 더 못한 사람은 공사(公私)의 천한 노비가 된다.

노비에서 지방의 아전이 하인(下人)으로서 한 계층이고, 서얼(庶孽)¹¹과 잡색(雜色)¹²은 또 중인(中人)¹³으로서 한 계층이며, 품관과 사대부는 다 같이 양반이라 부르지만, 품관이 한 계층이고, 사대부가 따로 한 계층이다.

사대부 중에서도 대가(大家)와 명가(名家)의 한계가 있어서 그 명목(名目)이 매우 많고, 서로 사귀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구애되는 것이 많으니 성쇠와 존망의 변화가 없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대부도 평민으로 낮아지기도 하고, 평민도 오래 지나면 높아져 사대부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선우씨는 평양의 품관이었으나 지금은 사대부가 없고, 석(昔)씨와 고(高)씨는 씨족이 없어졌다. 오직 신라의 박씨와 김씨, 가락국의 김씨는 임금의 후손으로서 지금도 귀한 신분으로 높은 벼슬을 하고 번성하니, 이 두 성은 나라 안의 첫째가는 씨족이다.

또, 우리나라에 자손을 남긴 중국 사람도 많다. 기자와 위만을 따라온 사람도 있고, 고려의 왕비와 공주를 따라온 사람도 있다. 고려와 원나라가 한 나라로 통해 있을 때는 두 나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고 또 이민 온 사람도 있었으나, 고려에서 성은 하사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계파를 자세히 알 수 없고 높은 벼슬을 한 사람도 적다.

그러나 중국에서 들어와 높은 벼슬을 한 온양(溫陽)의 맹(孟)씨, 연안(延安)의 이(李)씨, 여주(驪州)의 이(李)씨, 남양(南陽)의 홍(洪)씨, 원주(原州)의 원(元)씨, 해주(海州)의 오(吳)씨, 의령(宜寧)의 남(南)씨, 거창(居昌)의 신(慎)씨, 창원(昌原)의

7 산원 : 회계를 맡은 관리.

8 한량 : 무인(武人)으로서 아직 관직에 임명되지 않은 사람.

9 이서 : 서리(胥吏), 서리(書吏), 아전(衙前), 향리(鄉吏), 서원(書員) 등 관아에 속하는 관리.

10 군호 : 군대 편성의 한 단위. 군인과 양호(養戶)로 구성되는데, 군인 한 명에 양호 두 명을 배정하여 군인이 군에 복무하는 대신 양호는 양곡을 보내 이들을 부양하였다.

11 서얼 : 양반의 서자.

12 잡색 : 잡무를 맡은 사람.

13 중인 : 조선시대 양반 다음 가던 계층.

황(黃)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려 때 성을 하사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대부의 족보를 살펴보면 그들의 시조는 대부분 고려 때 성을 하사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 흐르면 바꾸기 어려운 법이다. 고려에서 지금까지는 8백여 년이나 되는데, 그 동안 비천한 신분에서 존귀하게 되고, 이 존귀한 신분이 여러 대를 이어왔다. 그들의 덕행과 공업(功業)이 죽히 역사에 빛나고 간책(簡策)¹⁴에 전할 만하니, 이 어찌 중국의 최(崔)·노(盧)·왕(王)·사(謝)¹⁵씨의 후손만 못하다 하겠는가.

우리나라는 고려에 비하면 문명이 더욱 진보하였다. 옛날 세종대왕은 성인(聖人)의 자질을 가지고 임금과 스승의 위치에서 한 세상을 예법과 교화로 다스렸다. 이 래서 사대부들은 집집마다 문장이 나고 도덕과 문채(文彩)가 찬란히 빛났다. 그런 까닭에 재주와 학문이 거칠고 서투르면 천하다 했고, 혼인을 조금만 그르치면 오랑캐라 했으며, 행동과 의리에 흠이 있으면 사귀지도 않았다. 또 아무리 사대부 집안이라도 무관이나 장사하는 사람은 천하게 여겼다.

그런 까닭에 사대부가 되기가 어렵다. 반드시 학문을 닦고 행실을 바르게 하면서 수신제가(修身齊家)한 뒤에야 비로소 행세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나가거나 숨어 살거나, 행동과 말이 모두 남의 주목을 받게 된다.

세종대왕 때부터 선조 때까지 2백 년을 내려오는 동안 사대부도 영욕(榮辱)이 있었고 다들 착하지는 못했다. 이리하여 편파적인 의논이 크게 일어났는데, 이 편파적인 의논이 생긴 후부터는 어진 사람이라도 남을 다스리지 못하고 불초한 자도 몸을 쉽게 숨길 수 있으니, 사대부로 처신하기와 이름 내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나라의 제도가 사대부를 잘 대우하기는 했지만 쉽게 죽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질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으면 국법을 내세워 사사로운 원수를 갚기도 하여 사회가 여러 번 일어났다. 권력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권력을 잡으면 시기의 대상이 된다.

14 간책 : 역사책. 옛날에 종이를 발명하기 전에는 대나무를 쪼개 안쪽의 흰 부분에 역사를 기록했다. 이런 대나무 조각을 죽간(竹簡)이라 하며, 간책은 죽간을 엮어 맨 책이다.

15 최노왕사 : 최씨와 노씨는 중국 육조(六朝)시대에서 당(唐)나라 시대까지 명문 씨족으로, 이들과 혼인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알았다. 왕씨와 사씨는 중국 진(晉)나라 때의 명망 있는 집안으로, 여러 대 동안 높은 벼슬을 했다.

일단 시기의 대상이 되면 반드시 죽이고야 마니, 참으로 벼슬하기도 힘든 나라다. 도리가 쇠하면 시비의 다툼이 커지고, 다툼이 커지면 원한이 깊어지고, 원한이 깊어지면 서로 죽이게 된다.

아아, 사대부가 조정에서 때를 얻지 못하면 갈 곳은 산림(山林)¹⁶ 뿐이다. 이것은 고금을 통해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못하다. 무신년에 사대부들이 시골에서 역적을 도모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인 후에도 조정에서는 늘 산림 외진 곳에서 또 큰 도적이 나오지 않을까 의심했다. 그리고는 도적의 의심이 없으면 이번에는 그 마음을 의심하여 괴벽스럽다고 한다.

조정에 나가서 벼슬하고자 하면 칼 · 톱 · 술 같은 것으로 서로 죽이려고 하고, 물러나 초야에 묻히려 하면 만첩청산(萬疊靑山)과 만파창해(萬波滄海)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쉽게 갈 수 없으니, 사대부는 장차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산림으로만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언행 하나하나에 의심 받는 것은 품관(品官)이나 중인(中人)이나 하인(下人)이 아니라 늘 사대부다. 높은 자리에 등용되거나 초야에 묻히거나 몸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되면, 모두 글 읽고 수행해서 사대부가 된 것을 후회하고 도리어 농 · 공 · 상을 부러워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난 날 사대부들이 자기가 농 · 공 · 상보다 높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만 못하다는 말인가. 일이 극에 달하면 다시 돌아온다는 이치가 이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대부라는 신분을 얻게 되면 갈 곳이 없게 된다. 장차 사대부의 신분을 버리고 농 · 공 · 상이 되면 몸을 보전하고 명분을 세울 수 있을까. 아니다. 오늘날의 편파적인 의논의 해독은 비단 사대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품관과 중인에서부터 가마를 메는 천민에 이르기까지, 제각기 누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 남의 판단을 받는다. 농 · 공 · 상이라고 해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는가. 사람은 목석이나 금수가 아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는 것이니, 머리를 들고 눈을 뜨기만 하면 남과 접하게 된다. 대체로 남과 접하면 친소(親疎)가 생기고, 친소가 생기면 친분과 증오가 생긴다.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합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끼리는 멀리하고 배

16 산림 : 학식과 덕행이 높으나 벼슬하지 않고 시골에 숨어 지내는 선비.

반하게 된다. 한번 친소관계가 생기면, 저쪽에서는 이쪽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쪽에서도 저쪽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비록 중간에서 사리를 판단해서 행동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 이미 이 한계는 사람들을 큰 우리에 가두어 놓고 말았다. 산도 아니면서 쇠나 돌보다도 굳고, 물도 아니면서 방향도 없이 정해진 위치가 확고하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도 이 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편파적인 의논의 실상인 것이다.

이 편파적인 의논은 처음에는 사대부들 사이에서 생겼지만, 그 끝에 가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용납하지 못하게 폐단을 가져오고 말았다. 옛말에 “불이 나무에서 생겼으나 불이 한번 일어나면 반드시 나무를 이긴다”고 했다. 그래서 동쪽에서도 살 수 없고 서쪽에서도 살 수 없고, 남쪽에서도 살 수 없고 북쪽에서도 살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장차 살 곳이 없고, 살 곳이 없으면 동서남북도 없고, 동서남북이 없으면 혼돈한 태극도(太極圖)¹⁷일 뿐이다. 이렇게 되면 사대부도 없고 농·공·상도 없으며 살 만한 곳도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을 가리켜 땅이 아닌 땅이라 하는 것이다.

이에 사대부가 살 만한 곳을 기록하는 바이다.

17 태극도 : 중국 북송(北宋)의 학자 주돈이(周敦頤)가 인성론을 포함하는 우주생성론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설명을 곁들여 《태극도설(太極圖說)》을 썼는데, 그 그림을 태극도라 한다. 이황(李滉)이 성리학의 개요를 도해하여 쓴 책 《성학십도(聖學十圖)》의 제1도 역시 주돈이의 태극도이다.

서문
발문

택리지 후발(擇里志 後跋)

이중환(李重煥), 휘조(輝祖)

옛날에 공자(孔子)는 도(道)가 행해지지 않아, 노(魯)나라 역사책¹을 빌어, 왕도(王道)를 행하려고 착한 것을 칭찬하고 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는 실상을 가지고 뜻을 나타낸 것이다.

장자(莊子)는 세상에 나서려 하지 않고 여러 편의 글을 지어 크고 넓고 위대한 말을 했는데 만물을 가지런히 보고²,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범인(凡人)과 성인(聖人)을 한 가지로 여겼다. 이는 허상을 가지고 뜻을 나타낸 것이다. 허상과 실상은 비록 다르지만 뜻을 나타낸 것만은 서로 같다.

옛날에 내가 황산(黃山) 강가에 있을 때, 여름날에 할 일이 없어 팔괘정(八卦亭)에 올라 더위를 식히면서 우연히 논저(論著)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천, 인물, 풍속, 정교(政敎)의 연혁(沿革)과 치란득실(治亂得失)의 잘하고 못한 것을 차례대로 엮어 쓴 것이다.

옛 사람이 “<예악(禮樂)>이 어찌 옥帛(玉帛)³과 종고(鐘鼓)⁴만을 가지고 말한 것이라⁵했듯, 이 책은 살 만한 곳을 가리려 해도 살 만한 곳이 없는 것을 한탄한 글이다. 그러나 이 글을 넓게 보는 자는 문자(文字) 밖에서 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아아! 실상의 일이라면 관석(關石)⁶을 고르게 하는 것이요, 허상의 일이라면 자디

1 노나라 역사책 : 공자가 쓴 《춘추(春秋)》를 말한다. 《역경(易經)》·《서경(書經)》·《시경(詩經)》·《예기(禮記)》와 함께 유교 5경(五經)이라 불린다.

2 만물을 가지런히 보고 : 만물에 차별을 두지 않는 장자의 만물제동(萬物齊同) 사상을 말한다.

3 옥帛 : 옛날 중국 제후(諸侯)가 천자나 이웃 제후를 방문할 때 가지고 가던 예물.

4 종고 : 종과 북.

5 예악이 어찌... : 예악의 진정한 뜻은 알지 못하고 의식적(儀式的)인 면에만 치중하는 것을 한탄하는 말.

6 관석 : 금속으로 만든 기구. 《서경(書經)》의 <하서(夏書)편 ‘오자지가(五子之歌)’에 나온다. 관석을 고르게 한다는 말은 세금을 공평히 한다는 뜻.

잔 겨자씨가 커다란 수미산(須彌山)⁷을 감출 수 있는 것⁸과 같은 것이니, 뒷날 반드시 분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신미(辛未)년 초여름 상완(上浣)⁹에 청화산인(靑華山人) 쓰다.

- 7 수미산 :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 한가운데에 높이 솟아 있다는 산으로서,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음차한 말이다. 꼭대기는 제석천(帝釋天)이 있는 곳이고 중턱은 사천왕(四天王)이 있는 곳이다. 수미산 둘레에는 7개의 담수 바다와 금산이 둘러싸고 있고, 그 바깥에는 인간이 사는 섬부주(瞻部洲)를 비롯하여 4대주가 염수 바다에 떠 있다고 한다.
- 8 겨자씨와 수미산 : 불경의 하나인 《유마경(維摩經)》에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넣는다는 말이 나온다.
- 9 상완 : 초순(初旬) · 상순(上旬) · 상한(上澣)과 같은 뜻이다.

택리지발(擇里志跋)

목성관(睦聖觀)¹⁰, 돈시(敦詩)

《택리지》는 곧 청화산인(靑華山人)이 지은 것이다. 이제 그 글을 읽어 보니, 비록 나라 안에 있는 살 만한 곳을 말로 읊긴 것이지만 그 뜻이야 어찌 이를 위한 것이랴. 내용을 논하매 역대의 연혁과 인재의 성쇠, 더럽고 훌륭한 풍속에 더욱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 그 사실은 간략한데도 수집한 것은 넓고, 말은 적으나 포괄한 것은 다한, 엄연한 하나의 동국사(東國史)이다.

그 산천과 도리(道里)가 평탄하고 험한 것과 관방(關防)·성지(城池)의 흥망성쇠를 마치 눈으로 보고 발로 다니는 듯 큰 것도 작은 것도 빠뜨리지 않았으니, 이는 곧 축하보(祝華父)¹¹의 《방여지(方輿地)》¹²이다.

또 공사(公私)의 재물이 생산되는 근원과 산과 바다에서 나는 물건의 귀하고 천함을 털을 가리고 실을 쪼개듯 철저하게 조리를 갖추었으니, 이는 곧 반맹견(班孟堅)¹³의 〈식화지(食貨誌)〉¹⁴이다.

상하 고금 수천 년의 일을 조그만 것도 다 갖추고 또 빠뜨림이 없다. 또 감여가(堪輿家)의 아득하고 깊은 말과 선불(仙佛)의 신령하고 기이한 발자취까지 모두 다 수록했으니, 이것은 총명하고 넓고 크게 문장을 하는 자가 아니면 어찌 여기에 이르렀겠는가.

아아! 우리나라의 대보단(大報壇)에 대한 일은 진실로 만고의 큰 의리이다. 그러나

10 목성관: 자는 돈시(敦詩), 호는 불과현(弗過軒). 이중환의 처조카.

11 축하보(?~1256): 이름은 목(穆), 화보(華父)(和甫)는 그의 자. 중국 송(宋)나라 사람으로 주자(朱子)의 제자이며, 《사문류취(事文類聚)》, 《방여승람(方輿勝覽)》을 편찬했다.

12 방여지: 《방여승람(方輿勝覽)》. 중국 각 지방의 역사와 풍습을 기록하고 또한 선인들의 시(詩)를 많이 수록했다.

13 반맹견: 이름은 고(固), 맹견은 그의 자. 중국 동한(東漢) 사람. 9세에 시를 지을 수 있었다 한다. 아버지 반표(班彪)가 쓰기 시작한 《한서(漢書)》를 완성했다.

14 식화지: 《한서(漢書)》의 한 편으로, 당시 중국의 경제제도와 연혁을 기록했다.

한 가지 한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명나라 여러 사람들을 배향(配享)하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이 글의 저자는 석성(石星)·형개(邢玠)·양호(楊鎬)·이여송(李如松) 네 사람에게 대해서 일일이 말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러니 세상에서 진실로 이 말을 들어 주는 자가 있으면, 이는 〈하천(下泉)〉¹⁵ 끝 장(章)에서 순백(鄆伯)¹⁶의 공로를 추모하는 것과 그 의리가 같을 것이다. 나는 여기에 더욱 느끼는 바가 있다.

임신년 초여름에 불과헌산인(弗過軒散人) 쓰다.

15 하천 : 《시경(詩經)》〈조풍(曹風)〉의 한 편명.

16 순백 : 중국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아들. 순주(鄆州)의 백(伯)이 되어 제후들을 잘 통솔했다.

팔역가거처발(八域可居處跋)

이봉환(李鳳煥)¹⁷, 의서(儀瑞)

공자(孔子)가 처음으로 마을을 가려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했고 또 구이(九夷)에서라도 살고자 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온 천하에서 오직 여기만 깨끗한 곳이라 하겠는가. 그래도 공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필시 동해에 뗏목을 띄웠을 터이니, 그렇다면 살 만한 곳이 어디가 여기만 하겠는가.

청화자(靑華子)는 이에 온 나라 안에 살 만한 곳이 없다고 했으니, 어찌해서 공자가 가린 것과 다른 것인가. 그러나 공자 때에도 이미 사람들이 그 비루함을 의심했는데, 지금은 그 비루함이 더욱 심하다 했으니, 청화자의 이런 말도 또한 이때문에 한 말이 아닌가.

그러나 공자는 살고자 했어도 끝내 살지 않았고, 청화자는 이 땅에서 낯기에 비록 살지 않으려 해도 스스로 살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성인(聖人)이 군자가 살 곳이라고 말해서 산다면, 앞에서 말한 살 수 없다는 곳도 장차 모두 변해서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동쪽도 또한 살 수 있고, 서쪽도 또한 살 수 있고, 남쪽과 북쪽도 또한 살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없다고만 말할 수 있으랴.

계유 늦은 봄에 용문산인(龍門散人) 쓰다.

17 이봉환 : 자는 의서(儀瑞), 호는 용문(龍門).

택리지발(擇里誌跋)

목회경(睦會敬)¹⁸, 공집(公集)

사대부라는 명칭은 오래된 것이 아니다. 대개 진(晉)·송(宋) 이후에 사(謝)·왕(王)·최(崔)·노(盧)로부터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른바 사대부란 것은 경서(經書)를 읽어 뜻을 분별했고, 생업은 비록 달라도 그 사는 곳은 농·공·상과 섞여 살았다.

그런데 후세에 소위 사대부라는 것은 곧 옛날의 세경(世卿)과 세대부(世大夫)로서 대대로 문벌이 있는 집안이다. 그런 까닭에 그들이 사는 곳은 농·공·상과는 완전히 떨어져, 서로 섞여 살지 않는다. 나이가 조정에 벼슬하면 사람의 물결이 모여 들고 아침저녁으로 성문을 여닫는 대궐 가까이 서울 밖에 사는 것이 마땅하고, 물러나 초야에 살면 이름난 도회나 큰 고을, 아름다운 산과 경치 좋은 물이 서로 모인 곳에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사는 마을을 가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청화자(靑華子)는 명문의 자제로서 젊은 나이에 과거에 올라 문학과 재주가 한 세상을 놀렸다. 이렇듯 진실로 임금의 계획을 빚내고 나라에 도움이 될 만했고, 장차 벼슬길도 평탄할 것 같았다. 그러나 불행히 문장으로 인해 운명의 미움을 받아 신(神)의 시기와 귀신의 노여움을 사 출셋길이 갑자기 막혀버렸다. 이리하여 떠도는 몸이 되어 심지어 살 집도 없게 되었고, 마침내는 노농(老農)과 노포(老圃)가 되기를 원해도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리하여 《택리지》를 쓰게 된 것인데, 여기에서 심지어 서쪽도 마땅치 않고 북쪽도 마땅치 않으며, 또한 동쪽과 남쪽도 마땅치 않다고 한 부분에 이르러서는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다는 탄식을 한 것이다. 그러니 험한 인심과 각박한 세상 길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으니, 그 뜻이 더욱 슬프다 하겠다.

그러나 거처한다는 것은 내 몸을 편안케 하는 것이며 이는 곧 외적(外的)인 것이지

18 목회경 : 자는 공집(公集), 호는 동계기인(東溪畸人) 목성관과 8촌 형제 간이다.

만, 마음에 즐거운 것은 여기에 있지 않으니 곧 내적(內的)인 것이다. 여기에서 진실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분별을 능히 살펴 마치 빈 배와 같은 몸으로 경우에 따라 편안하게 여긴다면, 아무리 이 세상의 창으로 쌀을 씻고 칼로 불을 지피는¹⁹ 일이 있어도 모두 아름다운 경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장차 촌 늙은이나 고기잡이 늙은이와 구석자리를 다투어 앓을 것이니, 또 어찌 살 곳을 반드시 가릴 것인가.

임신 중동(仲冬)에 동계기인(東溪畸人) 쓰다.

19 중국 후한(後漢)에서 동진(東晉)시대에 걸쳐 사대부의 일화를 기록한 책 《세설신어(世說新語)》에 나오는 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말한다.

발택리지(跋擇里志)

정약용(丁若鏞)²⁰, 미용(美庸)

위의 《택리지》 한 권은 작고한 정자(正字) 이중환(李重煥)이 지은 것으로, 나라 안 사대부들의 장원(莊園)의 좋고 나쁜 것을 논평한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말하자면, 마땅히 먼저 먹는 물과 떨감을 보고, 그 다음으로는 오곡을 보고, 그 다음은 풍속을 보고, 그 다음은 산수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할 것이다. 물길과 나뭇길이 멀면 인력이 허비되고, 오곡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흉년이 자주 오고, 풍속이 문(文)을 숭상하면 말이 많고, 무(武)를 숭상하면 싸움이 많고, 이(利)를 숭상하면 백성들이 간사스럽다. 경박한 무리들이 애써 농사만 지으면 고루(固陋)하고도 야박해지고, 산천이 탁하고 나쁘면 빼어난 인물이 적고 마음도 맑지 못한 것이니, 이것이 개략이다.

우리나라 장원 중에 아름다움으로는 오직 영남이 제일이다. 그런 까닭에 사대부로서 수백 년 동안 때를 만나지 못했는데도 존귀하고 부유한 것이 쇠하지 않았다. 그들의 풍속은 집마다 각자가 한 사람의 조상을 받들고 한 장원을 차지하고서 동족끼리 같이 살면서 흠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고(鞏固)한 것을 유지하여 근본이 뽑히지 않았던 것이다.

이(李)씨는 퇴계(退溪)²¹를 받들어 도산(陶山)을 차지했고, 유(柳)씨는 서애(西厓)²²를 받들어 하회(河洄)를 점령했고, 김(金)씨는 학봉(鶴峰)²³을 받들어 내앞(川前(천전))을 차지했다. 권(權)씨는 충재(沖齋)²⁴를 받들어 닭실(鷄谷(계곡))을 차지했고,

20 정약용(1762~1836) : 실학자. 자는 미용(美庸), 호는 사암(埃菴)·열수(洌水). 본관은 나주(羅州). 유 형원과 이익의 실학을 계승·집대성했다.

21 퇴계 : 이황(李滉)의 호.

22 서애 : 유성룡(柳成龍)의 호.

23 학봉 : 김성일(金誠一)의 호.

24 충재 : 권발(權撥)의 호.

김(金)씨는 개암(開岩)²⁵을 받들어 범들(虎坪(호평))을 차지했고, 김(金)씨는 학사(鶴沙)²⁶를 받들어 오미(五帽)를 점유했고, 김(金)씨는 백암(柏巖)²⁷을 받들어 학정(鶴亭)을 차지했다. 이(李)씨는 존재(存齋)²⁸를 받들어 갈산(葛山)을 점유했고, 이(李)씨는 대산(大山)²⁹을 받들어 소호리(蘇湖里)를 점유했고, 이(李)씨는 석전(石田)³⁰을 받들어 돌밭(石田(석전))을 차지했다. 이(李)씨는 회재(晦齋)³¹를 모시고 옥산(玉山)을 점유했고, 그 적파(嫡派)는 양자곡(楊子谷)을 차지했다. 장(張)씨는 여현(旅軒)³²을 받들어 옥산(玉山)을 차지했고, 정(鄭)씨는 우복(愚伏)³³을 받들어 우산(愚山)을 점유했고, 최(崔)씨는 인재(訥齋)³⁴를 모시고 해평(海平)을 점유했다. 이런 유(類)는 이루 다 셀 수가 없다.

그 다음으로는 호서(湖西)가 뛰어나다. 그래서 회천(懷川)의 송(宋)씨, 이잠(尼岑)의 윤(尹)씨, 연산(連山)의 김(金)씨, 서산(瑞山)의 김(金)씨, 탄방(炭坊)의 권(權)씨, 부여(扶餘)의 정(鄭)씨, 먼천(沔川)의 이(李)씨, 온양(溫陽)의 이(李)씨 같은 유(類)는 모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대대로 행세해 왔다.

- 25 개암 : 김우굉(金宇宏)(1524~1590). 문신. 자는 경부(敬夫), 호는 개암(開岩).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부제학에 이르렀다.
- 26 학사 : 김응조(金應祖)(1587~1667). 문신. 자는 효징(孝徵), 호는 학사(鶴沙). 본관은 풍산.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간·한성부우윤에 이르렀다.
- 27 백암 : 김륵(1540~1616). 문신. 자는 희옥(希玉), 호는 백암(柏巖). 본관은 예안(禮安).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부제학·대사헌에 이르렀다. 시호는 민절(敏節).
- 28 존재 : 이휘일(李徽逸)(1619~1672). 학자. 자는 익문(翼文), 호는 존재(存齋). 본관은 재령(載寧). 성리학을 연구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나중에 학행으로 천거되었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 29 대산 : 이상정(李象靖)(1711~1781). 학자. 자는 경문(景文), 호는 대산(大山). 본관은 한산(韓山). 이황, 이현일(李玄逸), 이재(李穡)로 이어지는 영남학파의 학통을 계승하고 문인들을 양성했다. 시호는 문경(文敬).
- 30 석전 : 이원정(李元禎)(1622~1680). 자는 사징(士徵), 호는 귀암(歸巖). 본관은 광주(廣州). 사마시를 거쳐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익(文翼).
- 31 회재 : 이언적(李彦迪)(1491~1553). 성리학자. 자는 복고(復古), 호는 회재(晦齋). 본관은 여주(驪州).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원(文元).
- 32 여현 : 장현광(張顯光)의 호.
- 33 우복 : 정경세(鄭經世)의 호.
- 34 인재 : 최현(崔暉)(1563~1640). 문신. 자는 계승(季昇), 호는 인재(訥齋). 본관은 전주(全州).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고,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부제학에 이르렀다. 시호는 정간(定簡).

호남 풍속은 협기(俠氣)는 있지만 질박한 점이 적기 때문에 오직 고(高)씨(제봉(霽峰)³⁵의 자손), 기(奇)씨(고봉(高峰)³⁶의 자손), 윤(尹)씨(고산(孤山)³⁷의 자손) 등 몇 집 외에는 크게 나타난 자가 적다.

한강(洹水(열수))을 따라서 위로는 오직 여주(驪州)의 백애(白崖)와 충주의 목계(木溪)를 좋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강 가에 있는 춘천의 천포(泉浦)와 양근(楊根)의 미원(迷源)이 더 좋다.

내 집은 소내(笏川(소천))³⁸의 농막인데, 물은 두어 걸음 되는 곳에서 길어오고, 땀 나무는 10여 리 밖에서 가져온다. 오곡은 심는 것이 없고, 풍속이 상리(商利)를 숭상해서 대대 낙토(樂土)는 아니고, 오직 취할 점은 강산의 경치뿐이다. 그러나 사대부가 땅을 점유하여 대대로 전하는 것은 마치 상고 때 제후(諸侯)가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옮겨 다니고 남에게 붙어 살다가는 능히 크게 떨쳐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를 잃은 자와 같게 된다. 그래서 나는 주저하고 머뭇거리면서 소내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열수(洹水) 정약용(丁若鏞) 미용(美庸) 쓰다.

35 제봉 : 고경명(高敬命)의 호.

36 고봉 : 기대승(奇大升)의 호.

37 고산 : 윤선도(尹善道)의 호.

38 소내 : 지금의 남양주시(南楊州市) 와부읍(瓦阜邑).

택리지서(擇里誌序)

이익(李瀾), 성호(星湖)³⁹

자기가 사는 마을을 가린다는 말은 공자, 맹자 때부터 나왔다. 사는 마을을 가리지 않으면 크게는 교화(敎化)가 행해지지 않고 작게는 자기 몸도 편안치 못하다. 그런 까닭에 군자는 반드시 사는 마을을 가리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제(齊)나라와 노(魯)나라 앞 바다에 떠 볼까” 했으니, 이것이 어찌 정한 곳이 없이 한 말이겠는가. 이른바 구이(九夷)에라도 살고 싶다고 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성인(聖人)이 처음부터 부모의 나라를 버리려 하지는 않았지만, 부득이하게 되어 구이인들 무엇이 더러우라 하는 탄식까지 했으니, 그의 뜻을 알 만하다.

《이아(爾雅)》⁴⁰를 상고해보니 구이(九夷)·팔적(八狄)·칠용(七戎)·육만(六蠻)이란 것이 있다. 그러나 이는 명칭만 세어 본 것이지 실제 있는 것은 아니다. 백이(白夷)·황이(黃夷)·왜노(倭奴)를 성인이 어찌 좋아 했겠는가.

대체로 직방씨(職方氏)⁴¹나 명당위(明堂位)⁴²에서는 모두 이(夷)를 첫째로 했고, 구(九)니 팔(八)이니 하는 숫자는 지금의 벼슬에 등급이 붙은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동방의 태평한 지역보다 더 나은 곳은 없었을 것이다.

기자(箕子)가 이 땅에 봉해진 다음 여덟 가지 조목을 비로소 시행했다. 오륜(五倫)

39 이익(1681~1763) : 실학자. 호는 성호(星湖). 벼슬을 하지 않고 안산(安山) 침성촌(瞻星村)에서 평생 학문에 전념했다. 유형원(柳馨遠)(1622~1673)의 학문을 계승하여 조선 후기 실학을 대성했으며, 그의 학문은 안정복(安鼎福)(1712~1791) · 이가환(李家煥)(1742~1801) · 이중환(李重煥) 등에게 계승되었다.

40 이아 : 고대 경전에 나오는 사람과 말을 풀이한 중국 고대의 사서(辭書). 유교의 13가지 기본경전 가운데 하나.

41 직방씨 : 중국 주(周)나라의 벼슬 이름. 천하의 지도와 사방에서 들어오는 공물을 관장했다.

42 명당위 : 제후가 천자에게 조회하는 자리.《예기(禮記)》의 한 편명이기도 하다.

이외에 전해진 것이 3장(章)⁴³이었는데,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이것을 배워 법을 간략하게 하여 천하를 평정한 바 있다. 그러나 성인이 이 땅에 올 뜻은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실행되지 못하여 우리가 은(殷)·주(周) 때와 같은 치화(治化)를 입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문질(文質)⁴⁴을 숭상하던 교화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없어지지는 않고 남아, 정전(井田)을 그었던 자취와 흰 옷 입는 풍속을 통해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다.

내가 볼 때 남자가 큰 갓을 쓰고 여자가 머리에 쪽을 찌는 것은 그 근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의관에 관한 풍속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다. 고려 때에 충렬왕(忠烈王)이 한 차례 바꾸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그 뒤 신우(辛禡)⁴⁵ 때에 두 번째로 바꾸려 했으나 되지 않았다. 비록 몽고의 위압이 있었으나 결국 옛 풍속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모든 나라가 다 의관을 찢어버렸으나 한 조각 우리 땅에서만은 아직도 선왕의 제도를 지키고 있으니, 이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뗏목을 타야겠다고 탄식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땅에는 험한 곳과 평탄한 곳이 있고, 풍속에는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 있다. 단군과 기자 시대에는 도읍을 서쪽에 정했으므로 동남쪽은 교화가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호강(虎康)⁴⁶이 바다를 건너온 뒤로는 정통(正統)이 남방에 있게 되었다. 그런 다음 두어 세대(世代) 동안 정통이 끊어졌다가,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는 그 풍속에 질서가 잡혀 예법과 인재가 대대로 일어났다. 명예와 지조를 귀하게 여기고 재물과 이익은 천하게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經典)을 가지고 초야에 숨어서 자중(自重)하는 사람도 가끔 있었다. 이런 사람은 고향에서 존경을 받아

43 3장 : 중국 한(漢)나라 고조(高祖) 유방(劉邦)이 관중(關中)에 들어가 법 세 가지를 약속하고 인심을 얻었다. 그 세 가지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을 당하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벌을 받으며, 물건을 훔친 자 역시 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44 문질 : 문체와 실질.

45 신우 : 고려 제32대 임금인 우왕(禡王)(1365~1389, 1374~1388 재위)을 가리킨다. 우왕이 폐위된 뒤 이성계가 그를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辛旽)의 아들이라 주장했고, 이때문에 여기서 우왕을 왕(王)씨가 아니라 신(辛)씨가 적었다.

46 호강 : 기자 조선의 마지막 임금 기준(箕準)을 말한다. 시호가 무강(武康)이었는데, 무(武)자는 고려 임금의 이름이어서 무를 호(虎)로 바꿔 썼다.

별열(閼閼)⁴⁷과 같은 대우를 받았고, 그 고장이 나라 안에서 제일가는 낙토(樂土)가 되었다. 그러기에 선비로서 때를 만나지 못한 자는 반드시 이것을 본보기로 하여 따랐다.

관서(關西)⁴⁸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처음 살기 시작한 곳이지만 성조(聖朝)에서 은완(殷頑)⁴⁹처럼 여겨 물리쳤기 때문에 인제가 끊겼고, 관동(關東)과 관북(關北)은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다. 양남(兩南)도 또한 거칠어서 기술은 훌륭하나 유교 문화는 전혀 없었다. 경기 지방은 오직 일종의 사환(仕宦)의 가족이 세상 사람의 부러움을 사게 됐는데, 이들은 그 사이에 끼어서 몸을 빼내지 못했다.

대체로 의식(衣食)이 부족한 곳은 살지 못할 곳이고, 사기(士氣)가 꺾인 곳도 살 수가 없다. 무력만이 드센 곳도 살지 못할 곳이고, 사치하는 풍습이 많아도 살 수가 없으며, 시기하고 꺼리고 미워하는 풍습이 많아도 살 수가 없다. 이런 몇 가지를 버린다면, 무엇을 취하고 버려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일가 휘조(輝祖)⁵⁰가 글 한 편을 편찬했는데, 수천 마디 말이 모두 사대부가 살 만한 곳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중간에 산맥과 수세(永勢), 풍토와 민속, 재물의 생산과 수륙 간의 운수 등등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글을 나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내 이제 늙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마치 담비가 죽을 때에 제가 살던 언덕을 향해 머리를 둔다는 말과 같이, 또는 쥐가 제 구멍을 떠나지 못한다는 말과 같이 이 강변 비습한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더욱 슬퍼지는 것을 어쩔 수 없다.

47 별열 : 문벌(門閥), 나라에 공이 있는 집안.

48 관서 · 관동 · 관북 · 양남 : 각기 평안도, 강원도, 함경도, 충청 · 전라도를 가리킨다.

49 은완 : 은(殷)나라가 망한 뒤 일부 백성들이 주(周)나라에 완강히 저항한 것처럼, 고려가 망한 뒤 송도(松都) 사람들이 조선에 복종하지 않았는데 이들을 은완이라 했다.

50 휘조 : 이 책의 저자 이중환(李重煥)의 자.

택리지서(擇里誌序)

정언유(鄭彦儒)⁵¹, 임종(林宗)

사군자(士君子)⁵²가 자연으로 돌아갈 뜻이 있다면, 마음에 드는 땅을 골라 그곳으로 갈 것이지 반드시 말로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쓴 까닭은 무엇인가. 《주역(周易)》에 말하기를, “속세를 피해 숨어 사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도 드물게 된 지 이미 오래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쓴 사람도 같은 생각이었을 까.

가장 좋은 것은 속세를 떠나는 것이요, 그 다음은 살기 나쁜 땅을 피하는 것이다. 옛날 소부(巢父)와 허유(許由)⁵³는 기산(箕山)⁵⁴과 영수(潁水)⁵⁵에 숨어 살았고, 동원공(東園公)과 기리계(綺里季)⁵⁶는 상산(商山)⁵⁷에 숨어 살았으며, 방덕공(龐德公)⁵⁸은 녹문산(鹿門山)⁵⁹에, 그리고 사마덕조(司馬德操)⁶⁰는 양양(襄陽)에 숨어 살았다. 이

51 정언유(1687~1764) : 자는 임종(林宗), 호는 우현(迂軒). 본관은 내성(萊城)으로 지금의 동래(東萊)이다. 벼슬이 참판에 이르렀다.

52 사군자 : 학문이 있고 덕행이 높은 사람. 또는 높은 벼슬을 한 사람.

53 소부 · 허유 : 두 사람 모두 중국 요(堯)임금 때의 은자(隱者)이다. 요임금이 허유를 찾아가서 천하를 맡아 달라고 청했더니, 허유는 더러운 말을 들었다 하여 영수(潁水)에 가서 귀를 씻었다. 그때 마침 소부(巢父)가 소를 끌고 와서 물을 먹이다가 허유가 귀 씻는 것을 보고 까닭을 물었다. 허유한테서 자초지종을 들은 소부는 그 더러운 말을 듣고 귀를 씻은 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다 하여 소를 몰고 상류로 갔다 한다.

54 기산 : 중국 하남성(河南省)에 있는 산 이름.

55 영수 : 중국 안휘성(安徽省)에서 회수(淮水)로 흘러가는 강으로, 기산을 지나간다.

56 동원공 · 기리계 : 상산사호(商山四皓) 중의 두 사람. 상산사호의 나머지 두 사람은 각리선생(角里先生)과 하황공(夏黃公)으로, 이들은 중국 진(秦)나라 때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상산에 숨어 살았다.

57 상산 : 상령(商嶺)이라고도 하며, 중국 섬서성(陝西省) 상현(商縣) 동남쪽에 있다.

58 방덕공 : 중국 동한(東漢) 때의 양양(襄陽) 사람. 현산(峴山)에서 농사지으면서 살았는데, 사마덕조(司馬德操) · 제갈공명(諸葛孔明)과 벗하다가 뒤에 녹문산(鹿門山)에 숨어 약초를 캐며 살았다.

59 녹문산 : 중국 호북성(湖北省) · 양양현(襄陽縣)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원래 이름은 소령산(蘇嶺山)이다.

60 사마덕조 : 중국 동한 말기에 유현덕(劉玄德)에게 제갈량(諸葛亮)과 방덕(龐德)을 천거한 사람.

들은 비록 시대와 장소의 차이는 있으나, 속세를 떠나 숨어 살게 된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다.

또 이보다 못한 사람이라 해도, 시끄러운 세상을 떠나 산수 좋은 곳을 떠돌면서 종적을 감추고 재주를 숨기며 참 기운을 길러 편안하게 늙는다면, 이 또한 황곡(黃鵠)⁶¹이 날고 지선(地仙)⁶²이 걷는다고 할 것이다.

옛날에 두자미(杜子美)⁶³는 도원(桃源)⁶⁴을 그리워하며 어려운 신세를 한탄했다. 그러나 그가 어찌 황당한 말에 마음이 끌려 도원이란 곳이 있다고 믿었겠는가. 아마 어지러운 세상을 떠돌아다니다 보니, 이상향이 그리워서 말해본 것일 게다.

나는 《초사(楚辭)⁶⁵의 <복거(卜居)> · <원유(遠遊)> 등을 몇 편 읽고 그 당시를 상상하면서 굴원(屈原)⁶⁶의 마음을 슬퍼했다. 그가 정말 왕실을 영원히 하직하고 멀리 떠나고자 했다면 이 넓고 넓은 구주(九州)⁶⁷에 어찌 살 만한 곳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살던 곳에 미련을 두고 차마 떠나지 못했기에, 소상강(瀟湘江)⁶⁸에 빠져 죽으면

61 황곡 : 신선이 타고 다녔다는 새.

62 지선 : 땅 위에 살고 있는 신선.

63 두자미 : 중국 당나라 때 시인 두보(杜甫)(712~770). 자미는 그의 자. 호는 소릉(少陵)이며, 시를 잘 하여 두시(杜詩)라는 이름까지 생겼다.

64 도원 : 도화원(桃花源)의 준말. 중국 진(晉)나라 때 도잠(陶潛)이 지은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보면, 어떤 어부가 물에 떠내려오는 복사꽃잎을 보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우연히 도화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진(秦)나라 때에 난을 피해 온 사람의 후손들이 거기서 마을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어부는 후에 다시 그곳을 찾고자 했으나 찾지 못했다. 이로부터 이 도원이라는 말은 평화로운 이상향의 대명사로 쓰이게 되었다.

65 초사 : 중국 한(漢)나라 때 유향(劉向)이 굴원(屈原) · 종옥(宗玉) 등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 16편으로 편찬한 책.

66 굴원 : 중국 전국시대 초(楚)나라 사람. 이름은 평(平). 삼려대부(三閭大夫)의 벼슬을 지냈다. 회왕(懷王)이 그의 재능을 알고 중용하려 했으나 주위의 참소로 왕과 멀어지게 되었다. 이에 굴원은 억울한 심정으로 <이소경(離騷經)>을 지어 왕이 깨닫기를 바랐다. 그 후 경양왕(頃襄王) 때 또 참소수(江南)으로 귀양 가게 됐다. 그는 <어부사(漁父辭)>를 지어 자신의 뜻을 나타냈으나 얼마 후 먹라수(汨羅水)에 몸을 던졌다. 사람들은 물고기들이 그의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쌀떡을 물에 던지며 그의 시신을 찾았는데, 이것이 중국 단오절 풍습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67 구주 : 옛날 중국의 우(禹)임금이 전국을 아홉 주(州)로 구획한 일을 계기로 온 중국을 가리키는 말이 됐다.

68 소상강 : 중국의 소수(瀟水)와 상수(湘水). 상수는 동정호(洞庭湖)로 흘러들어 가며, 소수는 그 지류이다.

서도 후회하지 않았던 것이다.

세신(世臣)⁶⁹이 나라를 떠나는 것도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며 운명을 기다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朱子)⁷⁰도 이런 것을 충성이라고 인정했다.

이 글을 쓴 청화자(靑華子)⁷¹는 이름난 집안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재주가 뛰어나고 문장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화려한 벼슬과 높은 품계(品階)가 아침저녁으로 승진되더니, 불행히 내침을 받아 역경에 빠진 지가 수십 년이나 되었다. 지금은 성인(聖人)의 세상이요 저 혼미한 초(楚)나라 때가 아니지만, 내침을 당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그가 살 만한 터전을 잡아 속세를 떠나고자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나라 산하(山河)는 360주(州)가 넘는다. 대관령 남쪽이나 호남·호서 사이에 숨어 살 만한 길지(吉地)가 어찌 없으리오. 몇 칸짜리 집을 짓고 7척의 한 몸을 편안케 하려면 어디인들 마땅한 곳이 없으리오. 그러나 때를 놓쳐 허송세월 하다가 끝내 떠나지 못하고, 한갓 이 종이에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게 되었다. 이것이 도원(桃源)을 그리워했던 두자미(杜子美)의 생각과 같은 것이라면, 지금은 그때처럼 어지러운 때가 아니다.

그러나 굴원(屈原)이 옛 도읍을 못 잊어하던 심정과 같은 것이라면, 그대의 뜻은 혹 여기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세월은 오래 되었어도 반드시 서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산(箕山)·영수(潁水)·상산(商山)에 서린 높은 뜻과 녹문(鹿門)·양양(襄陽)의 그윽한 발자취며, 황곡(黃鵠)의 비상과 지선(地仙)의 걸음도 모두 말할 것이 못 된다.

옛 사람 중 저자거리에 숨어 술에 빠져 흐리멍덩 세월을 보내며 마치 자신이 세상사에 초탈한 것 같이 행세하던 자가 있었다. 그러나 군신지간에는 나가거나 물러나거나 늘 걱정이 되듯 어디 있거나 마음에 걸리지 않는 곳이 없었으니, 이를 어찌 새나 짐승과 같은 무리와 비교할 수 있으랴. 속세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은 살기 좋

69 세신 : 여러 대를 계속하여 벼슬한 집 사람.

70 주자 : 중국 남송(南宋)의 학자 주희(朱熹)(1130~1200). 자는 원희(元晦), 호는 회암(晦庵).

71 청화자 : 이 책의 저자 이중환(李重煥)의 호.

은 터를 잡으라 할 것이니, 이 글은 보는 사람에 따라 뜻이 있을 것이다.

계유년 늦은 봄에 내성(萊城) 정언유(鄭彦儒) 임종(林宗) 쓰다.

지은이 소개 | **이중환** 李重煥 | (1690~1752)

조선후기 문신. 본관은 여주, 자는 휘조(輝祖), 호는 청담(淸潭)·청화산인(靑華山人). 성호 이억의 재종손(再從孫)이며 그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워 일찍부터 실사구시의 학풍을 이어 받았다. 1713년(숙종 39)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김천 도찰방이 된 후 병조정랑 등 관직에 있다가, 신임사화에 연루되어 목호릉과 함께 구금되었다. 37세이던 1726년 절도(絶島)에 유배되었다. 풀려난 후에 전국을 유랑하였으며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지의 교통·지리·문화·인물·특산물 등을 정리하여 독창적 인문지리서인 《택리지(擇里志)》를 저술하였다.

옮긴이 소개 | **이민수** 李民樹 | (1916~2004)

충남 예산 출생.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위원,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집필위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국역위원, 사서연역회 편집위원 역임. 저서로 《학계선생약전》 《윤봉길의사약전》 등이 있고, 역서로는 《명심보감》 《삼국유사》 《격몽요결》 《징비록》 《동의수세보원》 《연려실기술》 《당의통략》 《연암선집》 《효경》 《순오지》 《공자가어》 《주역》 외 다수가 있다.

택리지

©사단법인 올재

발행 | 2014년 2월 15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편집 | 이상민 김지훈

표지제호 | 강병인

편집디자인 | 황인정

인쇄·제작 | (주)헤럴드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57-78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ISBN | 978-89-97876-24-2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래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